

'94 4/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94 4/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4년 12월 24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산 3-25

(02)734-4323, 735-8766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

目 次

I. 統一政策 關聯 / 3

1. 對北政策 / 3
2. 大統領 頂上外交 / 33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 95

1. 2次會議 進行 / 95
2. 「基本合意文」採擇 / 115
3. 平壤·北京·워싱턴 專門家會議 / 151

III. 南北經協 關聯 / 215

1. 南北經濟 交流 / 215
2. 政府 經協活性化 發表 / 227

IV. 南北關聯 動向 / 285

1. 北韓動向 / 285
2. 其他 / 319

附 錄(南北關係 主要日誌) / 355

I . 統一政策 關聯

1. 對 北 政 策

南北대화再開를

金대통령 國軍의날 致辭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核투명성·모장·開放댄 資本·기술·제공·할용의



金泳三대통령이 1일 을비행장에서 열린 제4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李炳台국방장관과 함께 제병지휘관 吳榮祐중장의 안내를 받아 육해공군 3軍을 시찰하고 있다. <朴柄祐기자>

金泳三대통령은 1일 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재회와 군비통제 문제 지난 8·15정유사에 서발한" 민족통일선명공약의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접촉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남북대화를 빠른 시일내에 재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을비행장에서 열린 제4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주축의 힘으로 출몰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의 민주화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접촉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힘을 불어넣어 '민주의 날'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의 대변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 비추어볼 때 남북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까. 변화된 통일환경을 직시하면 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겠습니까.

金대통령 國軍의 날 치사(要지)

북한이 핵무기개발로 무한한 핵무기개발로 핵무기개발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노선 포기·비핵화 공약 선언이 핵·개방 개혁을 촉진했다.

金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 전담기구의 타파 등의 개혁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힘을 합쳐서'는 생활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그때 민주회파정의 결정을 이념적이지 않으나 이제 는 긴장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개혁을 통해 '민주의 날'이로 거듭났습니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국민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尹承重기자>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 체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과 민족 화해와 일치점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평화통일의 길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民主공동체

한민족 연방이나 남북이
 주권의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이를 전제하에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틀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남북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선남선북이 함께 정경추진하라

남북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金日成死後 새협력틀 제시

南北韓 정상적인 대화 채널 복원 초점 북은 「남북이 함께 정경추진하라」 남은 「남북이 함께 정경추진하라」

남북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세계일보 1994. 10. 4

北韓하북수교개방-개발에

북한이
 자국의
 경제개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남한과
 협력
 관계를
 강화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전해졌다.

〈金東元기자〉

韓國軍 평시작전권 12일환수

韓-美국방 約定서명 유엔軍에 넘긴지 44년만에

停戰체계는 유엔시 관장 美「신속억지군」규모 확대

【워싱턴=AP통신】미국과 유엔의 주둔작전권제한협약의 서명식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44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군에 대한 주둔작전권제한협약(ROTC)을 1950년 12월 11일 유엔군에 넘겼지만,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군에 대한 주둔작전권제한협약(ROTC)을 1950년 12월 11일 유엔군에 넘겼지만,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신문 1994. 10. 8

안보리 對北제재 의단체 아니다

【워싱턴=AP통신】미국과 유엔의 주둔작전권제한협약의 서명식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44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세계일보 1994. 10. 7

東北亞 집단안보체제 제안

美서연설 北위협소멸엔 韓美동맹 성격전환

【워싱턴=AP통신】미국과 유엔의 주둔작전권제한협약의 서명식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44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군에 대한 주둔작전권제한협약(ROTC)을 1950년 12월 11일 유엔군에 넘겼지만,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신속억지군(ROTC)의 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韓國방위 홀로서기」轉機

「평시작전권」환수 배경과 의미

한반도의 6.25 당시 이란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 10월 22일 11월 1일부로 환수된 평시작전권은 41년 동안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평시작전권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평시작전권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주요현안 미국과 「대통령이」 「반」진전

주요현안 미국과 「대통령이」 「반」진전

미국은 한반도 안보가 亞-太지역의 안정-번영에 필수적이며 세계평화와 미국안보에도 중요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페리장관은 한국이 외부의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지원하고 핵우산도 계속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북한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공감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평시작전권 환수 합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평시작전권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서울신문 1994. 10. 8

北核포기가 시적 조치 없으면 11월 팀훈련 실시 재확인

【서울 8일 새벽】(서울) 박정호 국방부 장관은 8일 새벽(8일 새벽)에 열린 「한-미-일 3국 안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서울 8일 새벽】(서울) 박정호 국방부 장관은 8일 새벽(8일 새벽)에 열린 「한-미-일 3국 안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1994. 10. 9

李炳台(이병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7일 오전(한국시각 8일 새벽) 제26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한반도 안보가 亞-太지역의 안정-번영에 필수적이며 세계평화와 미국안보에도 중요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페리장관은 한국이 외부의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지원하고 핵우산도 계속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북한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공감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SCM 공동성명 요지

는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군사정전협정은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했다. ▲북한핵문제의 불확실성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고 한국민이 희망하는 한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전력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의 12월 1일부 한국군 이양을 위해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에 공식 서명했으며 연합방위 태세의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국정부가 95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3억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미 방산기술 협력체제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1세기 한-미안보협력관계는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야함을 재확인했다. ▲미래에도 양국 안보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가 중요하다는 「21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 방향 공동연구」의 연구결과에 동의, 후속연구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서울 8일 새벽】(서울) 박정호 국방부 장관은 8일 새벽(8일 새벽)에 열린 「한-미-일 3국 안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이행을 긴요함을 강조했다.

“北核포기 안보위협美일장강화평약”

金대통령 뉴욕타임스 회견 내용

【뉴욕=金昇泳기자】金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을 갖고 미국의 북핵정책을 비판했다. 다 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회견기사 전문.

해미국의 지나치게 안락 하며 韓美관계 자체는 관 계 유망한 것이라고 직접 하고 있다고 그는 미국의 핵정책을 지적하였다. 北核정책을 추진하였다. 金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서취하고 있는 기본정책을 비판정부의 노력을 지지 은 노부 수처하고 지나치

한 사항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그럴 경우 그것이 더 큰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 북핵의 합의사항을 체결할 수 있을 지, 또 미국 핵포기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대대적으로 제기되었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미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하며 더 강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지금 타협하면 北정권 수명만 연장

美對北협상태도 냉정하다

金대통령

NYT 회견서 韓美관계 北핵정책 비판

金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을 갖고 미국의 북핵정책을 비판했다. 다 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회견기사 전문.

해미국의 지나치게 안락 하며 韓美관계 자체는 관 계 유망한 것이라고 직접 하고 있다고 그는 미국의 핵정책을 지적하였다. 北核정책을 추진하였다. 金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서취하고 있는 기본정책을 비판정부의 노력을 지지 은 노부 수처하고 지나치

“정당침묵행이 거북이 침묵 필적”

李洪九부총리도 “美國內 北韓전문가 활용” 주장

美對北협상태도 냉정하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미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하며 더 강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미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하며 더 강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韓·美 北核대응 마찰

협상자세 싸고 갈등이 깊어짐

美국무 "北美회담에 영향" 우려전달

통일안보 긴장감 심신 틈새를 내달 재개 논의

金日成의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정부의 을 계기로 韓美간의 외교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10일路透電】美國務院은 10일 北美회담이 11월 23일 이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韓美간의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美國務院은 10일 北美회담이 11월 23일 이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韓美간의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美國務院은 10일 北美회담이 11월 23일 이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韓美간의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美國務院은 10일 北美회담이 11월 23일 이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韓美간의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美國務院은 10일 北美회담이 11월 23일 이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韓美간의 협력을 위한 회견에서 북한이 대미 제재를 표시한 것,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 1994. 10. 11

삐걱거린 「北核정책」

지난해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관심으로 등장한 이후 한국과 미국이 크게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해 11월, 올해 2월 등 모두 3차례다. 지난 해 11월에 빚어진 마찰은 미국이 북한의 「일괄타결방안」을 수용할

여기에는 한국이 핵문제논의에 있어서 소외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갈등은 지난해 11월 23일에 있었던 韓·美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결방안은 「안전하고도 광범위한 타결」로 바뀌어졌으며 남북대화를 위한 특사교환이 北·美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추가됐다.

2월의 갈등은 북한이 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거부하자 미국내에 강경여론이 비등하면서

지난해 11월·올 2월 등 모두 3차례 韓國소외·強穩대응시점 싸고 이견

의사를 내비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북한은 北·美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姜錫柱외교부 제1부장의 이름으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北·美관계 개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경수로건설 지원을 맞바꾸자는 이른바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제의를 수용할 뜻을 나타내자 한국정부는 곧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를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정부는 韓昇洲의무장관을 파견, 클린턴 대통령 등 미국 고위인사면담과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감경여론을 무마했다.

이밖에 지난 6월 방북한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과 金日成회담에서 합의된 핵동결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도 한 때 韓·美사이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李承哲기자>

▽서울신문 1994. 10. 11

한·미·여부 전화회담... 파퓰러의

「미·아프리카」 사설이 다

한·미·여부 전화회담이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한·미·여부 전화회담이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한·미·여부 전화회담이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담은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시작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韓·美 "北核공조 불변" 강조

政府입장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경파 언론인美인류 특집에 "불쾌감" "北核양보 제동" 부인명한 對美메시지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對北제재」 재개論 힘입어 계기 될 듯 "중간선거前「대총타협」건제用" 분석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美國시각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11일】정부는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核)공조 불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제재(對北制裁)를 강화할 방침이다.

“南北정상 北안정후 만나야”

金대통령 “金正日승계 시간문제로 생각”

“韓·美 北核공조 이상없어”

美 CNN 방송과 회견

【워싱턴=북한통신사파견】의정연의 김정은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북한통신사파견】의정연의 김정은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 10. 12

“美 北核 단호태도 필요”

北·美 회담 결렬됐 「팀」 재개

金대통령주재 통일안보조정회의

民自도 “韓美합의 중증”

【워싱턴=북한통신사파견】의정연의 김정은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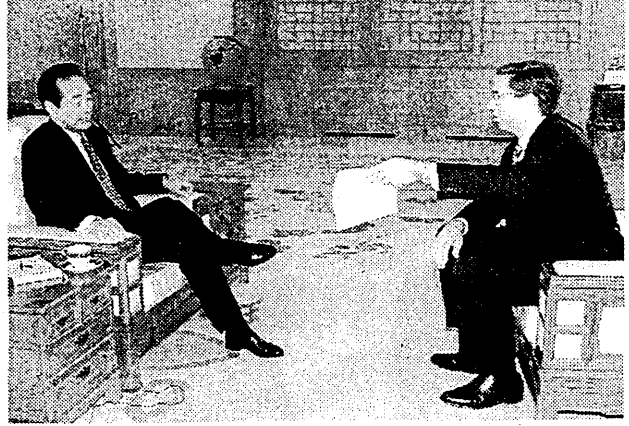
金대통령 CNN회견 배경

「北核」韓·美이상기류설 잠재우기

【서울 12일 특파원】 CNN이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김대중 대통령을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핵투명성 확보등 「대전제」 의견일치 협상방식 "불만"은 여전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왼쪽)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CNN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하고 있다. <禹鍾元기자>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 일대일 회견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核관점」 차이있다

李부총리의 외교관 환충분... 조정 가능

【서울 12일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에 CNN을 통해 회견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이다. 김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忍耐'을 보여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國內-對美 양면카드” 분석

송대통령 美「트위터」 위성탄시각

송대통령은 12일 오후 12시 30분경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북단정국 양면

對北협상불만 보수세력 무마포선

韓美합의한 노영양포말라 메시지

송대통령은 12일 오후 12시 30분경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美 “北核해결결판과외국인유죄”

駐美공사등 불려 美입장 전달

미 국무부는 12일 오후 12시 30분경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4. 10. 13



“판문점 관리권 유엔사로부터 되찾아야”

이세기의원 국감서 제기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판문점 관리권을 서둘러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인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 때 유엔군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문제는 영토 주권 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두 나라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문국한 기자

외무부 國監 12일 외무부에 대한 국회의무통일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韓美간 불의를 야기한 金泳三대통령의 뉴욕타입스회견 내용을 둘러싸고 與野의원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洪碩慈)

監 田 焦點

『金泳三대통령』 金大환 與野의원

12일 열린 국무회의와 한 차례의 외무부 장관의 회견을 둘러싸고 與野의원간에는 韓美간 불의를 야기한 金泳三대통령의 뉴욕타입스회견 내용을 둘러싸고 與野의원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洪碩慈)

국회의원 이세기는 12일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 때 유엔군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영토 주권 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두 나라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언급내용-韓美마찰 여부 추궁

民自 “할말했다... 北核 확고한자세 견지하라”

民主선 “시기 부적절... 對北정책 혼선 불렀다”

국회의원 이세기는 12일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 때 유엔군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영토 주권 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두 나라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金次洪)

“南北대화 재개” 꼭 명시돼야

고위당정회의 美-北 합의문에 포함 필수적

北核 미-북합의로 해결돼야

내일국회의 국정연설서 정부대책 발표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南-北체육회담 곧 제의 정상회담과 별도... 대화 물꼬 트게”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야 합의문이 발표된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섭 장관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 재개'가 꼭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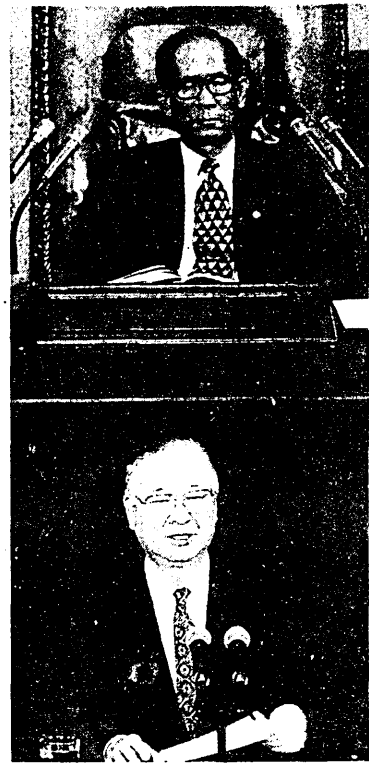
〈특정·이명박기자〉

“南北관계 획기적 진전 노력”

金대통령 施政연설 美-北합의로 한반도 안정기반 마련

「경수로」韓國중수로... 화해협력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미 국무부 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며, 미국의 합의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과제로, 한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부총리가 18일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대중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최해국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이 한반도를 통해 한 번도 비핵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대화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과제로, 한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4. 10. 18

“北경수로 韓電·韓重 등 부담”

金과기처 國監답변 정부 일성표 오름 확정

통일장관회의서... 올해 11월 재개하기로

통일장관회의에서 통일장관회의가 11월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민부가 경수로 사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北, 합의 불이행엔 응징"

회담타결 안됐다면 핵탄 10여개 제조가능

駐韓美軍 감축 고려안해

페리美군방 장관

워싱턴 페리美군방 장관은 21일 『美-北간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북핵의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면 10여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 정치상황이 호전된다면 북부장관(DMZ)에 배치된 북핵의 재래식무기는 감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북한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사찰정찰계기로 핵-美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군사동맹관계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란 면서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富鍾九기자)



〈페리美군방장관의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韓美안보공동체제 새轉機

南北협력에 實益적다" 판단 4백억원 소요 財政도 고려



「팀」訓練 사실상 폐지 배경 의미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76년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미-북 핵협상과 미-북 군사협력의 틀이 깨지고 있다. 페리 군방 장관의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북핵제거와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龍錫기자)

北核시설 불투명 韓인근우치

北 재래근비·병역법 이전의 인우협전

김대중 대통령의 페니미 방문 일화

김대중 대통령은 페니미 방문 일화에서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은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은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페니미 방문 일화에서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은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핵시설의 불투명성은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 韓國부담안해

韓의무 경수로 지원비용은 유상제공

한국은 미국에 대안으로 경수로 지원비용을 유상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안으로 경수로 지원비용을 유상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대안으로 경수로 지원비용을 유상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안으로 경수로 지원비용을 유상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1994. 10. 27.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정하고 있다.

「물」 먹은 통일원



통일원 직원들이 '물'을 먹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통일원의 내부 문제를 시사한다.

조선일보 1994. 10. 27.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4. 10. 27.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인민혁명군 총사령관 김일성 장군을 접견한 박정호 부총리. 박정호 부총리(왼쪽)는 김일성 장군(오른쪽)을 접견하고 있다.

『核합의』의 위음 남김계 사실

이부총리 연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정적』가 기이 예설... 『고정체면』 많은 수역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다.

北韓·美·日 수교 적극 추진선

政府 외교정책 北「전제」서 「동반」으로

APEC 등에 北가 입담기로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PEC에 가입할 계획도 있다.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PEC에 가입할 계획도 있다.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PEC에 가입할 계획도 있다.

(서울)

「輕水爐기획단」내달 발족

단장에 次官級 분담비율·財源조달등 전담

경수원(北)은 北 輕水爐(중)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31일부로 '輕水爐(중)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 기획단에는 청와대 차관보인 김기현(北)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南北 경수로 지원 협정 필요

원자력협력등 관련기구 통해 체결 유력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北 輕水爐(중) 지원과 南北 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部處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외무·통일·상공등 “우리몫” 金대통령 「落點」 관심

北 輕水爐(중) 지원과 南北 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部處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北)은 北 輕水爐(중)의 개발과 건설을 총괄할 예정이다.

I . 統一政策 關聯

2. 大統領 頂上外交

「美北합의」 이행 긴밀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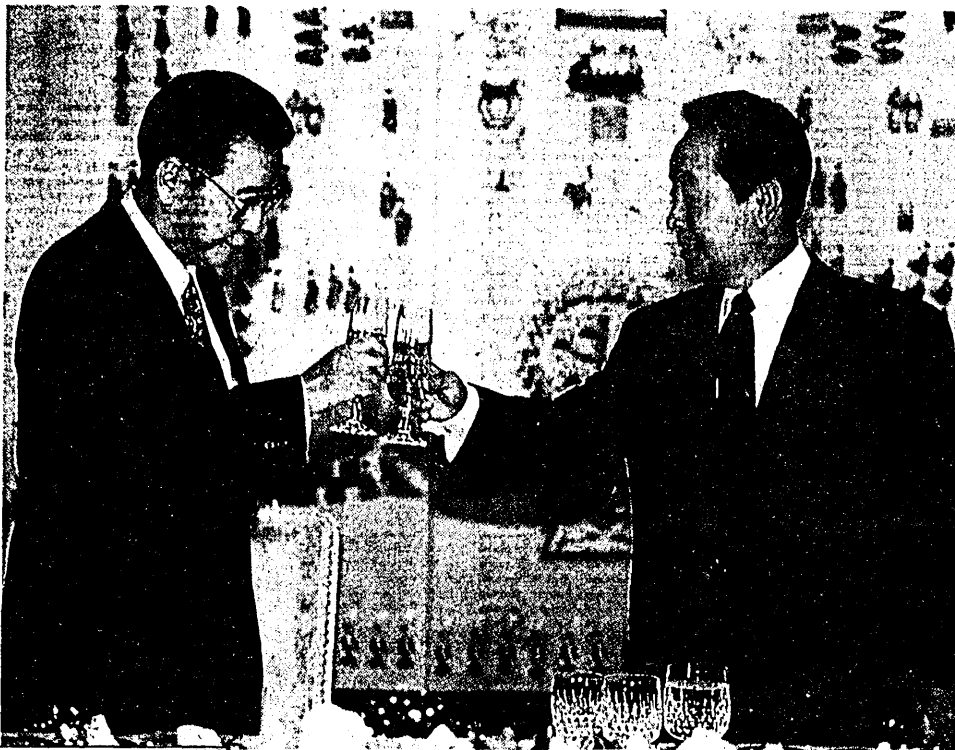
金대통령-李鵬총리 "남북대화 재개" 공감

“金正日체제 공식화 때 남북정상회담도 추진”

金대통령

原電 한국기업참여등 經協논의

金泳삼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의 리펑총리는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 이행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고



◇만찬 견배
金泳삼대통령의 31일 저녁 중국과 李鵬(리펑)총리를 위해 배운 청와대 공산민간에서 그와 함께 견배하고 있다. <韓永熙기자>

韓中관계 일지

- ▲50.10.25=中 한국전 참전
- ▲50.7.27=정전협정에 중국 공산권 대표로 서명
- ▲79.5=중국, 한국통포 귀국 허용
- ▲83.5.5=중국 민항기 피랍, 춘천 미군기지 착륙, 중국 대표단 방문해 韓中 정부간 첫 접촉, 대한민국 호칭
- ▲84.3=趙紫陽중국총리, 양국 거주 친척 상호방문 허용
- ▲87.12.24=盧泰愚대통령, 對 중국교수립 발언
- ▲89.6.17=韓中 양국간 해운 정기직항로 개통
- ▲90.9.19=중국, 한국 기업의 北京사무소 설치 허가
- ▲90.10.20=韓中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서 조인
- ▲91.1.30=駐北京대표부 개설
- ▲91.3.26=모스크바~北京~서울간 정기항로 개설 합의
- ▲91.11=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APEC 각료회의 참석차 來韓
- ▲92.2.1=한중무역협정 발효
- ▲92.8.24=韓中수교 공동성명 서명(李相玉-錢其琛)
- ▲92.8.27=대사관 교환설치
- ▲92.9.27~30=盧泰愚대통령 訪中, 江澤民主석과 정상회담
- ▲93.5.26~29=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방한, 해운협정 서명
- ▲93.10.27~31=韓昇洲의무장관 訪中, 환경협력협정 서명
- ▲93.11.19=金泳삼대통령-江澤民主석간 시애틀정상회담
- ▲94.3.26~30=金泳삼대통령 訪中, 이종과세방지협정·문화협력협정 체결
- ▲94.6.8~9=韓昇洲의무장관 訪中
- ▲94.10.31~11.4=李鵬중국총리 訪韓, 항공협정 및 원자력협력협정등 서명

金대통령과 총리의 31일 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의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간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북핵은 남북 대화의 장애물이지만, 대화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은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 "양국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은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간 문화협력에 대해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에 核합의 이행·남북대화 "압력"

金대통령·李鵬총리 회담의 묘수

김대중 대통령은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이종업 총리(가운데)가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 기자)

한반도 안정이 양국 이익·F0동맹이긴 經協 다져 "성숙한 이웃관계" 구축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金대통령 담화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李鵬총리 담화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핵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韓半島안정-經協「틀」다지기

金대통령-李鵬총리 회담

【서울 3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韓-中 韓안 실마리 풀릴까

【서울 3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中 우호조약 「자동軍事개입」 개정이 초점
中 停戰委員會 「北 후견인역」 포기안해 갈등
6·25 참전사과 中 소극 태도... 거론될지 관심

【서울 3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韓「核합의」이행 中國은「수리필요」共感

韓國자본-中 노동력 「협력사업」가속계기

【서울 3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31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리정호 총리의 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核합의」이행 中國역할 논의

韓中의무무슨얘기나했나

이런 이상을 얻고 싶다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체제 당사자는南北韓 강조

평화체제 당사자는南北韓 강조

북한은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平和협정」南北 직접협의로

韓中의무무슨얘기나했나

「平和협정」南北 직접협의로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韓中의무무슨얘기나했나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北核합의이행 유도 협력다짐

核해결과정서 南北대화 병행 의견일치
경수로 컨소시엄 中참여문제 거론안돼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現정부 外交政策 正면 비판

盧在鳳의원 政府 비판

“南北 정상회담 환상 버려라”

【서울 2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환상이라고 비판한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在鳳의원 발언 요약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在鳳의원 政府 비판

【서울 2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환상이라고 비판한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묘한時期” 발언 뭘 거창했을까 “추가”

“民主系들만 대변-脫黨스스근” 추측 무성

【서울 2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환상이라고 비판한 盧在鳳의원(盧在鳳, 67)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통일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盧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환상이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새체제 출범하면 정상회담 협의

북영·외교·안보·대정부·질문·답변

질문

△북영외교(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외교(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안보(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대정부(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질문(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박성호 의원



김중호 의원



정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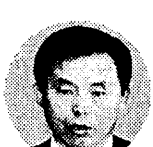
문희상 의원



이병열 의원



김명열 의원



이인진 의원

흡수통일 가능성 어그정도로 보나 질판

△흡수통일(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질판(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1일 본회의

답변

△외교(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안보(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대정부(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질문(北英) = 북영외교부는 북한 새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어렵다.

金대통령 APEC 10일 出國 比·濠·印尼 3國 순방

美·日·中과 개별 頂上 회담

對北경수로 지원 분담원칙 등 논의

金泳三대통령이 오는 14, 15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전후해 국빈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전

출국한다고 朱煥植대변인이 3일 발표했다. 金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12, 13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16일부터 19일까지 호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국대통령 江澤民, 중국국가주석, 부라야마, 일본총리, 크레티앵, 캐나다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경제안정 및 교류 확대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金대통령은 美, 日, 中 3개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서 北 美, 韓 협상 합의에 따른 對北 경수로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특히 열린 對北 협상과 관련해 韓, 日, 中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 해 시애틀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 이후의 사태 발전을 검토하고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존 협상을 하고 발전속도에 따라 회원국별 자유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존 협상을 하고 발전속도에 따라 회원국별 자유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 해 시애틀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 이후의 사태 발전을 검토하고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존 협상을 하고 발전속도에 따라 회원국별 자유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선언이 채택되면 역내국가의 「순환」 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관계로 제도화된다.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APEC 역내국들이 무역·투자 자유화와 기술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관계 설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CTT가 출범한 데 따른 것이었다. 처음엔 APEC의 사실상 자유화보다 UR타결의 따른 역내 협력과 통상활성화를 위한 협력 차원의 머물렀던 데 비하면 역내 경제권에 구조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 선언 이란

亞·太 무역 자유화 단계 明示 日 등 반대... 채택 여부 불투명

APEC 저명인사 그룹(EPG)의 제의에 이어 오는 2000년부터 자유화 조치를 시작해 선진국은 2010년에 무역장벽 철폐를

역내 재계그룹인 태평양경제포럼(PBF)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무역 자유화를 2010년까지 완료하고자

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 선언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채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이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각국에 불만 초안을 보고 日本 경제인들의 상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연도 설정에서도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 국가들은 美國 등 경제 선진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유화를 크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 同床異夢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의 참가 및 3개국 순방에서는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11명(총 62명)의 경제인(실제 인원 48명)을 특별 기에 동행 수행하도록 했다.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존 협상을 하고 발전속도에 따라 회원국별 자유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존 협상을 하고 발전속도에 따라 회원국별 자유화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南北교역은 内部거래

李총리 國會답변 對外천명 신중검토

가트 認定절차 필요없어

지방의 외국기업 유치 규제 완화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姜慶植(李榮文) 趙容直(金相球) 이상민(洪恩德) 姜燦瓚(李揆澤) 李榮德(李榮德) 李揆澤(李揆澤) 의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농업대책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李榮德(李榮德) 의원은 "답변 고장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유인협정에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李揆澤(李揆澤) 의원은 "남북한 거래 문제는 관세무역총협정(GATT)에 별도의 인정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장부는 판단하고 있다

姜燦瓚(姜燦瓚) 의원은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일치하며, 남북간에 민족내부거래 인정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에너지 협의체' 추진

이 부총리, 내년 4월이전 구성 대화촉진 방침 밝혀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 4월 이전까지 남북한간에 에너지공동이용협약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흥구 통일부총리가 3일 밝혔다.

이흥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 3·4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간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에너지 공

동이용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이 북-미 회담 타결 뒤에도 남한과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경수로 지원,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매개로 남북간의 경색된 분위기를 풀어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협의체 구성의 구체

적 시기·방법과 관련해 "남북간에 협의를 위한 상황과 여건이 마련돼야 하지만 북한이 6개월 안에 경수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협의체 구성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경수로 계약 기한인 내년 4월 이전에 남북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 협의체가 경수로 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

면서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이용의 재개와는 별도로 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축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힌 뒤 "재정문제도 부차적이며, 앞으로 남북한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북한쪽의 호응을 기대했다. 박종언 기자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2+2방식」公論化

「韓의무 발언」 배경과 전망

정부는 「2+2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정부 「停戰협정 고수」 입장서 進一步

中 「韓國참여 강조」 물밑접촉 잇따르다

「美와 직접협상 주장」 北韓 수용여부가 열쇠

정부는 「2+2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2+2방식」公論化

한반도 「평화체제」

中 「한국 역할 중요」 선회... 사전 교감 추측

北 「美와 직접협결」 노선 재검토 불가피

韓외무 李鵬총리 공개언급 의미

정부는 「2+2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 여하의 가능성을 묻는다.

停戰협정 평화체제전환 본격 협의

東北亞안보대화기구 추진

남북한·美·日·中·러 참여

정부 「南北기본합의서」 4強추진 유도

정부는 5일 오전 4시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5일 오전 4시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5일 오전 4시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5일 오전 4시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1994. 11. 8

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1994. 11. 9

북한의 최근 선진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9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1994. 11. 7

핵 이후 한반도 평화 구의 본격화

4國(美·日·中·러)이 대거 참여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후 한반도 평화 구의 본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7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強포함 東北亞 새안보환경 전구대역에 관련국 리호달라 구체합의 시간질릴듯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후 한반도 평화 구의 본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7일 북한에 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주년 기념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북아태안보대화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美北관계개선·南北대화연계

韓·美·일 3국 합동 방위공약 확고... 駐韓軍 감축안 해

한국, 대체에너지 부담양기로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이 9일 『북한의 재래 핵 발사위협은 한국과 동맹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시킬 것이며, 駐韓 미 방위공약의 일환으로』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核합의」한겨울이아려 행소

美 크리스토퍼 방한 의미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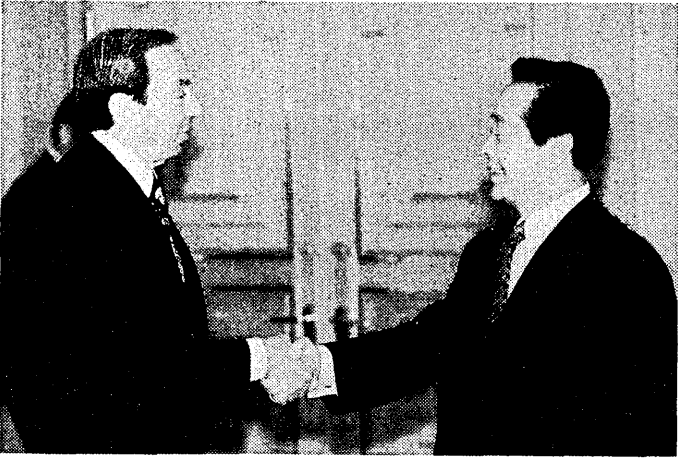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남북對話 진전 없을면 對北지원 보류 평화군축으로 가는 길 難題 많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부 차관은 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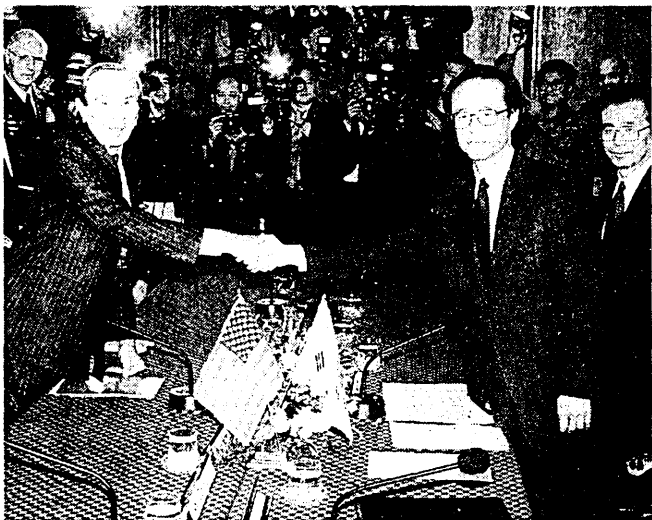
(송재홍)

韓·美의 무핵담판 무결점 논의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北核타결 후속조치 의견조율



韓·美의 무핵담판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부장관이 9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輕水爐건설 韓國주도 재확인 多者안보협이체 필요성 共感

輕水爐건설 韓國주도 재확인... 多者안보협이체 필요성 共感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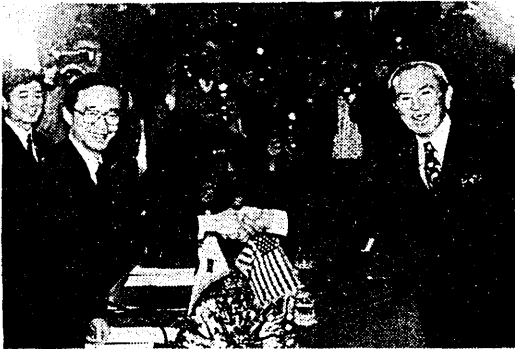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 北·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安保불안」 씻기

크리스토퍼 미국 부장관 韓 訪

크리스토퍼 미국 부장관 韓 訪... 韓·美의 무핵담판은 10년째 무결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韓·美의 무핵담판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부장관이 9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北·美합의뒤 「의구심」 달래 동북아多者안보회의등 지지 확인

北·美합의뒤 「의구심」 달래... 동북아多者안보회의등 지지 확인

北·美합의뒤 「의구심」 달래... 동북아多者안보회의등 지지 확인

北·美합의뒤 「의구심」 달래... 동북아多者안보회의등 지지 확인

“亞太經協 활성화하겠다”

송대통령 APEC 10개국 내일 韓-比 정상회담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송대통령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 10개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APEC의 활성화와 경제협력, 무역 자유화, 기술협력, 환경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 10개국 정상들과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APEC의 활성화와 경제협력, 무역 자유화, 기술협력, 환경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 10개국 정상들과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對北정책 조정기면 '주안'

통일원

【서울 12일 특파원 특보】 통일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송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회담한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일원의 업무 수행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 12일 특파원 특보】 통일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송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회담한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일원의 업무 수행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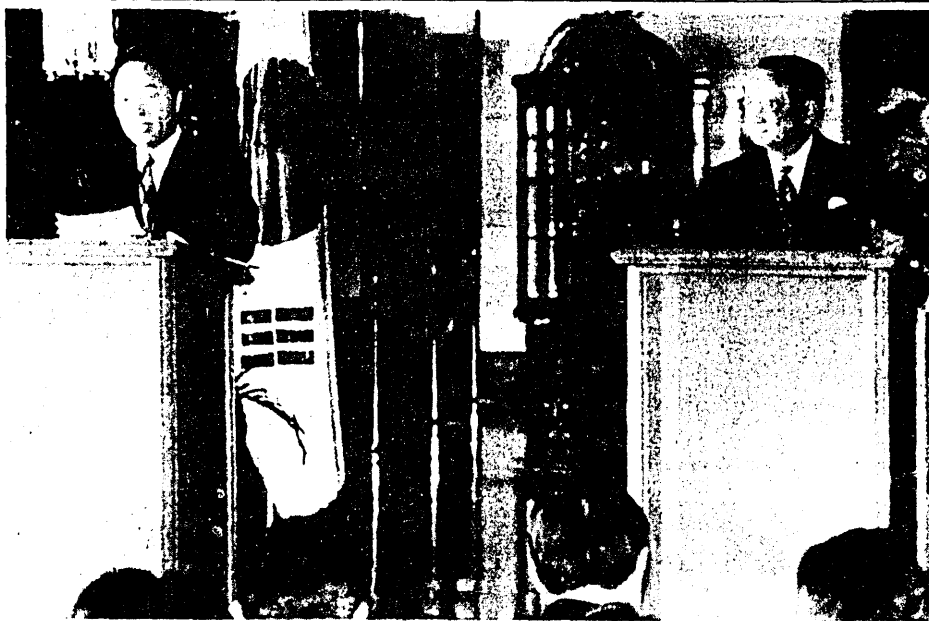


회의는 하지만... 정부조직법안 통일원 임명 정부내 대북정책 조정기면 '주안' (사진은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회담 모습)

전문인력 부족...정보수집 安企部등 의존 經協내용 결정등 「靑瓦臺 눈치보기」 급급

【서울 12일 특파원 특보】 통일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송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회담한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일원의 업무 수행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 12일 특파원 특보】 통일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송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회담한다. 송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일원의 업무 수행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송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FIATO 기자회견
김영관(왼쪽)과 김민석(오른쪽)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관(왼쪽)과 김민석(오른쪽)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석=영국기자협회, 김영관=한국기자협회>

比 韓國 參與 電力事業 萬 行

比그로자 4천명 추가 고용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

【서울 11일 특파원】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을 위한 추가 고용 4천명

【서울 11일 특파원】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을 위한 추가 고용 4천명

【서울 11일 특파원】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을 위한 추가 고용 4천명

【서울 11일 특파원】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을 위한 추가 고용 4천명

FIATO 기자회견 일별일담

【서울 11일 특파원】 한국산 장비감차 전투기 구입을 위한 추가 고용 4천명

韓國, 印尼 중장기개발 참여

金-수하르토 합의 자동차-도로-항만건설 지원

LNG 안전공급 약속 韓國 안보리진출 지지

수하르토

오늘美·日·中·加정상과 연쇄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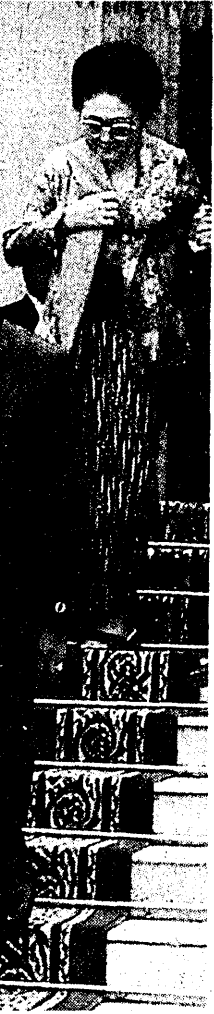
【자카르타=김흥기기자】泳三대통령은 13일 오전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金 대통령궁에서 수하르토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금해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의 제2차25개년 장기개발계획 및 제6차 5개년 계획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金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개발계획, 특히 자동차, 전자, 통신,

도로, 항만건설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하르토 대

통령은 '6차 5개년계획과 2차 25년계획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인도네시아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이를 환영하며 기뻐한다고 말했다.



◇韓-印尼 정상회담
金泳三대통령은 내외가 이틀간의 인도네시아 방문일정 마지막날인 13일 오후 수하르토대통령을 전무살을 받으며, 작별인사를 나누며 회담을 마치고 있다. 【자카르타=韓永熙기자】

【자카르타=김흥기기자】泳三대통령은 13일 오전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金 대통령궁에서 수하르토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금해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의 제2차25개년 장기개발계획 및 제6차 5개년 계획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金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개발계획, 특히 자동차, 전자, 통신, 도로, 항만건설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하르토 대

한국企業 진출 길 넓혔다

金대통령 比-印尼 순방 결산

【서울 13일 특파원 리순철 기자】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대통령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덩치큰 사회간접자본등 협력폭 확대

北方외교서 「南方-경제실리」 전환 결실

이탈이 잘 안 되는 경제 협력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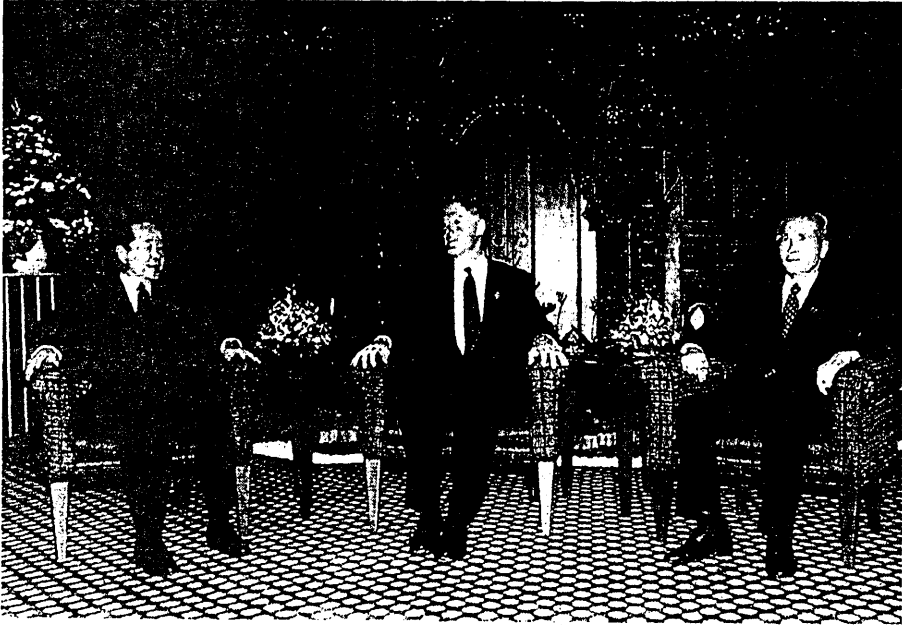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탈이 잘 안 되는 경제 협력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탈이 잘 안 되는 경제 협력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수로 韓國 주도" 합의

韓-美-日 정상 별도 회동 北核해결 3國 공조 필수 인식



3國 정상 회담 韓-美-日 3國 정상회담에 앞서 金泳삼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 무라야마 日本 총리가 환담하고 있다. (사카르타=朴柄祐 특파원)

金대통령 美日中加 개별 회담

美의 對韓 안보공약의 지 확고 日 北관계 개선 南北대화 연계 남북한 經協 정부간 대화 필요

클린턴
무라야마
江澤民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3일 방미한 金대통령은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3일 방미한 金대통령은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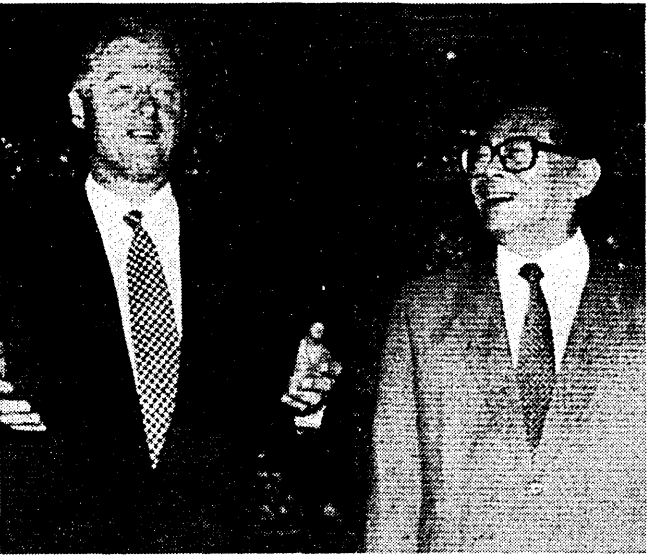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사카르타=尹鍾重 특파원】 亞大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 인도의 시아틀을 방문한 金대통령은 3일 방미한 클린턴 美 대통령과 4일 방일한 무라야마 日本 총리와 각각 개별 회담을 가졌다.

「北核처리」3國공조 재다짐

韓·美·日 정상 「워싱턴」 회담



◇클린턴-江澤民회담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江澤民(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기도중 제스처를 취해보이고 있다. 【자카르타=AP】

“美·주도-韓國중심-日 이분연할” 표현 江澤民 남북대화 韓國입장 지지 성과

【워싱턴 14일路透電】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北핵문제에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江澤民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일보 1994. 11. 15

3國 정상회담 언저리

○...수교 10주년 기념으로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4일 워싱턴에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좁은 범위’ 합의

○...이제라도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서 “北핵문제는 美·韓·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르의亞太선언
 1994년 11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 모습. 김대중(중)은 "보고르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아래=김대중(중)은) (위/아래=김대중(중)은)

통상분쟁 해결 조정절차 신설
통신장관회의 내년 韓國개최

金大中(중)은 16일 漢洲(평양)에서

보고르선언 채택
 APEC회의 폐막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아래=김대중(중)은) (위/아래=김대중(중)은)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 무역자유화

"亞太 단일교역그룹 선언"

▽경향신문 1994. 11. 16

간담회 통해 경제협력 논의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일·美 등속도 개방요구 곤란
발달속도에 맞춰 추진
교역·투자자유화 협력
세계화 이익 적극 활용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보고르선언' 기자회견에서 채택된 것으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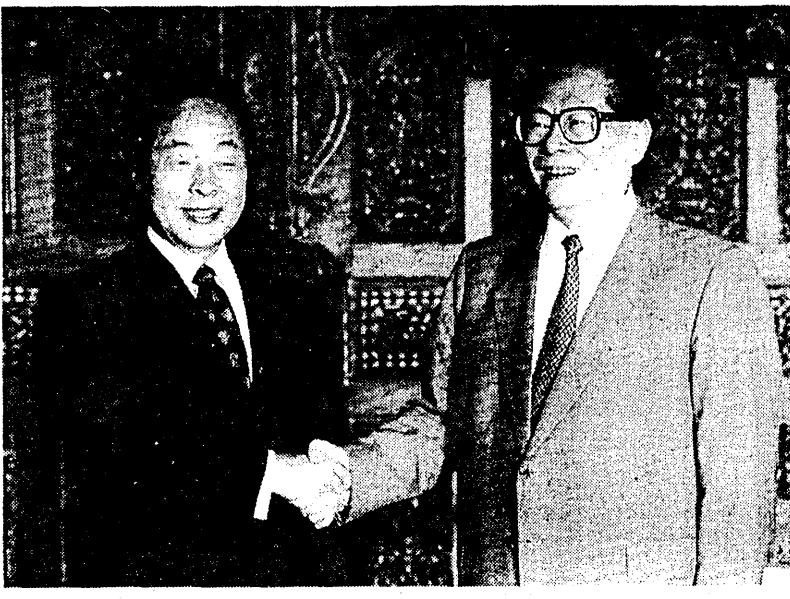
核합의 이행 對北 다중압력

韓·美·中·日·加 加거별頂上회담 결산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韓·美·中·日·加 加거별頂上회담이 14일 자카르타 힐튼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1994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韓·美·中·日·加 五국 정상들이 참가했다. 회담은 1994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韓·美·中·日·加 五국 정상들이 참가했다.

경수로 지원 韓·美·日 연합 첫보기 한국 남북經協案 中 지지 얻어도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韓·美·日 三國 정상들이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담에서,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金泳三大통령이 14일 자카르타 힐튼 컨벤션센터에서 江澤民 중국국가주석과 韓-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자카르타=朴柄祐특파원)

1994. 11. 16

金大통령 發題 頂上회담 <전면>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韓·美·日 三國 정상들이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담에서,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韓·美·日 三國이 韓半島에 원자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개혁목표 「세계化」로 확대

金대통령 次世代위한 「장기구상」 천명

창의·人性 존중되는 사회건설

제도개혁·人力개발등 5大방향 제시

오늘 킴영삼총리와 정상회담



「스리니파」 17일 「전」은 「장기구상」을 구체화하
부여민간기업의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韓·淸 정상회담
17일 「전」은 「장기구상」을 구체화하
부여민간기업의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기자간담

여사 수행기간과 관련, 조만간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세계化 지원법」 추진

정부 전략수립 官民합동기구 설립 검토

정부는 17일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확인의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다년간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장기구상」을 「장기구상」으로

“北, 남북經協 호응”

李洪九부총리 보고 高民發 등 책임자 적극적

거부 「표명」에 정치적인 노

北京서 우리측 기업과 접촉 계속

초청장도 成事가능 企業 선별할 뜻

【국회 의원】 17일 오전 국회에서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對北 경제제의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李부총리는 보고에서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추진인 고 민선위원장은 남북경제협

회와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의 책임자가 직접 북경에서 우리측 기업과 의 협력을 위한 호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북한의 이같은 태도가 남북경제협을 내سان이므로 남북경제 협정원칙과 과외주 민통제를 강화하고 고 민선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해 볼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 협성을 위해서는 경제협 추진에 대한 의지와 제도적 보장의 대한 남북 양 국간의 합의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따라 상호 방문 인사의 신속한 추진 과 무사관한 보장 이중 과세 방식 등 경제협 기본 들을 마련중이라고 李부

▽국민일보 1994. 11. 18

경제·투자·北韓경제 협력정책

통일원 상반기 분석

북한의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성장과 무역부 무를 증대시키려고 계획 투자를 증대하고 정 무원 및 민선위원장의 조 직을 개편하는 등 다각 적 노력이 기울였으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이는 북핵문제가 계속되며 다른 국제적 고립, 재정사정 악화, 구 조화된 생산체제 현상 등 대내외적 악조건이 작 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통일원 18일 내용

통일원이 18일 내용 은 「94년 상반기 북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북 한의 지난해에 예산 총 결이 북한 정권의 해결

농업·경공업 투자 확대·외자유치 법령 정비

「核」지속 국제고립... 교역은 되레 22%나 감소

통일원이 18일 내용 은 「94년 상반기 북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북 한의 지난해에 예산 총 결이 북한 정권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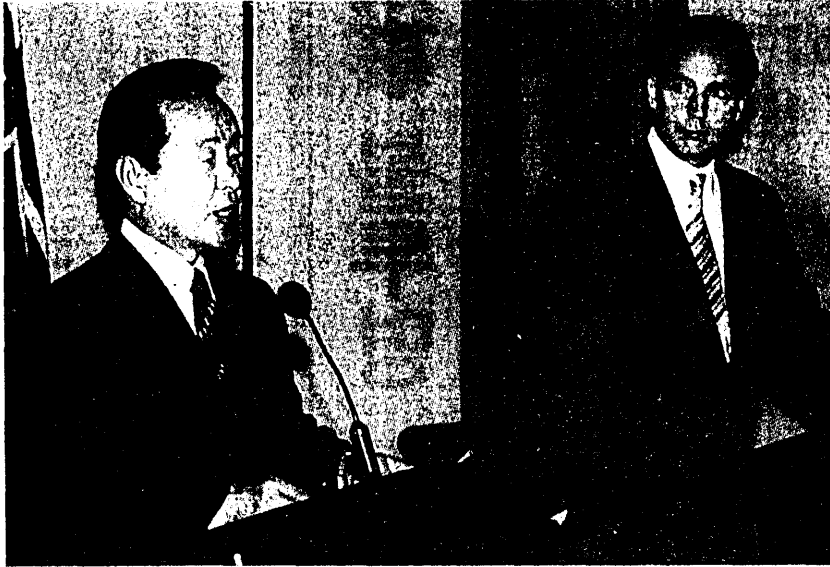
북한의 또 지난 4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 의에서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

북한은 또 지난 4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 의에서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

북한은 또 지난 4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 의에서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

韓-濠 에너지 共同개발

정상회담 科技협력기금 설치키로



공동회견 金泳三대통령과 풀 키팅, 濠洲총리가 18일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金寧万)

투자 환경등 3개 협정 합의

訪濠한국인에 임시 취업비자 검토

金대통령 오늘 귀국

【캔버라=宋煥鎭】金泳三 대통령과 풀 키팅(金永宇) 총리의 풀 키팅총리 18일 첫 고인근신산업과학기술합

의 공동기금추진을 위해

합의(韓-濠) 3개 협정(투자, 무역, 기술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협력기금의 설립은 양국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 임시 취업비자 검토는 양국 인력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韓-濠) 3개 협정(투자, 무역, 기술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협력기금의 설립은 양국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 임시 취업비자 검토는 양국 인력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1994. 11. 19

韓-濠 정상 공동회견선

金泳三대통령과 풀 키팅(金永宇) 총리는 18일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金寧万)

“亞太평화·번영위해 함께 노력” 金대통령
“南北韓 관계개선 「대화」 필요” 키팅총리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亞太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南北韓 관계 개선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와의 경제협력기금 설립은 양국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일즈외교」 새장

세계로...미래로...

순대통령 포스트모던 정치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1994년 11월 19일...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순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美·日·中과 北核처리 논의 성과 한미 APTC 주교섭 재확인

안보리 비상임부·WTO 총장 지지 확보 노력이

한미 APTC 주교섭 재확인...
한미 APTC 주교섭 재확인...
한미 APTC 주교섭 재확인...

순대통령 전후인사 움직임

순대통령 전후인사 움직임...
순대통령 전후인사 움직임...
순대통령 전후인사 움직임...

경수로-南北관계개선 연계

5단계 전략 마련

정부는 남북관계를 北韓의 지원하에 경수로 건설단계와 연계해 발전시켜나가는 내용의 「남북관계개선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19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이 전략은 對北 경수로 지원과 △경수로 계약 체결 △경수로 공사 착수 △경수로 해산 부품 인도 △경수로 1기 완공 △경수로 2기 완공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남북관계개선 중장기 전략案

1 단계	내년 4월말까지 경수로 계약 체결	남북 對話 재개 중점 추진
2 단계	내년말 '96년 초 경수로 공사 착수	공동위·頂上 회담 등 개최
3 단계	향후 3~5년 후 해산 부품 인도	常時 대화·經協 전면 개방
4 단계	2000년경 경수로 1기 완공	남북 연합 진압 단계 구축
5 단계	2003년경 경수로 2기 완공	남북 연합 정착 統一 기틀

정부는 이와 내년부터 96년 중반에 예상되는 2단계 경수로 공사 착수 때까지는 남북관계를 긴장 완화와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96년 초 경수로 공사 착수 후는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2000년경 경수로 1기 완공 후는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2003년경 경수로 2기 완공 후는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다.

또 2000년경경수로 1기 완공 후는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2003년경경수로 2기 완공 후는 남북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다.

관계개선 중장기 전략의 기본목표는 세우져 있으나 단계별 세부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가까운 시일내에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세부 계획을 논의, 중장기 전략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4.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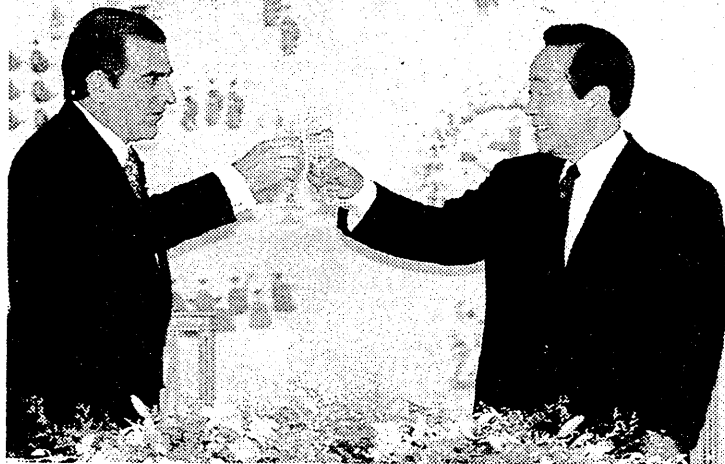
北韓 學生 1천 4백명도 南에 入學
北韓 學生 1천 4백명도 南에 入學
 서울에서 22일 열린 「남북학생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北韓에서 1천 4백명 정도의 학생들이 南에 입학을 하게 된다. 이들은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남한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처음으로 1천 4백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남한에 입학을 하게 된다. 이들 학생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남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남한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처음으로 1천 4백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남한에 입학을 하게 된다. 이들 학생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남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남한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韓-칠레 投資·經協 확대

「安保理이사국」 상호지지

어제 頂上 회담서

金泳三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96~97년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명투표에 상호 지지하고 경제협력 확대



건배 金泳三대통령이 21일 오후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대통령을 위한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禹鍾元기자>

해 나가기도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칠레의 자원개발·가공분야·통신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및 참여 확대와 과학기술·수산업분야 등에서 투자 및 교류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프레이 대

통령은 한국 교역 확대 및 경제발달을 위한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최대 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과 프레이 대통령은 또 남북의 평화적 이종과 과학적 탐사가 이들의 장래에 기여한다고 전제, 양국간 정보교류와 과학자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교류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칠레를 방문해 탈라나 프레이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호 번민한 시기에 칠레를 방문하길 희망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과 프레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후 韓·칠레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법적인 인도주의적 명사에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프레이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마찬을 베풀었다. 칠레 국가원수단은 청와대로 방한한 프레이 대통령은 22일에는 黃洛周 국무총장과 여야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金學淳기자>

韓·칠레 기술협정
법적인 인도주의적 명사
韓·칠레 정상회담후 두 나라간의 법적인 인도주의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서명했다.
두 나라간 법적인 인도주의적 협정을 통해 법적인 방법적인 협력을 위한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 <金學淳기자>

輕水爐 主계약업체 KEDO에 선정권

韓·美·日합의

韓의무 外統委 보고
韓國 美國 日本 3국은 對北 輕수로 공급계약 체결시 건설업체 등 주계약자 선정권을 북한이 아니라 국제건설사업인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갖도록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韓昇洲의무장

관이 25일 밝혔다. 韓장관관은 이날 국회의무통일위원회의 간담회 보고를 통해 「韓美日 3국이 지난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3자 고위급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체결할 輕수로 공급계약의 건설수요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인 규정과 구조적적인 세부사항」 KEDO와 추후 주계약업체가 체결할 상업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경수로小委來1일 발족

統一 장관회의의 산하에

「기획단」은 4개부로 구성

정부는 對北경수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통일부총리가 의장인 통일부 경제기획회의 산하에 경수로 소위원회와 경수로 기획단을 각각 발족시킬 예정이다.

경수로소위는 통일부총리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현재 통일부 경제기획회의에

등 관련기관에서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원내 레크리레이티브와 통일부총리 산하에 「통일부 경제기획회의」 구성을 개성령 안을 신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崔東鎮의무부 1차관보가 내정됐으며 부단장은 통일부와 기획회의의 구성과 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994. 11. 29

「北·美합의」 지지 뜻 정부 美의회에 전달

韓京州외무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통일위에서 「北·美합의」 지지 뜻을 미국 의회와 기금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공화당의 비특정성」을 지지해왔고 「北·美합의」의 뜻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北·美합의」의 뜻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北·美합의」의 뜻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소 어렵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美의회가 계속 韓京州외무부의 의수정(受託)을 할 경우의 의의(意義)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金鳳先·李炳光기자>

▽동아일보 1994. 11. 26

韓외무 外統委 北核대책 보고내용

韓京州외무부 장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환영

北韓의 제국화 경수로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構想)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日 3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美 日 兩國에 설명, 대 부분 동의(同意)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韓京州외무부 장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하는 등 관련기관에서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원내 레크리레이티브와 통일부총리 산하에 「통일부 경제기획회의」 구성을 개성령 안을 신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崔東鎮의무부 1차관보가 내정됐으며 부단장은 통일부와 기획회의의 구성과 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제국화 경수로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構想)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日 3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美 日 兩國에 설명, 대 부분 동의(同意)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韓京州외무부 장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하는 등 관련기관에서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원내 레크리레이티브와 통일부총리 산하에 「통일부 경제기획회의」 구성을 개성령 안을 신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崔東鎮의무부 1차관보가 내정됐으며 부단장은 통일부와 기획회의의 구성과 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을진 3, 4 호기 「參照발전소」로

의 전문가 회의에서 韓美日 3국간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韓京州외무부 장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하는 등 관련기관에서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원내 레크리레이티브와 통일부총리 산하에 「통일부 경제기획회의」 구성을 개성령 안을 신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崔東鎮의무부 1차관보가 내정됐으며 부단장은 통일부와 기획회의의 구성과 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金次洙)

"北南北北의학 융합섯"

韓의마 전담

한양대 의료부속이 지난 30일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은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은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한양대 의료부속이 지난 30일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은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한양대 의료부속이 지난 30일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은 '북북 남북의학 융합섯'을 발족시켰다.

金正日 내년 3월께 승계

訪獨李부총리 기임일방북승인週内결정

【종합뉴스】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뉴스】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이동·초계활동 독자 수행

「平時 작전통제권」환수 문답본이

전쟁 발발면 聯司令의 작통권 재이양 美의 한반도방어 역할「지원관계」전환

「평시작전권」 환수 일정	
▲50.6.29	맥아더, 이승만에게 작전권 요구
▲50.7.14	이승만, 맥아더에게 작전권이 양허 발송
▲54.11.17	한미합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통제하에 둔다고 명시
▲61.5.26	국가안전최고회의, 유엔군의 작통권 재확인
▲78.7.26	SCM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 부여
▲92.10.9	SCM서 94년말까지 평작권 한국군환수 합의
▲93.11.3	SCM서 환수일자 94년 12월 1일로 확정
▲94.10.7	SCM서 최종합의
▲94.12.1	평시 작통권 한국군이양

전쟁 발발하면 聯司令의 작통권 재이양, 美의 한반도방어 역할 「지원관계」 전환

한미합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통제하에 둔다고 명시, 국가안전최고회의, 유엔군의 작통권 재확인, SCM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 부여, SCM서 94년말까지 평작권 한국군환수 합의, SCM서 환수일자 94년 12월 1일로 확정, SCM서 최종합의, 평시 작통권 한국군이양

한미합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통제하에 둔다고 명시, 국가안전최고회의, 유엔군의 작통권 재확인, SCM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 부여, SCM서 94년말까지 평작권 한국군환수 합의, SCM서 환수일자 94년 12월 1일로 확정, SCM서 최종합의, 평시 작통권 한국군이양

【종합뉴스】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평양 6일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일 부총리 내년 3월경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 남작스런 붕괴면
先 정치·後 경제 통합
구미인민기자

【비평】= 北 海地 【정부는
北 韓이 통일전선으로 붕괴될
경우 정치통합이 빠르
고 내외의 이투외 경제통합
일정기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내외
가 7월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통합
을 유예하면서 정치
통합과 아울러 경제통합
이름을 붙여서 정치
적 부패를 전하기 어렵
것이다.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東西獨行과정을 영구화
결과 인간이 절멸되고
지나해 마땅한 「통일대비
계획」(그것은 평화계획)의
이름 붙여진 것으로 알
렸다. 정부는 獨逸(獨逸)의
용어 모두 5주, 10주마
크(약 2천여 명) 5천
주(약)가 될 것으로 추
고 있으며 南北韓의 통
적인 통일전선으로 적
수백조원에서 몇백수
천에 달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北 수출중대 「국민안정」 「북한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통일연구원 최근 「북한 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북한 제3차 7개년 계획 실적 (93년 현재)

구분	실적 (평가)	수행률 (%)
국민소득	0.88배	51.8
공업생산	(1.5배)	(78.9)
무역	0.74배	연평균 52.5
곡물	조곡 520만톤	34.7
쌀	181.9만톤	26.0
수산물	109만톤	9.9
전력	221억 kwh (676억 kwh)	22.1 (67.6)
석탄	2,710만톤 (10,710만톤)	22.6 (89.3)
철강	186만톤 (875만톤)	18.6 (87.5)
비철금속	16.4만톤	9.6
화학비료	160.9만톤 (560만톤이상)	22.3 (77.7이상)
합성수지	(9.2만톤이상)	(18.4이상)
시멘트	398만톤 (1,200만톤이상)	18.1 (54.5이상)
직물	1.9억 m	12.7
화학섬유	5.3만톤	23.6
주택건설	연4.1~4.9만세대 (총 100만세대)	20.7~32.4 (71.4~95.2)
지방공업	(1.7배)	(68.0)

주: ()는 북한발표에 근거한 평가치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 왔
었다. 그러나 「조선중앙
통신」은 「민족조선」
등 북한 간행물의 통찰하
는 경제발전 전모와 양
을 생애 전모에 대해 국내
전문기관의 분석이 부족하
므로 완전한 이면 보고서
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

주력산업 달성률 20~50%선에 그쳐 곡물·직물등 매우저조 "생활수준 악화" 노동집약적 건설사업은 "비교적 양호"

「사실」에 보다 접근한 중
합평가서란 점에서의 의의
가 있다.

북한발표의 시작
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의 각 산업별 성장요건과
실적의 비교적 정확도
리과정이 정확히 파악
되는 「통일」정보를 제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3차 7개년 계획
이 기간에 대한 전
건설의 중점사업은 석
탄·금속공업에 에너지
및 소재산업부문의 발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의 선두업으로
다.

북한은 또 과도한 목표
실적을 피하기 위해 제
차 7개년 계획의 「80년
대말 10대전망」목표를
그대로 연장하거나 약간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목
표를 설정하는 한편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도
역점을 집중키로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실적이 겨우 50%
수준에 머물러 완전 실패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국
민소득이나 외화부양실적
은 각각 목표치의 절반을
넘지 51.8%와 52.5%
수준에 머물렀다. 주력산
업부문의 실적은 20~50%
선에 그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중점사업 계획수행
은 국민소득 목표수행을
보다 한층 더 어렵게 만
다.

특히 전력·석탄·금속공
업 100% 부양이 에너지 및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가
장 요점을 두었던 이른바
「3대중점사업」도 불구하
고 20%에 불과한 실적
을 보였다.

또 곡물생산은 목표의
25.9%에 머물렀으며 경
공업부문에서도 계획수행
률이 직물 12.7%, 화학
섬유 23.6%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북한의 주민
생활수준이 매우 악화됐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중 고소득
로, 내륙철도, 관개수로
건설등 노동집약적인 건설
사업은 비교적 양호한 실
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洪潤五기자】

北 개방포퓰싸고 강-온파갈등

宋통일원차관 金正日 최종적결정 못내려

북한(北 韓)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할 수(可) 없
을(不) 수(不) 있다(也). 강(剛)
과 온(溫)파(波)의 차이(差
이)는 宋(宋)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할 수(可) 없
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
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
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
할 수(可) 없(不)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차관(次 官)의 이(이) 말(말)
은 北 韓(北 韓)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할 수(可) 없
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
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
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
할 수(可) 없(不)을(不) 수(不) 있다(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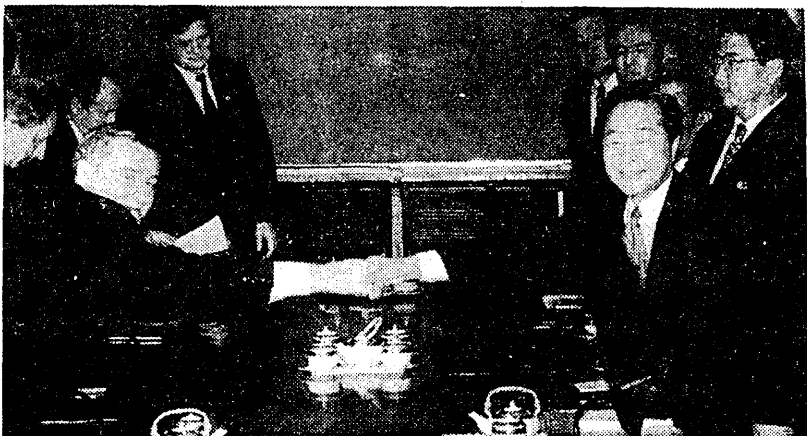
宋(宋)차관(次 官)의 이(이) 말(말)
은 北 韓(北 韓)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할 수(可) 없
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
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
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
할 수(可) 없(不)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차관(次 官)의 이(이) 말(말)
은 北 韓(北 韓)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할 수(可) 없
을(不) 수(不) 있다(也). 宋(宋)
의 개방(開 放)은 北 美(北 美)
의 개방(開 放)과 비교(比 較)
할 수(可) 없(不)을(不) 수(不) 있다(也).

〈宣鍾九기자〉

韓·폴란드 頂上 公明기자회견

김영삼대통령과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이 9일 하오 청와대에서 단독정상회담에 이은 확대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종원기자>



김영삼대통령과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이 9일 하오 청와대에서 단독정상회담에 이은 확대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종원기자>

자동차 수입관세인하 약속... 6지역 중대 北韓 중립국 전환의 위협 구애받지 않아

바웬사

북한이 자국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약속한 가운데, 6지역 중대 국 전환의 위협 구애받지 않아... <이종원기자>



北韓이 자국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약속한 가운데, 6지역 중대 국 전환의 위협 구애받지 않아... <이종원기자>

修交 5년만의 실질적 동반자시대 진입 對 E.U.C.I.S 6지역 확대 괴두보 확보

오일 하에 정외장동작 및 韓·폴란드의 정상회담이 韓·폴란드 양국의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종원기자>

韓·폴란드의 정상회담의 함의

이제 6지역 중대 국 전환의 90%... <이종원기자>

韓·波 자동차合作합의

정확한 한국 자동차 수입관세 대폭인하

韓·波 자동차合作합의... <이종원기자>

北, 제한적 개방 불가피

경제난·국제적고립 해소급선무

李秉龍 부총리

李秉龍 부총리 겸 통일원장(왼쪽)은 13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측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있다. 남측 대표단에는 김태호(가운데)와 김태호(가운데)가 포함되었다.

李 부총리(가운데)는 13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측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있다. 남측 대표단에는 김태호(가운데)와 김태호(가운데)가 포함되었다.

李 부총리(가운데)는 13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측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있다. 남측 대표단에는 김태호(가운데)와 김태호(가운데)가 포함되었다.

南北합의서 채택 3돌 기념 리셉션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주년을 맞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전·현직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60여명과 함께 리셉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鄭元植 전 국무총리, 洪性澈 전 통일원장관, 宋漢虎 전 통일

원차관, 李秉龍 민족통일연구원장, 李東龍 전안기부장특보 등 前대표단과 李榮德 국무총리를 비롯, 宋榮大 통일원·李敬在 공보처·康奉均 경제기획원차관 등 현 대표단이 참석했다.

남북경협 정경분리 바람직

정부·민간 역할 분담 북한 설득해야 한반도평화선언 채택→국제보증 필요

'기본합의서 3년' 워크숍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사정을 감안해 일정 기간은 정경분리 원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당국자간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세 돌을 기념해 13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상만 교수(경희대)는 남북경협과 남북대화의 연계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이 정부 차원의 대화를 원하지 않고 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우선 기업 차원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단계에서 대북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업은 전위부대로서, 정부는 지원부대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은 제네바합의에 따른 남북대화의 추진전략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역시 그동안 대북압력에 치중해온 외교력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탈핵외교'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의 수정·보완 내지는 남북간 한반도 평화선언의 채택·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런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체제가 성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호 기자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민간 역할 분담 방안이 13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統一교육 제도화 절실

南-北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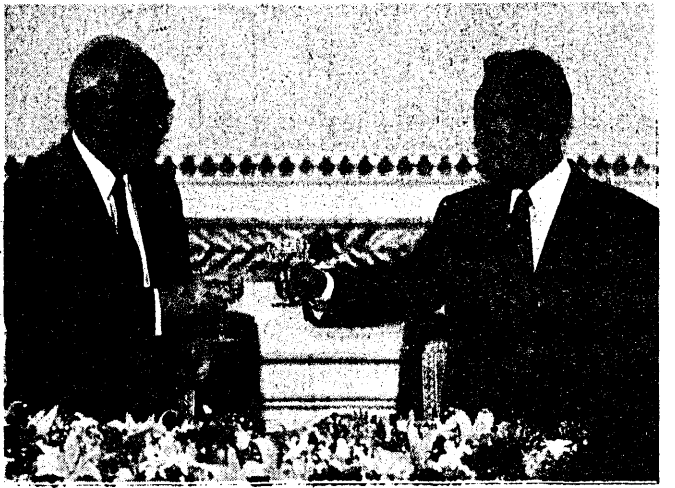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남북가치관 격차 이해에서 출발을... 통일원 주최 세미나서 제기



金泳三 대통령과 이종하 리빙 이사장들이 15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孫光好기자>

中東 평화와 중첩이익의 참여

金대통령·라빈 합의 韓·미·중 협력의 진출도

北韓 무기수출 공동대응키로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수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하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오전 이종하 리빙 이사장과 회담을 취소하고 대신 김대중 대통령과 이종하 리빙 이사장이 만났다. <孫光好기자>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北 이란 지원 받아 노빙미사일 개발” 라빈총리 “그리고 재정지원도”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15일 특파원 특보】 이종하 리빙 이사장은 15일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北)의 동맹국들이 제 제국을 활용하는 것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韓「이정사회담이 남긴 것

韓國과 이스라엘이 모 두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北 무기수출 「공동경제」 성과 「中東평화회의」참석 韓國위상 높여 정기항로 개설로 교류 활발해 질 듯

北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적으로 한국기업의 對中 東진출이 반전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는 1994년 12월 16일이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아랍권 의식 '제한적 협력' 확인

방위산업·관광등 협력강화 합의...김대통령, PLO지원 입장 분명히

한-이 정상회담 뭉치 논의했나



김영삼 대통령과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항공협정과 문화협력협정의 서명식이 끝난 뒤 건배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루어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제사회가 용인해서는 안되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방한은 이슬람권 중동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해온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한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비롯한 아랍권 나라들의 화해 분위기가 높아졌는데도 아랍권 국가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이란에 제공하는 일러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이란 수출 계획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김

I . 統一政策 關聯

3. 社說·칼럼

社說

韓美안보협력의 중요성

제26차 韓美안보협력회의(US-CM)가 9일부터 2일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미 두국은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안보협력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상선의 대비한 유류공급의 발전은 권고하고 모양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미안보협력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보충한 한미안보협력회의는 1993년 11월 28일부터 1994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韓美안보협력회의를 1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社說

對北 核협상, 「원칙」 확고해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미국(美國)·일본(日本)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북한핵(北韓核)협상자세가 지나치게 순진하고 타협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네바의 핵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安保理)제재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보기에 金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북(對北)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핵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다짐한 것으로,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제네바의 북-미회담이 집요한 줄다리기의 중대한 고비에 들어선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을 두고 구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미(韓美)공조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이 원칙없이 강경과 온건 정책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데서부터 미국의 대북(對北)접근에 불만을 품은 국내세력의 궤방 때문이라는 등 각양각색이다. 주로 일부 미국측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견해들이다. 일부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金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의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이 당초의 원칙에서 물러난 인상을 주는 결과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한때 단호했던 특별사찰 문제는 슬그머니 뒤로 밀렸고, 이제는 당초 약속에도 없던 추가 보상과 폐쇄하겠다던 원자로의 연료봉 재장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계속 새 문제를 제기해 온 북한의 이런 상투적인 협상수법을 우리는 슬한 접촉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북한 뿐이 아닌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협상수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국내선거나 정치 입정에 맞춰 외교를 서두르는 경우가 흔히 있고, 북한은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경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체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과거 핵 투명성 등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가.

社 說

金대통령의 美國 비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北核협상의 소위 다해의 단계를 지나치게 유연하고, 한편 金泳三 대통령의 미군 비판 내용의 불명확한 진정성을 지적한다. 金대통령의 비판은 韓美간 對北협상에서 단 한 차례를 포함하여 한두 차례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인상을 준다.

北核협상에서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만으로는 협상을 추진할 수 없다. 단 한 차례의 협상을 포함하여 한두 차례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인상을 준다.

경쟁과 대화라는 말은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단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솔직한 말과 그것이 그 동안 北核협상에서 미국의 과거 행과 불명확한 진정성이 문제에서 원인이 되었다. 또 美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북한전문부서에서 아닌 핵확산방지국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당연한 비핵화 정책의 단면적인 것이다. 우리는 국무부 내에서도 최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 인스턴트 동아시아 전문가들의 비판을 기억하고 있다.

북핵협상과 관련해 일부에선 美 양국이 경우로 협상을 경제적으로 약속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 협상의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남북의 최근 조자 이를까지 불명확한 과잉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강

경쟁자들이 북미간 제네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대체 북미간 협상을 방해해 이 일을 볼 사람의 누구인가. 핵협상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남북한은 물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북

제사회 모두의 이익일 것이다. 그것은 시각이 다를 뿐 韓美간 對北공조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미국의 金泳三 대통령의 지적을 北核협상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언으로도 적절, 원천적인 협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겨레신문 1994. 10. 11

사설

대통령의 냉전적 북한관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타협은 북한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라며 남북 대화를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냉각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새삼스런 상황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단 순하게 보아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냉전시대의 대결의식에 젖은 이런 발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이례적이라 할 만큼 비판적 시각을 보인 이 발언은, 그러나 주체성 확립이라는 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바른 비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유감이다.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과의 협상에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있다는 보도를 부정한 것은 다분히 외교적인 발언이기 쉽다. 그러나 실사 이견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미국의 노력은 오히려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 안간힘을 다하는 북-미 회담이 우리에게 불

쾌하게 비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이나 소련과 수교 교섭을 할 때 북한을 배제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북-미 수교문제가 논의되는 이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를 배제 하려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김 대통령은 또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함으로써 그동안 핵-경협 연계를 푸는 듯한 정부당국자의 발언으로 북한 진출을 준비해온 기업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김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 점을 안고 있음도 아울러 드러내 주었다. 김 대통령은 경제를 마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나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기 위해 우리도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쯤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미 회담이 일만 한 합의 를 이루어준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해도 풀리겠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북-미 협상 자세와 냉전시대에도 보기 드문 한국 대통령의 협상론이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회담의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민족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아직도 상황과 역량이 모자란 것일까.

社說

「한국입장」도 있는 법

【北(북)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옹호와 양면성】 한국 입장의 정복의 양면성. 대북 미국의 옹호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전북(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한편으로는 「장성(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것이다. 대북 미국의 옹호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전북(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한편으로는 「장성(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것이다.

【美(미)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옹호와 양면성】 미국 입장의 정복의 양면성. 대북 미국의 옹호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전북(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한편으로는 「장성(북) 핵협상」을 장려하는 것이다.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NPT(핵 확산금지조약) 양장의 도움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마다 입장 차이가 조금씩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 옹호하는 핵(북) 비확산 조약은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절박한 우리의 입장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北은 핵협상 더 끌지 말라

北(북) 핵협상의 제네바에서 속개된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異見(이견)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양측이 각자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협상과정이 진행되며 북한의 입장에서 양측이 북핵의 輕水爐(경수로)를 폐기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社說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金泳三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對北(대북)정책의 일부 측면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은 그 내용면에서 볼 때 공화당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의 본질적인 불신성과 부정적성에도 불구하고克林턴 미행정부가 단지 중견선거와 NPT 시험연장 시점마침의 실패 북한과 그 어떤 일련된 타협이란도 신중히 하려는 듯한 자세에 대해 金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한 경고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미국의 수진하고 지나치게 유연하다...」 하는 일견 정확한 사실일 수도 있는 발언이 허다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좌절거절해서 시피하는 발언의 외부장관이나 기타 참모도 아닌 대통령이 자신의 입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설되게 한 것만은 아무래도 최선의 보좌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기록에 남는 것이며 국회의원의 나 각료의 경우와는 달리 취소발령의 권위적 결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대외적 발언은 무엇보다도 비유적인 수사학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굳이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대개는 다른 참모들이 그와(을) 대신하는 것이 상례다.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곧 각파했는지 이른바 「불끄기」를 사후에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대외발언을 앞두고 별다른 사전조율이나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참모체제의 기능적 효율성의 문제점으로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외교는 전문관료 테크노크라트에 의해 시스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대외부장관 軸(軸)의 陣(陣)은(은) 활동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만 하더라도 시스탬적 여과과정

▽한겨레신문 1994. 10. 14

사설

대통령의 말

겨우 나흘 사이에 <뉴욕타임스> 지면과 <CNN> 전파에 실린 대통령의 정반대되는 발언 내용을 놓고 나라 안팎의 논란이 분분하다. 전자가 미국 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후자는 북핵협상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의 확고함을 강조한 것이어서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은을 적절히 구사한, 자주적 외교의 신호'는 여당의원들의 옹호론에서부터 '냉전적 시각에 바탕한, 위협스런 철학 부재의 북한관'이라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적어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 위에서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앞서 우리는 '대통령의 냉전적 북한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의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에게 전화로 보도경위를 설명하고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는 외교안보팀의 허둥대는 모습에서 정부의 상황 예견 혹은 돌파 능력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된다.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외국인론과 예민한 외교적 현안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보좌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리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를, 그것도 거친 말을 써가며 정면으로 공격한 것은 결코 응답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쪽 주장이나 해석처럼, 그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조

급한 협상자세에 제동을 걸고 국내 보수세력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거둘 수 있는 외교적 혹은 국내 정치적 열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북-미 회담만 해도 이미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증대한 나랏일에 자주 말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흐려놓고서 얻을 수 있는 '의도된 목표'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권력주변의 뒤늦은 의미부여가 딱하기만 하고, 뒤늦게 정식회견이 아니었느니 어찌하느니 하는 청와대 설명 또한 구차스럽기만 하다.

이번 파동과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이 마치 북한의 내부 붕괴를 희망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되풀이한 대목이다. 일전의 '김정일 타도 전단' 파문의 부정적 교훈이 시사하듯이, 정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과,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한 발언이 북핵회담이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정책목표 설정에 얼마나 큰 짐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깊이 천착했어야 했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의 말과 생각을 진언하고 보좌할 외교안보팀,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무능 또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하겠다.

을 거침이 없이 그대로 외부 세계에 직접 드러나게 될 개연성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은 그것대로의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나, 반대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위험성도 동반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중요한 대외 메시지에 반드시 전문 참모진의 사전조율 체계가 잘 서있

어야 할을 역설하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의 역할 분담, 대통령 발언의 수사학적 포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의 대미경고 내용상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을 환기하고자 한다.

社說

南北대화인내를 갖고

北美협상이 타결되자 남북대화再開에 대한 것이 구상됨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별 대화는 물론 회담의 진전된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관측들의 정부 관계부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은 국민들에게 머지않아 남북간의 화해민주주의에 대한 滿開할 것을 각각과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핵합의후에도 남북을 보는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경제와 敵對를 조망도 늦추지 않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대화는 합의대로 한 반도非核선언의 이행을 위한 核동태공동위원회를 비롯, 輕水爐原電지원을 위한 신부전력,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회담, 경제회담, 그리고 구교전(前)은 頂上회담까지 망라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7.4합의선언 이후 20여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듯 南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 또는 대외적으로 평화의지를 선언·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만 회담에 응응했고 그나마 시간 끌기와 물고늘어지기로 일관해 왔다. 어

쨌든 현재로서는 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정부로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대화의 피차세는 우선 이번 핵타결 전까지 반대를 고수했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로직으로 核합의를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禁輸해제를 통한 경제협력, 경수로원전에 두고 이를 金正日의 지도방향, 전적으로 과시하려 했으며, 때문에 현안(前) 중립의 관여나 일종의 자의 신중(新)적인 반(反)을 주장하는 주(主)였었다.

다행이로 북한은 국민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출범(출)과 과거 군사정권의 대했던 것이 상(上)으로 격렬한 비판과 모략으로 주민들에게 敵對感을 부추겼다. 특히 金日成사망후에는 用問(用)거부, 主(主)派(派)단속, 인권문제(人)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의의지를 문제 삼아 전(前)하게 是非를 범(犯)하여 하(下) 부(下)의 대화자로 돌변(轉)하기 이전(前)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로서는 대화를 재개할 의사도 준비도 되지 않았다. 對美관계개선과 경수(輕)를 놓칠 수 없(不) 어(不) 마(不)지(不)못(不)해(不) 동(同)의(同)한(한) 대화(對)도(對) 시기(時)를(時) 면(免)

시하지 않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조기에 재개할 수밖에 없을 때도 弔問(弔) 및 檀君(檀)陵(陵)을(을) 참(參)가(加)할(將)지(否) 主(主)派(派)단(團)속(속)에 대한 先(先)사(事)과(과)를(를) 요구(求)하며(하)서(서) 삼(三)일(日)간(間) 시(時) 비(非)를(를) 결(決)계(計)를(를) 밝(暴)혔(忽)다(다).

따라서 정부는 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공인(公)히(히) 과(過)잉(盈)기(氣)대(代)와(와) 환(換)상(相)을(을) 갖(得)게(게) 해(解)서(서)는(는) 안(安)된다(다). 우선(先) 김(金)정(正)일(日)을(을)

권(權)승(承)계(繼)가(가) 끝나(나)고(고) 체(體)제(制)가(가) 안정(安)될(將) 때(때) 지(知)자(者)하(者)지(否) 말(말)고(고) 인(因)내(內)를(를) 갖(得)고(고) 기(基)타(타)리는(는) 게(게) 현(現)명(明)하다(다). 또(또) 체(體)제(制)안(案)정(定)을(을) 도(導)출(出)할(將) 요(要)가(가) 있다(다).

북(北)의(의) 對(對)南(南)과(과)는(는) 영(永)원(元)적(的)인(인) 계(繼)속(續)하고(고) 남(南)북(北)이(이)들(들)에(에) 영(永)속(續)히(히) 손(手)익(益)하(하)겠지만(만) 일(一)정(正)시(時)간(間)이(이) 지(知)나(나)면(면) 결(決)국(局) 대(對)화(化)에(에) 나(나)설(設)것(것) 이(이)다(다).

「對北」소리안나게

美(北)미(북) 핵(협)상(의) 타(결)합(의) 따라(우)리(의)게(도) 對(北)대(북)관(심)의(의) 절(절)대(의)고(고) 있다(다). 정(정)부(부) 민(민)간(간) 가(가) 락(락) 것(것) 이(이) 모두(모) 부(부)였(였)을(을) 할(할) 수(수) 있(있)지(지)도(도) 어(어)름(름)째(째) 핵(핵)을(을) 감(감)금(금)하(하)는(는) 정(정)신(신) 이(이) 솔(솔)려(려)져(져) 있다(다). 하(하)지(지)만(만) 북(북)한(한)은(은) 정(정)신(신) 가(가) 장(장)강(강)한(한) 행(행)수(수)단(단)기(기)까지(까지) 어(어)전(전)반(반)정(정)신(신)이다(다). 따(따)라(라)서(서) 우(우)리(의)가(가) 정(정)신(신)을(을) 대(대)외(외)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한(한)자(자)가(가) 제(제)어(어)를(를) 단(단)락(락)하(하)는(는) 일(일)을(을) 삼(삼)상(상)하(하)는(는) 일(일)면(면) 한(한)다(다). 對(北)대(북)관(심)의(의) 미(미)의(의) 의(의)도(도) 어(어)전(전)반(반)정(정)신(신)의(의) 가(가)능(능)이(이) 행(행)하(하)지(지) 못(못)을(을) 할(할) 수(수) 있(있)다(다). 미(북)부(부) 단(단)락(락)하(하)는(는) 일(일)을(을) 해(해)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미(북)부(부) 단(단)락(락)하(하)는(는) 일(일)을(을) 해(해)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미(북)부(부) 단(단)락(락)하(하)는(는) 일(일)을(을) 해(해)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다(다)만(만) 북(북)한(한)은(은) 사(사)면(면)에(에) 한(한)편(편)서(서) 가(가)관(관)부(부) 터(터)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상(상)관(관)부(부)가(가) 어(어)전(전)반(반)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가(가)장(장)어(어)렵(렵)다(다)고(고) 정(정)행(행) 나(나)는(는) 대(대) 북(북)한(한)은(은)서(서)라(라). 북(북)과(과) 부(부)였(였)을(을) 할(할) 때(때)는(는) 진(진)지(지)한(한) 자(자)세(세)부(부)적(적)인(인)인(인)이고(고), 성(성)사(사)도(도) 없(없)을(을) 때(때) 이(이)를(를) 단(단)락(락)하(하)는(는) 수(수) 없(없)을(을)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지(지)기(기)까지(까지) 정(정)부(부)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는(는) 대(대)외(외)의(의) 부(부)를(를) 영(永)원(元)적(的)인(인)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정(정)신(신)을(을) 단(단)락(락)하(하)는(는) 것(것)이(이) 많(많)아(아)고(고) 있다(다).

社說

社說

새韓·美관계를 생각한다

美 고위관료들의 訪韓(訪韓)이 이
 어지고 있다. 8년 上院(上院)사원(院
 장)의 방한(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이 노(老)자(者)였다. 그(其)런(然)하(何)면(면)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서울신문 1994. 10. 20

對北정책의 原則과 일관성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의 訪韓(訪韓)이 어찌나 美(美)관(官)의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美(美)대(代)를 특(特)사(使)로 임명(任命)한 지 10년(年)이

社說

서울에 온 李鵬총리

중국어 李鵬(리펑)총리의 서울방문은「미·북 합의」로 조성된 새로운 동북아 정세를 배경으로 해서 한층 양면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金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는 마해석은 江澤民(장쩌민)주석의 答訪(답방)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북핵문제의 소관 李총리의 정적적 입장에 입안한다면 李총리 수석의 방북은 인본주의적 실현의 발판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이만한 협신적·의정상의 심파로 보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원한다.

우선 각국외교와 합선한 李총리와 동북아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이 북핵의 종결을 위한 개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양면적의 李총리의 도북방문의 對南(대남)적 대노선(대노선)은 북핵문제의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북 합의」(對北)적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李총리의 방북과 미북합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핵의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어「2개의 합의를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불피보다는 「양가」한 상대방「이론」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최소한 우리의 이런 정책을 정화하게 북핵지도층에게 전달해서 北을 南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 두 나라를 물론 경제분야와 기타 부분에서 많은 협력과 교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협력은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화를 위해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중국 역시 정정합리의 전통적 외교정책에 기초해서 한북과의 경제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이 안보정적·군사 분야에서 계속 북핵의 동조하면서 우리와는 오직「경제」만 협력하려 할 경우에는 그것에 무조건 협력해 주는 것만이 마땅치 않다. 중국과 대화는 이제 우리의 「경제」를 지렛대로 삼아, 풀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무섭게 다

져서 밟겠다는 투철한 개념의 통찰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중국의 고위층이 서울에 와서 화려했던 北을 南과의 「소」무대가 설치된 것처럼 홍보되는 것보다 차분한 실정의 분위기가 지배했으면 한다.

이제부터는 간판하게 따지고 흥정해서 무엇 하나라도 실의를 취하고 챙기는 去來型(거래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미 지성의 외교나 외

社說

새轉機맞는 韓中關係

화내면의 추배 외교, 잔치 외교, 연설 외교, 정치적 효과의 외교를 지양하고서, 장사 외교와 문제해결 외교, 실속 외교, 실무 외교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과의 현안에서 우리의 입장의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울 경우에는 문제를 「안」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북이 들지 않겠」성과 주의에 「남」해 성의의 양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金泳三(대통령)과 李鵬(총리)의 31일 정와 대화(대담)는 지난 3월 金대통령의 중국방문 이래 8개월만에 이루어진 재회이다. 이틀만 이어지던 92년 8월 韓中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단층할 때만 발전을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리가 되고 있다. 金대통령과 李鵬총리는 청와대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 진전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과 李鵬총리는 北·美 합의의 실현이 양국과 북핵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金日成(北대통령)의 관해 사노견고(견고)의 진전(진전)이 있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의 신민한 협조와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양국간 합의했다.

우선 각국외교와 합선한 李총리와 동북아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이 북핵의 종결을 위한 개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양면적의 李총리의 도북방문의 對南(대남)적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북 합의」(對北)적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李총리의 방북과 미북합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핵의 대노선(대노선)을 대노선(대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社說

韓半島 평화구조

중립정책의 모호성(그림) 지금까지 북한의 시달착오점 접근 못지않게 한반도 안정추구의 절실함이 되었다. 4월 21일 노무현 총리의 평화정책 전향의 관련은 양측의 대표가 국이 전지해인 모호성(그림) 전향은 서로 접근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한 걸음 비롯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종민이 대북외교도 그밖의 관련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또 관련당사자들의 동시참여인지 참여의先後가 있는지 대해서도 시 모호하게 하고 말았다.

그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북이 반드시 당사자의 일원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중립이므로 정전체제를 중립이 아니라 중립의 해산만 가능하다 고 주장해인 부분의 구상을 고려의 면한 것이다. 휴전협정이 단지 군의 최고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당시 16개유엔참전부군대를 대표하여 美軍사령관이 서명했다고 해서만이 미국의 합의의 의해서만이 정전협정의 발전적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의 구상을 해에서도 미흡하며 부분의 구상을 해 절하된 의지를 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核)의 핵협상의 막

바지에 오른 지난 5월 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그 뒤를 이어 지난 9월 양국 의시 부한과 같은 조치를 취함은 분명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의 모순된 결과를 증명하므로 수용하기 것이 어렵다.

이런 의도면은 중립의 현실화가 물론 脫北(탈북)과 남북한 사이의 수교로 달린 부분의 양측의 부응한 것이므로 보인다. 그 반면의 단상(斷相)을 이용(利用)된 정전체제로 전환을 추구하면 계산이 면의 지만 전라도 그것의 국제사회의 실상을 토대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설을 마련했다. 그 면을 누려 보게 된다.

추종민가 모호하게 넘어간 관련국의 참여형식에 대해서는 같은날 가진 북(北)의 무장(無裝)의 회견(회견)은 일체를 마련했다. 먼저 남북한의 주체가 되어 평화체제로移行(移行)을 마친 다음에 후(後)의 자(自) 참전(參戰)인 미국과 중립(中立)이 이를 보장하는 수사로 이행되고 있다. 이른바 2+2라고 명명되는 이같은 공식의 대해 같은날 워싱턴 모든 국무차관(閣務)의 성명을 통해 미국도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더욱 주목(注目)이다.

▽서울신문 1994. 11. 11

社說

對美외교채널 多樣化 기하라

민주당 지배하에 있던 미국의회가 하루아침에 공화당판국이 되는데 대해 미국에서는 이를 「선거혁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의 「선거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의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지배아래 들어간 형국을 미국사람들이 선거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회가 야당인 공화당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對韓)정책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한 철저히 초당적 입장을 견지해온 나라다. 불과 2년여전 부시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정부의 대한정책과 현재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정부의 대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검토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여소야대(與小野大)」현상이 대외정책에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문제도 크게 염려할 바 아니다. 부시대도의 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나 공화당정권이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선거 결과가 우리와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만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번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다음 공화당대통령 후보가 유력시되는 보브 둘 공화당상원내총무 같은이

는 지난달 북·미간 핵타결 결과를 통렬히 비판했던 사람으로 핵타결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의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둘의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장애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선거때마다, 한미간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대미외교 채널이 너무 단조롭다는 점이다. 외무장관만의 빈번한 워싱턴 방문을 통한 정통외교만 가지고는 대미외교가 완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외무부의 외교활동이 중요치 않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정책의 입안과정은 다양한 아이디어 채널을 갖고 있다. 상원의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동아태소위는 물론 정부의 두뇌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연구소 같은 각종연구기관,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조직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미국의 대외정책 채널을 우리는 정부의 공식외교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각자 자기영역에서 대미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반한(反韓)인사들의 한·미관계 방해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양한 대미외교채널이 입체적으로 작용하게 될때 우리는 미국의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이고 폭넓은 대화가 재개되도록 추구함에 따라 달라진 중립의 자세에 힘입어 가시적 진전이 있기 바란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이 주장한 정전체제를 종결방식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구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인계철선(引繼)이

로 주문하고 있는 만큼 별개문제이나 2+2 방식에 배제된 일본이나 러시아가 배타적 국의 확보를 위해서 개입하려 든다면 남북대화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된다. 긍정적으로 달린 의견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社說

北의 선택은 남북대화뿐이다

북한은 이제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 말고 길이 없다. 온세계가 원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이른바 4강도 모두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아태(亞太)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일·중(韓美日中) 개별·합동 정상회담의 합의내용들이 그 증거다. 그것은 북한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 생각한다.

김영삼대통령과 미·일·중(美日中) 정상간 대화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북 합의는 북핵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남북한 대화재개 및 관계개선이 그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북이 원하는 경수로및경협 제공과 미·일 관계개선도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양보의 불만이 없지않은 미·북 합의지만 그나마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민적 합의이기도하다. 한·미·일 정상들의 이번 다짐과 약속도 변함없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메시지도 북한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한했던 李鵬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에도 남북당사자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江澤民주석도 우리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북핵합의를 지지하고 남북경협은 당사자원칙에 따라 정부간 대화가 우선적으로 원칙을 정한 뒤 기업인간 실무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북대화의 필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면 북한의 선택여지는 하나뿐이다.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억지에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과의 합의이행을 위해서뿐 아니라 경수로및 경협을 통한 지원을 받기위해서 그리고 경제파탄과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있다. 우리의 김일성조문거절및 북핵투명성요구, 보안법유지등 해명의 가치도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나 관계개선을 체제에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과의 관계만 열어볼수 없을까 하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요 계산인 것이 분명하다. 한·미·일·중 정상들의 이번메시지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일깨우는 경종으로 북한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상유지도 시기의 문제일뿐 자살행위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 북한체제붕괴의 부담은 우리도 원치않는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이유다. 북한의 중국식 개방개혁 성공과 그에 따른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통일달성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개방개혁을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고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한국일보 1994. 11. 16

이런데 韓美日三國 정상들이 갑자기 회담... (text continues vertically)

金泳三대통령이亞太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頂上의 회담을 통해... (text continues vertically)

韓·美·日 頂上 회담의 성과

동원전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text continues vertically)

이런 이번 정상회담이 또 한국 기피나... (text continues vertically)

추진하기로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text continues vertically)

구체적 합의내용과 경수로비행의 부담... (text continues vertically)

社說

세계화 교두보 다진 頂上外交

복지와 안보, 통일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경제력의 확충을 대외협력에서 구해야 할 우리의 형편에서 경제외교를 초점으로 하는 정상외교는 그 성과가 국익을 좌우한다.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아태(亞太) 순방은 세 일드외교대통령으로서 국익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화의 교두보를 구축한 뜻깊은 정상외교로 평가된다.

이번 아태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등의 방문에서 김대통령이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가위상을 끌어올린 것은 인상적인 외교역량의 과시였다. 18개 회원국의 정상과 대표들이 모인 APEC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 중국의 江澤民主석, 무라야마 일본총리등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경제공동체실현의 거보를 닦는 APEC의 진로형성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익극대화를 위한 경쟁을 벌였다.

김대통령은 보고르선언채택과정에서 클린턴대통령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 우리의 무역자유화시기를 10년뒤로 늦춘 것등에서 보듯이 미·일·중등 각국 정상과의 친분을 무기로 한 조정자의 위치와 그에 걸맞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문민정부의 확고한 정통성이 그 당당함의 받침대가 되었다는 것도 뜻깊은 일의 하나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이번 순방은 실질적이기도 구체적이며 경제협력 성과를 거두었다는 특징을 남겼다. 필리핀의 우리은행에 대한 우선적 지원설

치 허용을 포함,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자동차, 전자, 건설등 각분야에 걸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활짝 열어놓았다. 또한 호주에서는 자원,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에 합의하고 관광및 임시비자발급등의 호의적인 배려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동반협력의 궤도가 마련되었다. 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마련한 상호협력의 틀은 한국기업의 세계경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이례적으로 열린 한·미·일 3국합동정상회담을 포함, 중국등 8개국 정상들과의 개별회담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내외에 과시하고 미북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대화예의 호응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 것은 안보외교의 큰 성과다.

이번 정상외교는 김대통령이 그 결산으로 내놓은 세계화 드라이브의 계기가 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되었다. 경제정상외교가 뿌린 협력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기위한 민간기업의 가속적인 사후노력과 관계부처의 빈틈없는 후속관리는 지금부터라고 보아야한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가목표의 구현을 위한 국민대통합과 국력결집노력이다.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적 대비태세와 총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구체화등 대전진으로 나가야할 시점이다.

對北대화채널 多邊化해야

남북관계의 解氷은 아직도 요원한 一 難이다. 北核문제와 풀리면서 경제교류와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 나관론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마련한 제네바 北美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전망은 실망스럽게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들이 간사키려는 북한의 對南협명노선이 不變했음을 입증해준다. 한국을 철저히 局外者로 다룰리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에서 성과를 얻은 북한은 자신감에 도취되어 對美 對日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의 탈출체제보장, 경제재건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美 北 합의는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分斷의 고착화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없지 않다.

물론 제네바합의에는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明文化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네바협상의 막바지 단계까지 한사코 반대해온 것이 이 문제영을 상기해보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비록 마지막 대화에 나온 다해도 협상 테이블을 공허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이나 諸政黨 사회단체의 정치협상등 해묵은 혁명노선의 선전장구로 만들면서 의미있는 대화는 철저히 기피할 공산이 짙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를 뒤집어줄 확고한 필렛대가 없다. 그렇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남쪽을 배제한 가운데 발흥의 열어진 경제적 파탄과 민생고를 헤쳐나갈 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의 共和黨 壓勝이라는 돌출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클린턴 民主黨정부의 지나친 對北양보와 유화일변도정책에 불만을 품어 온 共和黨이 지배하게 될 미국 議會는 美정부의 對北정책에 막강한 압력 행사를 不辭할 것이다. 북한의 남북대화 및 당국을 통한 經協기피는 곧 환상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북한의 그같은 행위를 명화히 인식시켜주는 데서 대화의 실마리는 찾아질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대화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 안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어도 안된다. 북한의 을바른 현실인식을 위해서 대화의 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선전전제안보다는 실질적인 밀대화가 실질화 요청되는 때이다. 남북 경제인들 비밀협상 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美 北 접근을 견제하는 기색이 있는 中國을 협상선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실효적인 對北접근을 추구한다.

社 説

남북거래는 「域內交易」

남북한간의 거래가 域內(영내) 거래인가 아니면 영외거래인가. 영내거래는 국내지역과 동일한 것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외거래는 영내간의 거래로 관세가 부과된다. 남북한간의 거래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남북한의 무역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무역도 달라진다. 남북한간의 무역(경수)은 영내(영내) 무역과 영외(영외) 무역로 나뉜다.

남북한간의 무역은 영내(영내) 무역로와 영외(영외) 무역로로 나뉜다. 영내(영내) 무역로는 남북한간의 무역로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외(영외) 무역로는 남북한간의 무역로로 관세가 부과된다. 남북한간의 무역(경수)은 영내(영내) 무역과 영외(영외) 무역로 나뉜다.

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 것이 선진국이다.

북한은 지금 영내(영내) 무역로로 남북한간의 무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무역(경수)은 영내(영내) 무역과 영외(영외) 무역로 나뉜다.

그러면 미국측은 기회를 따랐다. 남북한거래는 영내(영내) 무역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무역(경수)은 영내(영내) 무역과 영외(영외) 무역로 나뉜다.

북한에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에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에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영역의 경우를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영역의 경우를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평시작전권 이양 이후의 과제

미군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는 한국군이 행사하게 되었다. 6·25의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전통제권의 일원화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형식상 정전협정에 의한 교전의 일시적 정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40여년의 장기간에 걸친 휴전상태로 그 느낌은 크게 퇴색되어 있다. 44년을 헤아리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그 역사적 맥락이나 현실적 필요를 떠나 국민감정을 다치는 일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시나마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것은 군사적 의미를 떠나서도 환영받을 일이다.

이번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조치는 좁게는, 우리의 국력 향상에 따르는 국방력의 강화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역할 축소 의도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퇴조와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의 중추적 구실을 해온 미국은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군에 주도적 기능을 넘기고 보조적인 역할로 물러나려는 정책전환을 시도해왔다. 그 일차적 작업이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고, 정전회담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그 두번째가 작전통제권의 이양이라고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과 주한미

군의 감축 등도 예정되어 있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평시에도 한-미 연합연습이나 정보 수집·관리 등 몇가지 위임사항은 그대로 미군이 맡아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급속한 안보위기가 예견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평시만의 작전통제권 환수일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가볍지 않다. 다만 미국이 역할 축소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면서도 한국군의 통신이나 무기체계 등을 미군의 방식과 일치토록 하는 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군수물자의 대미 의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국방당국의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군사관계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통일에 긍정적인 수반은 없는 남북한의 군부에 다같이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방당국은 북한이 남한을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구실의 하나였던 작전통제권을 완전무결하게 환수해 오도록 힘쓰고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방위력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가야 한다. 북한도 민족끼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전회담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작전통제권 이양에서 더 나아가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북한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社說

이해 못할 北韓 태도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행태)가 오래전부터 定評(定評)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 일련의 모습은 심로 기양(心勞氣費)이 없다. 그것은 金日成이 사망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후계체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리고 卍問(卍問)과 卍에 대한 사과를 北韓대학의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 또 그들이 그들 자신을 南側(南側)인 것처럼 그들의 북한인들을 北側(北側)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의 권력사설(89)인 金永南(金永南) 부총리의 고부장이 북한의 유력자와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金正日이 권력을 공식 승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면 3년간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전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간 권력공백상태를 지속시켰다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金永南은 남북 대화의 재개에 대해 金日成 사망 때 남북이 조약을 체결하고

軍(軍)에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反(反)민족적, 반인간적 범죄행위)과 사과해야만 가능하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6.25전쟁으로 수백만의 동포를 희생시킨 범죄자에게 조우할 수 있는 것도 난센스(난센스)의 극치로 4.19.5.16. 광주 사태(赤化)의 기회를 왔다고 북한이 흥분, 반성을 말았던 일들의 대해서 왜 설명이 없는지 의문이다.

이밖에 남북의 對北(對北)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두고 金이 국가보안법(법)을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보안법이 그들의 남침과 적화목표 때문에 만들어졌고 적화를 포기할 때 이 법은 자연히 폐지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의지를 부리는 것은 남북을 중상하는 저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金永南의 회견은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남북에 대해 강경 자세를 견지하는 속사정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는 핵카드를 구사하여 어렵게 얻은 北·美(北·美) 핵합의,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수로(原電)원전(원전) 지원 및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사나

한국이 제동이 되면 경제협력을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기업인들의 방북을 연기 또는 거부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아직 내부 정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만이 분명하다. 남북 기업인들의 일단 방북이 추진될 경우 黨·政·軍(黨·政·軍) 및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아무 신중을 쓰지 않으며 또 실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수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 정부도 대화와 協(協)력을 절묘한 선수를 필요로 없다. 대화가 안 될 경우 경수로 건설과 對美(對美) (對美) 관계 개선 등 이익을 짓고 경제 협도 내부 정국이 어느 정도 풀려나 뒤 새해에 들어서면 열심히 수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체제정비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北의 완강한 南北대화 기피

남북한(南北韓)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지 3년째가 되는 지난 13일 얼핏 듣기에 그럴싸한 말이 북한에서 흘러나왔다. 남북한끼리 서로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의 정쟁(政爭)과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한다는 평양(平壤)방송의 대답내용이었다.

줄곧 그들이 거부하기만 해오던 남한과의 대화재개를 염두에 둔 예비작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주장이었다. 김일성(金日成) 사망에 따른 조문파동 이후 북한이 보여온 행태로 보아 그 말이 진실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방송내용은 상투적인 선전용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비방중상의 중지를 이야기하며 『남조선의 현 정권을 두고서는 화해할 수 없다』는 등 대화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합의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쪽은 북한이다. 지금껏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2~3개의 신문·방송을 통해 똑같은 어휘와 내용의 험악한 욕지거리를 남한에 대해 퍼부어오고 있다.

그러한 욕지거리 속에서 김일성 조문파동과 관련해 남한이 사과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그들이다. 그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14일 김영남(金永南) 북한 외교부장의 독일 신문과의 회견에서 재확인됐다. 그는 김일성 사망 이후 우리 정부가 취했던 조치가 「반민족적, 반인간적 범죄행위」기 때문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사죄해야 남북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남북한 주민의 접촉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美國)과의 제네바합의에서도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남북한 대화가 규정돼 있으나 북한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연락사무소 개설에 성의 보이고, 미국 국회의원에 호의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앞뒤가 다른 전략과 행동을 두고 우리가 마치 뜨거운 냄비 끓듯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진의를 제대로 알고 묵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東亞論壇



북핵의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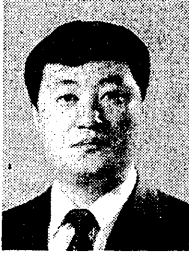
金 瓊 元



北核 이후 대미핵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북핵 위협의 심각성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金 泰 元

統一칼럼

북핵 위협의 심각성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統一費用문제아니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제3의 北韓 접근법

북핵 위협의 심각성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政經 분리 南北 등거리外交

남북(韓) 정경(政經)의 분리(分離)와 남북(南北)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에 대한(對)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정책(政策)이(를) 둘러(繞)한(繞) 논(論)쟁(爭)이(를) 촉(촉)발(發)한(한) 바(바)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11월(月) 1일(日)의(의) 남북(南北) 정상(正長)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또(또) '남북(南北)의(의) 교류(交流)와 협력(合作)은(은)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를(를) 전(前)제(條件)로(로) 삼(三)을(을) 원(願)한다(한다)'고(고) 밝(밝)혀(혀) 주(주)었다(었다).

李鵬방한에 나타난 中의 韓半島정책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11월(月) 1일(日)의(의) 남북(南北) 정상(正長)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또(또) '남북(南北)의(의) 교류(交流)와 협력(合作)은(은)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를(를) 전(前)제(條件)로(로) 삼(三)을(을) 원(願)한다(한다)'고(고) 밝(밝)혀(혀) 주(주)었다(었다).

남(南)과(와) 경제(經濟), 북(北)과(와)는(는) 정치(政治) 연결(連)帶(帶) 東北亞(東北亞) 영향(影響)력(力) 확대(확대) 日(日) 견제(견제) 대(對) 북(北) 제(制)약(約) 추구(追求) 해(해) 나(나)는(는) 새(新) 정(政)권(權)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아침論壇

북(北)과(와)는(는) 정치(政治) 연결(連)帶(帶) 東北亞(東北亞) 영향(影響)력(力) 확대(확대) 日(日) 견제(견제) 대(對) 북(北) 제(制)약(約) 추구(追求) 해(해) 나(나)는(는) 새(新) 정(政)권(權)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추구시합」이 끝났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이(이)는(는) 김(金) 위원장(委員長)의(의) 대(對) 북(北) 정(政)책(策)이(를) 어떻게(어떻게) 변(變)경(更)할(將)지(否)에(에) 관(關)한(한) 것(것)이다(다). 김(金) 위원장(委員長)은(은) 회담(회담)에서(에)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남북(南北)의(의) 등거리(等距離) 외교(外交)', '외교(外交)와 경제(經濟)의(의) 분리(分離)' 등(等) 3대(大) 원칙(原則)을(을) 제시(示)한(한) 바(바)다(다).

東亞時論

南時旭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時論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李進坤 (서울대 교수·정치학)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金鍾三前임의 한반도의 기류가...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對北관계에서 잇고 잇는 것...



李容弼 (서울대교수·정치학)

대화재개 기회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김대중 북한산정 합의면 10년 3.4년

對北정책 시행착오 비판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북대화 재개에 합의한 김영삼 정부... 10년 3.4년

세계의 座標

獨정체부담 증가세

獨정체부담 증가세... 10년 3.4년



田中直毅

田中直毅...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김대중 「북대화」 계산할 때... 10년 3.4년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1. 2次會議 進行

北, 協商 주도권 움켜쥐기

北, 특별사찰시기 왜 늦추나

북한은 1994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94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査察후엔 경수로 건설보장 어렵다” 軍部등 강경파 반발고려 내부조율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北 "10년뒤 核사찰" 주장

WP紙 보도 제네바서 "경수로 완공후에나"

美, 한반도 상황 재긴장 우려

북한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신뢰를 쌓고 나가기 때문이다. 북측은 특별사찰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北-美 실무접촉

【워싱턴 2일路透電】북한과 미국은 2일 워싱턴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북측은 특별사찰시기를 늦추고, 양측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관성없는 核정책 배경 원가

北保1후 「임겨루기」

특별사찰등 별 이유없이 人物 따라 입장변부

최근 북한협상 과정에서 북한 권력내부가 심각한 노선갈등 정황을 드러내 주목된다. 협상 테이블에서 북 한(일)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2차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2차회담의 부정적 열매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임박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北美 3단계 1차회담에서 영변 5 MW 원자로의 연료공급 재장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폐연료봉 처리도 미국이 제3국 이전보관을 요구하는데 비해 북한은 자국내 수리협력을 재장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사찰문제의 대한 북측 입장도 시간과 인력의 파다변했다. 그러나 2일 협상의 서 姜錫柱 북측수석대표는 '특별사찰은 경우로가 완료되고 나서야 수용 가능하다'고 반복했다. 이는 불과 10년 이후에나 특별사찰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전혀 없던 유망회왕하는 것은 작게는 북핵협상과 크게는 개방정책을 둘러싼 권력내부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인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 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과 주도에 보수강경 제동 "혼란" 金正日 선택 따라 협상전망 달라져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김정일의 오산출세에 따라 권력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과 주도에 보수강경 제동 "혼란" 金正日 선택 따라 협상전망 달라져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김정일의 오산출세에 따라 권력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美 "특별사찰 文書집행이 불가능"

갈루치, 지난달 카네기재단 간담회에서 시사

IAEA가 협력인정전제로

【워싱턴=申相仁기자】 북 美 3단계 1차회담에서 영변 5 MW 원자로의 연료공급 재장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폐연료봉 처리도 미국이 제3국 이전보관을 요구하는데 비해 북한은 자국내 수리협력을 재장착하겠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사찰문제의 대한 북측 입장도 시간과 인력의 파다변했다. 그러나 2일 협상의 서 姜錫柱 북측수석대표는 '특별사찰은 경우로가 완료되고 나서야 수용 가능하다'고 반복했다. 이는 불과 10년 이후에나 특별사찰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전혀 없던 유망회왕하는 것은 작게는 북핵협상과 크게는 개방정책을 둘러싼 권력내부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인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과 주도에 보수강경 제동 "혼란" 金正日 선택 따라 협상전망 달라져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김정일의 오산출세에 따라 권력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과 주도에 보수강경 제동 "혼란" 金正日 선택 따라 협상전망 달라져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김정일의 오산출세에 따라 권력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과 주도에 보수강경 제동 "혼란" 金正日 선택 따라 협상전망 달라져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김정일의 오산출세에 따라 권력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김일성 후계자는 '金正日 이후 추경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북한 권력내부의 대립이 노선갈등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北-美 실무회담 열려

내용 알리지 않았으나 의 회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네바=AP】 북 美 실무회담이 3일 제네바에서 3시간 동안 열렸다. 양측은 회담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美·北 실질토의 안해

제네바회담 이후 실질무·전체회의 續開

【제네바 5일 연합뉴스 보도】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5일간의 휴식의 시간을 맞아 5일 오후 5시 30분께 종료됐다.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대표단과 미측의 실무회담은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다.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北지연술... 韓·美 추방수예고

5일 장루치(張在勳)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은 실무회담이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은 실무회담이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개된 美·北 회담 이모저모

美·北 3단계 회담은 2차 회담의 후반기 협상의 5일 재개됐다. 양측은 지난날 30일 이후 5일간의 '정기' 간을 가진 뒤인 5일 회담은 전반기와 비교보다 진척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가들은 실무회담이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측 핵심참모만 배석... 본격 협상

北측 대화 계속 의지... 합의 도출 기대

북한 대표단과 미측의 실무회담이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韓외무 "연료봉 재장전땀 安保理제재" 北 동문서답式 요구... 강경파 입김 추측

"金正日 공식승계 맞춰 일괄타결 수순" 전망도

【서울 5일 연합뉴스 보도】 외무부는 5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실무회담이 5일 오후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회담은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55시간 동안 진행됐다.

후연로해체 단계 설정 異見

美, 北제네바회담 美, 핵심부품 조거 등 요구

어느 회의 수개

【제네바=美로이합통신】

【장】제네바 北美3단계2차회담에서 북한대표단은 현재 진행중인 후연로해체 관련 자료의 해체시기를 미국측

이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시정의 당초 제안과 다른 것으로 6일 합의했다.

이같은 북한의 제의는 원폭제조의 양산체제를 갖 추게 될 50메가와트 및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 관련 해체를 보장하겠다고 나선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 접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외무 소관료는 결국 후연로해체와 후연로해체로 해체라는 한 후연로해체로 해체라는 최종목표의가 北美간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50메가와트 2차회담을 위한 50메가와트 포함된다고 전 했다.

그러나, 후연로해체와 후연로해체로 해체 단계 설정의 의의가 양측이 견해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측은, 결국 후연로해체 이 7년정도의 50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50메가와트 4월 4일 양측의 의의가

이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국 후연로해체로 2백메가와트 후연로해체로 2년후 중립화할 수 있다고 지적, 조기진설 중단과 아울러 핵심부품의 조거를 요구하고 있다.

美, 北에 합의 문후案 제시

제네바회담

核동결 1월 내 경수로해체 지원 돌입

대체에너지

후연로해체

연락사무소

【제네바=美로이합통신】

회담에서 핵동결을 위한 3개월 내 18개월 내 6개월 내 설치

제네바의 한 정통화 소

아닐, 전문가회담을 열

원자로 폐쇄의 상충한 대

대한 보강을 1년 6개월

다. 에 각각 시행한다는 것이

다. 【제네바=美로이합통신】

【장】제네바 北美3단계2차회담에서 북한대표단은 현재 진행중인 후연로해체 관련 자료의 해체시기를 미국측

이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시정의 당초 제안과 다른 것으로 6일 합의했다.

제네바 협상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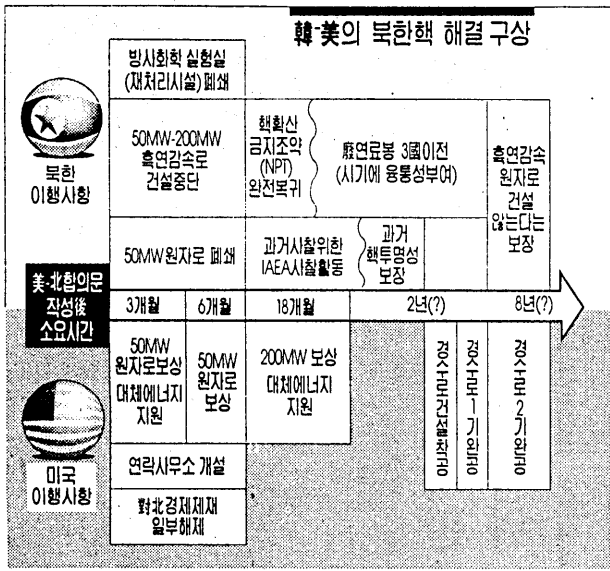
○北美美國간 고위급 회담은 6일 6일 이틀에 걸쳐 제네바에서 열렸다. 양측은 후연로해체와 핵심부품 조거를 위한 3단계 회담을 위한 3차 회담을 11월 1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양측은 11월 1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양측은 11월 1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北-美회담 '제자리걸음' 추추만 무성

○6일, 북미 회담은 제네바에서 열렸다. 양측은 후연로해체와 핵심부품 조거를 위한 3단계 회담을 위한 3차 회담을 11월 1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양측은 11월 1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장】제네바 北美3단계2차회담에서 북한대표단은 현재 진행중인 후연로해체 관련 자료의 해체시기를 미국측이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시정의 당초 제안과 다른 것으로 6일 합의했다. 이같은 북한의 제의는 원폭제조

美, 폐연료봉 처리시기 융통성



미국의 조지프 파크와 북한은 6개월내에 폐연료봉을 3국(美·韓·日)이 전하는 데 합의했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北회담 정점

美제시합이민부담부담

「대체에너지」 사실상 합의상태

일괄타결맨 「6개월내 연락사무소」美서두는 인상

경수로완공후 3국이전 목적인

미국의 조지프 파크와 북한은 6개월내에 폐연료봉을 3국(美·韓·日)이 전하는 데 합의했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사령관 "美北회담은 10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200MW 원자로를 제공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절후 3주째

미북회담이 8일 제네바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北회담, 막판 「신경전」 양상

5시간 늦게 열려... 의전절차 무시

귀국비행기편 같은날 예약... 타결전망 불투명

미북회담이 8일 제네바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파크는 "북한은 6개월내에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과거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할 경우, 미국은 200MW 원자로를 보상하고, 50MW 원자로를 대체에너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수로 완공전 특별사찰 수용"

미-북제네바회담 구체 실시 시기 이견... 막판협상

▽서울신문 1994. 10. 11

【제네바=연합통신】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북·미, 특별사찰 계속 이견 경수로 지원방안만 일부 합의

【제네바=연합통신】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동아일보 1994. 10. 12

【제네바=연합통신】 북·미 양국은 11일 제네바에서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北 태도 경색 조짐

北·美 제네바회담 '제자리'

【제네바=연합통신】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NPT-북핵문제에 합의된 안건 작업 양측, '북핵 문제' 협의의 뒤 임박 타결 가능성

【제네바=연합통신】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미북회담이 10일 미북 대표부에서 대표단 전체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미북회담이 이르면 경수로 지원

美國型경수로 검토

지난8일 크리스토퍼國務, 한국에 극비 타진

미국 원전 업체 제너럴에너티(GE)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이 타진은 미국의 원전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8일 서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세계일보 1994. 10. 13

財政·건설은 韓國에서 주도

韓외무 "한국형 관철토록 주문했다"

미국 원전 업체 제너럴에너티(GE)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美-北 회담 돌파구 열리는가

核·정전 회담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美, 북측에 관계정상화 '당근' 주문

특별차량 시키 '연료' 동맹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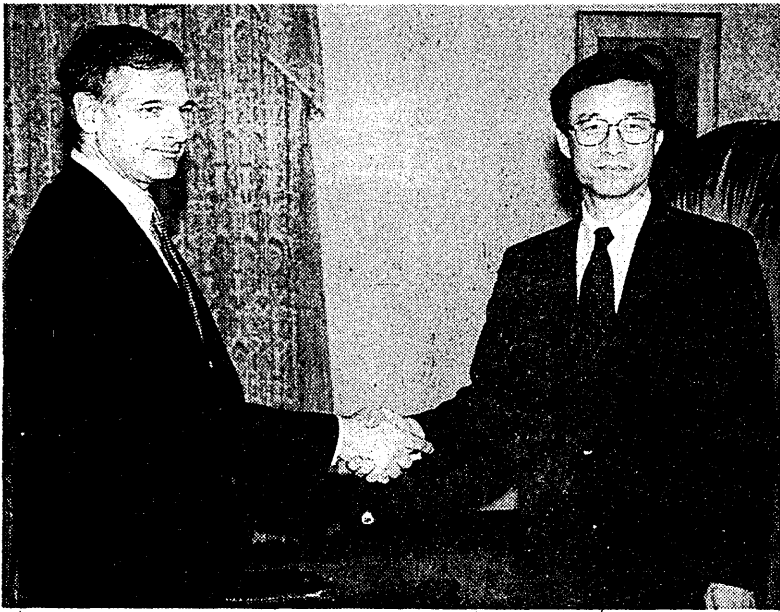
미국 국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국무장관은 13일 『서울경제』를 통해 미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다고 타진했다.

美, 北核협상 "대폭양보"

정부 "추비상"

미국이 북핵협상을 위한 대폭 양보를 하고 있다. 특히 핵협상 시기도 후퇴하고 있다. 북한측의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북한측의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북한측의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협상을 위한 대폭 양보를 하고 있다. 특히 핵협상 시기도 후퇴하고 있다. 북한측의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북한측의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제네바 北-美핵협상에서 미국이 경수호형, 특별사찰 시점 등에 대해 북한측에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상당한 파문이 일 조짐이다. 韓류 아시아외무장관과 지난 3월 방한했던 갈루치 제네바美협상대표는 같은 글을 나누긴 했었는데...

「美경수로 강행맨 자급부담」 관련 韓國입장 거의 배척 : 「共助」 휴지화

이전 미국은...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에 대한...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한편...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韓美협상... 共助... 휴지화...

〈柳箕然기자〉

“韓·美 끝내 「空助」 우려

대외부심 「解明」에 고민

북한핵무기개발을 다룬후 정부당국자들이 「총체적 고민」의 표정이다. 북·美·중·일·러·제네바 핵합상의 최종단계인 북·美·중·일·러 5국 합의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우려는 핵합상의 진척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13

북한핵무기개발을 다룬후 정부당국자들이 「총체적 고민」의 표정이다. 북·美·중·일·러·제네바 핵합상의 최종단계인 북·美·중·일·러 5국 합의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우려는 핵합상의 진척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13

北核합의 秒읽기

美측입장 = 정부반응



원자로연료재정비증기 발생기가 압기 터빈 발전기 등 輕水爐발전의 필수적인 핵심기재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막는다는 선에서 의전적 협력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13

경수로·特別사찰 우리측 주장 외면 南北관계보다 北·美우선 인상 당혹

원자로연료재정비증기 발생기가 압기 터빈 발전기 등 輕水爐발전의 필수적인 핵심기재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막는다는 선에서 의전적 협력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13

원자로연료재정비증기 발생기가 압기 터빈 발전기 등 輕水爐발전의 필수적인 핵심기재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막는다는 선에서 의전적 협력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13

원자로연료재정비증기 발생기가 압기 터빈 발전기 등 輕水爐발전의 필수적인 핵심기재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막는다는 선에서 의전적 협력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13

미국의 이번 北核합상의 의도는 그동안 한류의 강렬하게 주장해오던 세계적 스한류 협정수준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노적 연합수행 수완을 지닌 이전부터 특설사찰이었던 스한류대화와 北美관계진전의 필요성을 보여 두가지

관심사키외 특별사찰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특별사찰에 있어 일관된 양보하리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회담대표 부트레프를 특별사찰에 의해 두

관심사키외 특별사찰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특별사찰에 있어 일관된 양보하리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회담대표 부트레프를 특별사찰에 의해 두

관심사키외 특별사찰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특별사찰에 있어 일관된 양보하리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회담대표 부트레프를 특별사찰에 의해 두

클린턴의 선거용 카드

클린턴의 선거용 카드... 5년후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12단계의 일치는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10월 11일 김대중의 특별사찰이 이루어질지

核투명성 「현재·미래에 비중 더 든듯 중간선거 대비 「점수다기妥協」 의지

원자로연료재정비증기 발생기가 압기 터빈 발전기 등 輕水爐발전의 필수적인 핵심기재가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막는다는 선에서 의전적 협력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13

北·美, 核 사실상 타결

발표 임박... 6개월내 연락 사무소

경수로로 초부품 반입 전 특별사찰 美에 경수로로 일임... 한국형 결정 폐연료봉 건설보관후 3국이전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워싱턴 15일 AP통신】미국과 북한은 15일 양국간 핵 협정 타결을 발표하고, 6개월 안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미국은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말까지 핵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미국은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말까지 핵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상한 부분이 건설과 기술재정을 주고받는다는데, 양국은 수교를 맺은 것이다. 양국은 양국의 주역 협정인 「핵연료봉 건설보관후 3국이전」을 합의했다. 양국은 6개월 이내에 평壤과 워싱턴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양국은 6개월 이내에 평壤과 워싱턴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北도 특별사찰 유연성

미도 특별사찰 유연성

【워싱턴 15일 AP통신】미국과 북한은 15일 양국간 핵 협정 타결을 발표하고, 6개월 안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미국은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말까지 핵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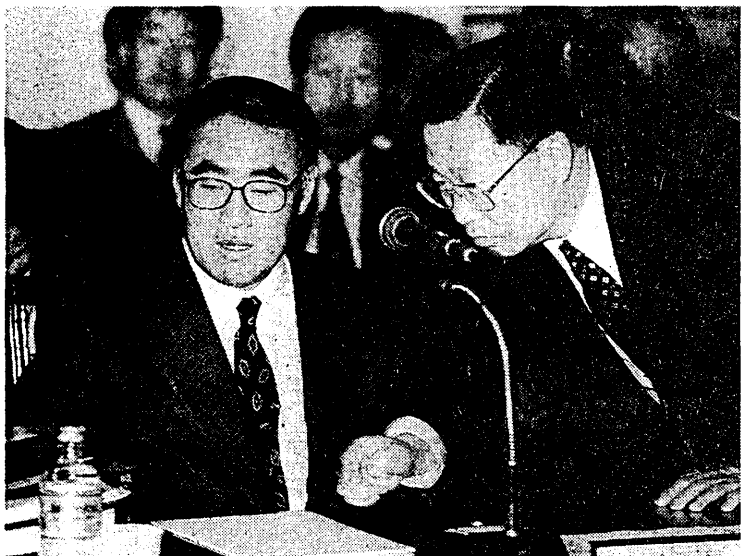
미국은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말까지 핵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미국은 특별사찰 용어 대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말까지 핵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美北「제네바협정」虛와實

제네바에서 기록적인 장기회담을 벌인 북미회담 대표단인 북한측이 합의문에 합의한 후... (transcription of the article text)

北核「未完」의 해결



◇李洪九동일부총리가 14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의무통일위 국감에서 「제네바 미-북 협상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난감한 표정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過去구명우보... 투명성보장 미흡 核연료해체등 현상동결엔 진전

(NPT)에서 탈퇴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특별사찰 문제였다. 사실은金正日이 핵전쟁의 마지막 선을 특별사찰수용불가에 찼다... (transcription of the article text)

종화를 풀이준 셈이다. 미국의 핵 보유 50년간의 해체... (transcription of the article text)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 타결 앞둔 제네바 표정

온종일 협상... 마무리 초읽기작업 미 대표부 「한국 특파원 다 있나」

◇...15일을 타결 목표로 정하기라도 한 듯, 북한과 미국은 막판 회담에서 숨겨진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미국 대표부에서 열린 실무자급 회담은 양측 참석자들이 점심까지도 꾸준한 협회기로 간단히 마무리하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무려 10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는가 하면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는 등 마무리작업에 전력을 쏟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막판의 집중적인 회담이다. 미 대표부에서 13일 저녁에 「현재 제네바에 한국 특파원들이 모두 남아 있는지」를 문의하기까지 해 주말 대타결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었다. ◇...13일 미국이 내놓은 합의문 초안을 가지고 무려 10시간 동안 실무회담이 열리자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1백일이 되는 15일에 맞춰 회담을 성사시켜 김 주석과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위에 앉게 될 김정일 당비서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려는 게 아닌

가 하는 분석이 나돌기도 했다. 북미 회담에 정중한 외교소식통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양측이 이번 주말 타결을 목표로 3단계 2차회담을 벌여 왔으며, 북한이 김 주석 사망 1백일과 김정일 후계자의 공식 권력승계라는 국내외 정치적요소에 맞춰 회담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분석해 왔다. ◇...미국이 특별사찰 시기나 사용후 연료봉 영구처리, 핵연감속 원자로 완전체제의 최종시기에서 상당한 신축성을 보인 데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핵연감속로 해체 등의 최종시기에 경수로 완공

과 맞물리도록 하는 신축성을 보이면서도, 실제 중간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활동을 무력화하는 '실리'를 행기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거기 미국은 사용후 연료봉의 영구 처리를 위해 최종 목표로 제3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그 시기를 경수로 완공시기와 맞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중간단계 조처로 건설보관을 하는 한편으로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시설을 폐쇄하는 조처를 얻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원천봉쇄해 핵활동을 무력화하는 '실리'를 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두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클린턴 대통령과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해 미국 관리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오히려 '자기들의 갈 길'을 더욱 재확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일부 보수 언론과 강경파들이 특별사찰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처지와 협상전략을 도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국내 강경파들이 특별사찰 문제를 자주 거론하면 특수로 특별사찰의 '값'은 올라가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北核개발위해 돈내그걸

「核투명성」 어디로 갔나

「先경수로건설 後사찰」문제 심각

4~5년뒤 사찰하면 하나하나 폐연료봉·남북대화도 하지부지

5년뒤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북의 제2차 핵합의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李두봉의 美北합의 수용일견

정부는 타결의 임박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미-북의 제2차 핵합의는 핵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한편 핵과 사찰의 시기 문제를 놓고도 관측이 분분하다.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미국의 과거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관측자들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자국의 핵개발을 위한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북한은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가부담이 막대한데다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양국 수석대표

【제네바=연합통신】15일 오전 11시 50분 (현지시간 오후 6시 50분) 송과 된 미북한고 위급회담에서 북한 대표姜錫柱는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자의 불타」 관련 모두가 북한에 대한 핵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의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北 "타결임박" 美 "진전없다"

정부는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핵합의가 체결되면 북한은 핵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생긴다.

□ 이흥구 부총리 남북관계개선 적극표명 배경

북 권력승계 가시권 '대화 재개' 포석

북-미협상 과정 한-미 공조 '미찰' 복원 의지도

박종언 기자

이흥구 통일부총리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날 밝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부총리가 지금까지 줄곧 밝혀온 대북정책 기조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남북 관계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와 대화 촉구 의사를 비쳐왔다.

그러나 이날 입장 표명은 무엇보다도 북-미회담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회담 타결을 전제로 수용 방침을 밝힌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또한 철저히 화해기조 위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앞장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정부의 입장 불투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처럼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강경 세력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주사파 파동'이나 특별사찰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악재로 둔갑할 위험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회담이 타결되는 순간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북한과의 관계 증진 움직임을 서두를 것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춰 이런 상황은 '남한의 소외'라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도문에 '안정속에서'라는 표현을 두번씩이나 답는 등 이번 조처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 출범할 김정일 체제에 보내는 메시지임을 분명히했다. 이 부총리 또한 "북한의 불안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는 불과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불안정성을 거론하면서 북-미회담 진행과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마치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또 좀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힘으로써 막바지 문안작성 과정에서 남북대화 재개 시한을 담는 문제로 북한쪽과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협상력

을 높인다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적잖은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북한은 이를 빌미로 대화 재개 시기 명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미간의 공조 이상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의 이런 조처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쪽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원칙적인 의사 표명 선에서 그친 점은 국내 강경세력들에 대한 무마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남북대화를 꺼리는 북한이 정부의 제의에 응할지 확신이 서지도 않는 상황에서 먼저 제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강경세력들에게 대화 무용론의 발미만 제공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입장을 보인 데는 북한의 공식 권력승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번주 중반에 김정일 당 비서의 총비서 취임 등 공식 절차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입장 표명은 그에 대한 사전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金泳三대통령은 10여일 전부터 북한핵문제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10여일전부터는 국정감사등 일반적 인 국事は 아예 관계장관과 수석비서관들에게 맡기고 「오직」 핵문제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李洪九 통일부총리, 朴寬用 청와대 비서관, 韓昇洲 외무장관, 鄭鍾旭 외교안보수석, 李源宗 집권수석을 수시로 부르거나 전화로 통화했다. 인터넷 호출도 잦아졌다고 한다. 그 바람에 다른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美에 의견반영-여론수집 주력

龍 미주 국장등 외부부립외에 별도로 직원을 제네바 현장에 보내 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해왔다. 외교안보 비서관 진원철은 16일에도 출근, 제네바뿐 아니라 平壤 상황까지 챙기고 있었다. 韓昇洲 외무장관을 비롯한 외무부의 「핵라인」도 이 때보다 분주했다. 제네바 현지의 張 미주 국장으로 부터 문안협상 진척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총력을 보였다. 金三勳 핵대사, 尹炳世 북미 1과장 등 관계자들은 14일부터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특히 이들은 회담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하자 정부의 대응능력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발표시간이 압박할수록 韓昇洲는 단명한 표정이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외무안보팀의 「無所信(무소신)」을 질책하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 앞에서도 「북핵 정책의 功過(공과)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金昌基 洪錫後기자>



“北核문제 일단락”

추진중인 남북회담-경협 유연 대응

정부는 15일 미북간 제네바회담의 결과보고서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정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핵개발면 진행적 對北정책”

송대환영장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정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남북대화 민주적이어야 한다”

美갈루치에 매달리는 政府

제네바에서 북한과 합의 있는 사안만 바로 「남북대화」를 시작하라는 갈루치(루치)의 발언은 미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의 우려가 증폭되자, 청와대 측은 연립사부소 개설을 위한 협상을 앞당기고 있다. 갈루치의 발언은 미국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미북간 제네바회담의 결과보고서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정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15일 미북간 제네바회담의 결과보고서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정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있다.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사화학실 완전해체 희망

폐연료봉 처리시기 양보로 근후 방사화학실 완전해체 희망.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루치는 미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북 제네바회담 요지

사안	담초입장		합의
	한-미	북한	
과거핵사찰	경수로 착공전 「특별사찰」 불가	「특별사찰」 불가	수로 핵공정 선진 수분사찰 불가
폐연료봉 처리	제3국 이전	북한내재처리	북한내 제3국 이전
대에너지	50MW, 200MW 원자로 중대형 원자로 건설	에너지 공급 20억 달러 보상	50MW, 200MW 원자로 중대형 원자로 건설
경수로형	한국형	한국형 거부	미국이 실상 미정(사형)
연립사무소 교환시기	남북대화 진전과 연계	남북대화 와 연계 불가	?
NPT(핵확산금지조약)	완전복귀	탈퇴 유보	완전복귀

북-미협상 막판 진통

미, 남북대화 재개시기·형식 명시 요구로

양쪽 수석대표 회담 속개 성과없이 끝나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회담은 15일 남북대화 재개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3단계회담 개최 이후 가장 냉랭한 분위기가 됐다. 16일 다시 강석주 북한 수석대표와 갈루치 미 수석대표의 비공식 회담이 속개되는 등 막판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양쪽 수석대표는 북한측의 요청으로 16일 오전 11시40분(이하 현지시각)부터 3시간 동안 비공식 회

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친 뒤 미국 대표단은 "오늘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쪽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다시 회담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5일 낮 12시부터 두시간 동안 수석 대표회담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40분까지 대표단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인 남북대화 재

개시기·방식문제를 타결지려 했으나 기본입장이 팽팽히 맞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북한 대표단의 허종 대사는 "수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입장을 미국이 취했기 때문에 회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의 차석 대표인 토머스 허버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회담 뒤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지금 시점에서 다음 회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해 3단계 회담 시작 이후 가장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미국은 이날 남북대화 재개부문에 대한 합의문 작성에서 담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북대화의 재개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가 핵통제 공동위, 고위급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대화의 형식까지를 못박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남북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따라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시기와 형식은 남북이 결정할 문제일 뿐 북-미협상에서 제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이번 합의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착공전」 지뢰밭 준비

〈北·미 협상 진전〉

대체에너지 전기대신 석유 달라
연락사무소 사실상 대사급 요구
IAEA협상 지정시설 사찰 방해
NPT 복귀 「강대국 불공정」 계속시비



◇美-北 고위급회담의 양측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부차관보(왼쪽)와 姜錫柱 북한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단계 회담 마지막날 입장에 들어가기 앞서 악수할 하는 모습. 【제네바=AP통신】

〈美·北 협상 진전〉

양측 수석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오늘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쪽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다시 회담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5일 낮 12시부터 두시간 동안 수석 대표회담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40분까지 대표단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인 남북대화 재

개시기·방식문제를 타결지려 했으나 기본입장이 팽팽히 맞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북한 대표단의 허종 대사는 "수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입장을 미국이 취했기 때문에 회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의 차석 대표인 토머스 허버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회담 뒤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지금 시점에서 다음 회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해 3단계 회담 시작 이후 가장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미국은 이날 남북대화 재개부문에 대한 합의문 작성에서 담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북대화의 재개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가 핵통제 공동위, 고위급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대화의 형식까지를 못박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남북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따라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시기와 형식은 남북이 결정할 문제일 뿐 북-미협상에서 제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이번 합의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北, 합의문 「후시화」 협박 위협 받는다

【제네바=AP통신】 북-미 협상 진전

양측 수석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오늘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쪽은 이날 회담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다시 회담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5일 낮 12시부터 두시간 동안 수석 대표회담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40분까지 대표단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인 남북대화 재

北·美회담 합의사항 공개때 맞춰 정부, 細部사항 공개키로

對국민 설득필요성 판단

美측도 양해 北 선전공세 차단목적도

南北대화·연락사무소연계 美와 합의

정부는 北美 3단계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합의내용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이 고위급 회담이 北美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정부 합의내용의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고고 부하의 합의사항부 방안을美측과 협의중인 이를 사전에 만드는 차원에서 그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키로 한 것이며美측도 이를 양해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北美회담의 합의문안에 남북대화부분이 명시적이며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남북 대화와 北美간 연락사무소설치를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정부는 3단계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합의내용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이 고위급 회담이 北美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정부 합의내용의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정부는 이같이 방침이다. 北美회담 타결후 외교통부합의의 사전공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부가

정부는 한편 北美회담의 합의문안에 남북대화부분이 명시적이며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남북 대화와 北美간 연락사무소설치를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정부는 이같이 방침이다. 北美회담 타결후 외교통부합의의 사전공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부가

美·北회담 또 空轉

갈루치 오늘 歸國 가능성

「南北대화」 명시 사고 異見

【제네바=연합】미국과 북미회담이 17일 오전 제네바에서 北美대표부에서 실무협상을 재개, 「남북대화재개」의 합의문 산본 여부를 놓고 마지막 절충을 벌였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양측은 그동안 IT부기 특별사찰을 행한

련 정점사항을 대부분은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는 제들에 합의했으나 남북대화 재개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다라 관측통들은 「남북대화재개」란 용어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으로 IT부기 특별사찰을 행한 문구를 수정해 합의문에 넣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갈루치美수석대표는 北美협상이 남북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끝내 매듭짓지 못할 경우 18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 협상은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美 합의문 지연

【제네바=韓基泰특파원】北美고위급회담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대립을 보여 17일(현지시간) 현재 핵문제의 일괄타결 일보직전에 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2. 『基本合意文』採擇

南北대화 재개 明示

北·美, 18개월만에 核타결... 21일 조인

경수로 3·4호기형 제공

北, 특별사찰·核동결 약속



◇김두기(美 국무부 차관보)와 장경주(北 외무부 차관)가 21일 평양에서 1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의 재개 의문을 채우고 3년째

【제네바=합동통신】북한과 미국은 17일 평양에서 1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의 재개 의문을 채우고 3년째

북한은 특별사찰 거부로 부터 야기된 북한 핵문제 는 안전해졌으며 양측 은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열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1일 조인된 3·4호기형 경수로에 대한 핵 동결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다.

북한은 특별사찰 거부로 부터 야기된 북한 핵문제 는 안전해졌으며 양측 은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열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1일 조인된 3·4호기형 경수로에 대한 핵 동결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다.

南北 체제승인단계 검토

통일관계장관회의 대화前이라도 교류협약

정부는 제네바 北美 회담 합의 이후 비핵화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정부는 고위급 차관보 인도를 불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3·4호기형 경수로에 대한 핵 동결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다.

합의문 주요내용

IAEA서 특별사찰

북한은 경수로관련 핵심부품의 인도 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특별사찰)를 포함한 IAEA안전조치 의무를 전면이행한다.

北의 核관련시설 해체

- ▲북한은 핵활동의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을 해체한다.
- 5MW 원자로의 핵연료 재장전포기 및 추후해체
- 50MW 및 2백MW 원자로의 건설중지 및 추후해체
-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 즉각폐쇄 및 추후해체
- ▲북한은 IAEA의 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한다.

廢연료봉 제3국이전

- ▲경수로건설기간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 궁극적으로 제3국에 이전한다.
-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회의를 개최, 연료봉의 안전보관 및 처리문제를 협의한다.

北, NPT에 완전복귀

북한은 NPT에 완전복귀하고 임시 및 일반사찰을 이행한다.

대체에너지 重油공급

미국은 북한에 대해 5MW 원자로 기동과 흑연원자로(50·2백MW)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경수로제공시까지 공급한다.

非核化 공동선언 이행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2,000MW급 경수로제공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약 2천MW의 경수로를 제공한다.
- 현재 건설중인 울진 3, 4기 원자로형 2기를 제공하기로 韓美간에 합의.
- ▲미국은 경수로제공관련 재정조달 및 공급기능을 수행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과 경수로공급계약을 체결한다.

北·美연락사무소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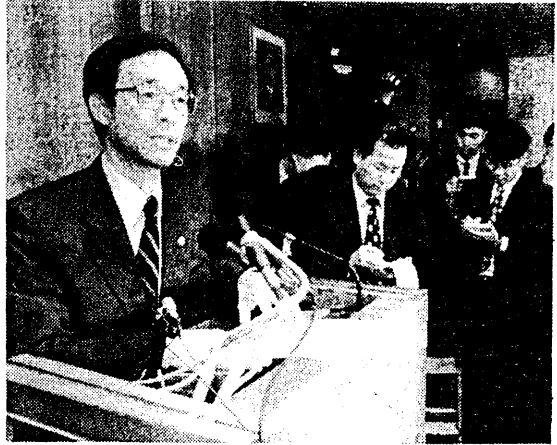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 ▲北美전문가회의에서 제반 기술적 문제해결 때 양측은 연락사무소를 교환한다.

【제네바=합동통신】북한과 미국은 17일 평양에서 1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의 재개 의문을 채우고 3년째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이 국제컨소시엄의 대표로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은 이를 위해 기간에 국제컨소시엄의 구성을 완료한다. 2003년경부터 북미가 경수로건설에 착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대외적으로 핵 동결 약속을 이행하고 고위급 차관보 인도를 불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3·4호기형 경수로에 대한 핵 동결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다.

대체에너지 韓國참여 거론안돼

韓의무장부처·姜錫柱 일관된 입장



◇韓의무장부처인 18일 韓의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姜錫柱(右) 장관이다. <중앙일보 기자>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찰 후퇴했지만 核동결 일어내 과거核규명 위한 IAEA 활동 보장 합의서가 이행되면 核문제 해결 확신

韓의무 장부처 姜錫柱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미북북대화 재개가 가능성”

韓의무 회견 北 기준 核시설 해체·과거 규명 가능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의무 회견】 韓의무장부의 姜錫柱 장관은 18일 北-美 核협상 관련 韓의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韓의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韓의 입장을 밝혔다. 姜 장관은 韓의 핵에너지 개발은 韓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美합의 항구별 분석

北韓과 美國의 3차 핵 협상... 南北韓의 3~5년 이내...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50 MW 원자로 가동과 50 MW 2차 원자로 건설...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특별사찰 3~5年後에나 가능

북한 특별사찰... 3~5년 후...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평양공동 건설보관」관철 과제로 南北대화 시기 명시안돼 "불안"

평양공동 건설보관... 南北대화...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北韓의 핵 보유... 美의 핵 보유...

북한핵 협상日誌

- 고시설사찰수용,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재개, 94년 람스퍼리트 훈련중지, 3단계고위급회담 개최 일정 합의
△ 3월 1~15일 = 북한핵사찰
△ 3월 31일 = 유엔안보리 북한추가사찰수용 촉구 의장서명 채택
△ 5월 27일 = IAEA 사찰실과 안보리 보고
△ 6월 10일 = IAEA 북한제재결의안 채택
△ 6월 13일 = 北 IAEA 탈퇴선언
△ 6월 15~18일 = 카터 前美대통령訪北
△ 6월 18일 = 南 남북정상회담수용
△ 7월 8일 = 北-美 3 단계 고위급회담 시작, 金日成사망
△ 8월 1일 = IAEA 사찰재개
△ 8월 5~13일 = 北-美 3 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 美 2천MW급경수로제공, 상호 연락사무소설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행, 北 NPT 잔류
△ 9월 10일 = 北-美전문가회의의 시작
△ 9월 23일 ~ 10월 18일 = 北-美 3 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 협상타결

美정부 "妥結환영"

핵전문가들 "과거규명못해"

日선 北경수로 支援기틀로 착수

계 아인 다름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한 협정문의 의의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핵 전문가들은 "과거 규명 못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五十風廣三) 관방장관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핵 실험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19일 = 鄭鎮碩 李 昌敏 특파원】 미 정부는 18일 北美회담 타결로 북 핵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고 환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협조로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北 제네바회담 타결 각국반응

【미주】 미 중앙정보국은 18일 제네바 회담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북 핵의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五十風廣三) 관방장관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핵 실험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국제사회복귀 계기돼야

한반도 평화-非核化에 크게 기여 특별사찰포함 성과... 곧 접촉강화

美國

中國

日本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五十風廣三) 관방장관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핵 실험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野 환풍기 켜

北美회담 타결로 환풍기 켜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환풍기 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타결된 대 핵 협정을 표시하고 북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五十風廣三) 관방장관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핵 실험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핵 전문가들의 협조로 협정 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결과” “한반도” “이젠 남북대화”

北·美 타결 政治圈 반응

정당

제네바 북·미 합의가 체결된 것에 대해 정당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북·미 타결이 한반도의 긴장 해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동당

노동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민당

한민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당

우리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북·미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與野 모두 긍정적... 한반도 긴장 해소 기대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군사적 파장

북·미 타결의 군사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문화적 파장

북·미 타결의 문화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환경적 파장

북·미 타결의 환경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사회적 파장

북·미 타결의 사회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해 타결’ 각국 언론·전문가 반응

◆〈뉴욕 타임스〉는 18일 미국이 제네바 핵협상에서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실(특별사항)을 연기하는 데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고립과 서방과의 불신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북한이 수개월내 또는 수년내에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그러한 사찰이 이뤄질 때까지 북한이 결코 경수로 건설 관련기술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들은 또한 미국측이 8천 개의 핵연료봉을 제3국에 이전해

해결했다며, 이번 타결로 동북아시아의 핵경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일정한 핵시설을 보유할 수 있고 서방의 새로운 핵기술이 들어오기 전까지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시설의 해체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에 이끌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또 북한이 미국에 양보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북한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해, 위기에 처한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외교관계의 필요성을 북한 지도부가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의 사찰을 결과적으로 허용

은 두 나라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양국 실무자 협의에 위임하고 있어 합의내용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두 나라의 핵 협상은 극적 타결을 봤으나 교섭 경로로 볼 때 설사 정식조인을 하더라도 실현단계까지 여과가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가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유지와 비핵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주류로 보였다. 한편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

은 중국이 이번 타결로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번 협상에서 얻어진 북·미 관계 개선과 그에 따라 북·일수교개시가 속화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의 교차승인이 실현돼 한·중·일·미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18일 북·미 핵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일단 논평을 유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통신과 방송 등은 이날 새벽(현지 시각)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재개된 아침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논평하지 않았다. 또 신문들도 최근 들어 북·미회담의 진전상황을 논평하지 않거나 사실만 간단하게 보도해왔다.

미, 북한 신뢰구축 시간주려 사찰연기 일, 합의실현까지 여러가지 난관 예상 중, 한반도 비핵화·4강 교차승인 기대

아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해 1년 이상 북한내 ‘냉각조’에 보관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연료봉은 결국 재처리하기 위해 제3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관리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일정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듣고 난 뒤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밝히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미 관리들이 북·미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으나 합의내용이 이행되는 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도 그동안 미 행정부를 괴롭히던 외교정책상의 여러갈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한 것은 북한의 ‘놀라운 양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협상타결의 돌파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불만과 우려를 표시해온 한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미국의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북·미 합의 내용을 환영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 신문들은 이날 석간에서 북·미 합의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니혼게이지(신문)〉는 “북·미 핵문제 기본합의 배경에는 결렬이라는 사태를 피하는 동시에 교섭을 진전시켰다는 인상을 나리 안쪽에 강력하게 심어주려

은 중국이 이번 타결로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번 협상에서 얻어진 북·미 관계 개선과 그에 따라 북·일수교개시가 속화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의 교차승인이 실현돼 한·중·일·미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18일 북·미 핵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일단 논평을 유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통신과 방송 등은 이날 새벽(현지 시각)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재개된 아침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논평하지 않았다. 또 신문들도 최근 들어 북·미회담의 진전상황을 논평하지 않거나 사실만 간단하게 보도해왔다.

는 중국이 이번 타결로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번 협상에서 얻어진 북·미 관계 개선과 그에 따라 북·일수교개시가 속화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의 교차승인이 실현돼 한·중·일·미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18일 북·미 핵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일단 논평을 유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통신과 방송 등은 이날 새벽(현지 시각)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재개된 아침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논평하지 않았다. 또 신문들도 최근 들어 북·미회담의 진전상황을 논평하지 않거나 사실만 간단하게 보도해왔다.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군사적 파장

북·미 타결의 군사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문화적 파장

북·미 타결의 문화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환경적 파장

북·미 타결의 환경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사회적 파장

북·미 타결의 사회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

북·미 타결의 경제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

북·미 타결의 외교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

북·미 타결의 정치적 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북미 합의 주요내용

경수로 기자재 인도전 특별사찰 전면이행 영변 방사화학실 즉각 폐쇄... 핵활동 중단

윤국환 기자

외무부가 18일 발표한 북-미 회담 합의는 북한이 경수로 및 경수로 건설기간중 대체에너지를 지원받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그 대가로 시설 해체 등 핵합동을 전면 동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별사찰=북한은 경수로 관련 핵심기자재를 인도받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한다. 시기적으로는 앞으로 대략 3~5년 뒤가 될 전망이다. 과거 특별사찰을 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던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시설 해체=북한은 모든 핵합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한다.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장전을 포기한 뒤 추후 해체하며, 건설중인 50메가와트와 2백메가와트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재처리시설인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은 즉각 폐쇄한 뒤 추후 해체한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동결과 관련한 감시활동에 모든 협력을 제공하며 현재와 미래의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해 장래의 핵위협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 연료봉 처리=경수로 건설기간중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한 뒤 궁극적으로는 제3국으로 이전한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회의를 열어 연료봉 안전보관 및 처리문제를 협의한다.

◇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북한은 조약에 완전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 및 일반사찰을 받도록 한다. 조약 복귀는 앞으로 북한의 핵활동이 모두 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행해지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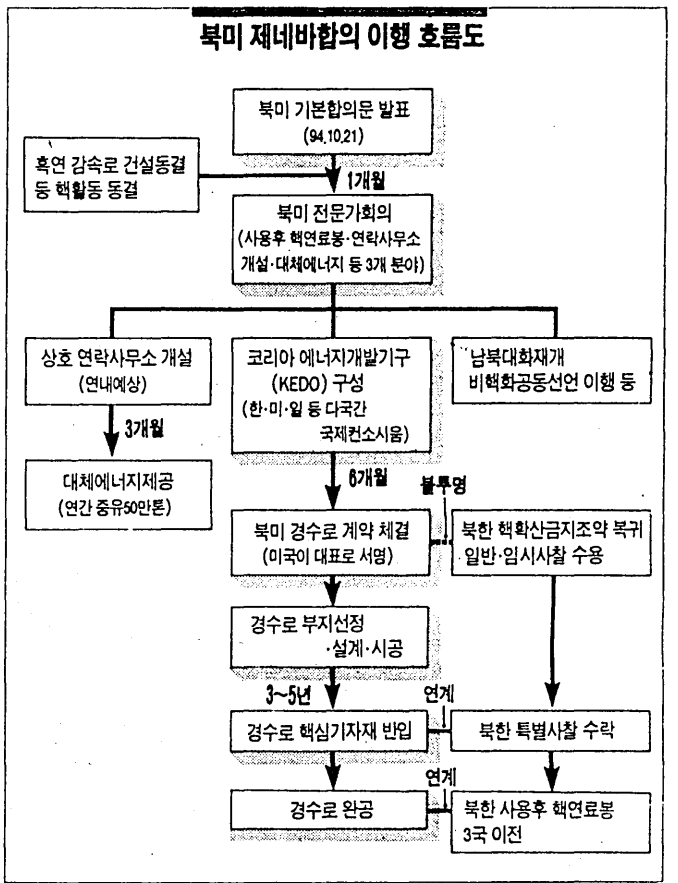
◇ 경수로 지원=미국은 북한에 총 2천메가와트의 경수로를 제공하며 미국은 관련 재정조달 및 공급기능을 수행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 자격으로 북한과 경수로 공급 계약의 체결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미국·일본 세나라는 현재 건설중인 울진 3·4호기 원자로형 2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 대체에너지 지원=미국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핵연감속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는 데 따른 대체에너지를 경수로 제공 때까지 공급한다. 지원에너지는 중유로 하고 연간 최고 50만톤으로 한다. 북한은 그동안 원유를 요구해왔으나 열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유 지원이 결정됐다.

◇ 남북대화 재개=회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남북 대화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남북대화 재개'를 포함한 것은 남한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 북-미 관계개선=미국은 대북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 일부를 해제하며 북-미 전문가회의에서 제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양측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기로 한다. 개설시기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나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은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흐름도



구분	회담전 입장		합의 내용	비고
	韓·美	北韓		
남북대화	北·美관계개선과병행	합상대상이아님	원칙명시	시기명시 안됨
과거핵사찰	경수로착공전 「특별사찰」	특별사찰 불가	경수로해심부품도착전IAEA 안전조치의무 전면 이행	특별사찰용어안쓰
경수로 노형	한국형	독일형	2천메가와트급 경수로	사실상 한국형
연락사무소	남북대화와 병행	조기개설	제반기술적문제해결시 개설	시기명시 안됨
사용후 연료봉처리	3국이전	국내연구보관	경수로1기완공시점에 제3국이전	-
핵연감속로동결	공시중단 및 해체	공시중단	공시중단후 해체	-
대체에너지제공	석탄	경유	중유	경수로제공시까지

북미 합의의 주요 내용은... (text continues vertically)

북미 합의의 주요 내용은... (text continues vertically)

완료까지 10년

地雷밭도처에

「北美 합의론」 문제점

北美 합의의 주요 내용은... (text continues vertically)

5년뒤 상황 불투명... 거부편 속수무책 특별사찰 핵심기자재등 해석싸고 논란소지 많아 경수로 재개시점 明記안돼 死文化 위험성다분 남북대화

5년뒤 상황 불투명... (text continues vertically)

5년뒤 상황 불투명... (text continues vertically)

5년뒤 상황 불투명... (text continues vertically)

北·美核타결이후

경수로

경수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합작투자사업인 설비에 따라 하청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합작투자사업인 설비에 따라 하청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이 국제 컨소시엄 주도

경수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합작투자사업인 설비에 따라 하청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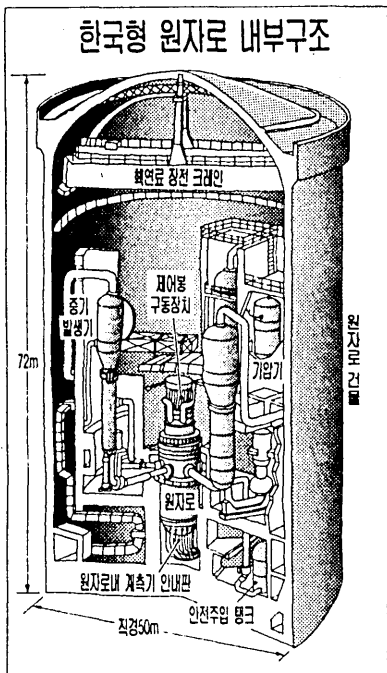
사업비 최고 85% 면안아

관련국 공동출자 법인 설립도 고려

이런 北·美 합작에 관한 사업비 최고 85% 면안아 관련국 공동출자 법인 설립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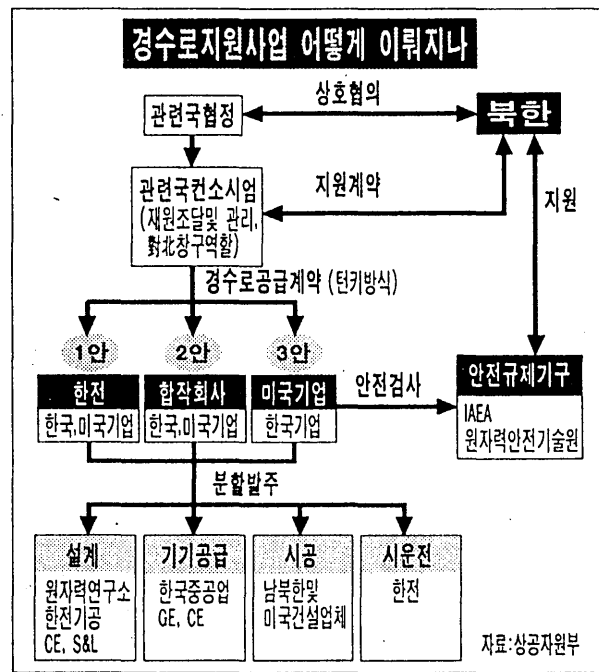
올진 3, 4 호기

올진 3, 4 호기 관련국 공동출자 법인 설립도 고려



한국형 원자로 내부구조

한국형 원자로 내부구조. 원자로 내부에는 연료봉, 제어봉, 감속재 등이 배치되어 있다. 원자로의 직경은 50m, 높이는 72m이다.



경수로 지원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관련국 협정, 지원계약, 경수로 공급계약 (턴키방식), 안전검사, 분할발주, 설계, 기기공급, 시공, 시운전.

北核시설 완전해체 어떻게 하나

北核시설 완전해체 어떻게 하나. 北核시설 완전해체 어떻게 하나. 北核시설 완전해체 어떻게 하나.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선 부품창고 보관법 고집.

北·美고급회담 단계별 진전상황

1단계 (93.6.2~11뉴욕)	2단계 (93.7.14~19제네바)	3단계(1차) (94.8.5~12제네바)	3단계(2차) (94.9.23~10.17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불 사용금지포함 한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포함 ▲IAEA전면 안전 조치의공정성확화, 한반도비확화, 상대반무력 내의 상호준장, 정찰감시보장 ▲한반도평화통일 지지 ▲북한의 NPT탈퇴 협력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핵해결의 일환으로 경수로도입지지 ▲북, 핵문제 해결위해 IAEA와 협의 ▲북, 남북대화개시의표명 ▲2개월내 북·미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2천MW경수로로 제공 ▲외교대표부상처 ▲5MW실험용원자로동결, 50MW·2백MW 흑연강속로건설동결 ▲방사화학실험실패 ▲北, NPT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수로 주요부품 반입 ▲전 IAEA전면사항 ▲5MW실험용원자로및 건설중인50MW·2백MW 흑연강속로동결 및폐쇄 ▲폐연료봉, 경수로 1기 완공후 3목이전 대체에너지로중립적 대북대화와개항의 남북대소시업구성 ▲美對北 무력위협부차제한 일부해제, 양 당사부소포함

3단계 남북회담 전망

남북회담 3단계는 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50MW·2백MW 흑연강속로 건설 동결, 폐연료봉 처리, 핵실험 금지, NPT 복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3목이전 대체에너지'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회담 전망

「남북對話」로 한때 결렬위기 회담기간 25일 「마라톤 협상」

남북회담이 25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회담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50MW·2백MW 흑연강속로 건설 동결, 폐연료봉 처리, 핵실험 금지, NPT 복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3목이전 대체에너지'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회담이 25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회담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50MW·2백MW 흑연강속로 건설 동결, 폐연료봉 처리, 핵실험 금지, NPT 복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3목이전 대체에너지'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美國 서명즉시 「義務」발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표

행동절점	남북관계	타결시점	경수로	대체에너지	북미관계
5MW 원자로공인 50MW·2백MW 건설중단 방사화학실험실패	정전지	1개월	국제컨스시업구성	지원보장	북·미 연락사무소개설
임시·일면사항 NPT 복귀	3개월	계약	5MW 생산에너지제공	5MW+50MW 생산에너지제공	
특정사항 폐연료봉 3공민봉 핵연료공급로 및 방사화학 실험실 전면해제	6개월	타당성조사 실제	5MW+50MW 생산에너지제공	5MW+50MW+2백MW 생산에너지 제공	
	2년	토목공사			
	4~5년	주요기재재범			
	8년	경수로 1기완공			
	10년차 (2003년)	2기완공			

(대표부상처)

단계실천 「보장장치」 마련

남북회담이 25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회담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50MW·2백MW 흑연강속로 건설 동결, 폐연료봉 처리, 핵실험 금지, NPT 복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3목이전 대체에너지'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核활동 중지·경수로공급 계약 1단계
- 연락사무소·흑연로해체 착수 2단계
- 경수로 완공·과거핵활동 사찰 3단계

남북회담이 25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회담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50MW·2백MW 흑연강속로 건설 동결, 폐연료봉 처리, 핵실험 금지, NPT 복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3목이전 대체에너지'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北 '核카드' - '生存' 맞바꾸기

△92년 4월 10일=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
 △" 5월 10~16일=블릭스 IAEA 사무총장 訪北
 △" 12월 19~20일=스미스 美상원의원, POW협약차 訪北
 △93년 3월 12일=북한, NPT 발퇴선언
 △" 5월 10일=美-北, 北京 33차접촉서 고위회담개최 원칙합의
 △" 5월 11일=安理理, 對北 결의안(제 825호) 채택
 △" 5월 17~21일=美-北, 高위회담준비차 뉴욕서 2차례 회동
 △" 6월 2~11일=갈루치 美국무차관보-姜錫柱 北總외교부장, 뉴욕서 제1단계고위급회담, 북한 NPT 발퇴유보 발표
 △" 7월 14~19일=美-北,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회담, 북한, IAEA와 사찰협약 재개동의, 미국, 북한 원자로 경수로 전환지원 시사
 △" 11월 11일=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 제의
 △" 11월 22~23일=金泳三-클린턴 대통령, 워싱턴서 北對韓 공동보조강화 합의
 △" 11월 24일=美, 뉴욕서 북한에 핵관련 韓-美정상회담 결과통보
 △" 12월 3일=북한, 미국에 핵사찰조건 수락제의
 △" 12월 3~20일=美-北, 뉴욕서 3차례 접촉
 △" 12월 29일=美-北,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94년 1월 7일=북한-IAEA, 사찰협상 시작

北核협상 日誌

△" 1월 21일=北, IAEA 사찰조건 수용 불가 선언
 △" 1월 25일=北-IAEA 협상 결렬
 △" 2월 4일=그라이덴 쿽사, 金日成 메시지 백악관 전달
 △" 2월 12일=북한, 핵협상재개의향 시사
 △" 2월 15일=IAEA, 북한핵사찰 수용발표. 美-北, 뉴욕 실무접촉 재개
 △" 2월 23일=IAEA, 북한에 2월말까지 사찰일정 밝히라고 시한 설정
 △" 2월 25일=북한, 3월1일 사찰개시에 동의
 △" 3월 3일=미국, 팀스파리트 중단, 3단계 회담 발표
 △" 3월 1~15일=북한 핵사찰
 △" 3월 31일=유엔안보리, 북한의 추가사찰 수락 촉구 의장성명 채택
 △" 5월 17일=IAEA 새 사찰단 북한 도착
 △" 5월 24일=IAEA 연료봉 협상단 북한 도착
 △" 5월 27일=블릭스, 연료봉 협상실패 안보리 보고
 △" 5월 30일=안보리, 핵연료봉 추후계속 가능조치 촉구 의장성명
 △" 6월 2일=IAEA "북핵 추후 계속 불가능" 안보리 보고
 △" 6월 10일=IAEA, 북한재결의안 채택
 △" 6월 13일=북한, IAEA 발퇴선언
 △" 6월 15~18일=카터 前美대통령 訪北
 △" 6월 18일=북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 6월 22일=클린턴, 北-美3단계회담 7월 재개 발표
 △" 7월 8일=북한 金日成주석 사망, 제네바에서 3단계회담 시작
 △" 7월 9일=북한 金日成주석 사망 발표, 제네바회담 취소
 △" 8월 5~12일=北-美 3단계회담 1차회담, 연락사무소설치등 합의
 △" 9월 10~13일=평양서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의
 △" 9월 10~14일=베를린서 핵전문가회담
 △" 9월 23일~10월 17일=3단계회담 2차회의, 북핵문제 타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10~17합의가 앞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실행가능성이 있고, 양과 위상면에서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남북 대화가 진전되어 사찰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고 북핵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 구도로 볼 때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핵카드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리스크 구제인정,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10~17합의는 남북한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파가 속속 사찰협약 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북 대화의 진전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10~17합의는 남북한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파가 속속 사찰협약 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북 대화의 진전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제네바 北-美 3단계 2차회담이 포괄한 10~17합의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초점을 놓고 고립된 도를 중점으로 하는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합의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북한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카드를 포기하고, 미국이 핵사찰협약 발효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카드를 포기하고, 미국이 핵사찰협약 발효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네바 北-美 核회담의 타결로 한반도도 동북아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회담을 끝낸 후 갈루치 美대표(왼쪽)와 姜錫柱 北대표가 특의에 찬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네바=AP통신)

도 국제적 그림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지를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 구도로 볼 때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핵카드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리스크 구제인정,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10~17합의는 남북한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파가 속속 사찰협약 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북 대화의 진전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金正日, 입지강화 겨냥 개방할 듯 일부조항 생접수지 : 실행엔 險路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동시에 개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인정 을 받으면서 그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 구도로 볼 때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핵카드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리스크 구제인정,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10~17합의는 남북한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파가 속속 사찰협약 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북 대화의 진전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구적 타결 美-北 회담 결산

10~17 합의에 대한 한쪽의 여론은 북핵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핵사찰협약 발효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 구도로 볼 때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핵카드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리스크 구제인정,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10~17합의는 남북한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강경파가 속속 사찰협약 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북 대화의 진전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사찰 협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반도非核化첫조치"

클린턴, 美北합의문 승인 연락사무소 北고립완화

10년간 北에 重油제공 美주도 갈루치

【클린턴=丁海榮기자】클린턴 美대통령은 18일 美-北核타결로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핵무기 생산 능력까지 제거됨으로써 미국과 한반도 및 세계가 보다 더 안정해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제네바 합의문을 공식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19일 오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회의를 소집, 갈루치 수석대표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뒤 발표할 특별 성명을 통해 갈루치 대표에게 21일 제네바로 가서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또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이며 양국 수도의 설치 및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고립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안보상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의 주권과 영토는 3만 8천평의 미군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고한 韓반위협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美수석대표는 백악관의

서 가진 특별 브리핑에서 갈루치가 완공되는 향후 10년간 북한의 중추를 제조하는 데 미국의 양산설치 것이라고 말했다.美판리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이와 관련해 49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건설비용 중 한국의 50%, 일본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하겠다고 미국도 독일 역시 아들의 수급도 부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특필성명

미북과 북한이 17일 미국시간(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원칙서와 합의해기본다. 이 합의는 한반도의 핵확산위협

이다. 미북과 북한이 80년대의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갈루치 수석대표가 제네바에서 16개월의 긴 협상을 벌였으며 미국과 북한은 IAEA가 그 이행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미북과 북한은 또 무효 규정을 완화하고 상해

한반도의 주권과 영토는 3만 8천평의 미군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16개월의 긴 협상을 벌였으며 미국과 북한은 IAEA가 그 이행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미북과 북한은 또 무효 규정을 완화하고 상해

한 고립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클린턴은 또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이다. 양국 수도의 설치 및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고립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4. 10. 20

"한반도非核化첫조치"

北韓 국제사회유인해 큰 의미

중립이란건 미국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잘 짓는다. 이번 합의는 미북과 북한 양측에 유익하고 전 세계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 합의는 미국의 핵무기 생산을 억제하고 북핵 확산을 막아 세계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클린턴은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핵무기 생산을 해 왔다. 우리의 안보와 세계안정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미북과 북한의 무효한 자민체주의 배척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무기 생산 규정에 대해

이제 더는 미북과 북한 양측에 유익하고 전 세계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 합의는 미국의 핵무기 생산을 억제하고 북핵 확산을 막아 세계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클린턴은 밝혔다.

“北-美 비밀각서 있다”

갈루치 밝혀 「合意」 모호성 방지... 北양해사항 담아

▽한국일보 1994. 10. 20

“사찰등 이행에 혼란없을것”

모든 우려 해소엔 大使級외교격상

경수로와 별도 重油공급 컨소시엄도 구성

【워싱턴=金英鎭특파원】다. 北美고위대표단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행정대표는 19일 제네바에서 지난 17일 타결된 北美간 기본합의문에 수평이지에 달하는 비밀각서가 포함돼 있고 이 각서는 합의서가 21일 정식서명된다라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수석대표는 이날 北美외교정보부(USIA)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는 가운데 합의서의 애매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해사항을 담은 비밀각서가 있을 때 부합이 해과거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필요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과 관련한 모든 우려가 해소될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사로 외교관계로 정상시킬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갈루치 수석대표는 이 어 특별사찰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로 원자로의 「주요부품」이란 것은 핵(장비)공급자들의 제반공급 승인공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전소원자로의 핵중기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부품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특별사찰시기는 5년후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경수로지원 을 위한 컨소시엄(가칭 KEDO) 코리아에너지 개발기구)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인 重油공급 면이들 자체 도착이전에 빨리 실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 수석대표는 또 北美 합의문에는 남북 대화재개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을 위해서도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韓軍 후방 再배치돼야”

갈루치 회견 北요구로 秘密부속 합의서 작성

“연락사무소 교환 6개월 걸릴것”

【워싱턴=李相吉특파원】트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北美 위협서는 1차적으로 연락을 제해결한 뒤에도 휴전선 부분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후방이론 재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 포레스터를 화가 선명돼야 하며 따라 협에서 가진 북핵합의에서 휴전선 부근의 진영배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北」측은 북한 군부대의 후방 배치를 해결할 위한 기본 합의문 이외에 이의 이행

을 위한 비밀 부속 합의서 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가 이날 밝혔다. 부속합의서의 작성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를 꺼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특별사찰에 대한 명백한 의미규정과 경수로 공급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행조치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크 매카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문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추가 개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 수석대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平壤-워싱턴 연락사무소 6개월뒤 개설

미국무부 대변인 석달내 對北무역규제 완화

【워싱턴=연합통신】미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David K. Satter)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는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는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는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에 軍事的 양보 없었다”

자료를 건설중인 2개 원자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령이 완료된다는 시점까지 영변(寧邊) 원자로에서 배낸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 사용후핵연료를 인수 보관할 의사를 밝힌 나라가 2~3개국에 이른다고 말했다.

핵연료봉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화학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키드는 밝혔다.

키드는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드는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통신】미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데이비드 키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AEA 키드 대변인 인터뷰

북이 특별사찰 발제 거부했다

【워싱턴=연합통신】미국 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査察시기 결정은 IAEA 고유 권한 北 플루토늄 보유량 생각보다 많을 것

【워싱턴=연합통신】미국 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경수로 지원 국제컨소시엄

이달내 協定체결

韓·美·日·中·러 5國 주도... 英·佛·獨 등도 참여 가능성

정부, 韓電수익금서 총당검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달내의 정부 대표들의 시아동 북한경수로 건설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미국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에서 개최, 코리아에너지개발 연합회가 참가할 바르면 발기(KEDO) 결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한 당국자는 20일 'KEDO 관련 규정을 협의하는 일' 이 기구를 정부간 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KEDO 구성에 관한 국가간 협정(가)안'을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EDO 건설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5개

국가의 협정(가)안'을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KEDO 건설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5개

있는 정황 감안, 관련 국가 협의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KEDO 참여 국들은 이 기구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경수로 건설 자금 부담비율'은 KEDO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 한국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KEDO의 비용은 50~70%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며 이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와 수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박健雨의 부 차관 겸 반장이던 통일원 의무부 안기부장을 의뢰한 부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경제재건·政權안정 절감

외국투자 유치·美와 우대 갈망

【서울 20일 특파원 리포트】 북한은 경제재건과 정치안정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지원과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고,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를 재건하고, 정치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경제 지원과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경제 재건을 이루고, 정치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金正日도 핵타결 원했다"

WP紙 '순조로운 권력승계 과시'

北核해결 4대원칙

北韓 美國간 3단계 교섭과 2차 회담의 서양 의 합의에 따라 10월 21일 8월 11일 1차 회담 결과 북핵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을 합의했다. 4대 원칙은 1. 핵무기 보유 금지, 2. 핵실험 금지, 3. 핵재처리 금지, 4. 핵연료 재처리 금지이다. 그러나 4대 원칙의 합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고지하고 미국이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고지하고 미국이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고지하고 미국이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고지하고 미국이 2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北, 내일 NPT 복귀

〈核확산금지조약〉

합의문發表와 동시에 내년 4월 임시-통상査察

美, 北에 修交 문서보장

월내 경수로 컨소시엄 政府間회의

북한과 미국은 체코바 간 합의문발표와 동시에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파 PPT당사국 지위부채를 본 고위대표단에서 합의의지 복귀하고 북한 핵시설의 단핵 3월 31일 발효를 선언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언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임시및 통상査察 날, 북한과 미국은 현재는 PPT)의 요구가 21일 北美 을 내년 4월에 실시키로 란을 보고 있는 북한의 N T복귀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 당국자는 '북한의 N T당사국으로서의 지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명해 발표하는 의인면 합의문의 합의문의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N T당사국으로서의 지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명해 발표하는 의인면 합의문의 합의문의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나 IAEA의 통상 임 시査察 재개는 합의문서명 6개월뒤인 내년 4월의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 국은 경수로 컨소시엄 계약을 내년 4월 21일까지 체결키 로 하고 이 계약체결 직후 에 IAEA의 對北 통상 임 시査察을 실시키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鞠箕然기자〉

▽세계일보 1994. 10. 21

金正日, 합의문서명 지시

의근부대표의 발언에 【서울=화】북한 김정일이 20일 姜鶴柱 北美고위파 회담북한측 단장에게 합의문의 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북한측 관료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조미회담 북측 단장의 제가분 합의문의 서명하 도록 지시했다고 북한측 관료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N T당사국으로서의 지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조미회담 북측 단장의 제가분 합의문의 서명하 도록 지시했다고 북한측 관료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N T당사국으로서의 지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합의문 서명 이행면 핵문제 尙하 전 해결

【서울=화】북한이 19일 제네바 北美회담에서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 국은 경수로 컨소시엄 계약을 내년 4월 21일까지 체결키 로 하고 이 계약체결 직후 에 IAEA의 對北 통상 임 시査察을 실시키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합의문서명 이 행면 핵문제 尙하 전 해결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 국은 경수로 컨소시엄 계약을 내년 4월 21일까지 체결키 로 하고 이 계약체결 직후 에 IAEA의 對北 통상 임 시査察을 실시키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 부담고려안해

政府 "한국은 경수로 건설만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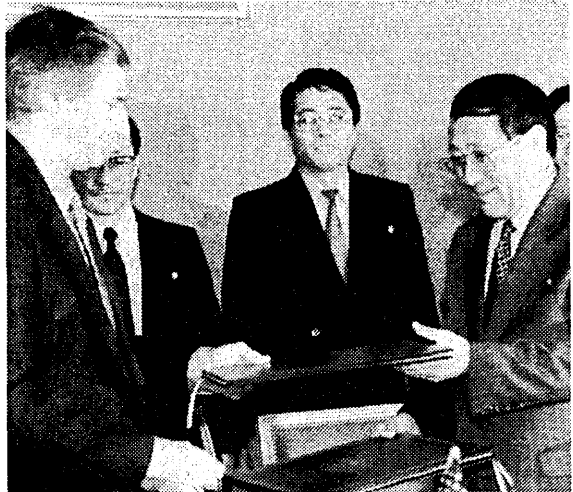
美대사 "클린턴 발언이 실수" 해명

한국과 미국이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수급비상관회의
 지로 부하에 제정된 중추를 주재, 클린턴 대통령의
 의 비동부 장관이 22일 청
 을 겪고 있다.

【워싱턴 22일路透電】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에서 "한국이 일본을
 타국들과 함께 對北 대체
 韓美가 대체에너지용 하기 위한 재원부담을
 重油(중유)를 북한에 공급 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美 "重油 더넘기기"

韓美 대체에너지 비용 논란



합의서 명하룻만에 "베적"

클린턴-셀리등 잇단 "한국 부담" 외무부 "통보 받은적 없다" 부인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金泳三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박했다. 클린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韓美간에 전혀 합의된 바
 가 없다"는 것이다.
 韓美외무장관도 긴급
 이발 클린턴의 발언이 잘
 의 헬리페라비엔도 5백
 만달러에 상당하는 重油의
 1차분 5만t을 미국의
 지원하되, 나머지 3만t은
 컨소시엄에서 부담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韓
 美간의 합의도 안된 重油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미국이 사전 정치작
 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발언이다.
 美北은 휴전장소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3개월내 5만t 등 95년까
 지 모두 15만t의 重油를
 공급하며, 96년부터 경수
 로 1백만톤까지 매년
 50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
 한 상태이다. 경수로 1기
 가 2002년에 완공된다
 고 가정할 때 총 重油지
 원비용은 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컨
 소시엄에서 부담할 경우
 우리 정부는 2억~3억달러
 의 추가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체에너지 비용
 까지 슬그머니 떠넘기려
 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우
 유부담해도 한분할한 것
 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정부의 고위직자들은 최
 근까지도 '대체에너지 비
 용을 우리가 맡 수 밖에 없
 지 않겠느냐'고 말해오다
 「별안간」 「한국이 대체
 에너지 비용까지 부담할 수
 는 없다」고 버티기 시작한
 것이다. 「절대 불가」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언제
 슬그머니 「불가능」으로
 변질될지 신위가 가지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洪錫俊기자 >

【워싱턴 22일路透電】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에서 "한국이 일본을
 타국들과 함께 對北 대체
 韓美가 대체에너지용 하기 위한 재원부담을
 重油(중유)를 북한에 공급 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워싱턴 22일路透電】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에서 "한국이 일본을
 타국들과 함께 對北 대체
 韓美가 대체에너지용 하기 위한 재원부담을
 重油(중유)를 북한에 공급 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에서 '일본과 여타 나라들
 의 지원 아래 한국은 북한
 에 대한 영토공방 경비의
 대부분을 떠맡게 될 것이
 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
 다.
 (綯 箕 然 記 者)
 대체에너지 거의 한국 부담 클린턴
 말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
 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에 제공될 대체에너지와
 경수로용 원전 건설의 소
 유 비용의 대부분이 일
 본 등 여타 나라들의 지원
 을 받아 한국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美 전문가 회담 곧 개최

사용핵 연료봉 처리 문제 등 협의

【워싱턴=연합통신】북-미 전문가 회담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은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北 제네바 합의 이행전 제 輕水爐자금 40억弗 지원

【워싱턴=연합통신】북-미 전문가 회담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막된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北-美 핵합의」이행촉구

安保理 결의 채택 시사

【본=金相熙】한스 블린 단에서 중점 및 해체를 약 20년째 추진 중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미 핵합의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블린 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북-미 핵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IAEA의 추가 의무 사항 검토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IAEA는 핵 안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北 원전 건설 중단 새달중 점검

對北 무역·통신규제 등 곧 완화

【워싱턴=연합통신】북-미 전문가 회담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은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핵연료봉 처리 문제 등 핵 안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수로 재정부담 3년간 1,000억씩

그뒤 韓電株매각등 검토 정부

정부는 대북경수로건설을 비롯하여 1천억원가량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3년간 연 1천억원씩 3년간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일반재정 조달의 어려움과 국가의 추징금 등을 감안하여 대북경수로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세계일보 1994. 10. 28

국제사회 北경수로 지원 실패하면 클린턴 "美서 단독 제공"

【워싱턴 27일路透電】북한이 대북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27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994. 10. 29

韓美日

내달 輕水爐 지원 협의

韓의무 安保理 상임 5 國 등 컨소시엄 10 國 참여

【파리=安泰用특파원】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원에 관한 국제 컨소시엄인 'KEDO'가 28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11월 중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28일 유엔안보리 회의에 참가한 10개국이 참여한다. KEDO는 1992년 12월 창설된 것으로,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28일 유엔안보리 회의에 참가한 10개국이 참여한다. KEDO는 1992년 12월 창설된 것으로,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28일 유엔안보리 회의에 참가한 10개국이 참여한다.

▽서울신문 1994. 10. 28

"경수로 컨소시엄 골 구성"

갈루치 對北 중유제공문제 등 협의

北美 北인도평화회담 조속 개최

【파리=안태용특파원】북한이 대북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27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실패하면 미국은 대북경수로 건설을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IAEA 사무총장

"특별核사찰 수용전엔 北신고내용 신뢰못해"

美北양자간 합의에 의해 그내용이 밝혀지거나 대체하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리스총장이 이날 美北합의를 지지하는 安保理의정선명을 채택하

【유엔본부 27일 서울특파원】IAEA 사무총장인 하라다 다카하루는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문제 회의에서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重油 韓國부담 允청한적 없다"

美 국무부 공식확인 경수로 부문만 완전합의

【워싱턴 27일 연합뉴스】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에 대해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리스총장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문제 회의에서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영의 한국 임원들이 참여하게 될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전반적 기조를 설명하며 "그 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도 어떤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힐 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北서연료봉·경수로·대체에너지 美선연료사무소 논의

전문가회담 4개분과로

△대체에너지 지원등 3개 분야는 平壤과 寧邊에서 열릴 전문가회담에서 다루며 연료사무소 개설의 다른 제반문제들은 워싱턴 전문가회의에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美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라디는 28일 이같은 미국측 방침을 다룬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美합의서 이행전

南北대화 필수적

【워싱턴 28일 연합뉴스】워싱턴에서 열린 북핵문제 회의에서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리스총장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문제 회의에서 "특별 핵사찰을 수용하기 전에는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국제차관단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의 발족을 앞두고 한국·미국·일본 사이에는 벌써부터 서로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수로 건설비용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제공비용, 사용후 핵연료봉 제3국 이전 비용, 핵시설 해체비용 등 북한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들어갈 각종 비용의 부담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 의중 떠보기'가 한창인 것이다.

세 나라가 이처럼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잠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해 구체적인 각국의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사전포석의 의도가 깔려 있다. 또 여기에 각국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개발기구의 전체 예산 예산 45억 달러 중 대부분인 35억달러를 차지하는 경수로 건설 지원 비용의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국이 '중심

'북핵'재정 떠넘기기 가열

한-미-일 국제차관단서 유리한 비율 확보겨냥 한국 대체에너지 빠지고 경수로 더 부담할 듯

적 구실'을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 부담 비율은 개발기구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중심적 구실'을 떠안은 한국으로선 경수로 경비의 60% 정도는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 가운데 일본이 30%, 미국이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전체 경수로 경비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미국이 독일, 영

국, 프랑스 등 그밖의 개발기구 참여국들과 함께 부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유지에 드는 비용을 공동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어느 정도의 경수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와의 우방관계를 고려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전정치적업의 측면으로 볼 때도 얼마간의 비용부담은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

본 역시 20% 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에너지 제공 문제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다. 대체에너지의 예상 비용은 3억~5억달러로 경수로 비용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세 나라는 모두 극도로 부담을 꺼리고 있으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경수로 지원은 유상인 데다 현금이 아닌 자국의 설비나 물자 등을 제공하는 것인 데 반해 대체에너지(중유)는 무상이다. 따라서 현금을 들여 석유 생산국으로부터 중유를 직접 사거나 원유를 수입해 정

제해 제공해야 한다. 현금으로 중유를 사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국내 여론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봉의 이전과 핵시설 해체 등도 모두 자국의 돈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다.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한·미 모두 재정조달에 따른 부담보다는 바로 이런 국내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일찌감치 경수로 이외의 대체 에너지나 사용후 핵연료봉 이전사업 등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비용문제는 개발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체 에너지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 경수로 비용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미국은 대체 에너지 비용을 떠맡는 조건으로 경수로 비용 부담비율을 줄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산술계산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北·美합의 이행 총비용 얼마나

10년간 45億6,500萬弗

북한은 1994년 10월 27일 경수로 건설지원 협정(이하 '합의')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1995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걸쳐 45억6,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95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에 걸쳐 45억6,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경수로 건설비용, 대체에너지 비용, 사용후 핵연료봉 이전비용, 핵시설 해체비용 등을 포함한다.

경수로 건설비 35億弗

핵연료 해체·대체에너지등에 나머지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95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에 걸쳐 45억6,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경수로 건설비용, 대체에너지 비용, 사용후 핵연료봉 이전비용, 핵시설 해체비용 등을 포함한다.

구분	경수로	대체에너지	핵연료봉	기존핵연료체계	운영비
원자로	8억8천만	'95. 1 중유 50만	건설보관: 3천만	3MW실험용 원자로	인건비
터빈	4억	'95. 10 " 10만	3국이전: 7천만	원시화확산형 50-200MW원자로	사무실 임대료
보조기기	11억2천만	'96년 " 50만			운영비
설계	8억	2002년 " 50만			
시공	8억	(통당1백) 365만			
예산정리	-5억				
소계	35억	소계: 3억6천500만	소계: 1억	소계: 5억	소계: 1억
총계: 45억6천500만					

韓國이 전체의 절반수준 부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95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에 걸쳐 45억6,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경수로 건설비용, 대체에너지 비용, 사용후 핵연료봉 이전비용, 핵시설 해체비용 등을 포함한다.

北 "核합의 이행 착수"

이달 초 후연로 건설 중단

외무부대변인 발표...방사화학실험 등 동결 조치

美-北 금명실무접촉...전문가 회담 논의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美외무부대변인 스티븐 테일러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4. 11. 4

北-美 핵합의 이행 협의의 시작

3개 전문가 회담 개최 협의의

구약서 전문가 회담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화학 전문가 회담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전문가 회담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4. 11. 3

폐연료봉처리 전문가 회의 北, 美에 조기 개최 제의

핵동결 착수 통보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합】북한외무부대변인 김성조는 1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미-북 실무접촉이 1일(현지시간)에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조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美-北 제3國서 분리개최

美-北 전문가회담

연락사무소 합의달 확실히

국유실무접촉 회의 일정 장소 잠정 합의

【서울 4일路透電】미국과 북한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전문가회담에서 합의한 제3국에서 남북 전문가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1994. 11. 5

駐韓미군 감축 없다

美 노태우 정부 「감축 없다」 부인

【서울 4일路透電】미국과 북한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전문가회담에서 합의한 제3국에서 남북 전문가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1994. 11. 5

이제부터 美공세차례

北美전문가회담 진행

【서울 4일路透電】미국과 북한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전문가회담에서 합의한 제3국에서 남북 전문가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核동결 구체화 세부사항 논의 연락사무소 설치등 「合意」난항

【서울 4일路透電】미국과 북한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전문가회담에서 합의한 제3국에서 남북 전문가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3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시작됐으며, 4일(현지시간) 평양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안보리, 美·北합의 지지

IAEA 공식 임시理事會

안보리 北核감시 요청 따라

이강성명 채택
 [본=연합] 북핵안보리 기구(IAEA)가 공식 임시회의를 소집, 북한 핵합의 실현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향신문 1994. 11. 6

安理會의 北核監視 要求

안보리(UNSC)는 11월 5일 북한 핵합의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이 핵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할 때까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北·美합의 유엔 공식추진

“이행여부 주시” 우회적 압력도

북·미 합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할 때까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1994. 11. 6

북·미 합의가 유엔 공식추진

북·미 합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할 때까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가 수렴된 뒤 북한은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본=연합] 안보리(UNSC)는 11월 5일 북한 핵합의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이 핵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할 때까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合意 감시」 정치·국제법 근거 남겨
 北, 강력 반발... 중국은 합의에 '一助' 세 부합의서 美北 좀다리기 예상

북·미 합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할 때까지 IAEA가 북한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3. 平壤·北京·워싱턴 專門家會議

「폐연료봉보관」 12~19일 평양서 「경수로 제공」 30일부터 北京서 「연락사무소」 내달 6일 워싱턴

北·美 전문가회담 日程 발표

【서울=연합】북한은 7일 북·美 전문가회담의 일정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폐연료봉보관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전문가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외교부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폐연료봉보관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전문가회담은 12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며, 경수로 제공을 위한 전문가회담은 30일부터 北京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개최를 위한 일련의 실무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했다.

“中경수로 컨소시엄 참여”

4개국大使국회간담회 조만간 美와 北京서 회담

【서울=연합】북한은 8일 국회 의원들과 4개국(美·日·中·러)의 4개국 주재대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회 의원들과 4개국(美·日·中·러)의 4개국 주재대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회 의원들과 4개국(美·日·中·러)의 4개국 주재대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주말 특별理事會 北核활동 감시 유엔요청 이행방안 등 논의

【베를린=로이터통신】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주말 특별理事會를 열어 북한 핵활동 감시 유엔요청 이행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IAEA는 이날 특별理事會를 열어 북한 핵활동 감시 유엔요청 이행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IAEA는 이날 특별理事會를 열어 북한 핵활동 감시 유엔요청 이행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경수로 韓國부담 50%상회

갈루치 18일 韓·美·日 1차 예비회담

【서울=연합】북한은 10일 국회 의원들과 4개국(美·日·中·러)의 4개국 주재대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회 의원들과 4개국(美·日·中·러)의 4개국 주재대사와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도연료의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 대사는 “美·日·中·러 4개국이 1차 예비회담을 갖고, 중·경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핵전문가들 入北

【東京11日電】미국 핵 전문가들이 11일 북한을 방문하여 핵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서 8시간 동안 핵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서 8시간 동안 핵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IAEA 특별理事會 개막

【서울 11日電】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특별理事會가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개막했다. IAEA 이사회의가 하루 동안 서울에서 열린 특별理事會는 핵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서 8시간 동안 핵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理事會의 개최로 북핵 문제가 다시 IAEA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IAEA의 특별理事會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北核 원천봉쇄 논의

IAEA 특별이사회 개최의미
특별이사회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의 원천봉쇄에 있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한스 블릭스 특별대표의 역할
한스 블릭스는 이번 특별理事會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IAEA의 특별대표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IAEA의 특별대표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IAEA의 특별대표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IAEA가 북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핵동결 및 감시활동 순서
북한 핵동결 및 감시활동 순서는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 합의에서 시작된다. 이 합의는 북핵 동결을 선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선명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AEA 특별이사회는 11월 1일 개막되며, 이 자리에서 핵연료주기 건설중단, 핵관련시설 가동중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금지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IAEA는 이번 나라는 대외적으로도 핵 안전을 증진시키고 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IAEA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北核동결 「국제적 의무」로

IAEA이사회될 남겼다

11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지난달 11일 타결된 北核美

합의에 대해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北협조의사 밝혀 사찰급진전전망

감시활동일정등 구체안내주 제시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北核지속감시조치 착수 승인

IAEA 특별이사회 14일 北과 접촉 동결 여부 확인

北韓도 협조 표시

【서울 11일 IAEA 특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일 北核美 합의에 따른 감시조치를 승인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월 11일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北核美 美韓간 기본합의문을 유념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잔류 및 핵안전조치의 전면이행을 결정한 사실을 유념한다 △북한과 IAEA간에 체결된 핵안전조치협정이 계속 유효하며 북한이 이에 계속됨을 재확인한다 △안보리의 11월 4일자 의장성명과 이에 바탕한 사무총장의 이번 특별이사회 보고를 유념한다

IAEA 특별이사회 '의장요약'

△사무국에 대해 對北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한다 △사무총장에 대해 핵동결 감시를 포함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이행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안보리에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北-美 합작이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에 대해 관련사항 이행을 위해 IAEA에 전면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번=金相熙)

특별이사회는 11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IAEA 이사회의 특별이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장요약」 형식으로 채택했다.

“美에 경수로로 「한국형」 보장 요청”

전부방식 시설·장비 北제공 文書동의 필요

【자카르타=高素成기자】 정부는 對北경수로 지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로 등 주요시설 및 장비를 북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만큼 美측이 이를 조기에 무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제철을 토대로 우리가 독자개발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의 건설을 도와주는 국제협력기구(NSC)의 정한 「런던가이드라인」에 근거, 원자로를 포함한 시설의 건설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자카르타에 와 있는 정부 고위당료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수로 지원과 관련된 사전동의를 포함, 포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제네바에서의 北·美간 합의에 따라 북한과 독자적

이 당료자는 또 이번 對北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우리가 NSG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제네바에서의 北·美간 합의에 따라 북한과 독자적

으로 원자로 협력협정을 체결, 런던가이드라인상의 수출규제물자에 대해 미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수시협구섭과정에서 韓美간에는 합의 예상되고 있다.

韓美日 18일 輕水爐 실무회담

【東京=柳賢】 日本과 미국, 한국이 18일 輕水爐(輕水原子力發電機)에 관한 실무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담에는 韓美日 3국 고위당료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輕水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輕水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北경수로로 「한국형」 합의

韓·日·美 北·日 수교 교섭내용 기밀협약의

【자카르타=高素成기자】 정부는 對北경수로 지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로 등 주요시설 및 장비를 북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만큼 美측이 이를 조기에 무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제철을 토대로 우리가 독자개발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의 건설을 도와주는 국제협력기구(NSC)의 정한 「런던가이드라인」에 근거, 원자로를 포함한 시설의 건설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자카르타에 와 있는 정부 고위당료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수로 지원과 관련된 사전동의를 포함, 포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제네바에서의 北·美간 합의에 따라 북한과 독자적

對北 경수로 지원 때 南서 千명 訪北 예상

추부총리 발언

【東京=柳賢】 日本과 미국, 한국이 18일 輕水爐(輕水原子力發電機)에 관한 실무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담에는 韓美日 3국 고위당료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輕水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輕水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것이며, 동경에서 「對北 輕水爐 技術 支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부총리는 「對北 경수로 지원 때 南서 千명 訪北 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對北 경수로 지원에 따라 南서 千명 이상이 北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北 페연료보충 처리費 진통예상

5百萬~千萬弗소요 美、KEDO 통해 한국轉嫁소지

정수로分擔 협상과 함께 難題로

【조선일보 = 李相石 특파원】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5백만~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연료보충에 대해 5백만~1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은 KEDO를 통해 한국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 KEDO는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北 IAEA 접촉 재개

「탈퇴」후 처음 「核감시」 전문가회담 곧 개최

【서울 = 孫秉浩 특파원】 북한은 16일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5백만~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연료보충에 대해 5백만~1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은 KEDO를 통해 한국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美核전문가팀 寧邊방문

日紙 보도 사용후 연료보충 보관방법 논의 발표

【도쿄 = 聯合】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 전문조사팀이 15일 평壤省의 핵연료보충 시설을 방문했다. 이 조사단은 핵연료보충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 KEDO는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비용을 북페연료보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수로 韓國 주도 文書化 모색

韓·美·日, KEDO 구성 협의 착수

財政분담금 논란 예상

日, 기존 국제기구 이용 경수로 지원 제안

【워싱턴=연합】韓·美·日 3국이 17, 18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KEDO(국제핵연료은행)의 구성을 합의했다. KEDO는 핵연료 은행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4. 11. 18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4. 11. 18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4. 11. 18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北核동결 「성실 이행」 첫 검증

IAEA-北회담 안팎

북·미·일 3국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17, 18일 양일간 개최된 가운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KEDO(국제핵연료은행)의 구성을 합의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北·美합의 따른 「전반적 감시」北 긍정반응

전문가 회담 추이 따라 「협조 조절」 가능성

북·미·일 3국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17, 18일 양일간 개최된 가운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KEDO(국제핵연료은행)의 구성을 합의했다.

▽한국일보 1994. 11. 19

북·미·일 3국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17, 18일 양일간 개최된 가운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KEDO(국제핵연료은행)의 구성을 합의했다.

미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KEDO에 10%의 출자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4. 11. 19



구성-운영 '기초' 마련

韓-美-日 대표 첫 회의의 내용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국(韓-美-日) 대표가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KEDO(국제개발기구) 구성에 대한 韓-美-日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국(韓-美-日) 대표가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KEDO(국제개발기구) 구성에 대한 韓-美-日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崔東鎮(左) 韓國代表團長이 18日 美國 國務院에서 로버트 갈루치 美核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北韓에 국제개발기구(KEDO) 구성에 대한 韓-美-日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10여개국 참여... 내년 3월까지 출범

韓國 건설-재정 등 중심 역할 확실

구체적 역할 분담이 내달 회의에서 논의될 듯

북한 핵무기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0개국(韓-美-日-英-法-德-意-加-俄-中)이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KEDO(국제개발기구) 구성에 대한 韓-美-日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10여개국이 참여하는 KEDO는 내년 3월까지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은 건설과 재정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내년 1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0개국(韓-美-일-英-法-德-意-加-러-중)이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KEDO(국제개발기구) 구성에 대한 韓-美-일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경향신문 1994. 11. 22

"廢기비평을 선택" 이강영도

平壤전문의회의 종료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0개국(韓-美-日-英-法-德-意-加-러-중)이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KEDO(국제개발기구) 구성에 대한 韓-美-일 3국 합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싱턴AP聯)

北제공 경수로에 美社, 로열티요구

정부선 輕水爐협상과정 정통해

内部거래로 승인 추진

정부는 북한경수로 지원... 내부거래의 실행... 제공사를 내부거래부 승인... 한미협조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국... 로 경수로 지원에 대한 우리... 측 부담을 내부거래인정... 문제를 연계, 협상하는 방...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柳承우기자】

정부는 이날의 방청연... 한국형 표준원자로의 기술... 제공사인 미국 컴버선엔... 지니어있는이 북한경수... 로 지원할 대외수출로 간... 주, 한전측의 로열티지급... 을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 부거래는 88년 7·7선언... 과 내부거래의 서를 통해... 이미 우리 입장의 천명했... 으나 국제적으로 이를 인...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 11. 22

IAEA협사단 오늘 平壤 도착

核중립합시협의

【비블린특】北韓 核중립합시협의(IAEA) 협사단 20일 평양으로 떠났고 IAEA 소속회의... 4,5명의 사찰 전문가... 들과 기술요원들이 구성된... 협사단의 지난 18일 빈부... 재 북핵합사단이 평壤에서... 자를 개발한 이 핵 안전... 화양이비로 출몰했다. IAEA... 시종일관 전했다. IAEA... 협사단의 北京을 거쳐 22... 인 평양으로 내항하게 될 것... 이다.

▽조선일보 1994. 11. 19

北 영변核시설 전면봉쇄 조치

북한방출 보도

【東京11월19일】북한이... 나날 美北 합의에 따라... 영변 核시설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다. 북... 한 관영 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날 東京에서 수신된... 변인의 말을 인용, 영변... 두 핵시설의 전면 봉쇄... 무와 관련 시설들의 대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다... 고 밝히며, '북한의 추... 한 폐연료봉을 운반하기... 경과 후 완전한 차단... 위해 재차 긴박한 노력을... 관할 기관이 말했다.

▽동아일보 1994. 11. 20



崔東鎮경수로기원단장 이따부

1000명 규모의 이따부... 밝기(KEDO) 구성의... 관 韓美日 3국대표회의... 에 양국대표로 참석한 崔... 東鎮경수로기원단장의... 인을 알렸다.

「재원분담문제는 어... 계 문제」
「이들전해 합의되지... 았다. 기원단으로 유제한... 수사업의 조직 등을 발전... 방안부터 논의하고 재정부... 단의 추후 대응문제가... 다」

우리企業 主계약자 될것... 5년후 본격공사 시작

「KEDO와 북한간 공동계약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이 배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KEDO와 북한간 공동계약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이 배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KEDO와 북한간 공동계약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이 배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경수로 건설 韓電 주도 확실

KEDO 회의 韓國 중심 역할 합의

▽동아일보 1994. 11. 22

美 기술진 廢연료봉 처리 내달 訪北

韓重공업이 하청업체 참여

30일 北京 전문가 회의서 北에 통보

韓美·日 양국이 1994년 11월 30일 北京에서 열린 KEDO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水槽속 물 화학처리 보관기간 연장 합의

北은 지중해 연안 지역의 5기 경수로 건설을 위한 100만 리터의 화학처리 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北에 합의했다. 이는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KED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KEDO가 北의 핵연료봉 처리를 위한 기술진 파견과 관련 시설 건설에 협력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1995년 11월 30일까지 北에 5기 경수로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합의했다.

30일 「美·北 합의」 청문회

美상원

【워싱턴 24일路透기자】美 상원 청문회 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한국시간)에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30일(한국시간)에 예정된 「美·北 합의」의 청문회를 시발로 본격적으로 美 의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北核 청문회를 열어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에 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진보적 연구소의 로버트 스톨, 동아대 교수인 장영환, 한전전기 3명의 증언할 예정이다.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내년 1월 초 새 의회가 개원하면 상원 의회와 세출위원회 대의 활동수위에서 北核 청문회를 재개해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따질 계획을 갖고 있다. 협정 체결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北美 핵합의 재협상 어려움 일 美공화당의 주장은「非 현실적」

韓외무

【워싱턴 24일路透기자】美 상원 외교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한국시간)에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30일(한국시간)에 예정된 「美·北 합의」의 청문회를 시발로 본격적으로 美 의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北核 청문회를 열어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에 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진보적 연구소의 로버트 스톨, 동아대 교수인 장영환, 한전전기 3명의 증언할 예정이다.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내년 1월 초 새 의회가 개원하면 상원 의회와 세출위원회 대의 활동수위에서 北核 청문회를 재개해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따질 계획을 갖고 있다. 협정 체결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IAEA 핵동결감시 北과 세부협의를 들어가

【빈 24일路透기자】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 빈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감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IAEA의 한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IAEA가 핵시설 감시활동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빈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곧바로 영연방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IAEA

核동결감시案 합의의 불발

협의는 계속기로 러대표단, 輕水爐 제공 논의 차 내달 訪北

【베를린 24일路透기자】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 빈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감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IAEA의 한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IAEA가 핵시설 감시활동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빈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곧바로 영연방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의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24일路透기자】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 중립성에 대한 완전한 협의는 계속기로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IAEA 협상단은 영변에 있는 2명의 사찰관과 함께 평양과 영변 핵단지 등 2곳에서 북한당국과 협의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24일路透기자】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 중립성에 대한 완전한 협의는 계속기로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IAEA 협상단은 영변에 있는 2명의 사찰관과 함께 평양과 영변 핵단지 등 2곳에서 북한당국과 협의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서 핵동결 확인

北 평양반송 영변原電공사 중단 주장

【東京 24일路透기자】IAEA의 北核 사찰단은 北核 공화국의 핵시설에 따라 핵개발 계획을 동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방송이 28일 보도했다. IAEA 사찰단이 평양에서 수석원 평양반송은 IAEA 사찰단이 평양의 5MW 원자로와 방사화 5MW 원자로 건설도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24일路透기자】美 상원 외교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한국시간)에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30일(한국시간)에 예정된 「美·北 합의」의 청문회를 시발로 본격적으로 美 의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北核 청문회를 열어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에 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진보적 연구소의 로버트 스톨, 동아대 교수인 장영환, 한전전기 3명의 증언할 예정이다.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내년 1월 초 새 의회가 개원하면 상원 의회와 세출위원회 대의 활동수위에서 北核 청문회를 재개해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따질 계획을 갖고 있다. 협정 체결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美共和 對北중유지원저지

上院 東亞小委員長 내정 머코스키의원 “北에 지나친 양보”

갈루치 “의회서 결의때 「北美합의」 원점회귀”

【서울=김대중】 미국 상원 의회위원 갈루치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 제시 헬름스리의원 한 스프링필드의원 등 40명의 의원들이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미국 상원 의회위원 갈루치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對北합의 「美국의」 다져보야

美共和총부 議會 청문회 지지... 내용 충분히 검토

【서울=김대중】 미국 상원 의회위원 갈루치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美 “北지원重油 1차분만 무담

白堊館방집 年間 50만톤씩 KEDO에 떠넘겨

【서울=김대중】 미국 상원 의회위원 갈루치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미국 상원 의회위원 갈루치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의 원점을 회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합의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北-美합의 파기」 그림자

美共和 이름장 속셈과 과정

美國 80년대 중반 이후 한미합의의 실패가 남북의 이념적 北韓의 체제파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 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한미합의의 실패가 남북의 이념적 北韓의 체제파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 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다.

다시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북한은 1994년 11월 27일 미합중국 워싱턴에서 4년째 지속된 북핵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합의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 합의가 한반도 상층부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정치공세 여부놓고 분석 잇갈려 내주 「北核 청문회」서 판가름날듯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내주 「北核 청문회」서 판가름날듯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美정부가 이념 정책 변경이냐 묻는 것

美정부가 이념 정책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내주 「北核 청문회」서 판가름날듯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내주 「北核 청문회」서 판가름날듯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전남 비핵화」 211억

전남 비핵화 사업에 2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남 지역의 핵 안전을 강화하고, 핵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비핵화 사업은 1994년 11월 27일 미합중국 워싱턴에서 4년째 지속된 북핵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합의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北사찰조처 허용안는데 어떻게 40억弗 지원하나」

의회 반대맨 결렬 가능성, 韓美정부 우려
갈루치 "내용 설명하면 수긍할 것" 자신감

북한이 남한에 사찰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안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대기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韓國정부 입장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미합의의 파기 움직임이 일차 대외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미합의가 깨지면 북핵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北核무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풀이지고 있다. 핵무기를 잠안한 공화국의 핵-북한간 기본합의의 이행에 제동할 것이라던 북핵무기 문제의 맥락에서, 북핵무기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美공화당 수석

공화당 수석인 앨빈 크레이프는 미국인연맹의 의회정책을 대변하며, 북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核해결구도-經協에 걸림돌 우려

“重油떠넘기기” 경제속美동향에 추각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회권한에 한계... 구체적 代案도 없어

「판개기」보단 對外정책 주도 布石

공화당의 의회가 실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美-北 5명 대표단 5명씩 10명씩

정부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

사무소 설치 北 협상단 向美

【서울 29일부판】 나탈 전 장관은 29일 기자 회견에서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방북단체인 사무소 설치문제 등을 고려한 10명씩의 5명씩 대표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대표단 5명씩 10명씩

5명씩 10명씩 10명씩 10명씩

기대했던 10명씩 10명씩

【서울 29일부판】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美 합의 이행서로 재확인

어디부터 北京서 경수로 전문가 회의

【서울 29일부판】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美, 재검토 주장 해명 "重油 제공 등 不變" 다짐

共和전체 들어 이행 지연엔 심각 사태 강조

【서울 29일부판】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北 5명 대표단과 적절... 한국형 明記 주문 방침을 밝혔다.

美 공화 강경대응에 北韓 "초조"

北核청문회 추진과 平壤

북한이 미국의 강경대응에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핵청문회 추진과 평壤의 핵실험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핵청문회 추진과 평壤의 핵실험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중유공급·연락소개설 무산 위기" 촉각 對 공화 비난판문... 기업인 연몰 밀 추과

북한이 미국의 강경대응에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핵청문회 추진과 평壤의 핵실험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핵청문회 추진과 평壤의 핵실험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IAEA 영변·태천 핵동결화인

연료재처리·원자로건설 공사 중단

기술진행장 사찰

【대진=합천(합천)】북한이 영변(靈峯)과 태천(泰川)에 있는 핵시설의 동결(凍結)을 약속한 후, IAEA가 사찰을 실시할 경우 연료재처리(燃料再處理)와 원자로(原子反應爐) 건설 공사를 중단(停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북한에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시설의 동결을 약속한 후, IAEA가 사찰을 실시할 경우 연료재처리와 원자로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북한에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시설의 동결을 약속한 후, IAEA가 사찰을 실시할 경우 연료재처리와 원자로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내일 北核청문회

【대진=합천(합천)】미국이 11월 30일(오늘) 오후 2시(한국시간) 워싱턴(華盛頓)에서 북한(北韓)에 대한 핵청문회(核聽證會)를 개최(開辦)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북한(北韓)의 핵개발(核開發)을 비난(指責)하는 내용의 청문회(聽證會)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北、韓國型경수로 거부

北京전문가 회담 "업체 선정권 달라" 주장

【北京=金東根】30일 북경에서 열린 북·미간 경수로 지원 전문가 회담에서 북측은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의사를 또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미간 경수로 협정 체결을 전제로 북측에 업체 선정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경수로 사업은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측은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수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측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측에 업체 선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선정권을 자신들이 행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한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美、駐韓軍 독자철수가능

韓·美조약 제한안말아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워싱턴=李相石특파원】美의외조사국(CRS)은 1일 「北·美관계 정상화」가 성공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가 미안보회의에 의뢰한 「北·美관계 정상화」에 따른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로미」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李在武특파원】美의외조사국(CRS)은 1일 「北·美관계 정상화」가 성공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는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로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케이트 연구소의 윌리엄 니스커넨이 작성한 「미군의 駐韓」에 따르면, 미군은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對北 1차분 증유지원금 500만弗

美, 국방예비비 지출결정

WP紙 보도

【워싱턴=聯合】美안보회의는 1일 「對北 1차분 증유지원금 500만弗」를 결정했다.

【워싱턴=聯合】美안보회의는 1일 「對北 1차분 증유지원금 500만弗」를 결정했다. 이는 미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美안보회의는 또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도쿄=李在武특파원】美의외조사국(CRS)은 1일 「北·美관계 정상화」가 성공되면 휴전협정 개정권한도 미군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경수로로서 핵권 연구

北京회담 韓國型 거부... 難航 거듭

【北京=李在濬특파원】美國과 북한의 1일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했으나, 내년 4월까지 양국이 체결할 계획이 없다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北, 경수로회담 계속 난항

【北京=文日特파원】북한과 미국의 1일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에서의 실무회담이 1일 '북한형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北, 美관계개선 노력속도로 진전

美의회조사단 「법적 문제점」 보고서

【美의회조사단(CRS)】미국 상원의회의 의정서이다. 北, 美관계개선 노력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法·제도상 까다로운 제한 규정들 수두룩

의회의 지지 없이는 관계정상화 불가능

원조금지국에 北포함 重油제공 질림돌

【美의회조사단(CRS)】미국 상원의회의 의정서이다. 北, 美관계개선 노력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美의회조사단(CRS)】미국 상원의회의 의정서이다. 北, 美관계개선 노력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형 경수로'의 차이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美對北중우 1차분담 부담

나머지 KEDO 전담 시사

상원北核청문회에서 판면

【로스앤젤레스 1일 로이터통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부 국무차관보와 찰스 루시도프 주대사관이 1일 북핵 협상 진전 상황을 놓고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공격적으로 발언했다. 갈루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한한 인내를 보여왔지만, 이제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을 갖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시도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부 국무차관보와 찰스 루시도프 주대사관이 1일 북핵 협상 진전 상황을 놓고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공격적으로 발언했다. 갈루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한한 인내를 보여왔지만, 이제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을 갖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시도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 12. 3



美國상원 외교위 東亞太소위 찰스 루시도프(右)가 1일 북-美 협상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앞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차관보와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AP)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찰스 루시도프(오른쪽)가 1일 북-미 협상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앞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차관보와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AP)

美의원 北核청문회 배경

내년부턴 상하 양원을 거쳐 북핵 협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차기 상원의원으로서 갈루치가 청문회를 열어 북핵 협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차기 상원의원으로서 갈루치가 청문회를 열어 북핵 협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차기 상원의원으로서 갈루치가 청문회를 열어 북핵 협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北核합의 본격검증

共和 "지나치게 양보" 정치공세화

클린턴 "재량권內서 이행" 맞대응

북핵 합의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량권 내에서 이행"을 맞대응하며, 양측의 정치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합의는 중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시도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핵 합의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량권 내에서 이행"을 맞대응하며, 양측의 정치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합의는 중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시도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北核합의 접근방향 잘못됐다」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擴禁」보다 비핵화·統一 과 연계돼야 NPT 위반 國 지원 「나쁜 先例」 남겨

경수로도 플루토늄 量産 가능... 北에 핵개발 소지 제공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核투명성 보장위해 北지원 불가피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北제공 重油 鈾수출자 轉用될 가능성 희박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美상원 東亞大수위 소

北·美 6일 「연락소」회담

워싱턴서 관계개선 전반기의

【워싱턴=연합】미국과 북·까지 워싱턴에서 워싱턴 회담은 6일부터 9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열

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열고 영사관계 및 기타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 2일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외교부, 미국당국에서는 미 국무부, 미 국무부 박성규 등이 참가한다.

5명의 대표단이, 그리고 미국측에서 린 테크 국무부 부차관관리를 비롯하여 법률자문관, 영사담당관, 관리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국무부 측은 밝혔다. 크리스틴 셸리 국무부 부차관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 회담이 이번 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한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단계에서 상정적인 미를 갖고 있다.

北·美 연락사무소 협의

美 국무부 "6일 워싱턴서 전문가 회담"

北·美 5일 회담

【워싱턴=연합】미국과 북·까지 워싱턴에서 워싱턴 회담은 6일부터 9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열

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열고 영사관계 및 기타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 2일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외교부, 미국당국에서는 미 국무부, 미 국무부 박성규 등이 참가한다.

박작다가 서는 北·美

【워싱턴=金英鎭특파원】미국 국무부는 2일 박작다의 교부 미주담당 부국장 장으로 한 북·미의 5인 실무팀이 북·미 기부의 합의 이행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월 산둥성 연락사무소 설치 협의를 하기 위한 회담을 평양의 서남가진점이었으나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워싱턴 회담에 계기로 북한대표단의 최종부 미국 수석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그간 워싱턴에서 북한대표단 구성을 위한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양측 대표단이 서로 서는 최초인 이번 워싱턴

北 대표단 워싱턴 방문 안팎

북·美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하고 있을 수 있다.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될 북·미 기부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對北 경제지원을 노리는 미국 기업들과 북한의 실정

연락사무소 調律 새 「관계」 실감

美, 갖가지 對北 제약 「완화」 언제나 「에」 관심

미국과 북한은 지난 9월 산둥성 연락사무소 설치 협의를 하기 위한 회담을 평양의 서남가진점이었으나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워싱턴 회담에 계기로 북한대표단의 최종부 미국 수석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그간 워싱턴에서 북한대표단 구성을 위한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양측 대표단이 서로 서는 최초인 이번 워싱턴

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정치인들의 북한 방문이 찾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리려는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회담이 같은 북·美 접촉의 틀을 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평壤전문가

원들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워싱턴에 근무할 부 하원들의 활동범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임에 반해 평양에 근무할 미국측 하원들의 통제 사 회인 북한 이 지니는 여행제한 등의 특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에서는 하원들의 활동범위 외에도 연락사무소 하원들의 사무장, 직할수준, 사무실 건물, 임차 및 통신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미국법률과 행정법령을 살피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는 대북제재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들 두 대면할 수 있다. 린 테크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시한이 3개월인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을 피하고 우선 대북제재 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형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 회담을 통해 하원들의 미주내 활동영역을 어떻게 넓히나 밝히는가에 따라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영향력의 침투 패턴이 결정된다

이번 회담으로 결말이 나지 않고 더 진행돼야 할 것이냐에 대해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북한에 가하고 있는 갖가지 제약들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 北·美 기부의 서는 이번 1월 21일까지 대북부 및

투자장벽과 통신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갖가지 제약은 한두가지 법률에만 걸려있지 않다.

우선 對北 제재에 관련된 미국법률과 행정법령을 살피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는 대북제재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들 두 대면할 수 있다. 린 테크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시한이 3개월인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을 피하고 우선 대북제재 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법률과 행정 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규 제받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는 대북제재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들 두 대면할 수 있다. 린 테크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시한이 3개월인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을 피하고 우선 대북제재 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會談의 의미와 전망

이제까지 4월... 전문가의 모임은 4월... 전문가의 모임은 4월... 전문가의 모임은 4월...

北·美 빈번한 왕래 신호탄

활동범위·특권 논의 대표부건물 물색도

북한측 대표부 건물 물색도... 활동범위·특권 논의... 대표부건물 물색도...

북한측 대표부 건물 물색도... 활동범위·특권 논의... 대표부건물 물색도...

중앙일보 1994. 12. 6

北韓대표단史上 첫 워싱턴 방문

관심 끄는 「北·美 연락사무소」會談

영사보호·통신등 실무문제 국한 外交행낭 판문점 왕래 논의 활발

북한측 대표단... 워싱턴 방문... 「北·美 연락사무소」會談... 관심 끄는... 영사보호·통신등 실무문제 국한... 外交행낭 판문점 왕래 논의 활발...

북한측 대표단... 워싱턴 방문... 「北·美 연락사무소」會談... 관심 끄는... 영사보호·통신등 실무문제 국한... 外交행낭 판문점 왕래 논의 활발...

동아일보 1994. 12. 6

北·美전문가회담 美서 개막

전문가회담... 워싱턴에서 개막... 「北·美 전문가회담」美서 개막... 전문가회담... 워싱턴에서 개막... 「北·美 전문가회담」美서 개막...

北-美, 常駐직원 활동범위 논란

워싱턴회담 개막 연락사무소 개설시기등 논의

장외회담 한 미국대표단과 9일(현지시간) 4일간 회담을 치렀다. ▲자국민의 영사보호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 ▲신부부요의 인건비 부담 ▲신부부요의 인건비 부담 ▲신부부요의 인건비 부담

이런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연락사무소 개설의 시기 등 영사보호와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측은 그 동안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을 미국측이 부담하길 원한다.

미국측은 그 동안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을 미국측이 부담하길 원한다. 미국측은 그 동안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을 미국측이 부담하길 원한다.

【연합신문=워싱턴특파원】 워싱턴에서 9일(현지시간) 미북 대표단과 북 대표단이 회담을 열고 영사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측은 그 동안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을 미국측이 부담하길 원한다. 미국측은 그 동안 연락사무소의 인건비 부담을 미국측이 부담하길 원한다.

北-美 오늘 워싱턴 전문가회담

北대표단 첫 공식訪美

연락사무소 개설 실무절차 협의

北-美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담이 6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차 회의의 대표단장인 김성환 북 대표단장과 미측 대표단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회담은 1차 회의의 대표단장인 김성환 북 대표단장과 미측 대표단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북대표단 워싱턴 방문... 6일 공식입장

사상 첫 워싱턴 방문 현지표견



◇북대표단 북대표단 대표단장 김성환(왼쪽)과 미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미스(오른쪽)가 회담하고 있다. <Yonhap>

영사관계-통신등 實務사안만 협의

北側 金日成배지 달고 국무부 방문 도착

북 대표단 워싱턴 방문은 사상 첫 워싱턴 방문 현지표견이다. 이번 회담은 1차 회의의 대표단장인 김성환 북 대표단장과 미측 대표단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회담은 1차 회의의 대표단장인 김성환 북 대표단장과 미측 대표단장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연락사무소에 政務기능

美-北위싱턴회담 「외교특권」 부여... 사실상 公館

【위싱턴=丁海榮기자】 미 국무부에서 속개된 2차 북-미 회담에서 연락사무소가 영사관과 달리 7일 위싱턴 연방사무소 개설 전부터 사안부와 함께 정부업무도 의뢰를 받기로 하였다.

對北核합의 이행

【東京=AP】 11일 북한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인'이 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인'이 北

위싱턴 美北회담 이모저모

○...회담 시작... 미 국무부의 공식 회담은 5일인 첫날부터 7일인 3일째 회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의 회담은 5일인 첫날부터 7일인 3일째 회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美 국무부 北대표단 儀典차별

北韓고향 교포들 '修交기대' 들뜬 모습 北側단장 기자들질문에 노코멘트 일관

북한 대표단... 미국 국무부... 北側단장 기자들질문에 노코멘트 일관

북한 대표단... 미국 국무부... 北側단장 기자들질문에 노코멘트 일관

연락사무소 인원 5~9명이다

北美 잠정합의의 판문점통행 자유왕래 절충

【경상신문=추상철특파원】 판문점 연락사무소 인원에 대해 북측이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측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KEDO」본부 사무소의 北韓대표와 접촉 쉽게

【東京=黃宇濬특파원】 북측이 KEDO 본부 사무소의 北韓대표와 접촉을 쉽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北대표부 후보지 물색나서

北·美 워싱턴 전담가합담 표정

○...워싱턴에서 남북 대표단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워싱턴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북측 대표단의 후보지를 물색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美 "안목" 넓혀준다 "北대표단의 판광주선 환영회"라고 포포단체간 갈등... 北측 당황

워싱턴에서 남북 대표단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워싱턴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북측 대표단의 후보지를 물색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전담가합담 표정...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5~9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北核도결공시화인

IAEA이사회

【민=金福熙】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일 북한 핵의 동결대상 핵시설들의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작업도 중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8일 IAEA 이사회의 정례회에서 보고에 서지 않는다는 점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IAEA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릭스 총장은 "IAEA가 핵시설의 동결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5개 동결대상 시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밖에도 블릭스 총장은 "그동안에 대한 비자발적 중단에 대한 사정이나 다른 사정들을 제외할 용의를 북한측이 표명했다고 전했다."

北, IAEA에 협력

【민=安泰用특파원】北韓은 北美核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동결하고 있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이행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8일 밝혔다.

블릭스 사무총장이 이날 IAEA 본부에 서 열린 IAEA 이사회(정례회)에서 IAEA 전문가, 조사단의 핵시설 방문 및 이들 전문가들과 북한대표단간의 협의결과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IAEA 협조상향을 공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對北核태도가 적당하다고 있다. IAEA 본부가 있는 빈의 외교 소식통은 IAEA가 북한 핵시설 및 핵안전협정 이행과 관련,

의 「북한에서의 핵안전 수칙」에 관한 8월의 이사회 보고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날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北美核합의에 따른

그는 우선 IAEA 사찰팀의 북한 방문에 관해 「IAEA 총과 북한대표단의 토의가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음을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꺼졌다.

이 「동결해당 시설들이 가동 중지된 상태이고 건설 작업도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몇몇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기 술적인 고려와 북한대표들과의 토의가 더 필요하

블릭스 총장은 이어 북한측이 북한 출입 IAEA 사찰관의 인원을 늘리고 비자발적 동결을 용이하게 하며 영변에 파견된 IAEA 사찰관이 IAEA 본부의 외교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화와 패

한편에서는 IAEA가 저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달라고 고루 해가며 핵안전 수칙 이행에 바람직한 결과를 거두려는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IAEA의 對北 자세

IAEA 對北觀 強硬서 「스마일」로

중전의 「원」협정인 「강정 자체를 버리고 북한의 핵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나 오도록 그 후 핵 안전을 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를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IAEA 사찰관들의 대한 태도에 양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관측」을 표시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그런데 그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IAEA가 「다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강구됐다고 강조했다. 블릭스 총장은 「IAEA 사찰관의 북한 영토의 제 핵시설을 방문한 대 목에 가서도 이를 사찰한

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논의가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릭스 총장의 지적한 미해결 사항은 사찰 장소에 설치한 카메라 대수와 위치 등이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놓고 일 부를 사찰관은 IAEA가 너무 저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스시설을 갖추어 주겠다고 약속도 함께 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태도를 놓고 일 부를 사찰관은 IAEA가 너무 저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가 그 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게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IAEA 관계자의 말로는 IAEA는 엄연한 국제기구로서 北核과 관

전조치 강화,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책 등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문제들도 결국 북한의 핵안전 수칙 준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IAEA 측은 말하고 있다. <민=安泰用특파원>

北韓 사찰태도 “긍정적” 평가

너무 저 자세 아니냐 "일부서 비판" 고무시켜 「結實 얻기」 전략 분석도

이 「동결해당 시설들이 가동 중지된 상태이고 건설 작업도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몇몇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기 술적인 고려와 북한대표들과의 토의가 더 필요하

블릭스 총장은 이어 북한측이 북한 출입 IAEA 사찰관의 인원을 늘리고 비자발적 동결을 용이하게 하며 영변에 파견된 IAEA 사찰관이 IAEA 본부의 외교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화와 패

한편에서는 IAEA가 저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달라고 고루 해가며 핵안전 수칙 이행에 바람직한 결과를 거두려는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IAEA의 對北 자세

15일 선적! 31일 先鋒港 인도

美對北지원 중유 1차분 5만 호남정유사 납품키로

호남정유사가 이달 15일 북한에 화물발적선의 연료로 중유 5만톤의 1차분을 납품한다. 미과 북이 이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기존 핵발전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조건이므로 정유사가 가동되는 2000

3년까지 단계적으로 화물발적선으로 한 화물발적선의 연료 중유 1차분이다. 호남정유사가 15일 미과 북이 이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기존 핵발전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조건이므로 정유사가 가동되는 2000

▽국민일보 1994. 12. 9

北·美 「미관사 회담」 양측 절충성계속

【워싱턴 9일】美·북한 양측이 8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2시) 미·북한 회담이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양측은 핵발전시설의 가동 중지 조건에 대해 절충성계속을 약속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핵발전시설의 가동 중지 조건에 대해 절충성계속을 약속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1994. 12. 10

IAEA理事會 결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0일 열린 50주년 기념 회담에서 결산했다. 회담은 핵발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IAEA는 핵발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北에 대한 핵안정언제나 쟁점

核안전수칙 이행등일단은 긍정 평가 NPT의무 즉시 전면실시 계속 요구

최고의 핵안정언제나 쟁점. 핵안전수칙 이행등일단은 긍정 평가. NPT의무 즉시 전면실시 계속 요구. IAEA는 핵발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美·北연락사무소 5·6명線 규모

3월까지 敷地 선정 완료

美·北연락사무소 5·6명線 규모

【워싱턴=연합】美·北연락사무소 5·6명線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敷地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1995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美·北연락사무소 5·6명線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敷地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1995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5·6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美·北연락사무소 4월 설치

對北무역제한조만간 해제

【워싱턴=연합】美·北연락사무소 4월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4월 말까지 敷地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4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4명線의 敷地 선정은 1995년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4명線의 敷地 선정은 워싱턴과 평양을 연결하는 20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994년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허바드 미국무 副次官補 임명

【워싱턴=연합】미국 국무부에서 허바드 미국무 副次官補가 임명됐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北·美합의 꼭 지킨다.

통신·금융제한 3개월 이내 풀 것 「平和협정」 남북한 對話한 뒤에

【워싱턴=연합】미국 국무부에서 허바드 미국무 副次官補가 임명됐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미국 국무부에서 허바드 미국무 副次官補가 임명됐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허바드는 국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바 있다.

최하위 外交창구... 역할은 "포괄적"

北·美 「연락사무소」 합의 내용

연락사무소 설립은 北·美 정상회담이후 합의된 내용으로, 北·美 양국은 12월 6일 워싱턴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94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94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합의했다.

연락사무소 회의 공동 언론발표문

美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94년 12월 21일 합의된 기본합의서에서 밝힌 양국간 연락사무소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영사 및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4년 12월 6~9일 워싱턴에서 만났다. 회의는 협조적이고 건설적이었다. 양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영사문제 현안과 대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남이남 문제는 연락사무소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다. 양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 95년 초 상대방 수도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주재국 여행자유·관문점왕래 異見

◇합의사항

명칭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대표	사무소장(Chief of Office) 부과장급
인원규모	최소인원(외교통례상 5~7명)
업무범위	양국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
통신문제	美 지통전화회선 설치요구 北, 수용

◇미결사항

행정문제	美주재원, 외교행랑 관문점통과요구 北, 난생표명
여행자유	美 자국민 여행자유화요구에 北 거부 美 북한인에 대한 상용 제한조치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北美연락사무소 합의에서 94년 12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합의식. 양측 대표단이 합의문을 서명하고 있다.

합의내용은 포괄적... 관문점왕래 異見

北대표단 위생점검류 뒷얘기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美정부, 고위관리만찬등 '환대'

호텔비 합의... 北이 호텔 여행전야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포괄적이며,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합의는 양국간 접촉창구, 비자발급 및 자국민보호등 영사업무에 국한된다.

"北 미사일수출 중단해야 美와 외교관계 확대가능"

린 데이비스 미국무차관 밝혀

"이란·시리아에 장비공급" 우려

【워싱턴 11일路透기자】 린 데이비스 미국무차관(국제안보부기용)은 8일 제네바 핵기술회의에 불구하고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과 관련 장비

를 수출할 경우 미국과 외교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차관은 이날 대서양위원회에서 북한연설에서 對北 정수로서서 플루토늄이 수출될 수 있는 다는 지적과 관련, 안전한 서방 모델이 제공될 것이

고 강조했다. 기 때문에 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기술회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만 미국도 이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1994. 12. 11

승룡내용 예견됐던 일

정무, 美-北 회담 결과에 차분

정무(北)는 美-北 회담 결과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정무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美-北 회담 결과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정무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대화 연계 신축적 조정 北 노골적 「韓國배제」엔 경계

북한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의 한 관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는 "미-북 회담이 진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정무·경제기능 "外交창구"

美·北 연락사무소



◇9일 美·北 연락사무소 회담의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오른쪽)이 美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찬이 끝난 뒤 그동안 인내를 닦았던 국무부 여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허바드 필차관도 동미리측 관계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워싱턴=眞滋虎기자]

부처들의 불교교도
로 4월 4일 4월 4일
다섯 번째로 4월 4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시
한국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무부 차관관
은 9일 워싱턴에서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과 회
담을 갖고 악수를 하
고 있다. 허바드 필차
관도 동미리측 관계
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워싱턴=眞滋虎기자】
미국 국무부 차관관
은 9일 워싱턴에서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과 회
담을 갖고 악수를 하
고 있다. 허바드 필차
관도 동미리측 관계
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개설 시기는 「고위급」서 결정 공화당 제동·南北관계가 변수

【워싱턴=眞滋虎기자】
미국 국무부 차관관
은 9일 워싱턴에서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과 회
담을 갖고 악수를 하
고 있다. 허바드 필차
관도 동미리측 관계
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워싱턴=眞滋虎기자】
미국 국무부 차관관
은 9일 워싱턴에서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과 회
담을 갖고 악수를 하
고 있다. 허바드 필차
관도 동미리측 관계
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北·南北대화 왜 기피하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을테 모다시 남북대화가
에 남북대화가 최대 걸림
물인 듯이 되고 있다.
北·美 간 지난 9일 워신
턴에서 열린 양국 전문가
회담에서 사실상 양국사
무

北美관계개선 '카드' 활용 가능성

體制강화위한 시간별기 분석도

소 개선일 필요성 인정
을테 모다시 남북대화가
에 남북대화가 최대 걸림
물인 듯이 되고 있다.
北·美 간 지난 9일 워신
턴에서 열린 양국 전문가
회담에서 사실상 양국사
무

韓美口頭수립의

1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眞滋虎기자】
미국 국무부 차관관
은 9일 워싱턴에서
북한측 대표인 차석관
외교부 부국장과 회
담을 갖고 악수를 하
고 있다. 허바드 필차
관도 동미리측 관계
자들은 사진 촬영을
피해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 북미 전문가 1차회의 결산·전망

핵 연료봉·연락사무소 합의 근접

내년 봄 타결 무난...경수로 한국형싸고 진통 거듭할 듯

김성호 기자

지난 10월21일의 제네바 핵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개 분야의 북-미 전문가 회의가 9일 끝난 워싱턴 연락사무소 회의를 마지막으로 일단 1차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들 중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양측이 대부분의 사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 전문가회의는 화학처리 등을 통한 냉각수 수질 개선으로 보관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또

연락사무소 개설 회의의 경우 연락사무소의 성격과 명칭, 직원에 대한 외교관 특권부여문제, 통신문제 등 중요사항들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여 연락사무소 조기 개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경수로 공급을 위한 베이징 회의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

을 나타내는 등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채 일단 양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선에서 만족해야했다. 경수로회의는 어차피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탐색적인 회의였다.

북-미는 이번 1차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

에 합의한 상태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2차 전문가회의 역시 내년 3월 이전에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다시 열기로 돼있다.

아울러 남아있는 현안으로는 미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냉각수를 개선해 핵연료봉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 조치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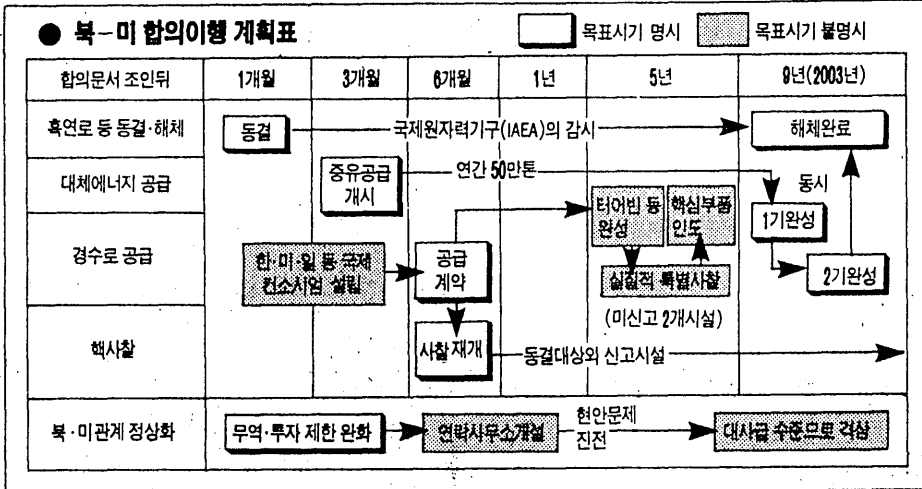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원자로 유형선택권을 국제차관단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역시 자금상환 방식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 차원에서 '한국형 반대입장'을 회의 막바지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네바의 북-미 합의 일정에 따르면 합의 후 6개월 안에 경수로 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3개 분야의 전문가회의는 대체로 내년 4월까지를 목표로 합의를 마무리짓는 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내년 4월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0기 선거와 임기 5년의 주석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고 김주석의 생일이 있는 달이다.

북-미 합의가 1차관문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과 북한 권력승계의 공식화가 묘하게도 일치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해서는 앞으로 후속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사용후 핵연료봉의 경우에는 12월 중에 북한에서 2차 전문가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

경수로 공급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도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중에 개최한다는 원칙

문제가 있다. 연락사무소 직원의 활동범위 및 사무소 장소 선정 문제 등도 해결돼야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입장차이가 별로 없어 2차 전문가회의에서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수로에 있다. '한국표준형' 원자로 제공이라는

워싱턴 / 정연주 특파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은 10일 낮 워싱턴에 있는 한국음식점 우래옥에서 재미 환경향우회(회장 주남훈)가 마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미수교 협상단 환영오찬회에 참석했다.

워싱턴 지역 반공동지회 회원 5명이 "빨갱이 교포들은 평양으로 이민가라"는 등 원색적인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나와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열린 이날 오찬에는 80여명의 교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북한대표단의 박석균 단장(외교부 미주국 부국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이 공식으로 워싱턴에 온 것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여러모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단

□ 북한대표단 환송 오찬 이모저모

한인회 간부도 고심끝 동참 "이산가족 슬픔 녹여야" 울먹

장은 또 연락사무소 개설회담이 "아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부지 선정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 대표단이 환송 오찬회장인 우래옥에 도착하자 재미환경향우회, 북미주조선인친선협회 회원들이 이들을 맞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버지니아주 한인회장 송제경씨, 워싱턴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인 최병근씨 등 이곳 한인회 간부들도 참석했다. 최근까지 반공동지회 회장과 평통자문위원을 지낸 송씨는 이날 환영회 참석 여부를

놓고 한인회 고문들과 새벽 2시까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화해의 길이라 믿었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한인사회가 둘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이 지금까지 줄곧 반공동지회 회장을 하고 지금도 회원이라는 설명을 들은 박석균 북한대표단 단장은 "일생동안 반공을 하셨군요"라고 물으면서 빙긋이 웃었다.

최병근 회장은 "교포들이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다"며 "북한에 가서 골프도 치고 싶은데 골프장이 몇개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럿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대표단의 일인인 박명국 외교부 미주담당 과장은 "워싱턴이 어디 행정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 과학의 발달로 와서 보니 결코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고 방문소감을 말했다.

박석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김정일 비서에 대해 계속 '최고 사령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환경향우회 주남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신도 이산가족이라고 소개하고 "우리와 같은 한과 슬픔을 가진 이산가족의 고통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하나의 조국을 이루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울먹였다.

北경수로 건설비 韓國, 82% 부담

“KEDO 年内 발족”
韓·美·日간 협정 추진
 정부, 초안 마련
 정부는 15, 16일
 이틀간 美國 샌프란시스코
 에서 열린 韓·美·日 3
 국 고위급 회담에서 코리
 아 에너지 개발 기구(KEDO)
 설립을 위한 협정 체결
 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北 美
 제네바 회담 합의에 따라
 한·경수로 공동체와 체결
 시점이 내년 4월로 다가온
 에 따라 그동안 한·美·日 3
 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국
 제 건설 사업인 KEDO를
 발족시키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일
 의정부에서 관계부처 대
 회의를 열고 KEDO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2兆4천6백억... 모두 現物총당

原子爐 시공등 全공정 95% 참여

한·美·日 3국이 합의한 원자력 발전 사업인 한·경수로에 대해 KEDO가 2兆4천6백억 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 중 1兆9천500억 원이 현금으로, 나머지 5천1천600억 원은 원자력 발전기, 원자로, 증기발전기, 배수기, 폐수처리 시설, 냉각수 공급 시설, 건물 등 원자력 발전 시설의 시공, 운전,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경수로 건설비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KEDO는 한·경수로 건설비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휴전선 北병력 철수가 美·北 대외수교전제”

갈루치, 姜錫柱에 입장 전달했다.
 갈루치 대사는 이날 북한
 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 회담에서 이같이 말
 하고 북한은 1백만 명
 60%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
 하고 있으며 중추가 되는
 연합 로켓포의 대부분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성수로
 지원부담과 관련해, 미국의
 부담을 언급한 수천만 달러
 이므로 추진한다고 말하
 고 한국의 대북성수로 제
 공의 한 단계 발전과 한국
 제 건설 사업인 코리아 에너
 지 개발 기구(KEDO)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1기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서방 선
 진 7개국(G7)은 KEDO
 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KEDO의
 O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KEDO의
 O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KEDO의

경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韓·美·日 3국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美공화北·美합의 수용을 지임

NYT 보도 머코스키議員 訪北 뒤 태도 완화

【뉴욕=朴秀晚특파원】북·미 핵합의를 과기하며 뉴욕타임즈가 1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의 머코스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방문 후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의뢰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합의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은 "북한이 핵합의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은 "북한이 핵합의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었다. 머코스키 의원은 "북한이 핵합의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은 "북한이 핵합의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KEDO 韓·美·日 주도"

3國 수석회의의 정책결정전담 理事會설치

【샌프란시스코=연합】韓·美·日 3국 수석대표인 김대중(韓) 대통령, 빌 클린턴(美) 대통령, 히로후미 야마모토(日) 총리가 15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KEDO의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이 회의는 KEDO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KEDO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核안전협정 이행-사찰 허용” 촉구 UN, 對北결의안 채택

【유엔본부=김대환특파원】제49차 유엔총회(12월 15일 오후)에서 채택된 결의안(제49/49호)은 북한에 대한 핵 안전협정 이행과 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핵 안전협정 이행과 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포괄적인 IAEA 연례보고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핵 안전협정 이행과 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핵 안전협정 이행과 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美·北연락사무소 개설 빨라질듯

【워싱턴=丁海榮기자】미국과 북한은 내년 초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내년 초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 워싱턴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이차선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무소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對北합의 再검토 주장 美공화원에 정책보고서

【워싱턴=鄭碩碩특파원】美헤리티지재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독재 정권을 북·美 핵합의를 타결했다며 핵합의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핵합의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Ⅱ.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4. 社說·칼럼

버티기 시작한 北韓

北核문제 해결하기 위한 北美간의 3단계 2차회의가 교착된 것은 전적으로 北韓의 오지 때문이다. 북한은 1차회의에서 核안전협정의 의무 이행에 동의했으면서도 과거 핵규약을 위한 특별사찰을 여전히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5MW 原電에 연료공급을 내비치고 原電건설중단의 보상비도 현금 20억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관련, 韓昇洲의무장관이 輕水爐 안전지원의 특별사찰을 마지않으려 하고 북한이 또 또 유엔연설에서 核무협약을 보장할 경우 경제지원을 표명할 것임을 반복인과 함께 北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주 제네바에서 北美 2차회의가 결렬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수로 지원의 핵심인 寧邊의 2개 未신고 핵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의 시기 문제였다.

미국은 경수로 지원의 착공시점까지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원전이 완공된 후에나 고려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10년뒤에나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2차회의는 사실 지난 8월 12일 1차회의에서 합의한 4개항의 실천사항, 그것도 전부 1차회의에서 하차레 조정된 실천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자리였지만 북한은 뜻밖에도 합의 자체를 뒤엎는 어지추장을 편 것이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金日成의 生前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던 북한이 하루가 급

속으로 북한 태도는 참이로 심상치 않다. 절대권력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한지 3개월이 되도록 후계를 미루고 유력한 권력승계자인 김정일은 잠례식과 추도식이후 일체 모습을 감추고 있어 폐계가 다급 심한 경제난에 내지難속에 최소한 6백만톤의 양유이 필요함에도 양유 수확량이 크게 부족한 4백50만톤으로 예상되고 콜레라까지 창궐하고 있는 데도 전례없이 지도부는 할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남한과는 당분간 어떤 대화도 없겠다면서도 국내 대기업들에 羅津 先鋒자 유특구에 대한 투자호소를 하고 있어 우리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기업들 분리해서 거래하려는 공작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韓의무장관과 크리스토퍼 쿠오장관이 재확인한대로 先를 별사찰 後 경수로 지원 원칙이 확고해진 만큼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때 이처럼 強硬자세로 急變한 배경은 아리송하다. 즉 더 버티기도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며 이를 곧 권력을 승계할 金正日의 지도력 과시의 방편이로 이용하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黨·軍·政간, 그리고 強權지도층간의 갈등도 생각할 수 있다.

유증 북한 태도는 참이로 심상치 않다. 절대권력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한지 3개월이 되도록 후계를 미루고 유력한 권력승계자인 김정일은 잠례식과 추도식이후 일체 모습을 감추고 있어 폐계가 다급 심한 경제난에 내지難속에 최소한 6백만톤의 양유이 필요함에도 양유 수확량이 크게 부족한 4백50만톤으로 예상되고 콜레라까지 창궐하고 있는 데도 전례없이 지도부는 할구하고 있는 것이다.

社說

過去核 투명성 늦출 수 없다

제네바의 미국(美國)-북한(北韓)고위급 회담이 미국의 세계 핵(核)전략과 중간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미국-북한이 일괄타결에 접근하고 있다는 협상 결과들이 당초 그들 스스로 설정, 한국(韓國)과 합의했던 원칙에서 후퇴한 내용이 라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중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특별사찰의 시기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미(韓美)양국이 추구해온 특별사찰은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輕水爐)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명확히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특별사찰을 경수로 건설을 시작하고서도 3~5년까지 뒤로 미루고 미-북 연락사무소 교환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봉을 제3국으로 반출하겠다면 미국의 주장도 꺾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동결할 수 있다면 이런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그들의

리다.

특별사찰 시기를 늦추는 대신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재처리시설의 해체등 목적인 이루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다만 미국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만 추구,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측하지 않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사찰을 5년 가까이 늦춘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과거 핵개발의 모호성을 유지해가며 국제사회를 농락할 여유를 준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플루토늄제조가 가능한 연료봉까지 가진 그들이 그 5년동안 어떤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지역의 핵물질들을 은폐하거나 은닉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타결에 접근한 것처럼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이 반영된 흔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수로 지원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말아야 할지 근본적으로 재고(再考)해야 할 일이다.

社說

北核타결 앞이로의 과제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 타결은 그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핵 미구름을 걷고 장차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의미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성과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한두 굵대가 아니다. 합의문 공표에 마찰과 兎의 소지 등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는 北核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출발인 것이다.

하루 전만 해도 北美간의 합의내용을 마치 못해 「수용」기로 했던 정부가 막바지에 「한반도 非核化 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포함되자 큰 실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韓界의 부장관이 회견에서 밝힌대로 앞으로 北核지지와 함께 북한이 절대不可하던 특별사찰의 시기를 늦춰 수락케 한 것과 輕水爐原電시설의 한국주도 및 대화재개의 관철을 중요성과도 꼽으며 이제부터 對外정책추진

에 있어 핵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반기고 있으나 한 마디로 성실한 기대와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세계 유류의 冷戰상황인 한반도의 기류변화와 관련, 이번 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北核지지의 평가는 북한이 장차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북한이 이번 합의에 만족해 핵을 완전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폐연료봉과 방사화합물질, 5MW 등 각종 원전의 상당기간 유지케 된 데다 새로운 핵개발도 핵소송을 벌여서는 다루히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여론을 의식, 성과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양방향 합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에 전념할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이 단 한조항도 이행을 기피 또는 지연시킬 경우 反對給付의 즉각 중단과 미국측과 분명히 합의, 오는 21일 北美간 정상회담 때 北에 문서로 통고토록 해야 한다. 다음 중·미로서 아등 주변국 및 유엔등과도 긴밀히 共同協力を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北美 합의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이행내용을 차례로 알리 국민적 이해와 감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와 頂上 회담제의, 그리고 모든 對北교류협력을 결연히 서둘러서는 안되며 金正日체제가 확립된 뒤에 그들의 약속이행에 의한 평화의지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北의 약속이행과 모든 지원은 北의 핵실험 비릇, 핵타결의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실조 이행과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의 공식화 진행을 해야 한다. 이같이 원만한 정착 특별사찰이 이뤄지고 정부로가 완강할 때까지 변함없이 견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社說

核타결 성과만 내세울 때가

북한과 미국간의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한반도 핵위협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이 완화될 수 있게 된 것도 이 지역의 안정을 사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우리가 경우에도 원電 건설경비를 주로 부담한다고 하지만 단계 「통일투자」라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무지 날릴 수 없는 게 있다. 국민의 보기에 그간 北美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은 미미했다. 韓美협정이 거듭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는 뒷전에 서 미국을 향해 이면 지원 주류이나 불평을 하거나 진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수용이 되지 않았고 자주 불협화음의 들렸고 때로는 심상치 않은 의외적 갈등까지 노출됐다. 그런 과정을 국민이 지켜왔는데도 정부는 北美협상이 타결되자 스스로 무수한 단란의 표적 대상과나 지루한 하도 있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虛張聲勢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협상성과」의 부각이다. 마지막엔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성과와 일관된다. 우리가 오해하면 협상의 뒷면엔 있었지만 소도 40

억달라에 이르러 原電 건설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체내지 지원도 우리 몫이 될 조짐이 없지 않다. 「통일투자」란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 일본등의 전담적 이의 확보 비용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떠맡는다는 사실이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또 한국형 청수로를 채택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북한 원전의 구조와 그 운영의 전과 전을 전환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점이 있었지만 그의 이상의 효과는 북한과 미국의 이의 달렸다. 우리가 협상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북한 핵문제만 해도 우리가 끼여들여져 가는 것 같고 이미 北로 그같은 상황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남북대화 재개를 명문화했다지만 그게 북측의 심상치 않은 대화의 진전까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승진의 연외서 활약하게 되면 북한의 개방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한 마디만 한 희망의 불과하다. 그만큼 방비도 없이 우리가 기술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민의 대화보다 정치해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라 안 안의 외교적 연계를 그간만 특히 남북관계의 관한 안제나 「국민적 합의」의 바탕을 두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중점과 같이 정부 북측의 교섭추진에 위대한 공헌이다. 「성과」의 진척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한반도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지도, 외교적 스타플에 의해서 대망하지도 않는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국민과 함께 현실을 견고히 정부와 의성신하고 진지한 모험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점을 간직하고자 한다.

北-美합의 모두 공개돼야

제네바 북-미(北-美)핵합의의 미국측 수석 대표인 북-미(北-美) 핵합의의 對外秘 각서(密件) 비공개 부속합의(附屬)가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밀합의의 시행계획이 담겨진 것일 것이다. 또 한편 당국스럽고 의아스럽게도 짜인 일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문제인데 한국민이 몰라야 하며 또 경수로 건설에 누가 돈을 대는 것인가. 북핵문제야말로 한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경수로지원 을 위해 우리가 40억달러가 드는 경비의 50% 이상의 엄청난 재원을 부담케 된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 제만 한 국민 모두가 그 합의내용 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이며 이치다. 물론 국제적 외교협 상에는 공개될 것과 어느 시기까지 공개해서 안될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북핵문제야말로 모든 내용이 공 개되어야 마땅하다. 공개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북 핵이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라는 점이다. 전 세계 매스컴이 제네바합의의 추이 를 쫓고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과 제삼자의 이익과 지, 비핵보유국의 핵개발을 금지하 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 하고 있으며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 대해나가고 있다.

이번 미국이 선별사찰(後經수 로지원이란 韓美간 합의를 양보하 면서까지 북핵합의를 타결시킨 배 경엔 북한의 핵개발로 NPT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제네바유 언(北-美) NPT체제를 유지

확대시키고 공약적으로 「핵 공포 없는 세계를 위해 지금 전면 핵 실험금지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추세에서 합의를 이 루는 결과와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만일 제네바(北-美)합 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고 비밀속에 갈루어 진다면 NPT체제에 참여 하려는 많은 국가들의 의욕을 사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또 중 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屬性이다. 그동안 북 핵은 남한과 수많은 약속과 합의를 했지만 또다시 과거와 불이행, 영 똘한 핵실험으로 이를 보여왔다. 가장 좋은 예가 남북기밀합의서의 불이행이다. 만일 남북기밀합의서 와 함께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 실천됐다면 굳이 북미핵합 상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도 출발 직 전 북한의 말만 마디로 깨지고 말았 다. 아마도 이번 對外秘각서는 북 핵 중요성에 의해서일 것이다. 국 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핵 요구 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된다. 제네 바합의내용을 모두 세계에 공개하 는 것이 북한의 또 다른 위약을 방 지하는 확실한 국제적 담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국제사회는 모든 합의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重油부담까지 곤란하다

제네바 북-미(北-美)핵관련 합의사항 가운데 경수로(輕水爐)건설기간중 대체에너지 공급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관련국들간에 마찰(摩擦)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합의문은 북한이 현재 가동중인 5MW원자로와 앞으로 6개월·18개월 뒤에 각각 완공예정인 50MW·2백MW원자로를 동결(凍結)하는 대가로 이들 원자로에서 나오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중유(重油)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5년까지 15만 t, 그리고 96년부터 경수로 1기(基)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해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하도록 돼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한국·일본등 북한 핵 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레이크 미국 백악관(白堊館)안보보좌관은 북한 경수로

지원에 필요한 40억달러의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양국이 『총구(銃口)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비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 핵 무기 개발동결로 이익을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핵비확산조약(NPT)체제유지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의지를 일단 꺾음으로써 NPT체제 유지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경수로 건설 지원에서 전체 비용의 50%이상을 맡아야 하는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여기에 대체 에너지 비용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이만저만한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늦추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對북한 경수로 지원조차도 내켜하지 않는 한국민의 여론이 있는게 현실이다. 잔치는 자기가 벌이고 돈만 내라는 식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社 說

북한의 선택의 달렸다

북한과 미국의 화해하고 대사관의
교관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휴전선
부근의 집중 배치된 북한 병력의 철수
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北美간의 대화의 단계를
선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대
사가 일본 지지(時事)통신과의 회견
에서 밝힌 내용이다.

단일 한반도에서 평양정산이란
세계적 흐름이 불가피하다면 남북화
해와 군비축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갈
루치의 이번 발언에 조지앙의 관심을
갖는 것은 北美해협의 심정을 알리
데다 그가 對북한접촉을 총괄하는 당
사자라는 점 때문이다.

北美해협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
장이 분명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1백52개 사단과
여단 중 3분의 2를 휴전선의 근접배
치하고 있다. 이들의 평행 장미의
재배치 없이 북간공정대로 전환할
수 없다면 그들이 선정한 휴전선의 어
떤 지점에서도 이의 불파할 수가 있
다. 이런 관사를 그대로 두고는 한
반도의 긴장해소가 평양정산이란 사
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北美제네바회담에서
교관제의 채택과 군사평등 또한 정면

으로 열렸었다. 우리가 이 점을 심하
우려했으나 갈루치 대사가 북한의 패
연표본 처리와 연립사무소 개설문제
를 협의할 전반기회의 개최 의의와 때
를 같이 해 북한군사령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이가 북한군의 군축의 의의
대화의 불교를 더 의미 발호한「기본
합의서」를 실천해 한반도 긴장완화가
전장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뜻이래 이
해된다.

북한의 현안을 되풀이되고 갈루치
발언의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다. 北美해협의 단계를 파헤치고
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실현
시켰다는 체면유지는 되었을망정 그
것이 곧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
공적으로 통일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
은 미국보다 남북한 사이에서 모색되
어야 한다. 미국의 부단의 책임을 물
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의 해결까
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대재삼강
조하고자 한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
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를 통한
화해와 인접물자 교류를 촉진하는 일
이다. 그리고 남북한 상해 군비감축
이로 전장노획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
기 한편 관공인 군사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우
린 정부나 미국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수론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의 선택의 달렸다 하겠다.
지금과 같은 패쇄와 내부의 암이로 국
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인가, 아
니

면과 삼강에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혀서 남북한 선진문화의 수
교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을 승계받은 金正日은 북한의 살아남
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1994. 10. 26

추가費用 떠넘기는 美國

北美합의만 작성후의 미국과 평
노가 수장(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평노(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평노(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합의만 임의로 보던 더 안전한 상
황을 북은 생각(李承晚)은 생각(李承晚)은
합의만 임의로 보던 더 안전한 상
황을 북은 생각(李承晚)은 생각(李承晚)은

北美합의만 작성후의 미국과 평
노가 수장(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평노(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평노(李承晚) 韓北代辦(李承晚)은

합의만 임의로 보던 더 안전한 상
황을 북은 생각(李承晚)은 생각(李承晚)은
합의만 임의로 보던 더 안전한 상
황을 북은 생각(李承晚)은 생각(李承晚)은

민간 차관으로서 우리 부채만 2차
를 더 증가시켰다. 北核(北核)은 처음부
터 1차 차관을 위해 1억 달러의
IAEA가 1차 차관 5억 달러(2000
불)를 제공했다. 2차 차관을 위한
2억 달러의 차관을 1차 차관의 5
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사실 北核(北核)은 1994년 10월
11일(1994년 10월 11일)이었다.
NDA(北核)는 1994년 10월 11일
을 전후로 미국이 1차 차관을 5
천만 달러로 2차 차관을 5천만
달러로 1994년 10월 11일(1994년
10월 11일)이었다. 2차 차관을
위한 2억 달러의 차관을 1차 차관의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北核(北核)은 1994년 10월 11일(1994년
10월 11일)이었다. 2차 차관을
위한 2억 달러의 차관을 1차 차관의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1994년 10월
11일(1994년 10월 11일)이었다.
2차 차관을 위한 2억 달러의 차관을
1차 차관의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社說

駐韓미군 減縮의 조건

세계적 추세와 남북파 합의 하에
 도에도 본격적인 불어날 것 모 양
 이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합의한
 사가 휴전선 전 지역의 북측지역 撤收
 (철수)가 대략 100여 개의 정예부
 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 지역도
 縮論과 주한미군 減縮은 불가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유
 8인 訪韓할 크리스마스 戰力 韓山 駐
 이 한미간의 戰力 韓山 駐
 를 거둬들이는 데도 韓山 駐
 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유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이를 韓山 駐軍 減縮이라고
 유한미군 減縮과 北 美 합의가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北-美 합의의 安保理로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유한미군 減縮의 필요성을

社說

「美·北합의」冷과溫

미국의 중간선거 열기 때문에 관
심외로 접에서 비켜나 있던 제네바
「美·北(北) 합의」가 의회 및 여
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美 상
원 외교위원회는 30일부터 청문회
를 열어 핵(核)협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진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제
네바 합의의 맹점과 합점들을 예리
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워
싱턴 포스트는 고위핵정책 전문가
2명의 공증기사를 통해 美정부 관
계자들이 설명한 것과 실제 핵협상
안 사이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남편이 지적했다. 그 가운데서도
페어뷰방송 북한에 그대포 놔두고
2(基)의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
지는 북한의 원자로나 재처리시설
을 해체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 북한핵에 아무
런 손해를 줄 수 없게 된 것과 마찬
가지라고 본 것은 이미 우리도 우
려해오던 바였다. 또 북한에 경수
로 1기를 건설한 후에 미·북간의
논란이 별의별 경우 북한은 경수로
1기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동결해
두었던 원자로와 방사화시설합산을

제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에 미루어 볼
때 결코杞憂(杞憂)가 아니다.

미국의 또 다른 유력신문은 최근
「美·북합의」에 관한 공보이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식의 합의
로는 핵무기 보유를 기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인 외교정
책도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
고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 나라에서는
마치 북핵문제가 모두 좋게만 해결
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무드에 들떠
있다. 북에서는 우리의 경제 협정
화 조치를 유실론 거부했음에도 불
구하고 남북 협정이 안된 것은 오
로지 남북의 규제에만 이유가 있었
던 것처럼 여기저기, 활발히 규제
를 푸는 조치에 급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내부자는 미국
의 협정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장에서
미·북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
다 해도 이를 배지화하거나 재협상
하기는 어렵울 것이라고 보고 있
다. 거기에는 경수로의 主契約(주
계약) 업체 선정권인 북한이 아니
라 국제 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갖도록 추진
키로 한 미·북합의의 의지를 모았다
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美·北합의가 무산되지 않
다면 변화가 오더라도 문제점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점진하게 대응
하려는 노력을 우선순위에 올려
야 한다.

이제까지 핵문제를 비롯한 전방
적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다
닌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 우리
의 관점이다.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북핵에 관한 문제를 숨기거나 외면
하지 말고 분석적·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도전받는 北-美합의

미국(美國)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北韓)에 제공하게 될 대체 에너지 지원
합의를 번복시키겠다고 美공화당 중진의
원들이 밝히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
북(對北)정책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상당한 제동이 있으리란 것은
예상되던 일이지만 공화당 중진의원들이
구체적 행동지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그러한 의지가 관철
된다면 최악의 경우 합의문은 파기될 운
명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한반도
주변정세는 극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美공화당 의원들이 북-미(北-美)합의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만과 비판의 논점(論
點)은 협상과정에서나 타결된 이후 우리
도 여러차례 언급한바 있다. 40억달러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
는 대가로 고작 5년후에나 핵사찰 허용
약속을 받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공화당의
원 뜻이 않게 아쉬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막대한

지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美정부의 정
책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북
한이 합의 내용만 성실히 지킨다면 비록
뒤늦기는 하지만 핵무명성을 밝혀내고 한
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北-美간의 합의는 북한측이 규정된 원
자로와 그 관련시설의 가동을 동결, 이미
발효중에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합
의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등 훼손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대
북(對北)제재론등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
도의 정세는 합의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합의내용이 철
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오
랜 세월이 걸릴 합의문 이행과정에서 더
이상 美행정부가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공화당이 대체 에너지 제공을 못하게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도 공화당의
움직임은 주목된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社說

美의회 심판받는 北核

미국 의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일컫는 지난번 중공선거가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결의였다든 인식하여 상원의 정적인인보다도 상원내부의 색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전환의 신호에는 40년만에 두 兩院을 장악한 민주당의 색다른 「사상」가 여당 명서이다.

차기 하원의장의 확실시되는 김 크린저는 「가족」과 「신인」을 복원하여 타락한 세속적 미국사회를 다시 살리겠다고 공언했고 상원의교원위원장의 자리에 오를 것을 시키는 미국 제임스의 기치 아래 유엔의 핵소속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의 차례다. 상원의 외교위원인 아시아태평양 小委員위원장 에 취임할 머코스키는 미국의 重油제정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차기 상원 원내총무인 들의 내년에 본격적인 北核침략회를 갖자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정책논쟁을 한층 더 가열시켜 차제에 보수론의 선봉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

히만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화당의 행정 부 비판의 次期 大權을 노리는 정파간의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은 벌써 야당을 가진 정치인이 탈락하는 지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美上院의 외교위원인 아 태평양 小委員의 北核정당화가 「일방

우」로 시작하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제네바 담판장의 주변을 서성대다 北美 회담의 타결소식에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했던 지난 10월의 한류외교가 새삼 떠오른다. 중공선거 때문에 무대는 우

방인 미국의 상원으로 옮겨지고 主權權은 공화당 反共세력의 몫이 되었지만 한류는 여전히 무대의 주변을 서성대고 있다. 게다가 제네바에서의 北美 회담에 이를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직접 패권인 派派의 공화당내에 많지 않다. 공화당 매과의 우선적 과제는 미국의 費用負擔을 줄이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류민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담

판판에 따라 북한 핵 문제가 출몰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외」 「정」 「회」 「서」 「부」 「탄」 「적」 「나」 「기」 「시」 「간」 「합」 「의」 「발」 「표」 「의」 「불」 「과」 「화」 「를」 「대」 「처」 「는」 「말」 「아」 「야」 「한다. 「한」 「류」 「의」 「단」 「조」 「는」 「한」 「미」 「의」 「단」 「조」 「가」 「미」 「국」 「상」 「원」 「내」 「서」 「벌」 「어」 「진」 「민」 「주」 「당」 「과」 「공」 「화」 「당」 「의」 「핵」 「문」 「제」 「에」 「지」 「대」 「한」 「영」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열대 한류의 정치권의 각성해야 한다. 미국의 상원의 北核정당을 전향화할 때 당사자인 한류의 부흥이 원순정화할 수 있고 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로 갖는가. 국민조차 고민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보는 국민정치가 필요하다.

사설

북-미 관계의 의미있는 진전

북한과 미국은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합의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손발을 잘 맞추어가는 듯하다. 9일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제2차 북-미 전문가회담을 마친 양측은 언론발표문을 내고 "회담은 협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했다. 영사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한다. 이제 언론발표문의 표현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는 연락사무소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뿐인 것 같다. 내년 4월이면 평양과 워싱턴에 미국과 북한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리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는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원자로 건설도 중단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합의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한국형에 대한 반대이사 표명으로 멈춰서고 있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전혀 움직일 기색도 보여주지 않는 남북대화 부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는 한국형 경수로 채택에 동의하며, 남북관계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듯하다. 또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다른 북-미 합의사항이나 현안들과 연계도 록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곧 외교관계 수립은 아니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 합의가 앞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로의 격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북-미 반세기의 적대관계를 해소해 가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큰 것이다. 이미 북-미 합의의 시점에서 예정되었던 수순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무리없이 합의내용을 진척시켜 감에 따라 변화를 이룰 동북아의 안보분위기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외교노선을 뒤따라 왔다고 해야 할 우리 외교가 드디어 시련기에 섰다고 하면 무리한 지적인가.

이제 북한이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락하면서 얻어내려 애써왔던 미국과의 수교는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왔다. 미국은 오랜 참음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짚어보자면 괴롭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조차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화'가 마치 국정의 유일한 지표처럼 운위되는 이때 우리의 남북정책도 세계화를 향해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역사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보는 것에서 열린 남북정책은 출발하게 될 것이다.

社說

北·美 접근과 남북한 관계

유신정에서 영그제를 반대해 온 북·미간 실무회담은 결과적으로 5·7명군대의 영합사무소가 내포를 포함하여 영합회담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도 영합회담이 영합회담의 북·미관계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북·미 영합회담이 영합회담에서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최대한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새로운 사태는 아니었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동아일보 1994. 12. 11

北-美 연락사무소의 의미

북·미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다만 그 모양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은 영합회담의 영합회담을 주목한다.

社說

北美관계 진전에 대비할 일

북한이 對美관계 개선합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워싱턴에서 9일 열린 北美전부회담이 양측 모두의 연합사수를 개설하는데 필연적인 조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 조치는 전후의 對美사수가 틀어지기 전인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양측이 對美관계의 진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체코마하의 의하면 전반기에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양측 모두의 연합사수를 설치하기로 시간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北美관계 정상화 과정이 이처럼 비로소 順調을 보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전후의 對美관계에 별안간 귀순하는 북한의 불합리한 거동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도 북한에게서 다수의 정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반세기 가까이 전후의 對美관계가 금일 成이 되고 난 후의 북한이 다시 새로운 영도자 아래 자신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도 북한에게서 다수의 정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의 체제를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가 다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초연하게 기다려도 좋을 이유가 없다. 이의대부분은 對美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美·北진전, 南·北교착

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워싱턴에서 12일 열린 對北회담이 양측 모두의 연합사수를 개설하는데 필연적인 조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 조치는 전후의 對美사수가 틀어지기 전인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양측이 對美관계의 진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체코마하의 의하면 전반기에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양측 모두의 연합사수를 설치하기로 시간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北美관계 정상화 과정이 이처럼 비로소 順調을 보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전후의 對美관계에 별안간 귀순하는 북한의 불합리한 거동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체코마하(北)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미북관계는 예상보다 더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평양간 연락사 주교는 워싱턴-평양간 연락사 주교를 포함하여 전후의 對美사수가 틀어지기 전인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양측이 對美관계의 진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北美관계 정상화 과정이 이처럼 비로소 順調을 보이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전후의 對美관계에 별안간 귀순하는 북한의 불합리한 거동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라고 분류하고 미군의 조선전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관공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국이 아부다비와 여타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이집트 정부도...



성炳旭 칼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성炳旭 칼럼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北核, 부검까지 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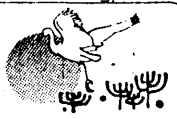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北核, 부검까지 가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時論



새친구와 옛친구

새친구와 옛친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만, 옛 친구를 잊는 것은 더 어렵다.



崔浩中 (기자칼럼위원)

새친구와 옛친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만, 옛 친구를 잊는 것은 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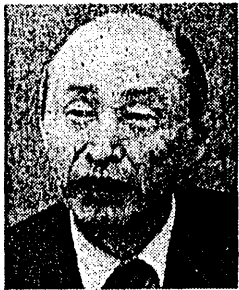
새친구와 옛친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만, 옛 친구를 잊는 것은 더 어렵다.

새친구와 옛친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만, 옛 친구를 잊는 것은 더 어렵다.

새친구와 옛친구,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만, 옛 친구를 잊는 것은 더 어렵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鄭 鎔 碩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出 龍 河

정지환 수원대 교수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이제부터 「북한」이그럴듯하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북미합의'가 북간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북한이 발표한 문체부 발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寄稿

北核위기 정말 끝날까

북핵 위기는 정말 끝날까...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平壤의 약속」 여전히 불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草案과 발표안된 文件엔 차이 언제 또 「새 카드」 들고 나올지...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한이 발표한 문체부 발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文 昌 克

북한이 발표한 문체부 발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輕水爐 협상만은 우리가

북한이 발표한 문체부 발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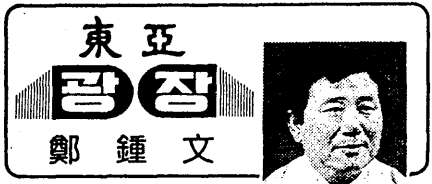
對北인사교무 안의

북한이 발표한 문체부 발표...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한 선전포의 부장장인 김...
북한 선전포의 부장장인 김...
북한 선전포의 부장장인 김...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東亞 鄭鍾文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核타결 임의적 과 임의적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남자核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安秉俊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 핵 미가상 이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龍河

서문대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眞洞칼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輕水爐 조기 발전기 열풍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時論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崔浩中

「北·美 합의」이 무엇이 KORYU인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편,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李銀哲 (서울대교수·核공학)

33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輕水爐시원」美의「순심」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東亞時評

李鍾勳



北米연료(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원자력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 4각관계 변경될
7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南北韓 새시대를 향하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밀해독능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Ⅲ. 南北經協 關聯

1. 南北經濟 交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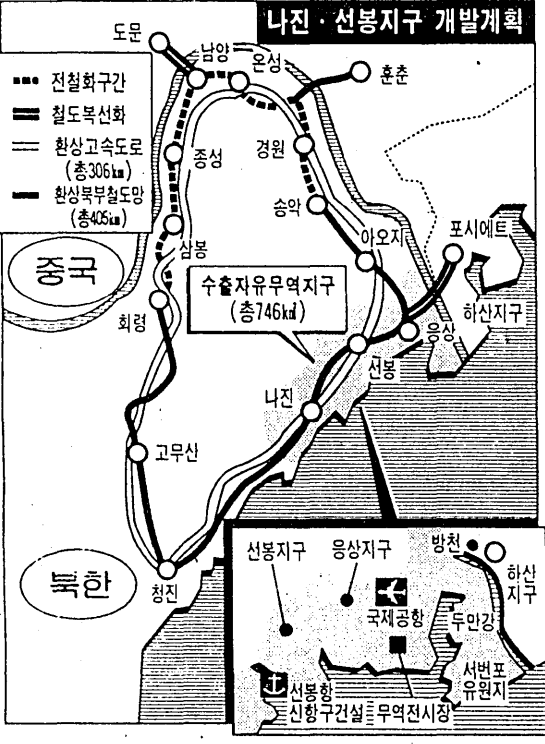
羅津·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 北, 총 70억弗 투자계획

SOC 23·공업 68개 프로젝트 선정

羅津 정유·先鋒 전자전기 중심 외국기업 대상 유치활동 적극

기밀원 「北경제평판」 발표

경제기획원은 30일 북한 로저기(羅津)·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과 관련, 사회적 투자본시업(SOC) 부문 23개 프로젝트(총 33억 3천만달러)와 68개 공업 프로젝트(총 36억 6천만달러)를 발표하고,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로저기·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따라 추진된다. 로저기·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서 합의된 '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따라 추진된다. 로저기·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서 합의된 '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따라 추진된다.



로저기·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서 합의된 '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따라 추진된다. 로저기·先鋒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서 합의된 '92년 12월 15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따라 추진된다.

▽동아일보 1994. 10. 1

北京서 「투자 접촉」 갖자

北韓 中진출 韓國기업에 개별 연락

【北京=金惠根】개발개방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北韓이 韓國기업들의 북한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투자자와 한국기업대표들간의 10월 중 北京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것이 30일 확인됐다. 북한은 또 S.D.K(사회주의노동자혁명당)에 대해 일부 한국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개별 연락을 하고 있다. 북한은 또 S.D.K(사회주의노동자혁명당)에 대해 일부 한국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개별 연락을 하고 있다.

◇나진·선봉지구 주요 프로젝트

▲SOC부문 (단위:만달러)				
사업명	사업규모	투자액	투자방식	
나진항	연간5천만톤	152,000	합작	합영
나진서해항	연간1천만톤	13,500	합영	
나진고속도로	총연장 73km	10,340	합영	
선봉공화력	너비 1~20m	72,856	합작	합영
선봉수송	연2천만명수송	16,000	합작	
▲공업부문				
사업명	위치	연산규모	투자액	투자방식
정유공장	나진	2백만톤	150,000	합작, 합영
자동차공장	선봉	10만대	10,000	합작, 합영
공정공장	선봉	5만대	38,000	합작, 합영
자동차공장	선봉	1천만개	6,000	합작, 합영
TV공장	선봉	2백만대	15,000	합작, 합영

北, 韓國상사와의 접점 증가에 힘

北京서 총리직속 단일창구 설치

대기업별 전담책임... 정부-기업간 협력 강화

【서울 2일路透電】北京에서 10월 1일 중국 상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총리직속 단일창구(單一窗口)를 설치한다. 이 창구는 대기업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상사들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단일창구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중국 상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상사들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단일창구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중국 상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

北側, 南한기업의 진출

【東京=李東寅】北韓이 최근 남한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北, 韓國상사와의 접점 증가에 힘

【서울 2일路透電】北京에서 10월 1일 중국 상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총리직속 단일창구(單一窗口)를 설치한다. 이 창구는 대기업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상사들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단일창구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중국 상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별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난 타개·정치선전 二重 포석

조직개편·책임자도 교체해 주목

【서울 2일路透電】北韓이 최근 남한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한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측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 경제대표단 입국 불허

정부, 주한 유럽상의 나진-선봉 세미나 초청 4명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립 태덕 부위원장 등 북한 당국자 4명이 이달중 서울을 방문하려 했으나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해 입국이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통일원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회장 앨런 트루스트)에 따르면 립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7월 주한 유럽상의로부터 이 단체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수락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유럽상의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이들의 남한방문 신청서를 통일원에 지난달 중순 접수시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통일원·경제기획원·안기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북한대표단의 방문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구두로 유엔개발계획과 유럽상의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는 정무원 산하기관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과 남한 및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상의는 이번 세미나에 이들을 초청해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북한 대표단과 국내기업 및 주한 외국기업들간의 투자상담을 주선했을 계획이었다.

통일원은 이에 대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측에 문서를 통해 공식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북-미회담 진전 등 상황 추이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남북경제인 서울접촉 일단무산

정부, 북 적극성에 고심끝 불허로 가닥

일부선 '제네바회담뒤 결정' 신중론도

김성수 기자

당국이 주한 유럽상의의 초청을 받고 서울에 올 뜻을 비친 북한 경제대표단의 입국을 불허해 기대를 모았던 남북한 경제인 접촉은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등에 외국기업과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직전인 6월에 IBM 등 미국·일본·유럽의 외국 기업들에 투자방문 초청장을 보낸 북한은 지난 9월18일 립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는 11일 열리는 유럽상의 주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세미나'에서 주한 외국기업들과 국내업체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갖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게 방북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도 돌린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김정일 체제가 경제개방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

한 유럽상의의 초청에 응한 것은 최근의 남북한 긴장국면에서도 북한이 남북경협 측면에서 남쪽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 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북한 대표단의 서울방문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핵과 남북경협의 연계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회담 결과를 본 뒤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자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개발계획과 유럽상의측에 구두로 북한 대표단의 서울 방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지만 아직 서류상으로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유럽상의의 북한 대표단 초청작업은 지난 6월초 내부 논의를 거쳐 시작됐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인 이 시점은 유엔이

북한핵을 이유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인 긴장국면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상의의 장 자크 그로아 이사는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럽상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돼 한반도에 해빙분위기가 감돌던 7월초 10월 열리는 세미나에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당국자들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통일원에 전달했다.

그뒤 곧바로 유럽상의는 베이징에 실무자를 보내 북한측과 접촉했고 지난달 18일 북한으로부터 립태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4명을 서울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특히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경제인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유럽상의측은 전했다.

한편 유럽상의측은 "이번 나진-선봉 세미나에 북한 대표단의 참석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기회가 오면 다시 북한 당국자를 서울에 초청하겠다"고 밝혀 대북한 투자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北, 우리기업에 「訪北커미션」 요구

“초청장경신... 1백만弗내라”

삼성·현대·대우등과 北京서 협상중

북한의 최근 북한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38개 기업 중 일부와 접촉, 이미 발효된 訪北초청장을 재신하겠다는 입장변경을 밝힌 것으로 초청장 경신의 필요성이 커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지난달 초 초청장 경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8개 기업이 발효된 訪北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최근 국내 대기업의 북한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北, 초청장경신 통보의 저변

북한이 최근 국내 대기업의 북한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外貨難 타개·核·經協 연계정책 우회속셈 한국기업 경쟁시켜 對北투자 촉진 유도

북한은 그동안 金達玄 前국가계획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비롯해 朴敬允 前총리 등 여러 명이 북한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개 주요기업 대북한투자 프로젝트

기업명	프로젝트	비고
삼성	스웨터, 식료품, 전자제품	북한측 과중
현대	면방직	“
럭키금성	정유공장 개·보수, 봉제, 의류공장	북한측 제의중
대우	남포 8개 공장권립 공동개발	“
선진	수산물가공 합작	“
쌍용	신발 합작	“
롯데	백화점건립	전속중
효성	봉제, 직물합작	추진중
한화	PVC합작	“
두산	골프장간 생산공장	“
코오롱	제직, 염색공장	“
고려	진주, 화성직물합작	방북협의
한일	아크릴방직공장	추진중
금호	합성고무, 라텍스	“
삼미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
미원	식품사업 및 생수개발	“
해태	과일음료, 가공식품	“
진로	수산물가공, 병합건립	“
동양	시멘트 생산공장	“
김원산업	연탄공장	“
벽산	슬레이트공장	가계약체결
한국강관	아연도금강관	추진중
식재공업	식산공동개발	“
복심자	의약품플랜트	“
원구공업	원구합작사업	“
나산실업	봉제	“
신세계	백화점건립	“
두성통상	봉제	“
영창외기	파이노합작사업	“

의 커미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직원 개편해 북경 현지에서 우리기업과 접촉하면서 기왕의 발효된 초청장을 정비할 뜻을 알리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발효된 초청장을 재신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중·대우·현대·대우 등 38개 기업은 대북진출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일부 중소기업들 이 그러한 통보를 받았는 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대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없인 남북경협 안해”

김대통령 대북 강경입장 밝혀... 대화 서두르지 않을 것

김영삼 대통령은 8일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생각할 수 없다”고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핵-경협 연계의 해제 움직임에 대해 확기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나치게 경협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미국과 일본도 결코 북한과의 경협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조급하게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의 국회비준 시기에 대해 “국회 문제는 전적으로 당에 일임해 놓고 있으며, 당이 미국과 일본의 처리를 지켜보면서 하겠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자

당이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당정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제하에서 대폭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개각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정개편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연말께 부분적인 당정개편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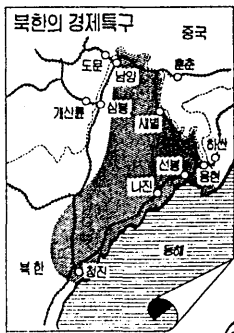
북에 무역사무소 설치

南北

합의서명

北京서 貿公측

나진·선봉지역 내달 조사단 파견



북한의 경제특구

한반도와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서 비밀리에 만나 가급적

의 고위실무

고 발하고, 『현재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추진과 해부

추진해왔지만, 상당간 정

회의소가 서울에서 주최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무역사무소 설치

지역에 무역사무소 설립을

이 단계는 나진·선봉 지역 무역사무소 설치

은 무역진흥공사가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선봉지역에 무역사무소 설치

를 추진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한미실무자가 초

점인 나진·선봉지역에 무역사무소 설치

를 추진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한미실무자가 초

명칭 보장 문제를 잠깐

해 정리가 최종협정을 유

보하고 있지만, 金泳三대

통일의 최종협정을 받는데

로 나진·선봉지역에 무역

사무소 설립을 금명간 파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선봉지역에 무역

사무소 설치

▽한겨레신문 1994. 10. 10

북 '초청 재심' 부인

고려민족산업협, 관계당국에 문서로 통보

북한이 남쪽 기업에 이미 내준 방북초청장의 재심사를 통보하고 이의 경신 과정에서 거역의 코디션을 요구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북한 내의 경제협력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회장 이성복)는 8일 국내기업에 기존 방북신청서의 재심사와 커미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문서로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N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이 통보문에서 이 협회는 초청장을 재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동안 남쪽기업에 초청장을 발급하면서 수수료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절대 수수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성격상 초청서 재심이나 수수료 요청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만

약 기존의 방북초청장을 재심사한다 하더라도 이 협회의 '윗선'의 기관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전 여러 경로로 산만하게 남한 기업들과 접촉했던 북한은 김 주석의 사망 이후 이 협회를 대남 경제교류의 주도적 창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정무원 부장급인 이성복을 이 협회 회장으로 임명해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기 기자

'방북초청 재심·커미션 요구' 보도 파장

박종언 기자

북한의 '초청장 재심과 거역 커미션 요구' 보도에 대해 업계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북한측이 이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밝혀 국내 일부 언론 보도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은 초청장을 받기로 돈 벌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업계에서 파도는 단순한 소문 수준일 때는 가혹이나 경제협력의 숨통이 막힌 상태에서 기업의 대북투자 의욕을 꺾고 남북 사이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는 최근 북한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한 통일원의 설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

이었다.

통일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또다른 근거로 △김 주석 사후인 지난 7월 대남 경제 접촉과 관련해 매우 비중 있는 인물로 알려진 이성복이 이 협회 회장에 임명된 점 △지난 8월말 처음으로 3~4명의 상근 직원을 이 협회 베이징 사무소에 파견한 점 △박정희가 최근 국내 대기업들과 본격적인 접촉에 나선 점 등을 들었다.

당시 통일원은 자신들의 정보나 분석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우려해 '비보도'를 여러 차례 정제하기도 했다. 더욱이 초청장 재발급을 받기로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당시 초문이라는 게 통일원의 얘기다. 통일원 관계자는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방북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절차도 있는데 초청

통일원 흘린 말 언론 부풀리기 불신감 증폭 경험숨통 더욱 쪼

북한, 이례적 즉각부인 협력활성화 의욕 반증

자는 북한의 투자유치 교섭대표로 볼 수 있는 박경은 금강산국제그룹 총사장이 초청장 재심 의사를 나타냈다는 말을, 베이징에서 북한측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국내 기업 관계자로부터 전해왔다고 전했다. 박 사장이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포함해 자신들이 발급한 초청장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후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기존의 업무를 재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나름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의 하나로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다. '초청장 재심 계획' 발언은 기존에 우후죽순으로 남발된 초청장을 정리하면서 현재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회장 이성복)를 주도적 창구로 삼겠다는 북쪽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통일원의 설명

장이 몇백만달러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쪽과 북한은 아예 그런 말이 오간 사실조차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북한의 얘기를 종합할 때 적어도 북한이 기존의 초청장을 재심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돈을 요구하며 재심 협의의 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만약 북한이 초청장 재심 방침을 내비쳤다면 돈벌이가 아니라 북핵 문제의 진전에 대비해 대외 경제협력의 경로를 재검토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의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또 북한이 보도 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문서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한 기업과의 협력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치적 부당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이미 합류 기업 진출을 허용한 나진·선봉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적 조사단 구성'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전해진다. 『최종협정이 체결되면 연합안에 KOTRA와 업계조사단이 현지에서 파견되고 무역사무소 개설과도 연내에 추진점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은 나진·선봉지역 개발 상태를 돌아보는데만 국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선봉지역(신봉)은 EU(유럽연합) 상용 무역지대에 포함시켰다. <金載滿기자>

제3의 南北대화창구 열린다

북측별주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경색」벗을 호재 : 관계 새 국면 기업 北진출통로 일원화 효과

평양대신 나진-선봉 선택 : 쌍방 정치적 부담 줄여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金載濤기자>

「경색」벗을 호재 : 관계 새 국면
기업 北진출통로 일원화 효과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KOTRA) 무역사무소 설치키로 비공식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정협인 美-北제네바회담의 결과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對北經協 中企중심추진

정부 대책 공 발표 초기엔 千萬弗이하로 제한

정부가 「간핵(核)과 경제사적」을 대북 (對北)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간핵(核)과 경제사적」을 대북 (對北)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남북대화 재개전에 활용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對北經協」을 대북 투자·과전·수급·현지 투자·시설재의 북한 진출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또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北에 施設材 반출 허용

南北경협안 공 발표 경제공동위 개최 제의 검토

정부가 北(북)에 대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설재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간핵(核)과 경제사적」을 대북 (對北)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간핵(核)과 경제사적」을 대북 (對北)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北대외經協창구는 「高民發」

金日成 死後지정... 회장 李成綠 남한기업통 주무위원회가 승인... 中國의 여객사

「高民發」를 창립하고, 북 주 남북경협위원회의 재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고와 함께 高民發를 통해 남북경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간핵(核)과 경제사적」을 대북 (對北)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기업·대중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대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對北경협 다소 늦어질듯

“대화再開도 내년초에나”

정파남북자 합의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부장관

시기나 형식에 대해 아직
정확결정을 내지 않았다.
서, “대통령이 11월 예정된
북 회담을 정부 준비의 여하에
따라 결정하겠다.”

결협에 대한 구체적인 일
정확할 수 없다. 다만 북 회
담의 의의는 분명하다. 북 회
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부장관

이날 추부총리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 회담이
시기나 형식에 대해 아직
정확결정을 내지 않았다.”

정파남북자 합의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부장관

시기나 형식에 대해 아직
정확결정을 내지 않았다.

정파남북자 합의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부장관

이날 추부총리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 회담이
시기나 형식에 대해 아직
정확결정을 내지 않았다.”

“한국기업 평양사무소 허용”

정부당국자 “고려민족발전협서 방침 밝혀”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등 특정개발지구 뿐 아니라 평양에도 한국 기업들의 사무소 설치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북한의 대남경협 전담기구인 고려민족발전협회(회장 이성록 대외경제위원

회 부위원장) 베이징사무소 설치 최근 한국 기업들에 “평양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네바 회담 후 속조치로 곧 취할 1단계 남북경협 규제완화조치에 북한내 기업사무소 설치도 포함시킬 경우 이르면 연내

에도 우리 기업들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이 수월하다”며 고려민족발전협회측에 평양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엔 나진·선봉지구, 현대는 강원도 원산지역, 대우는 남포공단, 럭키금성은 신의주지역을 각각 투자유망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평양에 설치하고 이들 지역에는 지사 형태의 사무실을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對北경협 시동추진

政府 北 회담 추진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등 특정개발지구 뿐 아니라 평양에도 한국 기업들의 사무소 설치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북한의 대남경협 전담기구인 고려민족발전협회(회장 이성록 대외경제위원

南北경협 단계별 추진

정부발원 핵회담 타결불구 서둘러 추진

정부는 북·미 핵회담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경협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11월 예정된 북 회담을 정부 준비의 여하에 따라 결정하겠다.”

정부는 북·미 핵회담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경협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11월 예정된 북 회담을 정부 준비의 여하에 따라 결정하겠다.”

北 現代·三星이 초청

▽경향신문 1994. 11. 8

北京주재「高民發」 통해 재발급

北 現代·三星이 9월 발족시킨 高民發의 발족 공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은 최근 현대그룹 鄭周永의 회장과 三星의 李健熙를 초청했다.

한은 최근 北京 주재 고려 미팅(산업발전위원회) 高民發·최정호 2인자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현대와 三星의 기업인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발송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金日成 주석 사

만 이후 대외정책 발표를 거듭한 9월 발족시킨 高民發이 남북 기업인들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82년 재계총노조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최정호와 鄭周永 회장이 5인 방한한 李健熙의 방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高民發의 방북 초

정착이 그의 향후 행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고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 중인 남북협업 방안의 기업인 방북행동이 포함되던 상층부의 의회의 따라 북·한학 관공인사의 남한 방문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합상사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관계 인사를 초청할 경우 高民發 李健熙 등 高民發관계자들과 羅津先



北, 韓國企業 초청 무슨 뜻 담겼나

한 발북 (訪北) 초청장을 재산사해왔는데 그것 정도로는 현대와 삼성을 선택한 것이다.

초청장 재발급에 상당의 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방한」 북한이 현대의

다. 그러나 현대가 그후 북·한이 자신들의 몫이 되게 하려고 양인 시범기업에 방한을 허가할 경우의 3종류에 「방한」

다. 「방한」이란 북한이 방북한 기업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제외하며 北美 합의를 이후 서울과 평양이 모두 발표된 남북협업(經協) 재개 여부를 떠나 있다.

북한은 방북 (訪北) 초청장을 재산사해왔는데 그것 정도로는 현대와 삼성을 선택한 것이다.

초청장 재발급에 상당의 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방한」 북한이 현대의

다. 그러나 현대가 그후 북·한이 자신들의 몫이 되게 하려고 양인 시범기업에 방한을 허가할 경우의 3종류에 「방한」

다. 「방한」이란 북한이 방북한 기업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다. 「방한」이란 북한이 방북한 기업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III. 南北經協 關聯

2. 政府 經協活性化 發表

“남북經協 활성화 단계조치”

金대통령, 核연계해제

金대통령은 7일 북 정부가 핵연계해제와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정부는 핵연계해제와 경제협력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부는 핵연계해제와 경제협력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부는 핵연계해제와 경제협력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발표 5百萬弗이하 직접투자 가능 기술진 북과견·시설재반출도

정부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百萬弗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술진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百萬弗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술진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百萬弗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술진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百萬弗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술진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訪北·사무소 허용

정부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百萬弗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술진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訪北 사례

기업인 1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 기업과 접촉하고,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개발 정부승인보류로 무산 鄭周永씨 92년 첫방문 이후 꾸준한 물밑접촉 金宇中씨

▽동아일보 1994. 11. 8

南北經協案 與野“합종”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여야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北韓 신뢰성 큰 숙제” 民主 “과당 경쟁 경계해야” 民自

북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남북 경제협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은 과당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남북 경제협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은 과당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北화담」등 넘을 고비 수두룩

南北전쟁 정전정당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남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美화담」(美韓)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北-美화담」 이후 韓半島변화 대이 개시 成事맨 「이산가족」등 協力확대 프로그램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남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남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정전정당」 정전-야당 연합가파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사진: 김철호)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88년 불리... 91년 북측 완화된 후 귀의 화해 北核문제 대두-간첩단 사건 터지면 서훈

88년 불리... 91년 북측 완화된 후 귀의 화해.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북한전쟁 20년후 2차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군사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8일 발표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는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이전에 가능한 모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 그동안 기업은 임가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기술자 방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와 함께 기업사무소 설치와 소액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어 남북투자사업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임가공을 비롯한 소규모 대북투자사업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는 기업인·기술자 방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을 경우 또하나의 '발표'로만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닌지.

=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위해 발표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북경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던 방침에서 지원의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호응여부가 관건은 아니다.

◇ 기업인의 방북시점은.

= 8일 발표에 따라 허용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다만 기업인 방북 등은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실제로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북신청과 이에 대한 통일원의 검토 이후가 될 것이다.

◇ 어떤 기업인들이 갈 수 있다.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과당경쟁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전면 허용된다. 시범사업 대상분야 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당국이 사안별로 허용여부를 검토한다.

◇ 시범사업 대상은 무엇인가.

= 리면, 비누, 칫솔 등 북한주민

남북 경험 활성화조치 문답풀이

기업북한사무소 영업활동 허용 같은지역 같은분야사업은 제한 위탁가공 기술자방북·설비반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조속 개최

생활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식·음료품 및 생활용품 분야라든가 봉제류, 신발, 완구 등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분야가 된다.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인력 시범적 고용 등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된다.

◇ 인적 왕래의 판문점 통과는 가능한가.

= 기업인의 방북경로에 대해서는 남북 기업 상호간의 합의가 존중되며, 따라서 제3국을 통한 왕래, 판문점을 통한 왕래 모두가 가능하다. 북한이 이를 허용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들의 방북 시도 과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정부는 기업인 방북에 대해 남북경협은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아직은 원칙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관련부처 협의로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과 같은 분야의 경험 사업은 제한된다.

◇ 방북예정자는 어떤 절차를

밧게 되는가.

= 정부는 기업인·위탁가공 기술자 등의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방북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방북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통일연수원'에서 실시할 것이다.

◇ 위탁가공 기술자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은.

= 위탁가공 기술자 방북대상으로 생산설비의 운용, 생산기술지도, 품질관리 요원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 임가공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에 필요한 절차는.

=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 중 대규모 설비, 무상반출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기타 소규모 설비 반출은 외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기업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 기업사무소는 남한기업 등이 남북교류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지역 안에 설치하는 사무소, 지사, 대리점, 출장소다. 정부는 이 사무소가 업무연

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자료소개, 자문활동 등 비영업활동을 주로 하며, 국내기업(본사 등)의 위임 아래 계약체결, 대금결제 업무 등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외국에 나간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데.

= 정부는 제3국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인력을 고용할 때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관련 기업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포공단 조성사업도 이번 시범적 경험에 해당하는지.

= 시범적 경험은 남북간에 사업 추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 때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승인해줄 것으로 보인다.

◇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되나.

= 이번 조치에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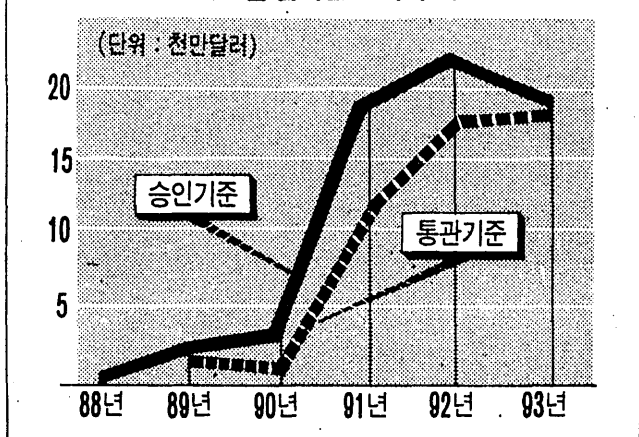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정부는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민간기업이 자기책임 아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북협력기금'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남북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당국간 경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본격 경험을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위가 개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당국 차원의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위'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먼저 경제공동위 개최를 재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연도별 남북한 교역 추이



반출입 승인 현황

구분	반입	반출	계
연도			
88년	1,037	-	-1,037
89년	22,235	69	22,304
90년	20,354	4,731	25,085
91년	165,996	26,176	192,172
92년	200,685	12,818	213,503
93년	188,528	10,262	198,790
94/9월	13,207	1,656	14,863
총계	612,042	55,712	667,754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실적을 보면 물자교역은 92년에 처음으로 연 2억달러 규모를 넘어선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88년 4건에 1백3만7천달러로 출발했던 남북교역은 89-90년에 2천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91년에는 1억9천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93년에는 정부의 핵-경협 연계론으로 2억달러에 못미치는 정체상태를 보였다. 또 북한 물자의 반입과 남한 물자의 반출 비율은 10대1 정도로 북한물자의 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北노동력 제3국서 고용 허용

「南北경협 활성화방안」 발표 생필품 시범사업 우선추진

판문점통해 왕래 모색

정부 「경제공동위」 조속재개 촉구

정부는 8일 이후 정부-북측 협상관계장관회의를 주제로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1994. 11. 9

남북經協 활성화 주요내용

기초협약 :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 분야별 확대추진
위탁가공목적 시설재반출 허용
민간차원 초청見學·설명회가 가능

민간차원의 북한경제 사업개발을 촉진한다. 초청투자설명회나 무역박람회 등 경제공동위에서 개최할 수 있다. 민간차원 초청見學·설명회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판문점통해 왕래를 모색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3국에서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對北 과당경쟁 방지

투자 업계자율조정 유도

정부 대책 마련

【서울 9일 연합뉴스】정부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업계 자율조정 유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북경협 추진계획

<p>1단계 (시범사업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포공단 등 경공업분야 소규모 합작투자 실시 남북 해상관세선 일대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외관광객의 남북연계관광 및 남북주민 관광 허용 인천·포항·부산과 남포·원산·청진간 해도 개설 관문점에 우편물교환소 설치 통신망 확대·신설
<p>2단계 (교류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 銅 아연 흑연 등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제조업 = 남포지역 및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진출 등 투자다양화, 중·대규모 합작 또는 단독투자 확대 실시 농수산 = 과일·산림자원 공동개발, 연어 공동배양 관광 = 설악·금강산 연계 공동개발, 기타 지역 관광호텔 합작건설 교역 = 서울·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 (경협관련 자료제공 및 기업알선업무) 교통·통신망 = 경의·경원·금강산선 등 철도와 국도 1·3호선 복원 과학기술 = 연구기관간 교류협력, 기술자 상호교류 환경 =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p>3단계 (경협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자원 공동개발, 첨단산업분야 대규모 합작 및 단독투자 실시 북한기업의 활발한 진출 적극 유도 제3국 연결 국제항공노선 개설 북한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을 통한 북한제품 해외마케팅 지원 두만강개발계획 참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宋榮大 차관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 금지

宋榮大 통일원차관 일문일답

다양한 기업형태의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자율경쟁의 범칙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 訪北초청 받은 기업 면밀검토 후 승인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南北대화 재개 촉구 성격이 강하다.

경제를 바꾸기 대수 開放우려

정부가 8일 발표한 한국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양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8일 발표한 한국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양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구미맞는 남기업과 제한적 협력

남북경제협력교류가 우리 의 기대처럼 당장 활성화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는 8일 발표한 한국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양자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경수로 지원과 경제의 합수

대북한 경수로 지원은 북한 경제의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경수로 건설 기술진·물자 대이동

남북경협교류가 우리 의 기대처럼 당장 활성화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북경협 일지

- △84.9.8=북한직접수주 재물자제공 제의 따라 물자인수
- △84.11.15=제1차 남북경제회담, 쌍방교역 품목제시
- △88.7.7=노태우대통령, 남북관계 특별선언(교역문화개방 천명)
- △88.10.7=정부, 간접교역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교류 허용 발표
- △89.1=정주영 현대그룹회장 방북, 금강산 공동개발 등 경협사업발표
- △89.2=효성물산, 남북직항로(남포~인천)로 북한산 무연탄 도입
- △89.7=코오롱상사, 북한 대성은행과 처음으로 신용장개설(북한이 최초로 공식 인정 한 남북거래)
- △90.8.1=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및 교류협력기금설치
- △90.9=삼성물산, 북한산 명태 3천t 반입
- △91.1=한국산 원산지표시상품 북한에 첫 반출
- △91.4=코오롱상사, 평양에 양말합작공장 설립(최초의 남북합작사업)
- △91.7=남한쌀 5천t(6만5천5백가마)
- 북한과 첫 직교역
- △92.1.8=코오롱상사, 북한산 가방도입 가공 방식으로 첫 도입
- △92.1.16=김주중 대우그룹회장 방북, 남포공단건설 합의
- △92.7.19~25=북한 김달현 부총리일행, 남한방문해 산업시찰
- △92.10.6~9=남포공단조사단 방북
- △92.10.14=「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으로 정부, 대북경협 당분간 중단키로
- △92.10.19=통일원, 북한산 한약재 반입신청 승인
- △92.12.7=김달현 북한부총리, 삼성·럭금·대우에 북한의 4차 7개년 계획에 공식 참여 요청
- △93.1.7=쌀이외의 농수산물 남북교역 첫 실시
- △93.6.5=정부, 미원그룹에 대북 무한거래 첫 승인
- △93.6.10=정부·민자당, 남북경협 9대과제 선정(직교역확대 교통통신망연결 등)
- △93.8.28=한국플라스틱조합, 북한 신덕샘물 도입계약
- △94.3=한국특수선, 중국연변항운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청진 직항로 첫 취항
- △94.4.19=삼성해운, 부산~청진 정기직항로 취항
- △94.6.2=정부, 「유엔서 대북제재엔 임가공무역 중단」 발표 따라 기업들 대북투자계획 전면 유보
- △94.6.18=김일성주석 남북정상회담제의 및 김영삼 대통령 수락
- △94.7.9=김일성 사망으로 정상회담 무기한 연기

南北經協
특이별
보영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訪北기술자 3년까지 체류가능

북한이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시범사업엔 생필품·신·임대료품 우선 北경제인 초청 國內산업見學 허용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의 경제개방관련 법령정비추이
(94. 10. 15현재)

시기	제정(개정)일령(24개)내용
84. 9	합영법
85. 3	합영회사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
92.10	외국인소득세법세칙
	합영법시행세칙
	합자법
93. 1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 법
10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외국인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1	토지임대법
93.12	외국투자진흥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합영기업
94. 2	세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입상대표 사무소 규정
3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자유무역항 규정
6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9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경영이윤·소득등 本國송금 보장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북한은 94년 10월 15일...

자본·기술 긴급輸血 절실

북한經濟 어떤가

북한의 경제는 87년과 88년 이후 극심한 침체기를 겪어 왔으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자립과 기술도 인력도 빈곤상태에 몰려 있다. 북한 경제의 미래적인 평가도 부정적이다.

90년후 4년째 마이너스 성장

사회주의 국가들 체제 전환에 수출 급減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체제를 전환하며 무역 상대국과 투자처의 이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체제를 전환하며 무역 상대국과 투자처의 이

경주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4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발표」까지 뒤죽박죽



李太熙 (북한부)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北 경제 환경변화에 촉각

各國 기업 반이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6대 중합상사 북서 초청장

기반시설 열악 투자 회의적

북한이 87년 6% 성장률 기록을 세웠던 이후 88년 4.9%, 89년 4.9%, 90년 4.9%로 성장률이 4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인 방북 절차

기업인이 북한 땅을 밟으려면 크게 두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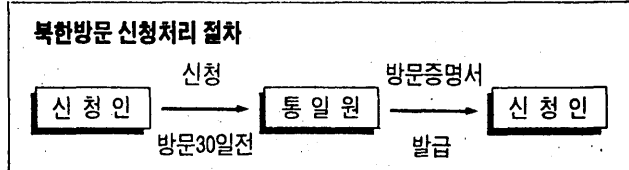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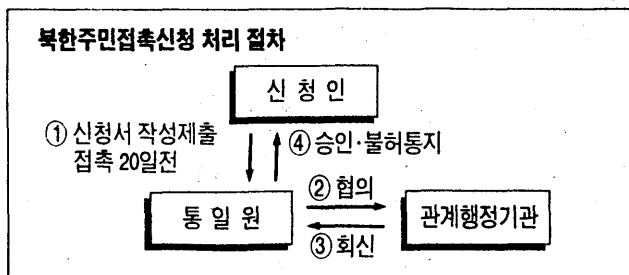
먼저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촉장소는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가능하다.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등이 대표적인 접촉장소로 꼽히고 있다.

해당 기업인은 접촉 예정일 20일 전까지는 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업계획서 등을 통일원에 내야 한다.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은 뒤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곧 북한 방문 승인을 뜻한다.

증명서 발급 신청에는 북한쪽 상대기관의 초청장이 필수적이

북한주민접촉 승인→남북한 제외 제3국서 방문증명서 발급→북한쪽 초청장 필수적



다. 이 초청장에는 남한쪽 초청 직위, 이름이 명시되고 서명인 대상자의 이름이 명기돼야 하고, 있어야 하며 북한 방문 30일 전 초청하는 북쪽 인사의 소속 기관, 에는 제출해야 한다.

**북한 대외경협기구
외국인 투자관련법**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총괄하는 기관은 대외경제위원회다. 물론 통제경제의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이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지휘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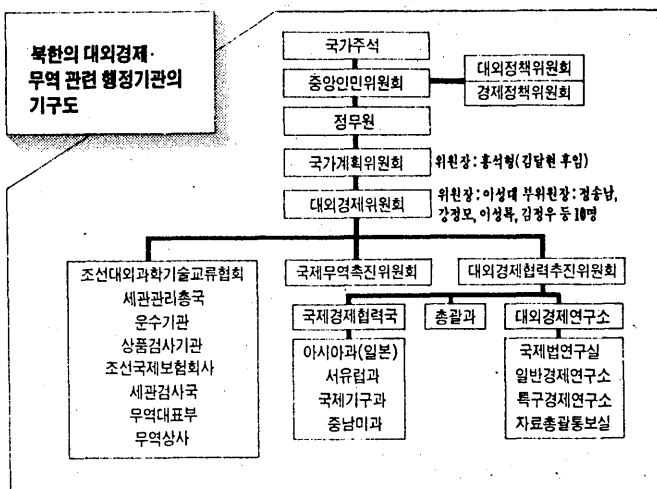
북한은 92년 11월 대외경제관계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대외경제위원회를 개편해 지금까지 별개 기관이었던 무역부 및 대외경제사업부를 이 위원회로 통합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는 이 위원회로 일원화됐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금을 대외경제위원회와 이 지대 관리당국으로 한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대외경제위원회는 북한에서 개방을 주도하는 핵심기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대외경제위원회 아래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전반적 창구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경제무역관계의 촉진과 교류, 조정 등 외국과의 통상관계 전반의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대남 투자유치의 주도적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의 회장인 이성록이 이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나진·선봉지역 개발의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전반에 관한 조사·홍보,

대외경제위서 총괄... '자유무역' 창구를 9월까지 모두 21개 법률·규정 정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등이 주요 임무라고 전해진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정우는 얼마전 베를린에서 열린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에 관한 북-미 전문가회의에 북쪽 실무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북한은 개방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2년 4월 헌법개정 때 제37조에 외국과의 합자·합영을 장려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그 뒤 같은 해 10월 외자유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 9월의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 이르기까지 2년여 사이에 모두 21개의 대외개방 법률과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한편 <내외통신>에 따르면 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93년말까지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백40여건에 금액으로는 1억5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내용 가운데 파악된 것은 1백16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의 추세와 특징은 먼저 연도별 외국인 투자건수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85년부터 86년까지 12건에서 87년 22건, 88년 17건, 89년 21건으로 소폭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90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며, 91년 17건, 92년 20건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93년에는 극히 낮은 실적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90% 정도가 재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북-조총련 합영'이란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옛소련, 중국, 폴란드 등이 2~4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과의 투자는 미국(재미동포), 덴마크, 이탈리아 등 소수의 국가로부터 1건씩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용성 기자

결이론 "잠잠"... 수익이론 "환영"

북한이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경협재개」와 北韓 속사정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수용록」계산후 비공식 기업접촉 나설듯

이명박은 북한이 11월 11일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을 때, 북한은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對北 대규모 投資 조정

過當 經濟 政策 政府와 事前 協의

洪부총리 발언

북한이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訪北證 1년 半 단위로

3百萬弗 이상 시설재반출은 사전승인"

12일 교류총서 經協지침 확정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정파의 南北經濟 合作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자 20여 개국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投資를 유치하겠다는 目標을 세웠다. 북한은 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投資 100만 달러당 100만 달러의 對北 投資 特許證을 발급하기로 했다.

經濟難 덮어둔 「자존심살리기」

北「經協案거부」속사정

북한이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기존 對南태도 돌변맨 住民실정 어려워

「정부차원」不願 3國서 개별접촉 나설듯

북한은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한성필)

北韓 남북經協案 거부

핵이론사죄-보안법철폐 요구

【본보 특보】북한이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평양의 북 협양단(北協양단)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정은 주석이 27일 평양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 협양단 대표 김은형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 북 협양단 대표도 북 협양단 대표를 만나고"라고 말했다.

“北경협거부”는 정부·기업 離間의도

다각 대책 강구

過熱방지 自律조정 강화

내주 지침 마련... 기준정책 계속 추진

정부가 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11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北초청장 효력 전면 再審키로

정부는 북한이 초청장 효력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民間경협 추진 예정대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0일 발표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 강화와 기준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北 2중블레이... 통신패보 큰 의미 안둬

北-美관계 개선前 정부차원 제의안해

“經協 남북당국간 합의 있어야”

李洪九부총리 「정부對정부」협상서 틀 마련

▽서울신문 1994. 11. 12

투자보장·대금결제 등 事前협상의 필요

조만간 세부지침 확정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趙敬浩기자〉

정부는, 北거부개의 양기로 北선별수용등 고려 다각 조치

성급하게 추진 않을 것” 金대통령

對北경협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당국 합의가 있어야 조만간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협」 거듭 거부

조선일보 1994. 11. 12

북한경제에 대한 북한이 가진 잠재력 중요한 부분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경협'에 대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北경협「一重性」대립다

북한對外협력위원회 관계자 기업인訪北화영·박영

북한의 기업인들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은 '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협'이 북측의 경제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총수들 잇달아 北京으로

北 高民發회장과 비밀접촉

솔부·중회진영이 對北부자 열의

북과 사담수출을 추진 중인 북측 고민발전회장이 최근 남측 고민발전회장과 비밀접촉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고민발전회장은 최근 남측 고민발전회장과 비밀접촉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北京發】 김정은(高民發)은 최근 남측 고민발전회장과 비밀접촉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고민발전회장은 최근 남측 고민발전회장과 비밀접촉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南北경협 「신중필요성」 제기

남북경제교류제의 외 한 북한의 거부권 정부 경제정책의 발전과 속도 등을 감안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대결 아닌 대결」 북태도 여전히 현실무시속 정부낙관 어려움

당국 접촉 불가피성 감안 맨 "찬물" 측면도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 租界 統一的 의지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인식과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개발의 대남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대남비판적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경제교류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북거파에 대한 정파별 입장

정파의 남북 정협을 둘러싸고 정파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남북經協 일단 주춤... 정지 아니다

「활성화」일방적 조치... 北반응 예상된 것 신증접근위해 시간필요... 바라던 手順

수상될 수만은 없다. ...

정파 정경 - 이견 합의 못돼

북정협거부 政界반응이

북정협거부 政界반응이 ...

북한 内部사정등 고려 신중한 접근 주문 與野 對北진출 계속추진... 규제완화 뒤따라야 財界

북한 内部사정등 고려 신중한 접근 주문 與野 ...

中 "南北經협 활성화"

北京발송 기술·자원 보완성 커

북한은 최근 북정협을 ...

유엔개발계획 주관 한반도 프로그램 정부, 남북협력사업 참여

에너지 효율화등 20개사업...첫 공식교류될듯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경협 첫 사업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의해 온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엔개발계획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북한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 차원으로는 사실상 남북한 최초의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력사업으로 남북한 과학자·기술자 등의 상호 방문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아시아개발

은행 등 국제경제기구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통일원과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개발계획이 지난 6월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핵·경협 연계방침으로 그동안 결정을 미뤘은 유엔개발계획 주관의 '한반도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유엔 주관의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경협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업 참여는 국제무대에서 남북공동협력의 장을 마련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개발계획이 제의한 이들 사업에 대해 상공자원의 과잉기술처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원하게 될 유엔개발계획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산업·환경·과학·투자·사회·농업 등 6개 분야의 20개 사업이며, 주로 본격적인 협력사업에 앞선 연구와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북한 에너지 효율화

를 위한 협력 △남북한 석탄 유동층 연료기술 협력 △남북한 기후변화 영향분석 △한반도 해상염분방지와 지역해양 관리 △남북한 농촌지역 에너지 재생문제 △수자원 정보교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내용은 주로 기술적 분야에 한정돼 있으며, 1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약 1백만달러(8억원)에 이른다.

유엔개발계획은 이 사업이 남북한과 유엔개발계획, 제3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 UNDP사업 참여 방침이 뜻하는 것

남북한 실질협력 계기될 듯

작은사업 위주로 양쪽 모두 부담없이 수용가능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과학자등 상호방문 전망

김성호 기자

제네바 핵타결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에 이은 유엔개발계획의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참여방침은 실질적인 남북 협력의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냉각돼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이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 주관의 남북한 협력사업이야말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 주관의 '한반도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유엔이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데다 본격적인 협력사업에 앞선 연구 및 기반조성 분야의 소규모 사업이어서 남북한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남북한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이면서도 유엔이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협력사업 형식을 띠고 있어 그만큼 북한으로서도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주관의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북한은 이미 유엔에 긍정적인 자세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개발계획 주관으로 추진되는 두만강개발계획을 비롯해 유엔개발계획의 기술지원 및 연구협력사업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유엔개발계획만이 평양에 대표부를 두고 있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당국간 남북경협 논의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전법'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내지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한 사과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 뜻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개발계획이 남북협력사업 참여를 제의한 것은 지난 6월이

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 사업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오래 전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경협 연계방침 때문에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측은 이 남북 협력사업을 유엔 주관의 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삼으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특히 이 사업이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임을 들어 정부의 참여를 촉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키아우 라 유엔개발계획 주한 상주대표는 한승주 외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지난 8일 기자회견에 "한국의 경협 허용방침은 남북경협의 청신호로서 적극 환영한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한국의 남북경협 허용방침에 따라 유엔개발계획의 계획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한반도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에는 에너지효율화 협력사업을 비롯해 △남북한내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도 및 현황자료 작성사업 △수자원들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피하기 위한 남북한내의 환경기준 표준화사업 △남북한이 모두 산성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역적인 대기오염 모델 연구 △남북한내의 기술용어 및 계속단위의 표준화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남북한 석탄 유동층 연료기술협력 사업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석탄 공동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울러 이번 협력사업이 성사되면 각 분야의 남북한 과학자와 기술자 등의 상호방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에 들게 될 비용 1백만달러(8억원)는 한국이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유엔, 제3국 등에서 각출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北인력 고용 곧 신청

海外건설등서 5百명線

3, 4개 기업 정부, 계획서 제출했 승인방침

중외건설이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중외건설은 지난 11월 13일 해외건설진흥청에 인력수용계획을 신청했다.

北, 코오롱에 초청장

신변보장·무사귀환 보장

코오롱그룹이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北韓 내달 企業人 2百명 초청

高民發 통해 재벌중수들과 면담마쳐

"企業선별 訪北요청 예상" 李部長리

【北京=합동통신】북한 고인민개발위원회(고민발)가 내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200여명의 기업인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민개발위원회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北과 통행協約 추진키로

민간교류대비... 事故등 세부합의서 채택

【서울 16일 AP통신】북한이 남한과 통행협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남한은 통행협약이 체결되면 남북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협약은 남북간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포함한다.

기업인訪北 「北각서」의무화

政府방침 北당국서 신변安全 보장토록

【서울 16일 AP통신】북한 당국이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기업인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北루자 羅津·先鋒으로 제한

金正宇 北대외經濟마인원장 韓國기업진출 강력희망

【서울 16일 AP통신】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위원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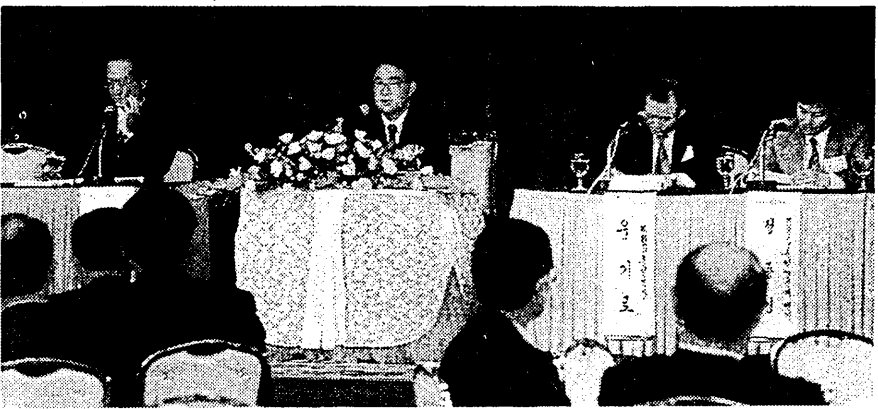
정부 「통행협약」 추진 배경

남북이 합의한 통행협약 추진 배경은...

통행협약의 추진 배경은 남북이 합의한...

통행협약의 추진 배경은 남북이 합의한...

南北왕래 「안전장치」 마련



남북이 합의한 통행협약 추진 배경은...

事故·분쟁구체조치명시 北노동자만명명여노대비

북측은 통행협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訪北기원」 北선변무장사 「의무화」의미

북측은 통행협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당부간대화 우뇌 분석

긴장관계 여전히 안전장담못한다 우려

남북이 합의한 통행협약 추진 배경은...

북측은 통행협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북한 우회투자 허용

해외현지법인·제3국 합작기업 통해

정부지침 곧 발표

정부는 지난 8일의 대북 경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이나 제3국과의 합작기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대북 우회투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3국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 우회투자에 대한 지침'(가칭)을 이르면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투자 보장협정 등 남북한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국과 합작

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대북한 우회투자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법에는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앞서 우선 대북 우회투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기업들은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 투자가 △투자위험 분산 △투자절차의 간소화 △북한쪽의 선호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험 활성화 조치에 따른 대북 투자규모가 5백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제한돼 있고, 시범사업도 식료품·의류 등 경공업 분야로 한정돼 있어 항만, 도로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의 북한쪽 희망과는 거리가 있는 점도 기업들이 현지법인 또는 3국과의 합작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대북 우회투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데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맞춰 이런 움직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번주초 이홍구 통일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북 경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난 뒤 23일이나 24일째 이 부총리 주재로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 경험 처리에 관한 지침과 대북 기업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4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언 기자

내년5월 UNIDO 평양포럼 정부-기업관계자 파견방침

정부는 유엔공업개발기구(유니도)가 내년 5월 평양에서 열 예정인 대북투자포럼에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니도가 구체적인 대북투자 사업을 제안해오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런 방침이 정부 초청으로 17일 방한한 마우리치오 캄포스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유엔공업개발기구의 이안 데비스 베이징 주재 중국·북한담당관이 서울을 방문해 이미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기구에 출자한 정부 분담금 20만달러 가운데

일부를 평양 대북투자포럼 비용이나 북한의 외자유치사업 지원에 충당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한 20개 남북협력사업참여에 이은 두번째 '유엔을 통한 남북경협'이다. 유엔공업개발기구는 개도국 공업개발 확대 및 근대화 지원과 개도국간 또는 개도국-선진국간의 협력촉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 전문기구로 현재 북한과는 7백70만달러 규모의 14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캄포스 사무총장은 18일 <연합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 등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해 북한이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

하는 산업구조 조정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유엔공업개발기구가 참여할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관계관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經濟단체 北韓사무소 허용

對北경제협 세부조직 기업인 訪北기간 18개월로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南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對北경제협 1단계 후속조직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1단계 후속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 訪北 炸裂 잇는다

三星·現代도 내달 중순 고위사절단 파견

他그럼에도 잇따를 듯

【서울 29일 연합뉴스】 삼성·현대 등 대기업의 북방 파견단 나간다는 소식에,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방 파견단으로 삼성전자인사팀이 20명 규모의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방 파견단으로 삼성전자인사팀이 20명 규모의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20명 규모의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20명 규모의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타 대기업들도 잇따라 북방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타 대기업들도 잇따라 북방 파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北 "韓國기업 진출기대"

"羅津·先鋒 태극기 단 선박 입학 허용"

성리부 무역경제중 부업업장 확대

【서울 29일 연합뉴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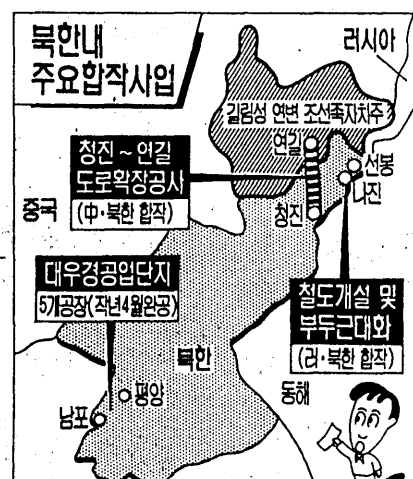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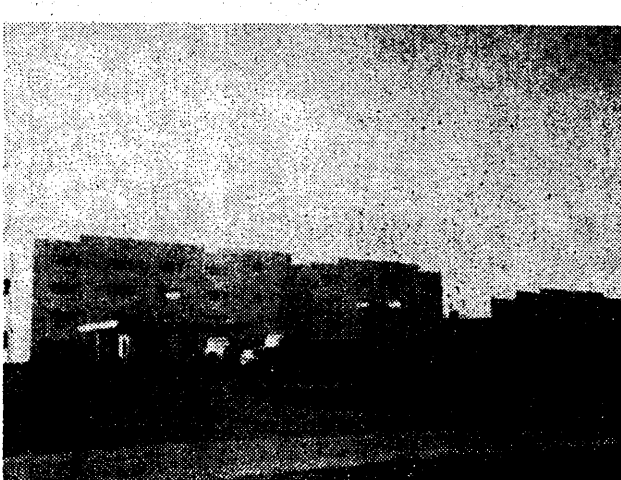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의 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북방 파견단 구성에 관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7개企業 訪北 승인

삼성·現代·럭금·한화 등

중소기업이 1~2곳을 해안 成事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세계일보 1994. 12. 6

北, 금강산 종합개발案 확정

金日成 사망전 승인 서울연결道路등 기반시설 건설

【北京=연합】북한의 김일성(金日成)은 사망하기 5개월여 전인 지난 1월 27일 금강산 지역을 유채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서 개발하기 위해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北京=연합】북한의 김일성(金日成)은 사망하기 5개월여 전인 지난 1월 27일 금강산 지역을 유채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서 개발하기 위해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北京=연합】북한의 김일성(金日成)은 사망하기 5개월여 전인 지난 1월 27일 금강산 지역을 유채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서 개발하기 위해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개 기업에 대한 사심상 방문을 허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남북경협 재개를 발표(宋樂大 통일원차관)한 데 이어 8일 現代·三星·리얼 등 7개사에 방북을 승인해 기업들의 北행이 줄을 이으며 남북경협이 가속될 전망이다.

政府 7개기업 訪北승인 의미

정부가 8일 삼성·현대·리얼·이랜드·신세계·신한·신한·신한 7개기업의 방북을 승인해 92년 10월 이래 방북승인 기업은 10개사로 늘었다.

정부는 8일 삼성·현대·리얼·이랜드·신세계·신한·신한 7개기업의 방북을 승인해 92년 10월 이래 방북승인 기업은 10개사로 늘었다.

이 기업인 방북이 아직 대기업 방북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삼성은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정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정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南北經協시대 본격 돌입

大宇빠져 北「對南창구」 변화추측... 年内성사 힘들듯

정부가 방북을 승인한 기업은 10개사로 늘었다. 이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대기업 訪北초청장대가 北·최고 5백만달러급 받아

【서울=조선일보 기자】북한이 최근 12월 4일 방북을 승인한 기업은 10개사로 늘었다. 이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7개기업 訪北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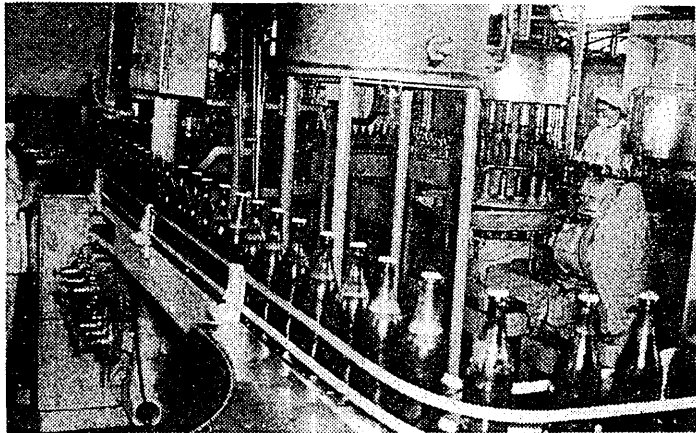
現代·三星·리얼 등 7개기업 방북승인... 정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방북을 승인받은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이다.

7개기업 訪北승인 안락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南·北경협 본격재개 신호탄

高民發등 7개기업 入北준비 마친듯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방북 승인 내역

기업명	주요 방북자	방북인원	방북시기	주요 내용
현대그룹	鄭周永명예회장 李春林총합산사회장 朴載堯건설회장	10명	다음주	금강산개발·원산수리조선소·월도차량합작공장
삼성그룹	姜普求상성전자회장 金光浩 " 부회장 申世吉삼성물산사장	10명	연내	무자원경조사위탁기공분야 확대
럭키금성그룹	朴秀煥럭금상사사장 李秀浩 " 상무	10명	15일 전후	남포공단, 나진·선봉지구 무역자유건 및 타당성조사
한화그룹	李珍雨하의약품사장	10명	연내	공공기관사업협력
쌍용그룹	부회장급단장	10명	10월 말~12월 말	나진·선봉지구 사회간접자본투자 조사

연내 訪北 어력 올릴까

北側 '삼성엔지니어링'에 내방이래 인기 여파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이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북측은 7개기업의 북방 방문을 승인하면서,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규모, 그리고 북한에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10일 통일원이 삼성 현대 쌍용 등 6개기업에 대한 방북허가를 내줌에 따라 일부 기업투자조사단의 북한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측이 국내기업들의 방북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방북시기는 내년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실제 통일원의 방북허가를

받아낸 국내기업들은 막상 북한방문을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끝마치고도 갑작스레 움츠러든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북한측 비자신청에 앞서 다시 북한정세를 탐색하며 적절할 방북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북경 등지에서 대북 창구와 접촉에 나서고 있다.

허가 났지만 기업체訪北 실행은 '멈칫'

◇주요기업의 對北사업 추진내용

기업	사업내용
대우	정유공장 개보수, 봉제의류등 합작공장, 아연광산개발, 재봉틀합작사업
삼성	스웨터, 식료품, 전자제품합작공장, 선박건조
현대	면방직, 원산수리조선소건설, 금강산관광단지, 신발원피가공공장
럭키금성	정유공장개보수, 봉제의류등 합작공장, 컬러TV공장
선진	수산물가공합작, 봉제의류
쌍용	신발합작, 수산물가공
효성	백화점건립
한화	봉제직물합작, 벽지, 재킷
두산	PVC합작
고오	골프장갑생산공장
한일	제직염색가공 봉제 원사합작
삼미	합구화합작
미원	아크릴방직공장
해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진로	식품사업 및 생수개발, 조미료 합기름
동양	과실음료 가공공장
강원	수주공장, 백화점건립, 과일네타, 생선
신세계	시멘트생산공장
영창	연탄공장
신세계	슬레이트공장
영창	아연도금강판
신세계	의약품 플랜트
영창	봉제
신세계	백화점건립
영창	피아노합작사업



현지정세 탐색...擇日고심

北서도연기종용 "태도변화"

이날 방북허가를 받은 삼성그룹대표단의 고위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방북허가를 받으면 내주라도 북한을 방문해 투자환경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점차 허가가 떨어지자 "북한내부 위기를 봐야한다"며 뒷걸음질 쳤다.

럭키금성 張景煥(장경환) 대표는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북시기와 지역,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북시기와 지역,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북시기와 지역,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북시기와 지역,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북시기와 지역,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그들 李榮一(이영일) 상무는 방북이 내년봄에 방문하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통일원의 방북허가는 3개월간 유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林世蕪(김세우) 기자

北 기업인訪北 돌연거부

“한국측 투자 도움안된다” 주장

관련업체들 대채마련부심

【北京=李在禧기자】남북교섭단체인 북측의 초청을 받고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측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측은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측은 “한국측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한국측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韓國정부 무대몰리기

北 기업초청돌연거부 배경

북한이 8월 말부터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측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측은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측은 “한국측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측의 오랜 주장인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또 한 번의 ‘자주사유’ 실현을 위한 조치를 내리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간차원 經協만 허용” 원칙고수 정부 “당분간 태도주시” 논평회의

북한이 8월 말부터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측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측은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측은 “한국측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측의 오랜 주장인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또 한 번의 ‘자주사유’ 실현을 위한 조치를 내리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은 ‘자주사유’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주미대사관에서는 북측이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측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측은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측은 “한국측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現代 三星 6 개 기업 訪北 5 인

정 부

18 개월 기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 가능

北서 연기 요청... 연내 訪北 어려울 듯... 관련 기업

정부가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與野 합의

對北 經濟 協議 達成

南北 경제 교류 "내부거래" 규정

동아일보 1994. 12. 11

남북 경제교류협정(북남경제교류협정)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남북 양측이 합의한 '내부거래' 규정이 주목된다. 이 규정은 남북 양측이 합의한 '내부거래' 규정이 주목된다. 이 규정은 남북 양측이 합의한 '내부거래' 규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對北 經濟 協議 26 개월 만에 "解氷"

정부가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北側 반발의식 신청·심사·승인·구비작업 투자보장협정등 제도장치 마련 큰 과제

동아일보 1994. 12. 11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정부는 10일 연태·삼양·삼진·삼천·삼우·삼화 등 6개 기업에 18개월 기한으로 수시 투자 타당성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대부분이다.

北韓,佛에 羅津·先鋒 투자 요청

파리서 설명회 "中國 모델 개방 정책 지향"

【파리=AFP통신】북한이 프랑스의 파리를 방문한 투자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투자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투자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나진·선봉 특구 설명회 안팎

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대한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투자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투자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北 佛자본 유치 성공할까

對서방 부채 20억달러... 이미지 개선이 관건

프랑스의 전자회사인 토포스(Toshiba)가 북한에 투자할 2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서방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 방북 승인받은 6개기업 움직임

방문단 준비 '끝' 조심스런 기다림

현대-금강산, 대호-나진선봉 개발...삼성 평양근교 투자 희망

정영무 안재승 박중언 기자
정부가 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6개 기업에 북한 방문을 승인함으로써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 곧 실현되게 됐다. 삼성 현대 럭키금성 한화 쌍용 대호건설 등으로 알려진 해당 기업들은 9일 정부의 공식 통보를 초조히 기다리며 이르면 다음주 바로 북한에 발을 딛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통일원 관계자는 이번 방북기업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초청장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변안전을 보장받은 믿음 만한 것인지와 북한과의 사전협의 수준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측도 베이징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회장 리성록)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등으로 경험창구를 정리하고 시효가 지난 초청장 재발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이번에 기업인의 1차 방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방북결과를 지켜보면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정부가 방북문제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기업 관계자들도 정부나 북한 당국에 탈을 잡힐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방북문제

는 정부와 북한, 기업 3자가 의중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북한 땅을 밟아야 가스가 보다 하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기업인 방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신세길 삼성물산 사장, 이형도 삼성전기 사장, 안재화 그룹 해외사업단 사장 등 9명의 임원이 현재 비자 발급 등 방북준비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공식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은 애초 12일 서울을 출발해 13일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다는 일정이었으나 공식 통보가 늦어지고 있어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삼성에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평양 근교 지역에 대한 투자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고항이 부핵인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춘림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박세용 사장, 박재면 현대건설 회장, 김영일 금강개발 사장 등 15명으로 이뤄진 투자조사단의 방북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는 정 명예회장의 방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조사단을 북한에 보내 금강산 개발 계획과 원산수리조선소 건설사업을 집중논의할 계획이다. 럭키금성도 아직 정부로부터 정확한 언질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러

김금성상사의 박수환 사장을 팀장으로 비서실·상사·금성사 등의 실무진과 방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럭키는 동반진출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이번 방북에 일단 중소기업은 동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그룹 비서실 이진우 해외사업총괄 사장을 책임자로 한화종합화학과 동양전자통신 등 계열사 임원 10여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했다. 쌍용은 애초 김석원 회장 등 20여명의 방북단을 구성했으나 통일원이 그룹 총수 방북에 난색을 보여 손명원(주)쌍용 사장, 장기환 쌍용건설 사장 등 10여명을 이르면 다음주 보내기로 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대호건설은 정부의 방북승인이 정식 통보되는 대로 이진 회장과 이성호 사장이 북한으로 가 나진·선봉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호건설은 지난 9월 북한 토지 개발·이용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명의의 '토지이용 담보서'를 중국 연변의 선호기업집단을 통해 받아놓아 북한 방문단 실현되면 실제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南北經協 關聯

3. 社說·칼럼

社說

南北經協에 다져야 할 일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담론이 羅津·先鋒지역을 개발하고 합작을 하며 꿈인 철도와 도로, 합작을 이어 물류가 남북을 관통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이다. 北·美회담 타결은 지금 그러한 희망을 현실 부르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北核의 불확실성은 남북한을 기다리는 명백한 평행행렬 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제교류문제는 정치·외교의 從屬(從屬)변수였다. 經協이 그동안 急反轉(急反轉)을 거듭해온 것이 핵과 경제문제가 한 고리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사항을 뒤로 미루 불확실한 이변의 北·美타결은 經協의 장래에 일의 불안을 그런자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불인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政·經문제의 해결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최소한 「중공식」 개발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과연 그런 수준의 개발·개항을 북한의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내부개혁은 체제수호적인 분리행

개발은 진정한 개발 수 없다. 또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후계체의 개발노선과 그 실천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독한 폐쇄에서 열린 국제사회로 나아가고 진정한 7천만의 經濟共同體를 지향할 의지가 있는지는 우선 그들의 對南전략 변화여부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들을 전제하면서 정부와 기업은 첫째, 질서있는 진출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국내기업의 대북진출에 관한 지침을 한 발자국도 후퇴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은 先占다툼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내에서 주자 중추나 남·북 주자의 역할면에서 현실의 다. 추진상을 개별적으로 濫發(濫發)발, 경쟁적 평행행 유도로 「각계 격과 하려」 北의 진출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선 공식채널인 南北경제교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대화채널을 정비해야 한다.

다음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교류가 되어야 한다. 초기의 增加

「형태」나 「합계」를 직접투자자와 직접투자의 「바우더」를 사회간접자본을 자본·기술협력,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연결하는 것이 순서이다. 劣惡(劣惡)한 교역·무차별은 清算(清算)정산차와 투자보장 및 二重課稅(二重課稅)방지, 直航(直航)로

실용제들의 「반」지 해설되어 할의 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정부가 확고한 국가목표와 정책의 기초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접근해진다. 정치적인 「추」추출제 결정의 經濟(經濟)의 傳(傳)을 또다시 흐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사설

북핵 타결 이후의 남북 경제관계

1년 반이나 끌어온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협상은 본래 핵문제로 시작되었지만, 협상 타결의 의미는 반세기 가까이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 모색을 합의한 데 있다. 한반도 냉전의 마지막 얼음을 녹이는 이런 변화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정치·군사 우위의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무엇보다도 경제교섭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체제 변신 이래 동북아시아에 밀어닥치는 변화의 바람은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거세다. 특히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에 교두보를 설치하려는 서유럽과 일본 자본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북-미 회담이 일회일비를 거듭하는 순간에도 북한 시장을 두드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핵과거 규명이라는 우리 스스로 설치한 덫에 걸려 그만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핵 투명성에 대한 보장도 없이 경제협력에 나섰다. 나중에 달미만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사회 일각의 걱정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관계개선으로 그런 파탄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뒤편이더라도 남한은 대북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아직 자본주의 세계의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만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줄 수 있다. 민족 재결합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비원이므로, 남북한이 이를 '보완적' 경제구조는 통일 대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다. 더욱이 남한은 생활·언어·관습 등 경제교섭의 문화적 배경이 제3국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문제를 묶어왔던 정치적 요인들만 간섭을 자제하면, 경제교류의 물꼬는 훨씬 넓게 트일 것이다. 이제 정치는 경제가 달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정치와 군사가 맡았던 대북 교섭의 상당한 몫을 앞으로 경제가 나누어 맡더라도, 그 목표마저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경제교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이란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경수로 건설의 지원 자금이 얼마냐든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이다. 여기서 진정한 경제협력 일은 수익성 위주의 '한탕주의'이다. 동남아에 진출한 몇몇 기업이 연출하는 추태들을 북한에서 재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남한 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거기서 빛어지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이제 막 세계로 나서려는 북한에 매우 나쁜 교훈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남북 경제교섭에서 정부의 할일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 한동안 머뭇거리던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가로놓인 정치·군사 부문의 각종 현안들은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은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피차 편리하게 당분간 기업으로 하여금 길을 닦게 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 교류에 관한 한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해도,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일은 어차피 기업의 몫이므로 기업의 우선 진출은 당연한 순서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정부는 남한 기업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애초 예정보다 당겨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실무 지침을 통일원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기업인의 방북과 소액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조처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핵-경협 연계로 연기되는 바람에,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채 제삼국과의 경쟁이란 반감지 않은 짐을 지게 되었다.

통일원이 준비하는 지침은 기업 사무소의 설치 지역이나 주재원의 수효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독자적인 영리 행위를 제외한 시장조사를 비롯한 비영리 업무와 본사가 위임한 계약 체결 등의 사무 대행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이외의 다른 분야의

제한 여건을 고려해서 남북 대화의 큰 틀을 짜야 하는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도 영리 위주로 활동할 기업에 완전한 자유를 허용할 수 없으리라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기업활동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태도 피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사무소를 통한 과도적 형태의 교섭을 어서 끝내고, 본격적인 지사로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도와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남북간 경제 교섭의 분위기 조성 과 예기치 않은 장애의 출현에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남북 교류를 민족 내부거래로 공인받는 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벌써 남북 교류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는 가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한 유엔헌장과 민족 내부거래임을 선언한 남북의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 거래는 가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트의 확인을 받지 않겠다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의 정당성을 백 번 지지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시정을 감안해서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만전의 대비를 정부에 당부한다.

對北經協의 원칙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가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로의 자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를 계기로 전제할 남북경제협력을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산업별로 추진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든 실현될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가 진출전략을 짜는데 있어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임을 미리 세우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로 명확한 개별정부의 접근이 필요하다. 흔히 협력이란 단어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개별기업의 접근은 무상일뿐 아니라 개개의 기업은 차관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때 정부 지원과 개별기업의 접근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제교류는 어디까지나 그 교류 이면 기업의 북한진출이거나 대북한 투자 또는 대북보완이라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위한 선인민경제협약이 이를 틀을 제공할 때 첫째 그것이 북한정권과 정부 및 민간기업의 권력유지를 위한 양면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경제협약이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및 민간기업의 권력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대북한 선인민경제협약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전제로 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숙지시켜야 한다.

셋째, 인민경제협약이 북한의 투자환경 조성 과 분담개발사업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연 후의 성실할 수 있다. 특히 북의 진취적인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보장과 신변안전무제를 사전에 분명하게 해부시켜야 한다.

넷째, 대북 선인민경제협약이 경제난과 위기에 몰려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인민경제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경제의 자제되고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개별기업의 경제협력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社說

남북경제협조의 조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착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이로써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경제협력은 그동안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미·북한간의 타협의 후 북한 핵무기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는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미·북한간의 타협의 후 북한 핵무기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는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와 달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국민일보 1994. 11. 8

社說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추구할 필요성과 의욕이 있다고 본다. 진정한 신뢰와 교류협력의 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해외적이다. 이러한 정책적 인식은 남북

경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민간 기업들도 투철한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양립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행안 분야

김영삼 대통령의 이명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된다. 북한이 북한산 농산물의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진화했다는 전락은 北美화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社說

南北경협, 毅然한 자세로

어떤면의 반가운 소식이이다. 金泳三 대통령의 北核-經濟협력정책 해제선언의 뒤이어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놓았다. 이제 정부와 北核-經濟협력의 기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자유를 주장할 이유가 사라졌다. 어쨌든 제재 마하의 어떤 면의 이행은 북기 위해선 도바라진한 조치라고 본다.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은 오히려 옹호해 인정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들만의 길을 가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유한한 협력 기회를 잃고 있다. 이제 투자환경조사와 협상을 위한 남북 기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제네바 협정의 정수인 이행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1994년 북핵협정이란 말이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은 협정이라기 보다는 협정 후의 실행을 위한 조치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을 발표한 후, 남북은 경제협력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협동경제체제의 의미와 남북이 민족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의 개별적인 기업과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협동경제체제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협동경제체제의 본질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이 중요하다.

社說

북의 선봉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활약이 아시안 경제에 대한 남북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對北 輕水爐 지원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의 지원은 北核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北도 誠意 보여야 한다

북은 1994년 11월 9일 北核-經濟협력정책 해제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놓았다. 이제 정부와 北核-經濟협력의 기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자유를 주장할 이유가 사라졌다. 어쨌든 제재 마하의 어떤 면의 이행은 북기 위해선 도바라진한 조치라고 본다.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은 오히려 옹호해 인정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들만의 길을 가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유한한 협력 기회를 잃고 있다. 이제 투자환경조사와 협상을 위한 남북 기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제네바 협정의 정수인 이행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은 1994년 11월 9일 北核-經濟협력정책 해제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놓았다. 이제 정부와 北核-經濟협력의 기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자유를 주장할 이유가 사라졌다. 어쨌든 제재 마하의 어떤 면의 이행은 북기 위해선 도바라진한 조치라고 본다. 경제협력의 전진선언은 오히려 옹호해 인정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들만의 길을 가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유한한 협력 기회를 잃고 있다. 이제 투자환경조사와 협상을 위한 남북 기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제네바 협정의 정수인 이행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社說

南의 법석, 北의 침묵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의 단계적 확대방향을 밝힌 이후 국내 민간 경제계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고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내반응은 수천만 경제계 동원(동인)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오랜기간의 단절과 그로 인한 발전의 격차, 시장조건의 상이함이 그 자체로서 강력한 경제적 動因을 구성할 수 있지만 남북협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그런 시장적 관심 이상의 그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바로 이런 미묘하고 복합적인 경제적, 경제외적 요소들의 작용의 남북협력 분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이상으로 錯視(錯視)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과장과 錯視는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구축해 가야 할 남북의 상호신뢰를 오히려 저해하고 장기적인 협력, 동반관계의 확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함정들은 미리부터 남북이 안정하게 경제해야 한다.

다들 代案(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동반자임을 새로 인정해야 한다. 협력하되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만 받아 들인다면 지, 실리는 쟁기되 명분은 절대 불가라든지 민간은 관할지만 정부는 안된다든지 하는 이관성 없고 논리에 안맞는 어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이 같은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우리쪽이 많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核經協 연계고리를 풀 이상,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이고도 변모된 자세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북측은 여전히 일언반구 응답이 없다.

이 계속되는 북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쪽의 제반정세로 미루어 북의 대남 자세와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은 가전망이 더 우세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남북의 협력 확대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도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착수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추진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자본교류, 거래와 투자의 안정을 보장하는 각종 안정장치, 제도와 법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조정, 해결, 결재장치들도 개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 기초준비도 생략한채 대부버스타기와 한탕주의 경제부터 벌여지고 있는 현실은 실로 한심스럽다. 북측은 일도 벌여 안하고 있는데 우리만 정부, 기업 가릴 것 없이 적사탕 經協(經協) 시에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어서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럴때만이라도 정부도 민간도 한템포씩 늦추어 긴 안목의 신뢰와 남북협력을 위해 먼저 필요한 기반추진과 제도정비에 힘을 쏟기 바란다.

▽중앙일보 1994. 11. 11

社說

北韓의 남북經協 거부

정부가 며칠전 제시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 방안에 대해 11일 북한은 조평통(祖平統)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거부 이유로 내놓은 논리와 터무니없는 비방을 보곤 실망과 환멸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우리 정부는 따돌리고 자기네 구미에 맞게 남한의 기업들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책략이다. 최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의 우리측 기업인 접촉 사례가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이번 북한의 거부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접촉을 통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아직도 버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남한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은 그들의 전통적인 통일전선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한 의도는 조평통과 그들의 선전매체인 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거부 이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남한이 「국제적 고립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등을 들며 경

제교류 전에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의 정치 선전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물론 기본적으로 대남(對南)전략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북한주민을 겨냥한 대내(對內)정책의 일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그러한 정책으로 남한의 기업인을 끌어들이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소규모 임가공(賃加工)거래는 유지되겠지만 북한이 진정 필요로 하는 대규모 투자나 기술교류는 정부차원의 접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투자를 보장하는 장치나 이중과세 문제등을 해결하는 당국간의 합의없이는 어느 기업도 대규모 북한 진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도 북한이 환영하리라 예상하고 경제교류를 풀기로 한 것은 아닌만큼 발표한 정부방침에서 후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처럼 북한이 순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접근하는 한 모두 서두르지 말고 차근 차근 대북(對北)진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社說

北韓의 속셈은 무엇인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남한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1994. 11. 12

社說

北經協거부 의연히 대처하라

북한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우리측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거듭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우리정부의 제의를 섣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 북측에서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이점을 취했다는 대내선전과 함께 김일성조문과 동등성을 빌미로 대남비난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큰 취약점인 경제난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 때문에 우리측 제의에 원색적 표현의 알레르기성 거부반응을 보이는 점은 어렵잖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며 우리는 그러한 반응에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은 경제난의 약점이 노출되는 데다 개방개혁의 물결이 체제기반을 뒤흔들 것이란 두려움때문에 핵문제 거론에 대한 사죄요구 같은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민간기업 차원의 경제교류에 관해서는 일체의 비난이 없고 이미 적잖은 국내기업인들에게 방북초청장을 보내는 등 이중성을 띤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북측의 자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수건설과 관련, 한국기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란 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험사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않고 또 경험에 따른 개방의 충격을 극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스처가 불가피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서두름없이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내실(內實)지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잖아도 국내기업인들은 방북티켓을 얻기 위해 북경등지의 중개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는 등 부작용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과욕과 과당경쟁은 북에게 역이용당할뿐 아니라 오히려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 북측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극히 제한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북기업인들은 자신이 남북화해와 통일 선택된 사절임을 깊이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것임을 당부하고 싶다. 선불리 시장 선점(先占)효과를 노려 분별없이 무리한 물밀 경쟁이나 일삼는다면 바람직한 경험은 물론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도 상처를 줄수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든 경제협력이 절실한 쪽은 북한이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 원치않는 경험이라면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이 원하고 또 협력분위기가 성숙되면 투자보장등의 협정체결이 불가피하므로 남북당국간의 대화도 상호협력의 바탕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社 說

서투른 對南·對北 정책

남북관계의 解氷을 불러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대결과 반부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반세기 동안의 살아온 不信의 정책이 노무두결기 때문이었다. 긴밀한 교류와 해빙기도 불신 탓으로 사라져간 것이다. 세계가 脫냉전시대의 접어들어 지금도 우리는 시대착오적 냉전시대의 유산인 不信의 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을 가분하고 있는 이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데는 먼저 양측 지도자들의 진정한 시대적·역사적 통찰력과 투철한 민족적 사명감이 요청된다. 그리고 그의 못지않게 외린 정치적 현실감각이 요청된다. 하지만 남북경제개교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남북당파자들의 대충을 보면 서우익의 실마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반부속의 소멸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북한의 내부사정도 그러한 현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파와 의 대화가 다절되어 있다고 해도 민간기업이나 다름 없는 제3의 결속을 통해 북한의 이 문제를 사전 타진한 정도였는 것 같다. 무슨 큰 이니셔티브나 전략적 특의 불췌로 발표되어도 발표해버렸다. 그것도 유린과 함께. 민간차원의 초보적 이니셔티브는 선진국 경제개발을 허용하라는 조치

를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부공무원 독직사건, 軍의 학과 상 및 상관살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으로 빛이진 따가우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한 알뜰한 유대정치적 고려가 작용된 결과가 아닐까. 조용한 가운데 민간수준의 실험적 경험(內實)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면서 당파간의 실질적 협력과 대화를 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수는 없었다. 말인가. 비록 전문가나 전문관료가 아니라 해도 조금만 분할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결수로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修辭를 발달하는 바람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류 經濟수로 대안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대내정치를 의식하여 민족적 大義를 저버린 태도는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의 대한 북한측의 대응에서 더 출혈하게 나타났다. 그들이 유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회복한 文民정부의 지도자를 「역도」 「남조선 통치배」로 일컫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천주」의 유년불한 반인륜적 반민적적인 대외적 행위를 지양하는 규약을 구사했다. 북한당파의 이런 말에 공감할만한 국민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런 언사는 순전히

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외일뿐이다. 시대적 조류를 의면한 채 국민들을 폐쇄사회의 냉전戰士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시대착오적 「사」를 동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남북 기원인들에게 대북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당국과의 접촉은 회피하고 한류기업을 과는 손잡았다. 불온선전술적 사고를 말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사고가 우리의 민족적 의지를 남비하고 舊韓未시대처럼 민족의 이의를 열광의 단져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 설

북한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중앙통신>에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정부의 경험 재개 방침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온 것은 유감이다. 조평통은 남한이 핵문제를 내세워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면 봉쇄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던지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협력이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평통의 담화가 경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표현이 없는 점에 유의하는 듯하다. 경험이 남북의 협력과 화해를 위한 귀중한 기회라고 보는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기회에 북한에 대해 몇가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은 이제는 상투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조악한 대남비방 언사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북한은 현단계에서 당국간 협의는 않더라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계속 확대해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면 북한에서 쓰고 있는 남한에 대한 일상적인 비난도 자제해야 한다. 북한은 예를 들어 '남조선 통치배'나 '검은 정체'니 하는 표현이 오히려 북한 지도자들에게 흠을 주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조의문제에 대해 끝없이 계속 거론하는 것도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

주석 조의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남한의 조문파동이 북한으로서는 섭섭해 할 일일 수는 있어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민족의 장래문제에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 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 주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공감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법이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개폐되어야 하듯이 북한도 형법 개정 등 내부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는다.

북한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아태경제협력체(아펙)에도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제기구에 이어 지역협의체에도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남북의 화해에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의 경험은 비록 민간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굳이 부인하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社說

전략적思考의不在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합협력... 전략적思考의不在

우선 정부의 정책처부의... 전략적思考의不在

북한이 명실상부한 경제개발... 전략적思考의不在

우리의 부재는 美北합의 이후... 전략적思考의不在

우리의 부재는 美北합의 이후... 전략적思考의不在

▽국민일보 1994. 11. 17

訪北기업인의 신통안전

커다란 불꽃에서 對北정책을 구상... 전략적思考의不在

통해 국내기업의 약화만 초래할 것... 전략적思考의不在

북한기업의 신통안전을 위한... 전략적思考의不在

북한기업의 신통안전을 위한... 전략적思考의不在

북한기업의 신통안전을 위한... 전략적思考의不在

제한적 經協과 남북對話

북한은 남북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면서도 한국 기업가들과는 선별적 제한적 경제교류를 꾀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통일위의 李洪九부총리(17일 국회외무부청외연회에서) 북한의 우리측의 經協제외의 표면적인 거부태도를 보면서도 남북 기업들과의 협의의 적극 허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북한의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가 『남북경제협력을 내심으로는 바라면서도 정권교체 과도기에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단분자간의 남북관계를 동결하려는 정치적으로 자기자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金正宇가 16일 北京에서 일부 한국 기업총수들과 은밀히 만나 우리 기업들의 對北투자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李洪九 부총리의 투자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津先鋒자유무역지대로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또다른 무역 및 투자 유치창구인 北京에서 한국 기업들과 활발한 상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이는 북한의 金日成생전과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제한적 개방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 의고 교역을 증진시키면서도 북한 사회의 대외노출을 극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와 무역에 따라 자율화방안으로부터 북한주민들을 뺐수 있는 대로 권리, 체제불공의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그간은 소극적 개방으로 북한이 직면한 과당적인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우선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북한의 인프라재건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그들이 지난해 말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의 실패를 시인한 후 2~3년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공기보로 삼았으면서 채택한 농업-경공업 후유제인주의 정책의 관철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역과 투자활성화가 가점을 인적교류와 외부사조를 두렵워하는 북한당국의 처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당국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적어도 양국간의 국기연인과 기술자들의 신변안전과 통행보장을 위해서도 당국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전제된다. 나아가서 국제적 현안인 제네바 美北합의의 이행은 남북대화를 위한 한 채 원할히 이뤄질 수 없다.

南北經協, 질서있는 추진을

미흡하나마 북한(北韓)-미국(美國)간 핵협상이 타결되고 우리가 이를 수용키로 한 이상 對北(對北)경제협력은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핵문제에 걸려 중단되었던 경제인들의 북한 방문과 경험 프로젝트의 추진이 재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북(北)과의 경험이 낱을 손익을 예측하는 기초가 될 중요 기초항목으로 투명성 확인이 뒤로 미뤄진 북의 과거핵(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험에 김을 빼려는 소리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문제 타결이 우리의 북한 진출에 그대로 무제한의 축복신호는 아님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험 사업에는 이 「과거핵」조건이 더욱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대체로 민간 차원의 대규모 경험은 대기업이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북한 전체에 그 개수가 소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참여 경쟁 그것이 연료가 되어 공연히 경

쟁이 더욱 불붙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기업들은 북한진출에 앞서 서로 사전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조율하는 민간기구등의 관행을 철저히 지금부터 세워놓아 질서있는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비핵화선언이 명실 그대로 북한 정권에 의해 이행되기 전까지는 정부도 북한 관련 경제사업에만은 민간 자율원칙속에서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권위있게 심판을 내리고, 각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담 전권 원스톱(one-stop)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쌍방에 가장 바람직한 경험은 중소기업이 맡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분야의 투자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으로서의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는 규제보다 장려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경제협력더 신중하게

정부가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방향을 천명하자 20여일이 가워오는 동안 북한이 철저하게 2重의 안전장치를 구사해 우리 기업의 주파를 막았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협력기반법의 제정을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예비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추진하고 신중히, 그리고 소규모로 서서히 추진, 북한의 고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에만 본격화해야 할 것이기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북 북한 이 지난 10년간 중앙당 중앙위원회의 租半統戰 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것이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반법의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북남관계의 불확실성 未知의 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남북시 先行되어야 할 정부의 투자보장법 제정·公布와 반정부정·정신계정법 제정·公布의 의의가 커졌다.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자제, 특히 金 日成死後 北남관계의 변동과 후계체제를 확립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협력추진에 매우 위험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對北

경제협력은 추진하되 신중히, 그리고 소규모로 서서히 추진, 북한의 고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에만 본격화해야 할 것이기다.

한민도 적용되거나 실행되지 않겠지 불인태도가 북한측 통제와 편의대로 단계를 모순과 虛點투성이인 데도 우리 기업들의 橫財를 기대하며 무작정 북한 진출을 고대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수가 적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과거 合憲法시후 朝鮮聯邦에 한 것처럼 민족共存의 노리를 내세워 스코프에 지원내지 獻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추진법안을 발의할 경우 경제사안처리과정, 자금지원,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기반법의 신변보장화안을 연구해왔던 정부가 북한의 각종 대외경제기관의 추정치를 신변보장예비안 제정으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자정기업들의 경쟁력이고 무분별한 남북관계를 조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새기업과 借자를 마련할 여의도 판정부처간의 조달관청간이후 현실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도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간소화된 對北경제협력 절차

남북경제협력기반법안과 남북경제협력기반법안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반법 제정예비안인 기성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해 포신적인 비관하면서도 뒤로그다듬기엔 유감의 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對北경제협력 활성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와 기업이론론 경제단체, 금융기관의 북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제 기업인과 기술자의 남북 및 북남과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사설

남북한 경협시대의 개막

쌍용그룹 임원 12명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진·선봉 지구에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 등을 북한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이유로 닫아걸었던 남북경협을 북-미협상의 타결에 따라 풀기로 한 다음 기업인들의 첫 방북이 실현된 것이다. 북한의 초청장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길이 분명하게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열린 문이 앞으로 더욱 넓어지면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이어져 주기를 바란다.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부 재벌기업은 북한에 투자할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시킨 상태에서 정부의 조치로 계획·추진을 기약없이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미 북한에 진출하려고 접촉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다 새로 나서는 기업들이 어우러지면 기업들의 북한 진출 러시가 올 것이다.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의 접촉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되도록 많은 기업의 북한 진출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출기업의 수나 투자액의 크기가 반드시 남북 교류·협력에 정비례하는 성과를 거두어냄을 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는 남북의 경제교류가 마치 북한에 이로운, 따라서 북한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경협을 통해 빈

사상태의 북한경제를 회생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또한 없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 그러나 경협은 남북한이 같이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쪽 기업을 받아들이는 정책도 이런 생각에 기본을 두고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같은 빛나간 생각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밀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남북경협은 정부가 의도했던 그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구상은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민족발전공동계획'과 같은 거창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이를 통한 화해분위기를 민간단위의 경제교류로 연계시켜가는 것인 듯했다. 지금 기업인 방북과 같은 형식의 경제교류는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소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남북의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또 그 문을 다시 잠그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기업인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은 물 흐르듯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일보 1994. 12. 10

北韓의 한국기업訪北취소

민간베이스의 南北經濟協의 실현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좌절될 것이다. 지난 8월 29일 북한이 南北 투자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기업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위 金正우위원장을 북경에 보내 한 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와 교역상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남북간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한국기업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라 할 수 없다.

北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北美협정의 타결을 계기로...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북정체변화가 열쇠...



延河清

이북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이북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음바라기 남북經協

이북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이북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南北經協 재개의 우리의 자세

과제와 도전... 남북경제협조... 남북경제협조... 남북경제협조...



柳莊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4강강화... 남북경제협조... 남북경제협조... 남북경제협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사설 「한국 對北정책 문제점」 지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對北 經협 시기상조」

核합의 이행 불확실... 北에 주권원 우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東亞
김정
姜晃釋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統合향한 經協」 준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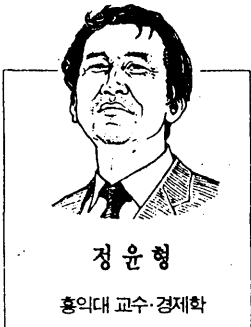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투자 실현됨

美北核協상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실현됨. 북한은 1994년 11월 13일...

한겨레논단



정운형

홍익대 교수 경제학

한동안은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떠들썩하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새 남북 경제교류라는 새로운 문제로 쏠리는 어제 오늘이다. 국민들이 관심의 방향을...

신해 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통연론의 역할 또한 적잖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던 일상의 문제에서 남북 경협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나라의 관심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 지켜보는 말 없는 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걸맞은 긴밀한 분업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조건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 분업 및 협업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경제교류는 남북 공동의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고, 현실의 두 정부가 합의하는 원대한 구상 밑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 교류는 어디까지나 사업 차원의 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몇몇 은행에서는 대북 진출의 발판으로서, 북한에 있을 일제

남북경협, 분업과 협업체제로

수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침묵하는 다수'란 흔히 기득권자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론자들을 고립시키려 할 때 앞세우는 무기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그러한 변화가 한층 더 쓸쓸해진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성수대교를 까맣게 잊는 날, 우리는 더 무서운 참사로 보복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었는가.

아무튼 남북 경제교류는 우리의 염원인 민족통일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만큼 정부고 기업이고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튼이 있을 리 없다. 분단으로 우리 민족이 지난 50년간 겪어왔던 고난을 생각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현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시급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과 다리를 성수대교처럼 놓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반세기기를 살아온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남북 양쪽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통일에 접근해가는 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일일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모든 민족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때의 은행지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텔레비전 보도가 있었다. 정병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이를테면 후시라도 현재의 산업은행 당사자들이나 정부 당국자가 일제 때 식민지 착취에 앞장서서 민족의 원한을 샀던 식산은행 등의 북한 소재 지점들을 되찾을 수 있는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한 발상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들인지 걱정스럽다. 또한 북으로 다부어 진출하는 기업체들이 북한에서의 사업이 장사로서 얼마나 생산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쪽 사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金尙謙

북한에 대한 투자 실현됨. 북한은 1994년 11월 13일...

北, 열방의 수호

북한은 열방의 수호를 외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11월 13일...

經協이 성공하는 길

북한은 열방의 수호를 외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11월 13일...

신뢰 회복 선행돼야

신뢰 회복 선행돼야. 북한은 1994년 11월 13일...

IV. 南北關聯 動向

1. 北 韓 動 向

金正日 15일 취임식

北 LA 親北단체에 초청장

【로스앤젤레스 1일路透電】 미국(美國) 로스앤젤레스의 교포단체가 북한이 15일 취임식을 치를 때, 친북단체에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포단체는 로스앤젤레스의 교포단체가 북한이 15일 취임식을 치를 때, 친북단체에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포단체는 로스앤젤레스의 교포단체가 북한이 15일 취임식을 치를 때, 친북단체에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노선 갈등 등 심화

개방·보수파 '특별사찰' 異見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개방파와 보수파 간의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사찰'에 대한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金正日권력승계 25일이전 가능성

「金日成 사망 百일」 맞다 北韓 시사정

북한의 김일성 100일 국상 기간이 10월 2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일이 10월 30일인 것과 일치한다.

관례를 살펴보면 10일 전까지는 공휴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도대회 직후 인민회의 소집

주도취임뒤 전격 核타결 예상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례를 살펴보면 10일 전까지는 공휴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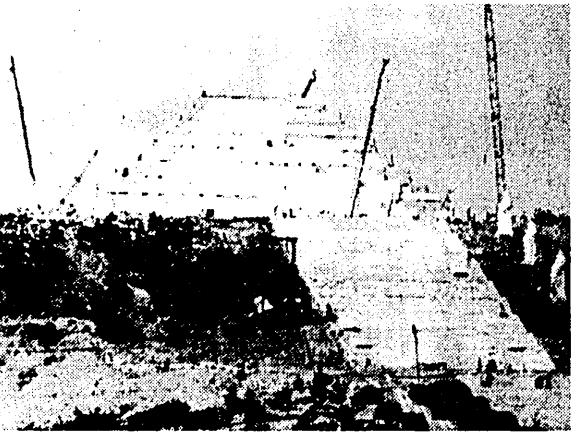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파는 특별사찰 수용을 1~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특별사찰을 3년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단군릉」선진

사회주의 붕괴하자 「민족논리 상징」急造



◇피라미드식 조성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대규모로 개건된 단군릉. 북한은 작년에 발표한 단군릉의 복원사업이 김일성의 遺訓임을 앞세워 완공을 서둘러 왔다.

단군릉 규모

북한이 주장하는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에 위치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2일 이곳에서의 단군릉 발굴발표이후 지난 1월9일 「단군릉 복구위원회」를 구성, 총 80ha의 능 단지조성에 나섰다. 문흥리 고인돌 유적지 아산 정상에 세워진 능은 고조선 시기의 무덤 형식에 따라 가로 50m, 세로 50m의 기단에 흰 화강석 1천8백여개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9개단으로 쌓아올려 봉분 높이가 22m가 되도록 했다. 이 능의 터는 김일성이 잡

평양시 위치... 봉분높이만 22m

아주었으며 능의 개축공사는 김정일의 세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단군릉 개건과 관련, 김일성은 사람 이불전인 7월6일 에도 교시를 내리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김정일의 경우는 김일성 사망 5일후인 7월13일 『오늘 10월3일까지 개건 공사 완료를 마무리』는 지시를 내렸었다. 이 단지는 부대시설로 5정보의 주차장과 등문과 개건비 등을 포함한 개건비 마감을 앞두고 있다. 또 능 주위역대 상에 이른바 2백50여단의 계단이 있으며 주변 50여만 정보의 대한 복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具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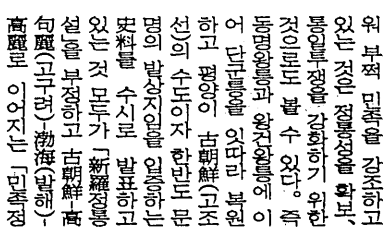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민족」앞세워 통일투쟁적극화

단군·金日成부자 체제를 "연결"

북한은 단군릉을 민족의 상징으로 앞세워 통일투쟁을 적극화하고 있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민족의 상징으로 앞세워 통일투쟁을 적극화하고 있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민족의 상징으로 앞세워 통일투쟁을 적극화하고 있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민족의 상징으로 앞세워 통일투쟁을 적극화하고 있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北 단군릉유적 발굴식 연기

북한은 단군릉 유적 발굴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단군릉은 고조선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일성은 1992년 7월 6일 평양시에서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1993년 7월 13일 단군릉 건설을 지시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아산에 위치하며, 높이는 22m이다.

"北에 金日成 피살설 파다"

金正日이 살해 총알등 제거위해 부검

【서울 6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金正日, 最高領導地位에 힘입어

공동체신사관 "일당주제직취임뒤 빠른 시일내"

【서울 4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일북 舊南시 金日成 추문

북일북 舊南시 金日成 추문

【서울 5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北, 對南비난 강화 "극한水位"

단군릉 준공식·金사망 百일 추모 "南인사 초청" 선전공세 초청일시 不明... 「제2弔問파동」겨냥 교란전술 우리측 잇단 宥和메시지에 대한 「거부답변」성격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은 5일 오후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사망 소문이 돌고 있다.

김정일 16일째 당총비서 승계

북한 외교부 부장 중국에 공식 일정 통보

17일 개최 최고회의서 국가주석 선출

【평양 9일 연합뉴스 보도】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6일 개회된 16일 개회식에서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부총리 겸 외교부 부장에게 18일 이틀간의 방중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김정일 부총리는 1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김정일 부총리는 16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18일 이틀간의 방중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김정일 부총리는 1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北「反金正日 세력」 체제 붕괴 기다린다

“지병으로 오래 못살 것” 판단... 당분간 「노출」 자제

북한 내부에 반김정일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분간 자신의 행동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북한 내부에 반김정일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분간 자신의 행동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북한이 여력해볼 만해 기약

김정일 부총리 4개월만 방중·캐그립 전파 종료

북한이 4개월 만에 김정일 부총리를 방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정일 부총리가 4개월 만에 방중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캐그립 전파도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4개월 만에 김정일 부총리를 방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정일 부총리가 4개월 만에 방중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캐그립 전파도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金正日-吳振宇 연금說

中國소식통 “개혁세력 연계 軍소장과 주도”

북어택파-선미리

북한소식통 정세연(中國)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9월 12일 북한에서 열린 정세연 회의에서 김정은이 김정은의 개혁세력인 선미리 장군과 연계하여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京=金世煥】北韓의 정세연 회의에서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정세연 회의에서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주석 김정은

김정은이 정세연 회의에서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주석 공식 석달째

김정일 언제 나타날까

북한주석 김정은이 공식 석달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살설·건강이상설 잇따라 터져 이달 세차례 공식행사 때 판가름

북한주석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正日週內안타나면 “異常”

북한주석 김정은이 공식 석달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正日

취임식 布石인 단군릉준공식 무시못해 13, 14일 金日成 1백일추도 제1葬儀위원 말아

13, 14일 15일

북한주석 김정은이 공식 석달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개혁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金正일 단군릉주공식不参加

吳振宇도 모습안보여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북한 권력구조 불확실성 증폭

김정일 단군릉 주공식 불참의 저변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오진우도 참석안해... 김오 불확실 뒷받침 권력승계 공식화 지연가능성 더 높아져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平壤단군릉은 조작"

조선초 王朝권위세우려 조성

64년 日출판사 발간자료 발견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송진우와 단군릉주공식 불참했다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권력승계 내부정리 안된듯

연기했다 갑자기 행사개최 건강 문제있었을 가능성도

북한(北韓)의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은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이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단군릉(檀君陵)은 평양(平壤)시강 북로(北路)의 단군릉(檀君陵)에 안장(安葬)된 이래로 45년째 단군릉(檀君陵)을 지키고 있다.

외교부장관관공로유교도

북한 강성산총리 외국방문 돌연 취소 김정일 주석취임관련 주목

강성산총리관공로유교도 김
영남부총리관 외교부장관
북한의 핵심 고위인사들이
이탈 북산과 하수이노에
정면의 북산과 하수이노에
기 취소, 강성산총리관공로
화정행사, 강성산총리관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강성산총리관 부관공로유교도

클라데시가 합작투자한 광
산의 개설행사에 참석키
위해 이틀 중 발라라 데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최근
방문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외교부장관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을
방문기로 하고 이를 해당
국에 통보까지 했으나 방
문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무부 당국
자는 『강성산총리와 김영
남외교부장관이 외국방문일
정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
면서 『북한의 핵심인사들
이 예정된 외국방문 일정
을 동시에 취소한 것은 이
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이 외
교적 결례를 부를 것으로
정를 취소한 것은 김정일
이 국가주석이나 총비서의
취임하기 위한 행사와 관
련, 이탈 중산부터 하수사
리에 김정일후계자 취임행
사가 갑자기 예정됐기 때
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박
했다. (수평면기자)

김영남사관 1백여
내일 추도대회 시
북한 중앙방송
【도쿄=연합】북한이 13일 중앙
방송을 통해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사관 1백여 추
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중앙방송이 시사했다.

특수부대장으로 장전

吳振宇 아들 北탈출說

【北京=연합】북한 권력서
열 2위인 인
민무력부장
吳振宇의 아
들인 임미부
령부 산하 특
수부대장인
軍장성 1명
이 북한에서
슬독재체제에
연루된 남한
나머지 지난
달 중북으로
탈출, 북한 최
고지도부와
軍수뇌부가
그를 체포하
기 위해 준비
상이 걸려 있
는 것으로 북
한시정에
10
은 중북의 한 소식통이
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북 북한
과 중북의 吳振宇아들의
중북탈출사실을 그밖에 부
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보위부 및 안정보, 그리고
軍특수부대장들을 중북
으로 급파해 延邊지역을
중심인으로 북한군 장성
을 체포하는데 열안이 되
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북
한군 장성의 계급이 소장
으로 임미부령부 산하 특
수부대의 최장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吳振宇의
아들이 아닌 것 외에도 그
의 이름이 무엇인지, 몇의
몇몇 아들인지 등 자세한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
다고 전했다.

북, 서방과 합작은행 추진

방북 네덜란드국제은행 간부에 설립 제의

【도쿄=연합】북한은 서방쪽 자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서방쪽 은행과 합작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이 1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간부는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네덜란드국제은행(ING) 영 보스머 서울지점장에게 합작은행 설립을 타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네덜란드국제은행측은 북한의 제의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크고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적어 수익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국제은행측은 상황호전에 대비해 경제조사 등 북한 진출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두만강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 서방쪽과 합작은행 설립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서방기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편 보스머 서울지점장은 "평양을 방문해 합작은행 설립 타진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흥미가 있으나 곧 실행에 옮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일 주석취임 임박

【제네바=정연주 특파원】북한의 재외공관에 전시된 사진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사라지고 그 대신 김정일 후계자의 사진만이 전시되는 등 김정일 후계자의 공식 권력승계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는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정문

앞에는 최근까지 김 주석의 사진이 여러장 전시되어 있었으나, 이번주 초부터 김 주석의 사진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군중대회에 참가한 김정일 후계자의 사진만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북미주 조선친선인협회 회원 등 일부 재미동포들이 '김일성 북한주석의 사망 1백일 추도식'과 '김정일 당비서의 주석 취임'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북한 인사들의 해외나들이 계획도 변경되는 등 김정일 당비서의 공식 취임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平壤주재 외국대사관

콜레라 방역 작업

【모스크바 14일】 북한 전역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문의 영향으로 콜레라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콜레라가 창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김부, 1.5명 이하 인력



【서울 14일】 북한 김부(金平一)가 1.5명 이하 인력으로 구성된 인력만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부는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부(金平一)가 1.5명 이하 인력으로 구성된 인력만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부(金平一)가 1.5명 이하 인력으로 구성된 인력만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金正日 주석승계임박”

【하노이 14일】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金正日 반대세력 있지만 승계에 아무영향 못미쳐

喪中 주석선출 적절치않아 취임 늦어져

【하노이 14일】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 개설행동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 나선·선봉 투자도 협의

【하노이 14일】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김정일 주석의 승계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일외무영대표부의 개설행동은 특혜기업의 평양 방문과 선봉 투자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드사사공시공정 당정군간부대동健在과시

黨政軍간부대동健在과시

金日成 百日주모제에 수일내 權力승계 예상

북한이 김일성의 88일만에 16일 모택동에 이르렀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이 일요일 오후 4시부터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1백일주모제에 1백일주모제에 참석했다고 내

의 통근과 의식들의 일부였다.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김일성의 1백일주모제에 김일성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날 10만명의 참석자를 모은 16일 모택동에 이르렀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이 일요일 오후 4시부터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1백일주모제에 1백일주모제에 참석했다고 내

다할 것을 단정해두고 있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북한의 김일성이 16일 오후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열린 「金日成 88일만에 첫모습 양」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MBC-TV 촬영>

을 「가장 중요한 정치권력」을 사할 권이므로 후계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권력 수뇌부 큰 변화없어

白鶴林등 인민군사수급 급부상 단결

추진방사

북한은 김일성의 장례식을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7월 20일 이틀 동안 평양의 충성당에서 열렸다.

주도형사에 나타난 北서열

1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
2	김정일	북한 2차 최고지도자
3	김정숙	북한 최고지도자
4	김정애	북한 최고지도자
5	김정희	북한 최고지도자
6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7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8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9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10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11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12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13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14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15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16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17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18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19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20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21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22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23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24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25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26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27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28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29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30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31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32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33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34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35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36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37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38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39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40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41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42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43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44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45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46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47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48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49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50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51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52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53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54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55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56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57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58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59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60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61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62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63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64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65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66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67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68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69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70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71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72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73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74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75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76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77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78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79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80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81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82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83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84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85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86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87	김정학	북한 최고지도자
88	김정영	북한 최고지도자
89	김정섭	북한 최고지도자
90	김정민	북한 최고지도자
91	김정현	북한 최고지도자
92	김정우	북한 최고지도자
93	김정아	북한 최고지도자
94	김정남	북한 최고지도자
95	김정연	북한 최고지도자
96	김정호	북한 최고지도자
97	김정기	북한 최고지도자
98	김정대	북한 최고지도자
99	김정중	북한 최고지도자
100	김정문	북한 최고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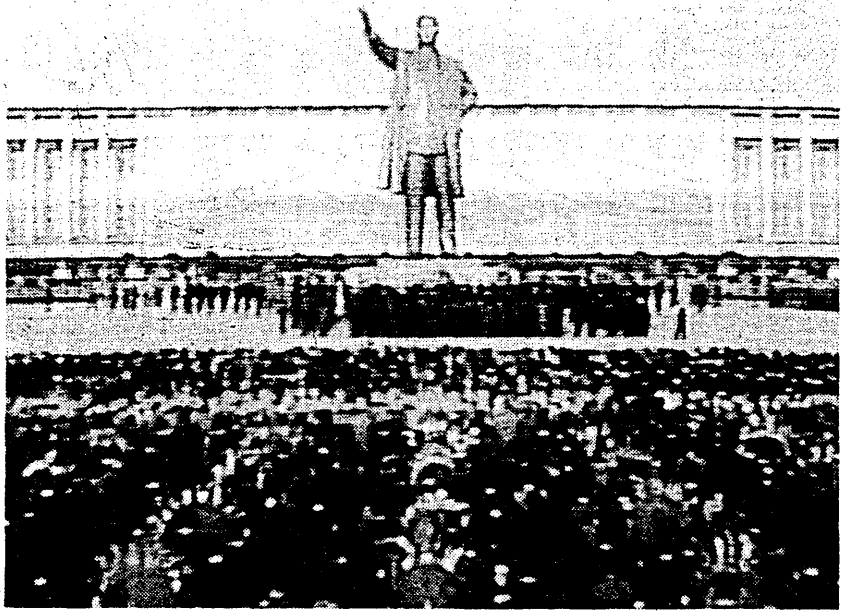
"金正日체제 조만간 공식화"

88일만에 공석등장의 의미

김정일이 16일 김일성 유언을 받들어 88일만에 공식 등장을 했다. 북한은 김일성 유언을 받들어 김정일이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빠르면 이번주 초 黨총비서에 추대 권력 완전장악까지 불안요소 여전

북한에서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한 이후 이남에서는 88일만에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동상 앞에서 16일 삼오 백일추도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장면을 일본 NHK로 생중계된 화면을 찍은 것이다. 【도쿄AP=연합】

북한에서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한 이후 이남에서는 88일만에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등장」각국반응

북한에서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한 이후 이남에서는 88일만에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중, 담담한 태도... 北사정 사전인지 반영 美 "승계 이미 진행... 놀라운사건 아니다" 日, 「金正日체제」 빠른속도로 전환 전망

북한에서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한 이후 이남에서는 88일만에 김정일이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김정일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평양에서 공식 등장을 했다.

金체제 安定 「측근浮上」이 관건

권력승계 초읽기... 앞날 전망

북한의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금명 黨중앙위... 서열변동 관심 추모회混線 관련 「아직 이르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16일 평양에서 열린 金日成사망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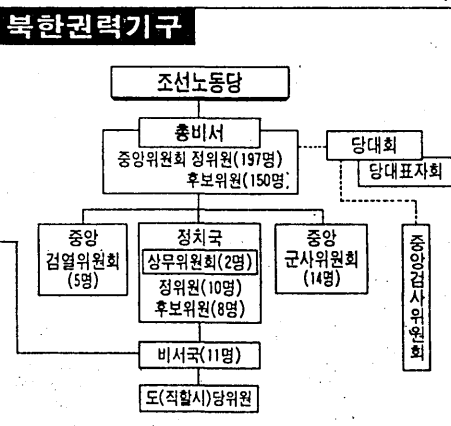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국가주석 黨 총비서 金正日 다 차지할까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金日成사후 국가주석역 수행 겸임시사 집단지도체제 조짐... 분리 전망도 많아 정부 "분리엔 정상회담 상대는 黨총비서"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북한이 「金日成안도기」 97명과 후보위원 1백50명이 16일 평양에서 열린 1백일추모행사에서 1백일추모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

"金正日 총비서선출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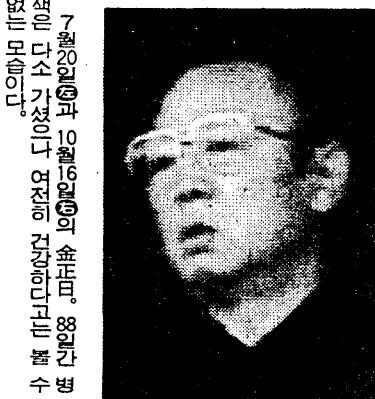
黨중앙위원회 平壤 대기령

정부당료자 주석직승계 조짐은 없어

북한이 정권교섭 4년째인 10월 16일(금요일) 양궁대회와 평壤의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17일(토요일)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17일(토요일)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이후 주석직승계 조짐은 없어 보인다.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17일(토요일)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이후 주석직승계 조짐은 없어 보인다.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17일(토요일)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88국민의 모습... 전반기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17일(토요일) 16일(금요일) 평壤에서 열린 16일(금요일) 총비서선출 임박의 한 단서로 알려졌다.

심한 腹部비만...심장질환 추측

감정 기록심해 신경장애 가능성도

심한 腹部비만...심장질환 추측
감정 기록심해 신경장애 가능성도

심한 腹部비만...심장질환 추측
감정 기록심해 신경장애 가능성도



「顔色」가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顔色」가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顔色」가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顔色」가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顔色」가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송범모 「病歷」이 어진

당분간

南北대화

어렵다

당분간 南北대화 어렵다

당분간 南北대화 어렵다



북한 선전용 화보

김일성 사망 1년일 연회차전경사에 참석하지 않... 아라전해...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북한 나그네의 귀환 붐이 일었다

北韓이 16일 개한한 김...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김일성이 17일...

金正日 추취 모습 영전

김일성 사망 1년일 연회차전경사에 참석하지 않... 아라전해...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김일성 사망 1년일 연회차전경사에 참석하지 않... 아라전해...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金正日 금명 총비서에

어제 김일성이 사임... 主席 취임일... 時差 달랐다

북한이 16일 개한한 김...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김일성이 17일...

쑨민성-김일성 관계 파기

19일 북경의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金日成 = 金正日 부각 총성 유도

연방제 되풀이... 對南정책 불변 예고... 서방과 관계개선... 무역제일주의 밝혀

북한이 16일 개한한 김... 김일성이 16일... 김일성이 17일... 김일성이 17일...

이제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쑨민성...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金正日實用외교시동

북한의 타협배경과 向後전망

對美 관계개선 발판 국제信用 회복 무역제일주의 등 開放노선의 연장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北 권력개편가 순환돌풍

吳振宇(서열부장) 신병치료차 파리에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北韓)의 외무부 장관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문화를 소개했다.

신변안전·醫術고려 佛택한듯

吳振宇 파리行 이모저모



○북한군정서열 2위인 吳振宇(吳振宇)가 17일 북경에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佛정치목적없다·판단 한국외 통보 비자발급 늦어 특별전용기로 입국 입원병원 세계적 심장전문醫 활약

○북한군정서열 2위인 吳振宇(吳振宇)가 17일 북경에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인민」과 있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로 출국한 吳振宇는 북경에서 신변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吳振宇가 누구인가

인민군부장 吳振宇는 함성 吳振宇(吳振宇)의 아들이다. 그는 194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혁명 1세대... 北서열 2위

金日成과 빨치산활동... 軍部장악 권력재편작업 관련 「流配」관측도

신변안전을 바지기도 했다. 그가 91년 11월 25일 「후」... [北서열 2위]

이것이 권력재편작업의 일환이다. 그는 196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7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국내 시각

북한의 2인자 吳振宇의 프랑스로의 출국에 대해 두가지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오진우가 북한임대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특히 함양발전사설의 대표로서 김정일의 최마후진자의 막판 전. 부하나가 오진우를 김정일체제가 공산출판하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떠났다가 사실이다.

장기화면 人事 불가피

프랑스의 부진우 8년째 중남한 김정일의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吳振宇 파리行

【파리=송희모기자】25일 오후 북한인민보도부장은 吳振宇가 파리의 유진우를 현직로선으로보수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여론향배에 관심 쏠려

소신장발전사설을 77세인 吳의 임명 후 오진우가 프랑스로 떠나고 그가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한 가지 문제는 현재까지도 서방들이 가지고 있

현지 표정

권력이 양기 2인자「외유」 눈길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치료” 불구 이레적... 軍部물갈이 계기 될 수도 일부선 “金正日체제의 독주 견제용” 분석

1부의 임명, 인민보도부장을 겸임하면서 북한인민보도부 2인자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프랑스로의 출국에 대해 두가지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오진우가 북한임대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특히 함양발전사설의 대표로서 김정일의 최마후진자의 막판 전. 부하나가 오진우를 김정일체제가 공산출판하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떠났다가 사실이다.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佛, 비자발급 사들김토... 韓-中과 협의의 거친듯

의사등 수행원 6명 대동... 韓-中과 협의의 거친듯

이런 보인다. 오진우가 프랑스로 떠나고 그가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프랑스로의 출국에 대해 두가지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오진우가 북한임대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특히 함양발전사설의 대표로서 김정일의 최마후진자의 막판 전. 부하나가 오진우를 김정일체제가 공산출판하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떠났다가 사실이다.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이런 보인다. 오진우가 프랑스로 떠나고 그가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프랑스로의 출국에 대해 두가지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오진우가 북한임대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특히 함양발전사설의 대표로서 김정일의 최마후진자의 막판 전. 부하나가 오진우를 김정일체제가 공산출판하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떠났다가 사실이다.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장성택의 지병도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북한인민보도부장이 오진우를 신장발전사설을 맡아주고 있다. 평양을 떠나고 2인자

김일성屍身 영구 보존 임의결정

갑자기 사망... 즉시 방부처리 못해

김일성(金日成)이 죽은 후 방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는 어렵겠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일성이 묘향산(妙香山)에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북한 당이 방부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바람에 러시아의 방부기술을 초청하고 TV에 공개된 뒤부터만 가스를 채우기 위한 시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에 있는 김일성 시신을 세면이나 꺼내 방부처리를 다시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데는 적당히 방부처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金正日)은 김일성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영구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 것은 시신 보존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방부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방부처리를 할 수 없었다.

〈金日成기자〉

북미약밀매형상 공개

NHKTV 공장원추정 2명 체포장면 방영

【남미=田實(북미판) 기자】북미 약밀매형상을 공개한 NHKTV의 방영이 북한에서 북한인의 마약수수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NHKTV가 방영한 '북미 약밀매형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보도는 북한에서 북한인의 마약수수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미 약밀매형상을 공개한 NHKTV의 방영이 북한에서 북한인의 마약수수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NHKTV가 방영한 '북미 약밀매형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보도는 북한에서 북한인의 마약수수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일성屍身 영구 보존 임의결정

갑자기 사망... 즉시 방부처리 못해

김일성(金日成)이 죽은 후 방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는 어렵겠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일성이 묘향산(妙香山)에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북한 당이 방부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바람에 러시아의 방부기술을 초청하고 TV에 공개된 뒤부터만 가스를 채우기 위한 시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에 있는 김일성 시신을 세면이나 꺼내 방부처리를 다시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데는 적당히 방부처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金正日)은 김일성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영구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방부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방부처리를 할 수 없었다.

〈金日成기자〉

金正日 갑사문 왜 나왔다

북한이 김일성(金日成)의 갑사문(甲冑)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김일성의 갑사문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방부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방부처리를 할 수 없었다.



최고지도자 등극 "첫 手順"

북한이 김일성(金日成)의 갑사문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방부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방부처리를 할 수 없었다.

남일권 취임식 擇日

「金日成 애도」 공식 종료시사

북한이 김일성(金日成)의 갑사문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방부처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방부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방부처리를 할 수 없었다.

北金正日 단군국호 시찰

“권력승계 매듭...公務시작” 관측



金正日

북한 김정일(金正日)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단군국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숭품 “추대분위기” 본격화

檀君陵시찰 무일뚱하다

북한 김정일이 지난 28일 金日成사망 이후 아버지의 뜻을 표시한 전격적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시찰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북한 김정일이 지난 28일 金日成사망 이후 아버지의 뜻을 표시한 전격적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시찰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北 권력승계 마무리 신호

북한 김정일이 지난 28일 金日成사망 이후 아버지의 뜻을 표시한 전격적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시찰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북한 김정일이 지난 28일 金日成사망 이후 아버지의 뜻을 표시한 전격적인 시찰을 마치고 평壤으로 돌아왔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시찰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吳振宇수행 파리는 北의료진

金正日 건강진단가 10성

韓算외무부 확인

외무부 확인... 김정일 건강진단가 10명... 파리에 있는 의료진...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김정일은 28일 평양에서 시작됐다.

金正日 10일째 主席 취임

黨총비서職도 北외교부 몽골정부에 박혀

【東京=聯合】북한 외교통무부의 고위관료들이 10일 오전 10시 10분경 평양에서 열린 최고지도자회의에서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10일째 집권(金正日 집권)을 공식적으로 축하했다. 평양에서 열린 이 회의는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집권 10일째를 기념하는 자리로, 김정은 총비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金正日 수령” 추억기

【東京=聯合】북한 외교통무부의 고위관료들이 10일 오전 10시 10분경 평양에서 열린 최고지도자회의에서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10일째 집권(金正日 집권)을 공식적으로 축하했다. 평양에서 열린 이 회의는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집권 10일째를 기념하는 자리로, 김정은 총비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金日成 1일째 집권 기념 촬영 당시의 모습이다. (平壤=聯合)

「조선」과 「조선혁명」... 이달부터 권위자

한때의 권위자였던 김일성이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0일째 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 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3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지도자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북한 외교통무부 고위관료들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 소속 인사들에게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南北대화 앞서 韓國 사과해야」

駐泰 北 대사

【서울=聯合】한국측이 집권 후의 남북 대화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만 아니라, 남북 대화의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태국 주재 북한대사인 리도철이 2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말했다.

리도철은 이날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랜 집권자 김정일 집권 10일째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적 민족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있다. 면서, 북한은 미대통령이 세계 주요인사들이 애도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까지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 사후 애도의 표시는 커녕 전후의 비상정세를 내리 고진보적 인사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표이 같이 말했다.

北 「사망직전 金日成」 비디오 제작

“경제재건” 遺訓강조用...각료질책모습 담아 “눈길”

【東京=李東官】北韓은 金日成이 사망직전인 7월 5일과 6일 파탄에 빠진 경제회생을 위해 경제각료와 국영기업체간 부등을 집합시켜 질타하는 모습들을 담은 비디오를 최근 제작, 북한내에 배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金日成이 각료나 간부들을 직접 질타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제작배포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디오의 제작목적은 경제재건에 역점을 두었던 金日成의 “遺訓”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비디오는 평양의 木蘭 비디오가 제작한 「위대한 생애

1994년」이란 제목의 30분짜리 金日成의 「偉業」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사후 추도식에 참가한 인파와 외국인사와의 회담장면등도 함께 담고 있는 이 비디오에는 「유혼이 된 수령의 목소리를 다시 전한다」는 설명과 함께 金日成의 현장지도장면을 약 5분간 담고 있다.

金日成은 안색이 매우 좋아 보였으며 20여명의 각료들에게 직접 지휘봉을 들고 도면을 가리키며 경제회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격렬한 몸짓을 섞어가며 연설하는 도중 「농업 경공업 무역등 세가지를 제일 주의로 하는 것은 당의 결정」 이라며 강력한 어조로 외치기

도 했다.

또 「비료생산을 정상화하자」 「시멘트는 1천 2백만 t이 필요하다. 남포항에서도 반입할 수 있도록 화물선 1백척을 준비하자」 「전력 철도는 인민경제를 일으키는 첨병이다. 구체적인 금속공업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 잇달아 지시를 내리는 장면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비디오에는 金日成이 지미 카터前美國대통령과의 회담시 핵개발과 관련, 「제재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어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슴을 펴보이는 모습도 들어 있다.

【서울=內外】북한 김정일(金正日)은 1일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적 승리를 호언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를 다짐했다. 김정일은 이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 최근 10년간 일부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중국적



金正日

그는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사회주의 체제 승리 호언 金正日 노동신문에 論文

사상 처음 記名기고 눈길

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金日成)사후(死後)최고지도자로서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이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 이 논문에서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조, 향후 노동당을 통한 자신의 영도력 강조를 시사했다. 김은 이와 함께 『착취계급의 선의나 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혁명을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진실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北】北 94독수리 훈련 北 美합의배치 北 祖平統심명 北 韓이 2일 지

단 1일부터 시작된다. 94독수리 훈련은 94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94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94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서울=北】北 東海 키티호크 北 對應훈련 실시 北 韓이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美國 海軍의 키티호크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은 3일 북한 해군에 배치된 미국 해군의 키티호크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은 3일 북한 해군에 배치된 미국 해군의 키티호크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北】北 金正日의 「우월성」「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서울=北】北 金正日의 「우월성」「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서울=北】北 金正日의 「우월성」「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서울=北】北 南 對應훈련 실시 北 韓이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美國 海軍의 키티호크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北】北 南 對應훈련 실시 北 韓이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美國 海軍의 키티호크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白頭山 조만간 화산폭발

300여년간 휴식... 최근 진동 감지 北 韓의 백두산이 300여년간 휴식에 있던 후 화산의 백두산 천지가 조만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질조사원(地質調査院)은 3일 발표했다. 과학자들이 백두산 화산의 조만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질조사원(地質調査院)은 3일 발표했다. 과학자들이 백두산 화산의 조만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질조사원(地質調査院)은 3일 발표했다.

“北내부 권력투쟁 조짐”

새지도부 발표 상당지역의 후

中國서 동향 예의주시

【마이크리치 보도】

【마이크리치 보도】 중국 베이징에서 6일 발표된 소식통에 의하면,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4. 11. 6

대정비상 - 김일성 - 김정은 - 김정일 - 김정은

북조선의 권력투쟁이 바빠졌다

이제 북한은...

고 있다.



◇金正日

관료주의 비판...人事태풍 암시

주席승계 “연내” “내년 4월” 엇갈려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4. 11. 5

金正日,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노동신문에 김일성비판 발표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내부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金泰極기자〉

北, 주민 성분분류 첫 시인

북한이 최근 주민 성분분류에 의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민 성분분류에 따라 주민을 10~15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출신 배경,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주민 성분분류에 따라 주민의 생활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북한이 9월 11일부터 11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주민 성분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주민의 출신 배경,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北 중대방송」 예측

북한이 9월 11일부터 11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주민 성분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주민의 출신 배경,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金正日승계-쿠데타등 갖가지 추측 「北내부결속위대한 선전」에 휘말린 꼴

북한이 9월 11일부터 11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주민 성분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주민의 출신 배경,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정부 「情報취약」 또 노출

북한이 9월 11일부터 11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주민 성분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은 주민의 출신 배경,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주민 성분분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다.

「北당국지시로 마약밀매」

리에 체포 北韓人 2명 1명은 고위장성의 아들들說

북한 당국이 마약 밀매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리에 체포된 2명의 북한인은 고위장성의 아들들이라고 보도했다. 리에 체포된 2명의 북한인은 고위장성의 아들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자신들이 사회안전부 소속임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사회안전부 소속임을 밝힌 북한인으로 추방될 경우 추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관의 전했다고 한다. 이 수사관은 6월 북한에 왔던 리에가 8월을 팔려다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리에가 연방경찰에 연행된 후 리에가 마약 밀매를 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아펙가입 공식 표명 호주·필리핀과 수교 추진

타이주재 대사관 대변인, 아세안안보포럼에도 참여 뜻

북한이 10일 지난해 동남아국가 연합(아세안) 나라들이 중심이 된 남한과 미·일·중·러·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는 형태로 결성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태경제협력(아펙)에 가입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아펙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통신〉 방콕특파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타이주재 북한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직결되고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를 하는 각종 지역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북한의 지역협의체 가입의사는 김영삼 대통령이 7일 대북 경험규제 완화방침과 함께 “북한이 아펙 등 지역공동체와 국제공동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같은날 한국방문길에 오른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한국과 함께 북한의 아시아 지역기구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두나라의 이런 발언은 북한쪽의 가입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말 오스트레일리아 관리들은 북한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비공식 접촉과정에서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의사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타이주재 북한대사관 대변인은 또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핵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는 물론 필리핀 등 동남아의 일부 미수교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께 타이주재 이도섭 북한 대사가 마닐라를 방문해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아세안 나라 중 마지막 미수교국이 되는 브루나이와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北, 불만계층이례적 부마

평양방송 '김정일' 부조각한 단풍'포진' 보도 체제안정 노력... 성분차별 시인

북한이 최근 진행된 체제안정노력 보도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평양방송이 10일 보도한 단풍'포진' 보도에서 성분을 차별하는 시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양방송은 10일 보도한 단풍'포진' 보도에서 “성분을 차별하는 시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성분을 차별하는 시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성분을 차별하는 시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했다.

90년 日·北 3黨합의 준수해야 修文협상

金正日의 임의 지도자로서 대 국가주석 취임시기 임의 없다

【서울=연합통신】북한 김정은의 임의 지도자로서 대 국가주석 취임시기 임의 없다. 김정은의 임의 지도자로서 대 국가주석 취임시기 임의 없다. 김정은의 임의 지도자로서 대 국가주석 취임시기 임의 없다.

尹伊桑씨 12일 訪北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한 뒤 13일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서울=정=정】북한이 12일 안남북도(안남, 북도)의 12개 시군을 순회한 뒤 평안북도(평북)의 13개 시군을 순회했다.

北韓, 한국 對北정책 계속 비판

祖平統 白書서 전쟁위협 주장

【서울=정=정】남북정협안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report and the author's views on North Korean policy and the risk of war).

【서울=정=정】남북정협안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report and the author's views on North Korean policy and the risk of war).

外言內言

「옥쌀」「혼합국수」「속도전가루」. 우리에게 낯선 단어이지만 북한에서는 밥대신 먹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될 대체식량들. 옥쌀은 옥수수가루에 밀가루를 섞고 물을 뿌려 익힌 뒤 성형기로 압축, 쌀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혼합국수는 나무껍질가루에 옥수수가루와 감자가루를 섞어 만든 국수. 속도전가루는 옥수수가루에 약간의 당분을 넣은 것으로 아무곳에서나 물에 타서 마실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北의 붉은귀족

이런 대체식량이라든가 배불리 먹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이 북한의 실정. 그래서 92년부터 「하루 두끼먹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밥먹기」라는 희한한 구호도 내걸었던.

북한당국은 언론매체를 통해 「허리띠를 풀고 식사를 하면 위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간장에도 해롭다」고 선전했다. 그 기발한 착상(?)은 가히 개그콘테스트의 대상(大賞)감. 북한의 식량공급이 분배제에서

배급제로 바뀐 이래 농민들이 농사를 게을리 하고 기후도 좋지 않아 내리 흉작이 된 탓에 최악의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노멘클라투라(붉은 귀족)들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있다. 기쁨조에 둘러싸여 프랑스산 코냑중에서도 최고급품인 파라디를 즐겨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번 칠아파티를 여는 김정일은 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밖의 붉은귀족들도 산해진미에 외제술을 마시고 외제담배를 피우는 등 나름대로 호사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좀 지나쳤다 싶었는지 김정일은 최근 당정(黨政) 간부들의 외제술과 담배 사용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산 술과 담배를 제한할 데 대하여」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했는가 하면 「호주머니까지 뒤져 뿌리를 뽑도록 하라」고 호통쳤다. 그러나 북한체제에서 붉은 귀족들을 누가 단속하단 말인가. 그런데도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처럼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될 「우리사회주의건설」을 외치고 있다. 가소로운 일이다.

90년대 반미시행

【서울=정=정】북한이 90년대 반미시행...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North Korean anti-American activities).

북한이 평양에서 7천만

【서울=정=정】북한이 평양에서 7천만...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event in Pyongyang).

吳振宇 평양에서 7천만

【서울=정=정】吳振宇 평양에서 7천만...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event in Pyongyang).

미국이 미군 관련법안 내세우

영국 정부는 시사적인... 미국이 미군 관련법안 내세우

김도갑승계 걸림돌은 金英柱

자유무역지대 책임자로 임명 정치적 부담

김도갑은 2년전... 김도갑승계 걸림돌은 金英柱

北韓의 사 2명 佛서 入國 2명

佛서 入國 2명

北韓의 사 2명... 佛서 入國 2명

佛서 入國 2명... 佛서 入國 2명

조국련 對北수입금 격감

金正日 권력승계에 불만 "추축

조국련은 11월... 조국련 對北수입금 격감

對南정전장기수 승환

北 韓國정파에 佛... 對南정전장기수 승환

北 韓國정파에 佛... 對南정전장기수 승환

北 韓國정파에 佛... 對南정전장기수 승환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北 韓國정파에 佛

"金正日 건강 나빠 권력승계 지연"

도시사지「諸君」북한의 암막「특집보」

북조선 선전활동 보고자인 양철의 시사평론자지「諸君」(韓)지 12월호에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한 전모를 예견하며 비판을 펴고 있다.

이 잡지가「김정일의 나태」였지만...이란과 제하의 특집기사에서「북한의 정권상계가 늦어지고 있는가」등 남북 김정일 체제의 심각한 건강이상과 परिवай라고 분석했다.

또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현재 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정부안의 심상환의 기부가 조속편견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잡지는 이런 분석이 근거가 되어 북조선의 정권승계(전란 뒤 주재대사)의 불확실성을 남북 언론과 전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평판은 양측의 상하를 무시한 채 상하가 없으며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실 김정일이 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하여 「결가지」로 김정일의 건강을 견제할 만 아 아니라 김정일을 견제했다. 이 잡지가 이렇게 비판을

김정일 16일 평양 김일성공항에 한 일명 「평양의 평화」에 관한 김정일 김정은 김철이 부친에 대해 소식을 듣고 김정일 김정은 김철이 부친을 추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있다.



당뇨병 확신... 통치권 누수 현상까지

결가지 金平一·혁명 1세대 勢 확장

북조선의 국가부흥을 위하여 해 북한이 북한정권 평

들이 자신들의 자유 인정하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

「결가지」는 「평양」과 「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

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김정일

「결가지」는 10월 16

김정일이 김정일의 권력을

북조선의 통치권과 무관하게

「결가지」는 김정일의 권

김정일이 김정일의 권력을

북조선의 통치권과 무관하게

「결가지」는 김정일의 권

에 관계없이 아무런 고려도 없지는 않겠지만 김정일은 상이 생기면 사활을 이

북조선의 김정일 체제는 김정일이 김정일의 권력을

김정일이 김정일의 권력을

「결가지」는 김정일의 권

“金日成 건강과 신 돌연死”

리紙의 사 1명만 대동... 구조시기 놓쳐

▽조선일보 1994. 11. 25

【모스크바=聯】 지난 7월 8일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北韓의 金日成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 사망한 셈이다. 「리紙」의 일간 「복소클스카야 프라우다」가 24일 보도했다. 「복소클스카야 프라우다」는 이 「복소클스카야 프라우다」의 특제 주필은 「복소클스카야 프라우다」의 특제 주필인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예견한 바 있다. 「리紙」의 특제 주필인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예견한 바 있다. 「리紙」의 특제 주필인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예견한 바 있다. 「리紙」의 특제 주필인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예견한 바 있다.

金日成, 사망 2일 전 개방 강조 北 지도도부 「유언」 간주

韓德錫 밝혀

“탈주자 방지 위해 경제 재건” 지시

【東京=韓德錫】북한의 김일성(金日成)은 지난 7월 사망하기 이전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은 1970년대 후반에 “탈주자 방지와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진들에게 목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탈주자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吳振宇 40여일만에 北 귀환

폐암 상당히 진행... “치료불능 판단”

【平壤=韓德錫】북한이 지난 10월 27일, 40여일 만에 귀환한 吳振宇(오진우)가 폐암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불능 판정을 받았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吳振宇는 지난 10월 27일, 40여일 만에 귀환했다. 그는 폐암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불능 판정을 받았다.

吳振宇는 폐암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불능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27일, 40여일 만에 귀환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열릴까

통일원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 金正日 국가주석 승계는 미뤄질 듯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2월 10일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일의 승계는 미뤄질 듯하다.

김정일의 승계는 미뤄질 듯하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2월 10일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일의 승계는 미뤄질 듯하다.

김정일의 승계는 미뤄질 듯하다. 통일원은 “내달 10일 전후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상 밖 지연... 「暗闘說」 진폭

北韓 최고위직의 공백 상태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北韓 최고위직의 공백 상태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9부총리 겸 방위장관인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위직 공백이 3, 4달째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의 부가 부총리 겸 방위장관을 겸임하고 있다.

北 권력승계 해법길 가능성

북한 권력승계 해법길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월 말 전후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2대 정치행사인 4·25혁명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黨중앙총 개척 움직임 아직까지 안보여

현명 1세대들 「포이지알」 방해 「정기」

북한 당중앙총 개척 움직임이 아직까지 안보여. 현명 1세대들 「포이지알」 방해 「정기」. 당중앙총 개척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명 1세대들이 「포이지알」을 통해 당중앙총 개척을 방해하고 있다. 「정기」는 당중앙총 개척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北, 獨에 공식 수교 요청

40, 50개 對동북협정 전면부원 추진

북한은 40, 50개 對동북협정 전면부원 추진을 요청했다. 북한은 40, 50개 對동북협정 전면부원 추진을 요청했다. 북한은 40, 50개 對동북협정 전면부원 추진을 요청했다. 북한은 40, 50개 對동북협정 전면부원 추진을 요청했다.

「자아화」 마법 「대처」

북한이 「자아화」 마법 「대처」. 「자아화」 마법 「대처」. 「자아화」 마법 「대처」. 「자아화」 마법 「대처」. 「자아화」 마법 「대처」. 「자아화」 마법 「대처」.

북한姜成山총리 부인 만외 나타다

북한姜成山총리 부인 만외 나타다. 【서울 9일】북한姜成山총리가 지난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1박 2일 방문했다.姜成山총리는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1박 2일 방문했다.

金正日 석고상 5개 캠퍼스 캠퍼스

북한 김정일 총리의 석고상이 5개 캠퍼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평양 11일】북한에서는 김정일 총리의 석고상이 5개 캠퍼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일 총리의 석고상은 10월 말부터 캠퍼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기업訪北 연기요구

北, 곧 人民대회 개최 이유

연말이내로 예정됐던 일 부 국내기업 대표단의 방

북시기가 북한에 최근인민 회의 개최를 이유로 불응연 연되었다. 북대기업의 위급계가 9일 북한을 방문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16~20일 전까지 16일째째 연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李洪九 특필

북시기가 북한에 최근인민 회의 개최를 이유로 불응연 연되었다. 북대기업의 위급계가 9일 북한을 방문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16~20일 전까지 16일째째 연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李洪九 특필

최근인민회의 年次 개최 불확실

김정일의 국가주석 선출과 더불어 관심을 끌었던 북한 최근인민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근인민회의가 내년 3-4월경에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인민회의 개최를 둘러싼 내부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인민회의가 내년 3-4월경에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인민회의 개최를 둘러싼 내부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金日成 「주석」 해넘기나

인민과 김정일의 융성으로 방송했던 「신년사」에 관심의 향방이 보인다. 이번 해를 끝으로 김정일 원장판도 최근 특필한 방송과 더불어 관심을 끌었던 북한 최근인민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근인민회의가 내년 3-4월경에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인민회의 개최를 둘러싼 내부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은 다국적 기업은 5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12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北, 사회주의 고수 對서방 접근 병행

獨紙도론

【포천인문】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선군과 동맹을 맺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고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에 접근하는 병행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방등 정책-권력배분 정리안된 듯 金日成 「방부처리」 지연도 한원인

金正日 정상업무 집행... 95신년사 서면대체 가능성

나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이 북한의 불확실한 내부 정국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일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인사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민부부장 吳振奎를 비롯하여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인사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민부부장 吳振奎를 비롯하여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배분을 정리하고 있다.

北, 96 올림픽 참가 시사

“도전 3월과 7월 제대의 참여” 발표

【서울 14일 특파부】 북한이 1996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북한 당국자들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은 1996년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은 1996년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은 1996년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부 정책·지방정치 주장

평안남도 민선간담회·북부지방정부의 역할

【평양 14일 특파부】 평안남도 민선간담회에서 북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은 1996년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국가원수 지명 내년 1월~2월께 가도

【평양 13일 특파부】 북한이 내년 1월~2월께 국가원수를 지명할 것이라고 북한 당국자들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13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은 1996년 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내년 3월과 7월 제대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金永南

스위스식 中立國으로 통일해야

“弔問금지 사과없는 南北대화 없다 金正日は喪主... 主席승계 미룰 것”

【서울 14일 특파부】 스위스식 중립국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의 사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승계될지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의 사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승계될지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의 사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승계될지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統一政策연구소 제공】

IV. 南北關聯 動向

2. 其 他

북에 콜레라 관련국 동맹국 영국의

姜韓赤총재 성명 "소요의약품 무상제공 용의"



姜英勳 총재

북이 콜레라 관련국 동맹국 영국의...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stat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ntext.)

北韓 콜레라 만연

安企部보고 함흥등서 發病 平壤 개성까지 확산

성무, 東西海어패류방역대책강구

북한에는 현재 콜레라가 국경정도의 국경감사에... (Text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cholera in North Korea and government response.)

안기부는 북한지역의 콜레라가... (Text details the Ministry of Security's report on the spread of cholera from Hamhung to Pyongyang and Kaesong.)

이로써 발병지역의 사망자수가... (Text discusses the impact of the outbreak and the role of seafood in its spread.)

韓赤, 남·북 書信왕래 중개

6월부터 장기복역未전향자 2명·北가족간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 國監보고

북한정권과 남한정권 사이에... (Text reports on the resumption of mai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the return of two long-term prisoners and the exchange of family members.)

「南北 대화의 門」 두드리기

잇단 對北 메시지 배경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非정치분야서 실마리 풀자” 적근 자세 「金正日승계 이후」 겨냥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韓赤 對北 메시지 배경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北韓의 對北 메시지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 4일 특보】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門을 두드리기 위한 對北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북블레라 防疫지원 제의백경

북한이 최근 사스(SARS) 3만 명 후... 防疫지원 제의백경

民族공동체 차원 「조건」 없는 救護

민중들의 재건과 구호를 위한... 「조건」 없는 救護

단군릉 제막식의 北韓 초청수단

단군릉 제막식의 北韓 초청수단... 北韓 초청수단

단군릉 제막식의 北韓 초청수단... 北韓 초청수단

의약품 수용팬 식량등 확대 경색 정치관계 타개 의도도

한국의 북한수출품... 의약품 수용팬 식량등 확대

한국의 북한수출품... 의약품 수용팬 식량등 확대

北-日修交교섭 早期재개

日 관방장관 日, 經協자금 50~100億弗 제시할듯

【니하루신문(北平) 19일 특보】... 北-日修交교섭 早期재개

北-日修交교섭 早期재개... 日 관방장관 日, 經協자금 50~100億弗 제시할듯

6·25 拉北포로 43년만에 탈출

趙昌浩씨 극적 귀환 西海서 어업지도선이 구조



趙昌浩씨

국가안전기획부는 6·25 당시 포로수용소로 잡혀갔던 趙昌浩씨(64)가 최근 북한을 탈출, 귀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기부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 23일 전북 군산에서 서남방항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정 소속 어업지도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현재 서울중앙병원의 입원중이다.

趙씨는 지난 50년 경기상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 진학했으나 1학년 재학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자원입대했다. 趙씨는 유년직수 포병 101대대 관공장교보로 복무하다

51년 5월 강원도 인제전투에서 다들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안기부는 또 趙씨가 52년 9월 월남을 기도하다 붙잡혀 13년간 원산 아오지강계교화소에서 강제노역을 했으며 그후 자강도 화포공산 등에서 광원도로 입하다 구폐중이 결 77년 7월부터 자강도 중원군 홍아탄광 노동자구에서 작업장이 지냈다고 밝혔다.

살아 있었구나 형제들 통곡

趙씨 가족

『昌浩를 만나보고 이것 이 꿈인가 생인가 구분 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전향생가의 지렁이가 파면이었지요. 이것이 무슨 조화인 가도 싶었습니까.』

24일 昌浩씨가 살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해창빌딩 2층 202호에서 셋째인 昌浩씨가 昌浩씨 남매의 결을 떠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趙永國씨와 李坤玉씨 사이 2남 2녀 중 셋째인 昌浩씨가 남매의 결을 떠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그해 10월 10일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그해 10월 10일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그해 10월 10일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그해 10월 10일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그해 10월 10일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北前고위간부 20명來韓

해방후 金日成에 수형 러시아인명 내일 「北민주화-인민회복대회」 참석

해방후 金日成에게 수형 학부총장 朴一씨 등 20명. 이 중 姜씨는 지난 49년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민주화회」에 참석했다. 또 姜씨는 88년 이후 3차례 「북민주화회」에 참석, 북한사 회를 위한 대학의 참석을 위해 26일 내한했다.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反北(반북)인사들 중 북한 내부성립(남산)을 지원한 姜尙昊(姜尙昊) 85씨, 前진천군관공교장 장학봉씨, 前문화선전성대장 정삼진씨, 前인민성대

趙씨 귀환 기쁨

趙昌浩씨는 昌浩씨 남매의 결을 떠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趙昌浩씨는 昌浩씨 남매의 결을 떠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趙昌浩씨는 昌浩씨 남매의 결을 떠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昌浩씨가 1·4후퇴직전 포병사관학교에 지원했다

日 "조건없이 북과 수교 교섭"

무라야마 총리 발언 빠르면 새달중 대표단 派北

【교토=강정진특파원】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25일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수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정상회담(아시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수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날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외무성 장관인 미야자와 기이치에 대한 발언이었다.

미야자와 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수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수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울=내외】군사정전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을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곧 철수, 북측으로 귀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7일 군사정전위원회의 중립적인 대표단을 대표단의 철수를 판문점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의 중단과 판문점 철수

박희고 이철 북한 대표단은 판문점 대표부를 '조별'로 철수했다.

金正日 퇴진 촉구

北민주화-인권회 북 서울대회

북민주화-인권회(이하 북민주화)는 28일 서울에서 '김정일의 퇴진'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대중, 김민준, 장갑갑, 박갑룡(과북한) 등이 참석했다.

북민주화-인권회(이하 북민주화)는 28일 서울에서 '김정일의 퇴진'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대중, 김민준, 장갑갑, 박갑룡(과북한) 등이 참석했다.

中 "停戰협정" 계속 유지

정부에 「板門店 대표단 철수」 통보

중국은 군사정전 위태로움을 계기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고위급부처는 방청객을 인민정부의 불모하

中國, 정전위 대표단 철수 파장

군사정전의 위태로움을 계기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상징적 타격... 대화채널은 유지

北 「평화협정」 선전공세 강화할 듯
정부,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할 때

북한은 정전위 대표단 철수를 계기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은 정전위 대표단 철수를 계기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은 정전위 대표단 철수를 계기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金대통령 내달 마닐라訪問 대비

北 北화물선 상륙 불허

대통령 수임식량 실의, 무두봉號

【서울 29일 특파원】북한은 김대통령이 내달 마닐라를 방문할 때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마닐라에 있는 '무두봉'이라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이 회사는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소식들은 김대통령이 44명 로부터 상륙허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23일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인데, 북한은 김대통령이 마닐라에 상륙할 때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북한은 김대통령이 마닐라에 상륙할 때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마닐라에 있는 '무두봉'이라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김대통령이 마닐라를 방문할 때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마닐라에 있는 '무두봉'이라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서울신문 1994. 10. 29

北祖統戰대표인 김대중
江澤民

江澤民

【北京 29일 특파원】江澤민은 김대중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중은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김대중은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마닐라에 있는 '무두봉'이라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金大中씨 내일 訪中

北美협상이후 정세변화 토의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南北통일 중 4정역할유대

金大中이 사장 왜 中國가나

金大中 亞太경제재단 이사장이 1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金大中 이사장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美러시아등 주변 4強순방중 가장 비중 큰인 위한 민간사절 정치적 해석엔 경계

대외처 한민도 북일파 체류한 김대중은 29일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30일 베이징에서 김대중(金大中)은 29일 오후 10시 베이징(北平)에 도착할 예정이다.

南北 기자 교류제의

한국의 기자 교류제는 남북 기자 교류제(이하 남북 기자 교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인력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남북 기자 교류제의 실시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北 북평공공 3명 귀순

북평공공 3명 귀순. 이 소식은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다.

북평공공 3명 귀순. 이 소식은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다.

停戰체제

평화체제로 대체

중외교부대변인 영수로 참여 요청 맨션 신중 검토

외교부 대변인 영수로 참여 요청 맨션 신중 검토. 이 소식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대변인 영수로 참여 요청 맨션 신중 검토. 이 소식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다.

北 함성진행 거부

【평양 29일 연합뉴스】북한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다.

脫北범목격공 김일호 서울왔다

어제 러망명뒤 우리정부서 이주허가

러망명 뒤 우리 정부에서 이주 허가를 받은 탈북범 목격공 김일호 씨가 서울에 도착했다. 김일호 씨는 지난 28일 러시아에서 탈북한 뒤, 29일 우리 정부에서 이주 허가를 받았다. 김일호 씨는 서울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러망명 뒤 우리 정부에서 이주 허가를 받은 탈북범 목격공 김일호 씨가 서울에 도착했다. 김일호 씨는 지난 28일 러시아에서 탈북한 뒤, 29일 우리 정부에서 이주 허가를 받았다. 김일호 씨는 서울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기술인력·정보교환 합의

域內 투자활성화 공동선언

APEC 각료회의 폐막... 내년 日서 개최

통관 간소화... 규격 표준화

【자카르타 11일 金泳秀기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6차 각료회의가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APEC 지역내 투자활성화와 조차간화 등을 주제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후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APEC의 지역내 투자증진에 합의한 일련의 첫 번째 회의에서 18개국이 공동의 규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APEC 각료회의는 1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18개 회원국들이 지역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APEC 투자증진을 채택했다. C 투자증진을 채택했다.

각료회의는 이와 함께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자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

【자카르타 11일 金泳秀기자】 정부는 제네바 北核협상과 결이후 한미 4強의 회의를 주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의 亞太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적극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金泳秀 대통령은 15일 열린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APEC 참여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료자는 이날 12월 6일 金대통령의 러시아

발표시 열린대통령이 자국의 APEC 신규가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외교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대한 불만을 무마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간 기술인력 상호교류 확대, ▲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과 정보교환에 협력하기로 하는 인력자원 개발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APEC 7차 각료회의는 오는 95년 일본에서, 96년 8차회의는 필리핀, 97년 9차회의는 캐나다에

서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APEC 각료회의는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한 APEC 사무국의 기능을 보강키로 했으며, 무역투자위원회(CTI) 밑에 통관절차 간소화와 공산품 규격 표준화를 위한 소위원회들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또 APEC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러 APEC 가입 지지 정부

“한반도 非核化 계속개입”

틀린대통령, APEC 총회 참석서 연설

【워싱턴 11일 11월 12일 美대통령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개입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亞太국가들과의 상호안보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틀린대통령은 亞太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조지타운대학에서 행한 외교정책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태평양과의 상호안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틀린대통령은 또 21세 기미의 생일인 아시아 중남미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미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틀린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하 정명인시그를(TIP) G의 건의를 토대로 오는 2002년까지 국내부표 자유화를 완료하는 시한을 정해 관행 했을 것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협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표연노실 정부는 오는 15일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나 최중적인 결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대통령은 분회의에 앞서 대통령에게서 개막사를 갖고 APEC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수하트대통령의 개막연설을 들었다.

▽한국일보 1994. 11. 12

이와 관련해, 유엔 핵 수석 대표인 韓昇洲의 부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단호히 반대하며, 대안 회담자들의 의지는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亞太國 "세계경제 主流" 선언

APEC 결산

15일 페르미안 아모르제협 있었다. 무엇보다도 APEC 협체(APEC) 정상회의의 정상들이 이날 보고르선언에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를 통해 영내내 무역·투자자들이 이 지역이 무역자유화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세계경제에 대한 합의한 것이 개방화

가 무역자유화라는 사를 받아 협정국들은 보다 구체화 시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의의 심화제정인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이는 각국의 상호협력적 수를 확보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위한 다자간 교역 자유화 ▲경제개발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개방적 지역주의로 WTO 주도역 국제무대 제 목소리 날 機構化 추진

이들을 신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 공동번영의 추구의 함께 세계경제 평가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의 합의는 보고르선언의 무역 자유화 ▲경제개발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반자관계

선언에서 회원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지향으로 ▲인력자원개발 ▲APEC의 개방기회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의 지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다룬다. 협정국들이 이번 개회 협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APEC의 강령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본지리=高明辰기자】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이 15일 金泳三대통령등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고르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보고르=高明辰기자】

대외원조·외환·통신등 3분야

美, 對北제재 곧 해제

「제네바 약속」 따라 1단계 조치

駐韓美 기업인들

월말께 대거 訪北

【워싱턴=김홍기기자】美 정부는 제네바 美北협상 이행과 관련된 3개 분야(외환·통신 등) 3개 분야의 대한 북북한 제재를 곧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美北간 연합사무소 개설 등 개성을 위해서도 외환통신 분야의 규제 해제도 선 행되어야 할 전망이다. 이 의안이 시행이 가능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3개월이내에 해제하기로 약속한 북북한 제재는 10여개의 관련법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시에 풀기가 어렵지만 월말께 미 의회 상·하원 합의안이 제의될 예정이다.

미 의회 제네바협상 타결 이후 3개월이내에 북북한 협상을 포괄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북북한 협제를 논의한다.

한편 워싱턴과 교역관계가 많은 북북한 제재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개성출입차량 통행 허가 관련 법안도 의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조조법안 통과에 의한다.

이런 법안들은 워싱턴에서 「美 대표단」의 北東(베트남)을 거쳐 북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1994. 11. 17

北선미미담 강화

【주요】북한과 열광적인 수교협상 재개의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가운데 북선이 열광적인 단행과 남북교섭을 강화하며 16일 서울시장의 권영길 8차 남북회담을 발표하며 열광적인 열사정양의 남북사실화 인정하기 사적화 진행 요구했다가 북선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北 수교협상 원하면

日정부 수용키로

山下 日대사

日本정부는 14일 北韓의 北日수교협상 對北의 협력을 위한 對北법정안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駐韓日本대사는 이날 오전 신인기자차 기자간담회에서 북수교협상의 의의를 밝

은한 자리에서 「日北수교 협상은 李承晚체제를 둘러싸고 협상의 北韓이 협상자임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선이 열광적인 열사정양의 남북사실화 인정하기 사적화 진행 요구했다.

北억류자 조속송환 촉구

79년 拉北된 고상문씨등

亞太의원연맹 결의안 채택

【단독】= 아시아 태평양 의원연맹(APPU)은 18일 한류 의회대표단(한류연맹)이 주최한 '北韓內인 인권개선과 억류된 한국인 조속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연방의 인권주의적 조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회

평과 북송 재일교포 26명 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취지를 밝혔다.

▽문화일보 1994. 11. 24

기자協 대표 26일 訪北

【단독】= 문화일보 기자협 대표단은 26일 평壤을 방문하여 북한 기자들과 교류하고, 북한 언론의 현황을 파악하며, 북한 언론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1994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로, 평壤을 방문한 후, 남포시, 자강도, 함양 등지를 순회하며, 북한 언론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1994. 11. 19

停戰체제 정상화가 우선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전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장기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남북 양측은 이 점을 인식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非核化원칙 철저히 이행

南北韓 「평화공약」이 현실적

한반도 평화공약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핵무기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은 이 점을 인식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평화공약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핵무기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은 이 점을 인식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문 1994. 11. 17

駐韓美기업인 訪北 불허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미국 기업인 16명이 16일 평壤을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미국 기업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양측 간의 긴박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공약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핵무기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은 이 점을 인식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약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핵무기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은 이 점을 인식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긴박한 정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北-이란, 미사일공동개발 추진

美·이공격목표인듯

이스라엘 국방차관 "兩國 접촉 정보있다"

【예루살렘=연합】이스라엘 국방차관인 이스트라프 샬리프는 이라크와 북한이 이라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리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리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리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對北核합의 이행

訪北 일본 共和의원

【東京=AP】오는 11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 의원단의 일원이 일본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폐쇄체제 향후 10년 존속

흡수통일엔 강력 저항 위기엔 核사용 가능성

【東京=연합】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관인 데이비드 S. 브라운은 북한이 폐쇄체제를 향후 10년간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世銀、北경제지원 모색

개발 유망지역

【워싱턴=연합】세계은행이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유망지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유망지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유망지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유망지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美의원 南北 비행기항과 무산됐다

북한이 비행기항을 무산시켰다. 미국 의회에서는 1994년 12월 10일...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이 사이먼 프랭크 머코스키

개방속도 黨·軍알력 의혹 美행정부 입김도 배제 못해

개방속도 黨·軍알력 의혹 美행정부 입김도 배제 못해.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북한군부 막판제동 가능성...

主體사상 워싱턴'入城' 申相仁 <워싱턴특파원>



워싱턴에 도착한 워싱턴특파원. 워싱턴에 도착한 워싱턴특파원...

訪北美의원 金正日 못만났다

金正日(김정일) 12일 하

오 북핵협상(한미)의

문제를 가장 내한한

스기美의원(한미)과

의원(한미)이

의견(한미)을

공조와 이해, 신뢰의

바탕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을

위해서

한미(한미)의

이행

美 두議員 平壤에

후전후 처음美軍機로... 金正日 만날지도

어제부터 판문점(해) 서울로

【北京=柳東植특파원】 차...

에 체류하는 동안 金正日...

美의원2명 平壤行

美國 상원의 프랭크...

北核합의 이행에 긍정화한다

北韓 이례적 방문허용... 美의원의 미소

共和강경론 전달... 北진의 파악 계기될 듯

한의원(한미)의 제...

美의원도 15일개 訪北

프랭크(프랭크)와...

美의 北核이행 노력 평가에 도움

두 상원의원 訪北 2면 영향 미칠까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린턴 對北 외교 일부 인정...정밀 검증 남겨

金正日 권력장악 확인 못해 불확실성 여전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北, 중동에 핵기술 이전

라틴 아메리카 군사장비 등도 이란에 수출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머크스키·사이먼 일방회담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北, 남북대화에 긍정반응

“對北지원은 주변국 긴장완화 도움 특별사찰 수용 빠른수록 北에 유리”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12월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美共和서 앞장... "개방후 거론" 신중론도

북한인권문제가 국제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이 제정된 3대 인권조약인 유엔 인권규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이 제정된 3대 인권조약인 유엔 인권규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北인권 "최악의 중 최악"

金日成 사망 후에도 개선기미 없어 이라크·수단과 함께 3대 탄압국

【연세대학교 인권연구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12월 15일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라크, 수단과 함께 세계 3대 인권탄압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최악의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최악의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개비관 역효과... 은밀추진 바람직"

북한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오히려 북한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인권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核합의議會에서 재검토를

클린턴 행정부, 북에 너무 많은 양보를

【연세대학교 인권연구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12월 15일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라크, 수단과 함께 세계 3대 인권탄압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최악의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지난 14일 카네기 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프레이저, 일본 외무성 인권정책 담당관인 미키 히코, 그리고 한국 외교부 인권정책 담당관인 김현배 등이 참석했다.

프레이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키 히코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현배는 "북한은 유엔 인권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北 전방병력 철수·美軍감축」연계

【워싱턴 17일 김윤기 기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언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 전략 美, 새 구상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로 정책 전환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駐韓美軍 단계적 감축案 무효화

내년 7천명 철수 추진소

美, 주변 안보상황 따라 결정키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北 停戰委員 中 停戰委 철수 완료

中, 停戰委 철수 완료

중국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언했다.

미국이 17일 도쿄에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연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IV. 南北關聯 動向

3. 社說·칼럼

社說

密入北악순환 고리끊어야

이른바 조국통일 범민족청년 학생연합 공동 사무국장인 崔晶南이 남측 대표자격으로 단군릉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방송이 보도했다.

최근 전남 경찰청이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최정남이 바로 전남대에 김일성의 애도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지명한 장본인이다. 일본을 거쳐 입수된 김일성사망 특보 관련자료를 한총련에 전하고 분향소설치를 지령했으며 문제가 생기자 경찰이 위장으로 분향소를 만들어 한총련을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덮어씌우기로 한 일도 그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범청학련의 최정남이 이번엔 또 단군릉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入北을 한 것이다. 대체 지금 와서 「단군릉 준공식」이라는 것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우습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웃지 못할 허구의 공화국인 金日成·金正日王國이 그 정통성을 날조하기 위해 벌이는 해프닝일 뿐인 것이 단군릉 준공소동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일에 동원되기 위해 「남측」을 대표한답시고 멋대로 密入北한 최정남이같은 작자를 우리가 참고 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중계하는 거점으로 그동안 범청학련이란 위장기구가 벌여온 불법행동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잦은 불법행동이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조차 잃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계략의 하나인지

도 모른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번의 최정남의 행동을 가볍고 문문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임수경을 비롯한 술한 불법 입북을 중계하고 조종했는데 그들 불법입북자가 영풍하게도 마침내는 「영웅처럼」 되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모르기는 하지만 최정남의 불법입북도 가벼운 법적 제재의 통과예로 치르고 나면 또하나의 순교적 영웅이 되어 이른바 「진보적」인사로 화려한 「통일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으로 이들 북의 조종을 받는 세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 세력의 교묘한 배후조종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 북이 계속 버리지않고 있는 적화통일론을 비판하면 그것을 냉전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이나, 北核제재론은 保革갈등의 논리로 비난하는 따위가 그런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정남등이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남측 대표라면 그들은 국법을 따라야 한다. 법을 짓밟으며 북행을 예사로 하는 그들을 미화하고 영웅취급하는 일이 거듭되는 한 같은 시도는 반복 될 것이다. 그런 세력을 덮어놓고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환상적인 운정주의도 곤란하거나와 그런 배후조종세력의 준동도 곤란하다. 이런 일에 면역이 생겨서 무신경해지기까지한 우리 체질을 고치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社說

남북한 공동사업 적극 추진을

비록 남북한(南北韓)이 오랜세월 대립해 긴장상태에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서로 교류하고 도와가며 살자는 것이 온겨래의 희망이다. 남북한의 특수상황에서 그런 희망은 비(非)정치적인 분야, 이를테면 인도주의적이거나 스포츠·경제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돼 왔고, 실적도 쌓아왔다.

그런 뜻에서 3일 강영훈(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지역에 확산중인 것으로 알려진 콜레라 퇴치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비롯, 세계적인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페스트에 대한 공동 방역(防疫)을 제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유치(誘致)활동중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민섭(李敏燮)문화체육부장관의 발언 역시 반가운 일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김일성(金日成) 조문 파동으로 남북한의 대화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신뢰와 민족애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 있을 때 정치적인 부담없이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1984년 남한지역의 수재민을 돕겠다고 북한이 제의하고 우리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일이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콜레라같은 질병은 숨길 일이 아니다. 자국(自國)내에서의 확산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널리 알리고, 여러나라와 함께 대처하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적인 의무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남북한이 월드컵을 공동주최하는 방안 역시 공동사업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크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성맞춤이다. 우선 양측의 경기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외에 국제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 민족대립의 나쁜 이미지를 씻을 수 있다. 또 대표팀으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대화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해 공동사업 분야를 넓히는 것이 바로 남북한 화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북한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남북한은 언제쯤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에 마주앉게 될 것인가.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의 콜레라 백신 제공 제의를 보면서 남북한은 숨막히는 대결의 자세를 얼마나 더 이어갈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무르익은 기대가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무산되고 만 다음 남북이 보여 준 태도는 세계의 이목을 대하기도 부끄러운,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뒤늦게나마 남쪽에서 화해의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은 북쪽에서 합당한 답을 보여야 할 차례인 듯 싶다.

콜레라백신을 제공하고 싶다는 강 총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우선 불쾌해 할 수도 있다.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발표나 보도도 없었던 터에 남쪽에서 이를 다 알고 있노라고 과시하는 듯하더니, 또 자비까지 베풀겠다고 나서는 것이 못마땅하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북한이 수해를 입은 남한에 쌀과 시멘트 등을 보내어 도와주었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이 제안은 조문과동 이후 남쪽 정부가 보여주었던 대북 강경정책을 수정하고 나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화해를 위한 제의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콜레라 발생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을 위해서라도 남쪽의 제안을 받아들일기를 권한다.

김일성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는 남쪽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조문과동을 비롯해 전단사건이나 잇따른 체제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발언들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쪽에는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문 문제에 대한 반응만 하더라도 남쪽의 상식으로 보면 지나친 것이었다.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남한을 배제하기에 인간 힘을 다하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수로 문제에서는 실상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이 없음에도 한국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는 것으로 남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민족문제는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북한이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권력 이양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일단 이해하려 한다. 더구나 김정일 당비서가 이달 안으로 국가주석직에 취임하면 이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남북 사이에는 곧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의 제안을 아무 제한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防疫에 南北 있을 수 없다

姜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가 北韓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南北이 공동 대처해나갈 것을 제의한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의 발현일뿐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의를 환영하면서 北韓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중순부터 北韓의 전지역에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부족해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北韓당국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콜레라의 만연을 숨겨야 하는 北韓의 절박한 실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즉각 우리정부에 통보하고 南北이 함께 방역에 나서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도리다.

南北 어느 쪽이든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전염병의 만연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의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南北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 南北은 그 좋은 선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84년 9월 태풍으로 남쪽에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 北韓적십자사는 쌀·시멘트·옷감등을 보내줬다고 제의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北韓이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를 수락하면 「南北공동방역단」이 구성될 것이고 이에 대

비해 대한적십자사는 콜레라치료제인 데트라 사이클린등 항생제 5천명분과 20만가구분의 살균제등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한다.

北韓당국은 이같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인 배려를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인도주의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전염병을 퇴치하고 환자는 살려놓고 불일이다. 그뿐 아니다. 金日成사망이후 南北관계는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제의를 北韓이 받아들이면 南北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대화의 물꼬도 트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對北정책의 기조는 「한민족공동체의 구현」이다. 南北은 오랜 세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해왔기 때문에 동질성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北韓이 核개발을 포기, 韓半島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核문제와 연계하지 않고도 南北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일,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등 국제적인 스포츠무대에서 南北단일팀을 구성하는 일, 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일등이 그것이다. 그런 뜻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南北적십자회담재개를 제의해놓고 있지만 北韓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는 北韓이 정치와 인도적인 사업을 구별할 줄 아는 슬기를 되찾기 바라며 또 그로 인해 경색된 南北관계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 說

金正日の 공식 등장

북한의 권력승계자 김정일이 16일 金日成 사망 1백일 추도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20일 중앙후도대회의 참모인 이후 88일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무성했던 진경안화설이나 내부 권력갈등을 일삼아 왔던 김일성이 가까운 시일내에 권력승계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곧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각각 영의정 金日成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등 권력승계 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金日成생전에 이미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직과 당비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金正日에게 권력승계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 그는 무엇을 했을까.

북한은 권력승계가 늦어지는 것이 단순한 「추모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선 선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金日成 사망 직후의 예정에 없던 1백일 추모행사다. 왜 그것이 갑자기 나오고 金日成에 대한 金正日의 효성이 유달리 강조되었는지 모전히 비밀에 가려있다.

북한이 20년간 부자권력승계를

위한 준비를 해 왔지만 金正日체제의 출범에는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아 권력지좌업의 시간의 필요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金日成은 「어머 수령」으로 불려오면서 「민중의 태양」 집세의 영인 「이로 칭송돼온 신성한 존재였다. 그에 비해 카리스마가 없던 金正日이다. 그가 너무나 막중한 영향력이 큰 「자리를 메우기」 데는 신적인 존재였던 金日成의 대한 효성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기간을 金日成체제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한 권력지좌업 시간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강한 지도력을 과시하면서 金正日체제가 출범한다 해도 그의 자질이나 북한내 경제사정으로부터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근래에 와서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비료와 의약품마저 부족한 데다 의회부족의 흉작까지 겹치는 단제가 중첩돼 내부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金正日의 의외로 과감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들고 나와 이를 극복하려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해방을 위한 北美회담도 거의 마무리되어 발표단계에 있다.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남북정상회담을 남북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

지난 15일 정부가 「북한의 새 체제가 하루빨리 안정 속에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대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는 북로선 金日成체제를 상대로 수립된 남북정상회담의 전면적인 수렴이 불가피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해결이라는 대원칙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北韓의 對南 옥지거리

불망나니, 얼뜨기, 인간 쓰레기, 정치 백치, 악마... 일반 시정(市井)에서도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暴言)들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공식 매체(媒體)가 이런 종류의 폭언들을 퍼부어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매체가 있다. 바로 북한(北韓)의 신문과 방송 등 대중 선동매체들이다. 이들 매체는 김일성(金日成)사망을 계기로 최근 주로 남쪽의 최고지도자를 겨냥해 욕설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런 욕설도 부족하지 「뽀관없이 짚랑거리며 쾅쾅거리다」는 투의 극한적인 표현까지 동원, 강도(強度)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북한 보도기관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말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다그치기 위한 대내(對內)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남한(南韓)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을 겪어 가며 그들

과 조금이라도 접촉의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로서 이런 그들의 태도에서 대화의 상대로서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부터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 그들을 성실한 상대로 믿고 대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남북한(南北韓)대화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은 항상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화해 제스처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나서는 약속을 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의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하려다 안되겠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곤 했던 것이다.

최근 부쩍 늘고있는 우리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비방과 중상(中傷)만 해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20년 넘게 남북한 대화가 있을 때마다 신뢰회복과 화해를 위해 그만두자고 약속했던 것들이다. 앞으로 다시 대화분위기로 돌아설 때는 그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대화재개 때 그동안의 비방에 대한 사과요구 같은 것도 그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金正日 등장 이후

지난 7월 20일 金日成후도대회 이후 자취를 감췄던 金正日이 88일만에 공식 석상인 김일성사당 1백일추모회에 나타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간첩출현은 무엇보다 그가 견제하고 권력기반이 확고하며 또 권력승계는 시가후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머지않아 김정은의 새체제의 출범과 곧 있을 北美간 核협상 타결로 급변할 한반도 정세에 즈음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권력양양은 창으로 기이하다.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지 1백일이 지나기까지 후계체제를 확립하지 않은 것은 사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기와 노동당규약과 북한 헌법(憲法) 條條에서 국가주석에 대한 신봉(崇拜)만 규정됐을 뿐 사망이나 사퇴(死退)有故 때 누가 일정한 기간 자리를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

다. 金父자의 권력世襲과 장기독재로 당연한 계승질서를 없앴것이다.

김정은이 모음을 갖추고 있는 동안 그에 대해 重病說을 비롯 吳振宇인민부령부장에 의한 軟禁說, 내부의 권력투쟁說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번 추모회참석은 이같은 說들을 일거에 불식한 것이다.

사실 金平一의 外紙회견처럼 김정은은 지난 20여년간 후계체제를 확고히 다져왔고 특히 김일성(金日成)을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누구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면에서 김정은은 지난 88일동안 원만한 권력장악을 위해 주민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할 유일한 인물이라는 선전 활동을 열심히 벌여왔다. 黨기관지 노동신문과 방송매체 모든 媒體들이 김정은을 「탁월한 영도자」 「黨

과 국가 혁명당의 최고지도자」 「전체 인민의 태안」이라고 떠받들고 「김일위해 全黨·全軍·全民이 일심단결하자」 「김일성의 뜻과 선을 충성스럽게 실천하라」 「자고 한 신념(信念)을 김정은의 위상을 지키고 내부결속을 위한 정적(正氣)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권력인 黨·軍·政 중 김정은은 지난 4월 구반위원장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黨·軍·政의 국가주석직의 승계만 남아 있다. 순서는 먼저 黨중앙위에서 선출하는 총서기부턴다. 이번 1백일추모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내외에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곧 타결될 北美협상의 직후에 被選 권력장악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며 아니면 내달 또는 12월 年例 黨전원회의로 미룰 수도 있다.

어찌됐든 김정은의 黨·軍·政 국가주석직 취임은 새로운 북한체제의 시작이 된다. 김일성(金日成)과 달리 美日등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경제난과 국민불만 등 위기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對外開放정책을 펴며 전략적인 면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武力과시를 통한 군사적 위협과 함께 경제협력을 모색할 여지가 크다.

이차피 核타결로 한반도 對 주변강대국 및 남북관계의 氣流는 急變할 것이 분명하다.

北역류 포로 송환 노력을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 갔다가 43년만에 탈출, 귀환한 육군소위 조창호(趙昌浩)씨가 들려주는 피눈물 어린 증언 가운데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 들어 있다.

국방부 전사(戰史)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 또는 포로가 된 국군의 숫자를 8만 2천 3백 1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군에선 국군포로를 8만 8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반해 53년 정전후 포로교환에서 돌아온 국군은 7천 1백 42명 뿐이다. 전사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전쟁이 끝난후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 숫자를 8만명으로 잡고 그중 5만명이 살아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가 우선 느끼는 것은 뼈아픈 자괴심(自愧心)이다. 그동안 슬한 남북회담이 열렸지만 우리는 한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다. 우리의 고질적(痼疾的)병폐인 역사에

대한 건망증(健忘症)과 인권(人權)에 대한 무감각이 여기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우리와 같이 싸운 미국이 북한 땅에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의 유해(遺骸)를 돌려받기 위해 지금도 북한당국과 협상을 벌이는 것과는 큰 대조가 아닐수 없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반(反)인간적 행위다. 북한은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을 무시한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말살 행위를 중단하고 그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민족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생존여부 조사와 이들의 정당한 대우 및 송환(送還)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附 錄

남북관계 주요일지

남북관계 주요일지('94. 10. 1~12. 17)

10월

10. 3. 강영훈 한적총재, 북한지역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성명
10. 3. 한승주 외무부장관, 제49차 UN총회 연설
10. 3.~4. 미·북 실무자회의(제네바)
10. 5.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 속개(제네바)
10. 6.~7. 제2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워싱턴)
10. 6.~8.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
10. 11.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 조찬 간담회
-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원칙 확인
10. 11. 북한, 단군릉 개건 준공식
10. 10.~15.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
10. 18. 제16차 통일관계장관회의
10. 18. 클린턴 대통령, 미·북합의 전면수용 발표
10. 20. IAEA 사무총장, 미·북 합의 미흡 평가
10. 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발표(제네바)
- 특별사찰 등 과거핵 의혹 해소, 핵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사용후 연료봉 처리, 북한의 NPT 지위문제 해결, 대체에너지 제공, 남북대화, 경수로 지원, 미·북 관계개선
10. 21. 한·미 국방장관, '94 T/S훈련 중단 합의
10. 25. 북한적십자 이성호 위원장 대리,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 요구 편지
10. 31. 김대통령·이봉 중국 총리 회담(서울)
-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합의

11월

11. 3. 미·북 실무접촉(뉴욕)
11. 4. UN안보리, 미·북 합의 지지 '의장성명' 채택
11. 5. 외무부 대변인, UN안보리 의장성명 환영 논평
- 안보리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

- 11.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전문가회의 개최 일정 발표
 - 폐연료봉 저장 관련 전문가 협상(평양), 11.12~19
 - 경수로 제공 관련 전문가 협상(북경), 11. 30
 -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협상(워싱턴), 12. 6.~10
- 11. 8. 통일관계장관회의, 대북 경협안 심의·의결
- 11. 9.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기업인 방북,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 추진
- 11. 9. 한국기자협회, 남북기자 교류 제의
- 11. 10.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경협안 거부
- 11. 11. IAEA 특별이사회 개막(빈)
- 11. 11. IAEA 특별이사회, 「의장요약 : 북핵동결 이행 감시 착수 결정」 채택
- 11. 12. 외무부 대변인 논평, IAEA의 북핵활동 감시조치 채택 환영
- 11. 14. 한·미·일 3국 정상회담(자카르타)
- 11. 14.~18. 북 폐연료봉 처리 전문가회의(평양)
- 11. 15. 미 핵전문가 영변 방문
- 11. 17. 한·미, 경수로 지원 관련 실무협의
- 11. 18. 한·미·일, KEDO 구성 운영문제 관련 실무협의
- 11. 23. 북·IAEA, 핵동결 감시방안 논의(평양)
- 11. 24.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경협 후속조치 발표
- 11. 28. IAEA, 북핵동결 확인 발표
- 11. 29. IAEA 협상대표단, 북한 방문 마치고 평양 출발
- 11. 30. 정부,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1. 30. 미·북, 경수로 전문가회의 개시(북경)

12월

12. 2. 미·북, 경수로 전문가회의 종료
12. 6.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의 개시(워싱턴)
12. 6. 외무부, 미상원 의원 2명 남북한 연쇄방문(12.11~13.) 발표
12.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12. 8.~9.. IAEA이사회 개최(빈)
12. 10. 정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국내 6개 기업 방북 승인
※ 럭키금성, 삼성, 현대, 쌍룡, 영진무역, 대동화학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 2개사
12. 9.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의 종료
12. 11. 미 머코스키·사이먼 상원의원 평양 도착
12. 13. 쌍용그룹 경협조사단 평양 도착
12. 15. 「군정위」 중국군대표단, 판문점 완전 철수
12. 15. UN총회, 핵안전협정이행 및 IAEA사찰 수용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2. 15.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서울)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 합의
12. 15.~16. 한·미·일, KEDO 설립 관련 고위실무협의(워싱턴)
12. 17. 미국방부 대변인, 미군 헬기 북한지역 비상착륙 발표
12. 17. 미 빌 리차드슨 하원의원, 평양 도착

'94 4/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4년 12월 24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산 3-25

(02)734-4323, 735-8766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
